

영리

1978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 제(第)26기(期) 사관생도(士官生徒) 졸업(卒業) 및 임관식(任官式)



권두언(卷頭言)	김원기(金元起)	(2)
아시아 군사정세(軍事情勢)와 한국(韓國)의 안보(安保)	안병준(安秉俊)	(4)

특집(特輯)

약진(躍進)하는 한국(韓國)과 우리의

오늘의 우리 경제(經濟)와 80년대(年代)의 전망(展望)	정창영(鄭暢泳)	(15)
자위정신(自衛精神)과 안보대책(安保對策) .	문도빈(文道彬)	(24)
충효사상(忠孝思想)의 본질(本質)과 현대적(現代)의 정립(定立)	금장태(琴章泰)	(30)
국민적(國民的) 단합(團合)과 총화분제(總和體制)의 강화(強化)	이용필(李容弼)	(36)

최근(最近) 북괴(北傀) 정치(政治) 외교(外交) 동향(動向) .	김태서(金泰瑞)	(43)
청년장교(靑年將校)의 생활윤리(生活倫理)	조정기(曹正基)	(62)
무역(貿易) 자유화(自由化)와 산업정책(產業政策)의 방향(方向) .	편집실	(67)

한국정사(韓國正史)DHK DNFLDML RMDWL

항공(航空) 군사(軍事) 과학(科學)

소련의 민방위(民防衛)	김두만(金斗萬) 역(譯)	(77)
신념(信念)의 승리(勝利)	손철영(孫喆榮) 역(譯)	(87)
방공(防空) - 무엇이 문제(問題)인	양신석(梁宸錫) <역(譯)>	(96)
공중전투(空中戰鬪)의 세계적(世界的) 변(變) .	박종권(朴鍾權) <역(譯)>	(103)

공군만상(空軍漫像)

.	정운섭(鄭雲燮)	(15)
● 울곡(栗谷)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1)	편집실	(109)
● 황금(黃金)의 나무	강용구(姜容求)	(117)

기행문(紀行文)

● 사박오일(四泊五日)	김현수(金顯洙)	(120)
-고적(古蹟) 및 산업시설(産業施設) 견학(見學)을 다녀와서-		

일요일(日曜日)

단편소설	이효석 지음	(127)
----------------	--------	-------



「팀·스피리트 78」을 참관(參觀)하고 있는 한(韓)·미(美) 공군(空軍) 수뇌(首腦)<3. 15>



공군

제 162 호

1978년 제 1 호



군인(軍人)의 길

나는 영광(榮光)스런 대한민국(大韓民國) 군인(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忠誠)에 있다.
 조국(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勝利)에 있다.
 불굴(不屈)의 투지(鬪志)와 전기(戰技)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통일(統一)에 있다.
 기필(期必)코 공산적(共產敵)을 쳐 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군율(軍律)에 있다.
 엄숙히 예절(禮節)과 책임(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단결(團結)에 있다.
 지휘관(指揮官)을 핵심(核心)으로 생사(生死)를 같이 한다.

후진양성(後進養成)

정훈감(政訓監) 공군대령(空軍大령)
김원기(金元起)

하병역제(兵役制)에 의(依)해서 복무(服務)하는 병사(兵士)인 경우

“나는 군대생활(軍隊生活)을 참 편안(便安)하게 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군(軍)에서 무슨 일을 담당(擔當)했길래 그랬을까 하는 의문(疑問)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상당수(相當數)의 부모(父母)들은 참 다행(多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普通)이다.

사실(事實) 편안(便安)하게 보냈다는 얘기는 일반적(一般的)인 표현(表現)으로 그 정도(程度)에 따라 큰 차이(差異)가 있기는 하나, 앞으로는 참 뜻있게 군생활(軍生活)을 했다 하는 것으로 공통(共通)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믿음직스럽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구체적(具體的) 임무(任務)를 주지 않았던지 또는 이런 사람들은 군(軍)이 뜻하는 바대로 양성(養成)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군내(軍內)에서 필요(必要)있는 인재(人材)가 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인력(技術人力)이 부족(不足)한 때 인재(人材)를 편안(便安)하게 둘 수 있을리 만무(萬無)하고 인재(人材)라면 크게 활용(活用)되고 또한 바쁜 시간(時間)을 가졌어야 할 것이다.

근래(近來) 어느 기지(基地)를 가 보아도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군(軍)은 유병(遊兵)이 없어야 한다는 병서(兵書)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군(軍)의 현대화(現代化)라는 중대(重大)한 과제(課題) 앞에 부하(負荷)된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하기 위(爲)해서이다. 급속(急速)히 발전(發展)하는 현대무기(現代武器)의 습득(習得)과 기술양성(技術養成)에 전력(全力)을 투구(投球)하더라도 어려운 실정(實情)에 놓여 있어 과중(過重)한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적(全國民的) 견지(見地)에서도 고도(高度)의 경제성장(經濟成長)과 높은 생산성(生產性) 향상(向上)을 위(爲)하여 질사(戔)이 없이 매진(邁進)하고 있는 현실(現實)에서 당연(當然)히 군(軍)에서도 하여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일을 수행(遂行)함에서 흔히 인력(人力)은 많으나 인재(人材)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우리 기술군(技術軍)의 경우(境遇)에는 더욱 더 실감(實感)나는 얘기가 할 수 있다. 우리의 무기(武器)와 항공기(航空機)는 지금 가속도적(加速度的)으로 발전(發展)해 가고 있다. 이를 운영(運營)하고 정비(整備)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에 상응(相應)한 기술인력(技術人力)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勿論)이다.

이러한 때 군생활(軍生活)을 인생(人生)의 공백기간(空白期間)으로 생각하는, 즉 편안(便安)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자가 많을수록 군(軍)의 존재의의(存在意義)를 감소(減少)시키게 된다.

그날 그날 하도 바빠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恒常) 필요(必要)있는 인재(人材)만을 골라 쓰기를 상례(常例)로 하고 일을 시킨다면 그야말로 필요(必要)가 적은 사람은 점점(漸漸) 편안(便安)해지고 업무(業務)에 무관심(無關心)하게 되게 마련이다. 인재(人材)는 양성(養成)해서 써야 하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인재양성(人材養成)의 의지(意志)가 부족(不足)한데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이제 인재(人材)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선도적(善導的)으로 기초적(基礎的) 기술 습득(技術習得)을 지도(指導)한다면 현실적(現實的) 애로(隘路)는 많겠으나 총체감(總體感)을 갖는데에도 큰 의의(意義)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제대후(除隊後)에도 근면(勤勉)한 습성(習性)을 가진 인재(人材)를 사회(社會)에 배출(輩出)하는 결과(結果)가 된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誤謬)는 당장에 필요(必要)한 사람, 당장에 완결(完結)되어야 하는 일, 당장 실민(實敏)을 올리는 자세(姿勢)에 있다. 그러나 이제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念頭)에 두었을 때 당장에 얻어진 성과(成果)보다 더욱 심도(深度)있는 발전(發展)이 이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서기(西紀) 2000년대(年代)를 향(向)해 위대(偉大)한 영도자(領導者) 밑에 세계(世界) 최고수준(最高水準)에 설 확신(確信)된 미래(未來)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뜻에서 더욱 후진양성(後進養成)에 온 노력(努力)을 경주(傾注)해야 한다.

아시아 군사정세(軍事情勢)와 한국(韓國)의 안보(安保)

〈정박(政博) · 연세대학교수(延世大教授)〉
안병준(安秉俊)

한국(韓國)의 안보(安保)는 사강간(四強間)의 군사적(軍事的) 균형과, 우리의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인 안정과 번영에 대한 북괴(北傀)의 인식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1. 머리말

아시아에 있어서 열강간(烈強間)의 군사관계(軍事關係)는 현재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군사정세(軍事情勢)는 한국(韓國)의 안보(安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美國)은 동아시아(東亞)로부터 그 지상군(地上軍)을 철수하고 있고, 이와 반면(反面)에 소련은 그 해군력(海軍力)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다. 이에 대응(對應)하여 한국과 일본(日本)은 자체의 안보(安保)에 대(對)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변화가 동아시아(東亞)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 결과 새로 형성되고 있는 세력 균형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또 그것은 이전(以前)의 군사상황(軍事狀況)과 어떻게 다른가? 현재 이룩되고 있는 군사상(軍事上) 변화(變化)가 한국안보(韓國安保)에 어떻게 작용(作用)할 것인가? 본문(本文)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아시아에 있어서 군사균형을 연대별(年代別)로 고찰(考察)할 때 1950년(年) 및 60년대(年代)와 1970년대간(年代間)에는 큰 변화(變化)가 있었음을 곧 알 수 있다. 첫째로 1950년대(年代)에 있어서는 미국(美國)이 아시아의 최대강국(最大強國)으로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였고 그 결과 소련과 중공(中共)에 대치하여 양극화(兩極化)된 군사대립상(軍事對立相)을 출현(出現)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年代)에 들어와서 미군(美軍)이 점차 동아시아(東亞)로부터 철수하

고 중공(中共)과 소련은 서로 분쟁하며, 일본(日本)은 완만하나마 군비를 점차 증가하여 하나의 사강체제(四強體制)를 형성하고 사강(四強)간에 일종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균형은 공통적인 정치적 이념(理念)이나 문화적(文化的) 유산(遺産)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각(各) 강국(強國)이 상충되는 군사정책을 추구한 결과 어느 강국(強國)도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그 구조상으로는 안정성을 보이지만 그 내면적(內面的) 성격(性格)은 매우 동적(動的)인 것이다. 셋째, 이상(以上)과 같은 군사상황(軍事狀況)에 처해있는 한국(韓國)의 안보(安保)는 결국 사강간(四強間)의 균형에 크게 의존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한국(韓國)과 북괴와의 관계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동향(動向)이 출현(出現)되기까지는 많은 역사적(歷史的)인 변화(變化)가 수반하였다.

2. 양극화(兩極化)로부터 사각관계(四角關係)로의 변화(變化)

세계(世界) 제(第)2차대전후(次大戰後) 시작된 냉전기(冷戰期)에 있어서 아시아군사정세(軍事情勢)는 양극화(兩極化) 되었으나, 냉전(冷戰)이 종식되고 「데탕트」시기(時期)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다극화(多極化), 구체적(具體的)으로 사각화(四角化)하기 시작하였다. 종전후(終戰後) 전세계(全世界)는 자유(自由)진영 대(對) 공산(共產)진영으로 양분되고 미국(美國)은 대공투쟁(對共鬭爭)에서 세계(世界)의 경찰로 등장하였다. 아시아에 있어서도 미군(美軍)은 한국(韓國)의 북위 38도선에서 소련군의 진군을 정지시켰고, 중공(中共)이 1949년(年)에 중국본토(中國本土)에서 집권하자 미국내(美國內)에서는 중국(中國)의 상실을 개탄하며, 공화당 지도자들, 특히 닉슨과 맥카티상원의원들은 민주당의 용공정책(容共政策)을 신랄히 비판함으로써 그 명성을 떨쳤다. 이로써 동아시아(東亞)에 있어서 냉전은 미국내(美國內) 정치(政治)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시아대륙(大陸)에서 일어난 정치(政治) 및 군사(軍事) 변화(變化)가 양극화(兩極化) 현상을 더욱 촉진한 바 있다. 중공(中共)은 1950년(年)에 소련과 군사 우호 조약을 맺음으로써 일원적(一元的)인 중(中)·소공산주의 영상을 세계에 투사시켰다. 이와 동시(同時)에 인도차이나에서는 월맹군이 프랑스 당국에 대(對)하여 항쟁을 벌였고 북괴는 그 해 예고없이 6.25동란(動亂)을 개시하였다.

아시아대륙(大陸)에서 일어난 이러한 도전은 미국(美國)의 군사정책(軍事政策)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오랜 대전후(大戰後) 피로한 나머지 군비를 급속히 축소하던 차 이러한 공산도전을 직면하자 미국(美國)은 급격히 미군(美軍)을 한국에 주둔시켰고, 심지어 중공군(中共軍)과도 싸웠으며, 프랑스를 군사적으로 원조하며 대만해협에 7함대를 파견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뮌히히」(Munich)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미국(美國)은 군비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산주의를 봉쇄하려는 외교노선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미국(美

國)이 아시아에 있어서 유일(唯一)한 패권국으로 종전(從前)의 일본(日本)의 위치를 차지한 이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특히 아이젠하워 행정부(行政府)는 아시아대륙으로부터 공산침략을 막기 위하여 중공(中共) 주변에 동맹체제를 구축하였다. 딜레스의 “집중적 보복”과 “전진기지정책”에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이른바 「21/2전략」을 추구하였다. 즉(卽), 유럽(구주(歐洲))과 아주(亞洲)에 큰 전쟁 둘과 기타(其他) 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쟁 하나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갖추는 전략이었다.

이 원칙하(下)에 중공(中共)을 대비하여 미(美)·일안보(日安保) 조약을 체결하여 이전(以前)의 속적을 동맹국으로 바꿨고 한국(韓國)과도 1954년(年)에 방위조약을 체결했고, 대만과도 비슷한 조약을 맺었으며, 월남공산주의에 대비해서 SEATO도 결성하였다. 이러한 군사정책은 드디어 미국(美國)을 월남전에 깊이 개입(介入)시켰고, 1967~68년(年)에는 약 50만(萬)의 미군(美軍)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양극화(兩極化)된 아시아는 1960년대(年代) 후반에 와서 큰 변화(變化)가 생겼다. 중공(中共)과 소련은 같은 이념(理念)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상이한 국가 이익을 위하여 서로 투쟁하였다. 월남에서는 미군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월남 정부는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 사실이 점차로 미국내(美國內)에 알려지자 미국정치(美國政治)에 있어서 큰 격동을 초래하였다. 이 결과 미국(美國) 외교정책상(外交政策上) 반공(反共)에 입각한 「컨센서스」(Consensus)가 파괴되고 새로운 정책(政策)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以上)에서 언급한 대외(對外) 정세변화와 대내(對內)정치파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닉슨 행정부(行政府)는 냉전을 종결시키고 공산강국(共產強國)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테파트」정책(政策)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미군(美軍)은 아시아에서 철수되고 양극체제(兩極體制)에서 사각체제(四角體制)로 아시아 세력균형은 전환되었다. 이것은 미국(美國)이 더 이상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인하였다. 따라서, 아시아에 있어서 공산(共產)세력도 일원화(一元化)된 것이 아니라 이원화(二元化)되었고, 중공(中共)과 소련이 냉전(冷戰)을 넘어서 1969년에는 국경분쟁에 열전까지 야기시켰다. 한편 미국내(美國內) 여론은 월남에 더 이상 미군과 군사지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였다.

이에 대응(對應)하여 닉슨은 미국(美國), 소련, 중공(中共), 유럽(구주(歐洲)), 일본(日本) 등 5대세력간(五大勢力間)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키신저로 하여금 중공(中共)과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게끔 지시하였다. 이것이 월남전을 종결하는 첩경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1972년(年) 닉슨은 중공(中共)과 소련을 각각 방문하고 「테파트」체제를 몸소 수립하기에 힘썼다. 이와 동시(同時)에 그는 소위 「닉슨독트린」을 천명하여 월남에서 미군(美軍)을 철수하고 월남 공화국군의 강화를 내세웠다. 1971년(年)에는 한국에서 제7사단을 철수했고 그 후 월남에서 미군(美軍)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켰다. 이에 SEATO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되었고, 1973년에 드디어 월남전을 종결시켰다. 월남 휴전협정 이후 2년도 채 되기 전에 월남은

함락되고, 미국 대사관 직원은 헬리콥터로 급히 피난해야만 할 지경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쓰라린 월남전을 체험하고 그 교훈을 깊이 명심한 미국민(美國民)의 여론을 중시한 카터 후보는 1976년(年)의 선거전에서 한국에서 미군(美軍)을 철수하겠노라 공약(公約)하였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는 4~5년내(年內)에 한국(韓國)으로부터 미(美) 제2사단을 완전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미국(美國)이 아시아로부터 격리함과 동시(同時)에 일본(日本)은 중공(中共)과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기타(其他) 동남아제국들도 일본을 따랐다. 한편 소련은 동아(東亞)에서 그 해군력(海軍力)을 급속히 증강함으로써 미국(美國)이 남긴 세력공백을 메꾸려 노력하고 있다. 이제 아주(亞洲)에서는 어느 일국(一國)이 패권을 누릴 수 없게된 사강(四強)균형이 대체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에 불안(不安)을 느끼고 있는것은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이다. 그것은 급변해가는 군사정세에 신속히 또 적합하게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각관계(四角關係)와 그 균형도 현재 수립과정에 있으며, 그 양상과 성격도 뚜렷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사강(四強)의 군사정책과 능력에 따라 그 관계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성격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3. 사강(四強)의 군사정책(軍事政策)과 균형의 성격

사강(四強)의 각자(各自)는 그 국가이익(國家利益)과 국력(國力)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 상이한 군사정책과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강(四強)균형의 성격도 매우 복잡한 것이다. 군사 및 정치적 경쟁에 있어서 구조적으로는 다소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세력균형은 매우 동적(動的)인 변화(變化)를 내포하고 있음을 본다. 이것을 각국별로 개관하면 이해할 수 있다.

미국(美國)은 유럽(구주(歐洲))에서 당면한 소련의 군사적 도전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시아에서 격리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월남전(戰) 이후 「1 1/2전략」을 추구하여 먼저 유럽(구주(歐洲))에서 하나의 큰 전쟁과 중동(中東)에서의 소규모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군비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대륙(東亞大陸)에서는 지상군(地上軍)을 철수하고 해안에 있는 함대와 공군력(空軍力)으로 지원하며, 지상군(地上軍)에 있어서는 도착군에 의한 균형을 희망한다. 서태평양(西太平洋)지역에는 오로지 9개 전폭기 대대, 2개 해병(海兵) 여단, 2척의 항공모함 등 뿐이다. 브라운국방장관(國防長官)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장래에는 공군은 강화될 것이며, 해군(海軍)도 핵함모 1척을 첨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련과 핵무기에서 평등(平等)상태에 있고 소련의 재래식 군비가 구주(歐洲)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 미국(美國)은 구주(歐洲)방위에 정책(政策)의 우선권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현재 GNP의 6% 정도를 군비에 사용하고 있는 미국(美國)은 태평양세력(太平洋勢力)으로는 잔존하며 한국(韓國) 등지(等地)에 대(對)

한 조약상의 공약(公約)을 준수할 것을 누차 재천명하고, 동아(東亞)에서 어느 패권의 독점을 계속 방지하려 노력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日本)의 방위를 군사정책의 주축으로 보고 동아(東亞)에서 핵우산은 계속할 것이나,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일본(日本)과 한국(韓國)으로 하여금 자립(自立)국방(國防)을 성취할 것을 바라고 있다.

소련은 미국(美國)이 남긴 세력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극동함대를 증강하여 중공(中共)을 봉쇄하고 일본(日本)에 위협을 가(加)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집단안보”를 주장하지만 중공(中共)변경에 약 45개 사단을 집중시켰고 서태평양(西太平洋)에 숫자적으로 미국(美國)의 배 이상의 잠수함과 구축함을 배치하고 머지 않아 기에프급(級)의 항모(航母)인 민스크호(號)를 첨가할 예정이다. GNP의 12% 이상(以上)을 군비에 배정하고 있는 소련은 동아(東亞)에서의 현상유지를 반대하고 중공(中共)과 일본(日本)의 자원국과의 해상통로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소련은 중공(中共)과 일본(日本)의 가상적인 적(敵)으로 등장하여 사강(四強)균형에 대(對)한 잠재적인 도전자이다. 더우기 북괴와 월남을 지원하여 국지(局地)분쟁을 악화할 수 있는 능력(能力)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공(中共)은 소련의 군비에 대(對)하여 방위태세를 갖추어 미국(美國)과 일본(日本)과 제휴하여 하나의 통일(統一)전선을 추구한다. 군사적으로 소련과 대적할 수 없으므로 군비산업의 근대화(近代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구주(歐洲)), 미국(美國), 일본(日本)으로부터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심지어 프랜트까지 수입하고 있다. 무력(武力)에 있어서는 비록 낙후하지만, 그 방대한 영토와 위치로 인(因)하여 중공(中共)은 동아(東亞)에서 큰 세력을 투사하고 있다. 핵무기는 미국과 소련과는 경쟁이 안 되지만 1960년 이후 MRBM과 IRBM을 배치하고 있고 ICBM도 생산중이므로 어느 정도 신빙성있는 억지력(Deterrence)을 갖고 있다. 중공(中共)은 또 1975년에 영국(英國)으로부터 Roll-Royce Spey 엔진을 구입하여 공군력(空軍力)도 향상하고 있다. 소련과 경쟁하기 위하여 북괴와 월남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실(其實) 중공(中共)은 미군(美軍)의 철수를 원치 않으며 심지어 일본(日本)자위대의 증강계획도 반대하지 않는다. 요컨대 중공(中共)도 세력균형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日本)은 세력균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유일한 강국(強國)이다. 이는 그 헌법상 제약(制約)과 2차대전중(次大戰中) 핵폭탄을 경험한 국가로서 순전히 방위적 태세를 국책(國策)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상(表面上)으로는 중공(中共)과 소련에 대(對)하여 “등거리정책(等距離政策)” 혹은 “정경분리정책(政經分離政策)”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는 중공(中共)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금년내(今年內)로는 평화조약도 체결할 것이며, 무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소련과는 북방도서점령과, 역사적(歷史的) 경험으로 인(因)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또 한국(韓國)을 정치경제적으로 옹호하며, 미국(美國)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미국(美國)-중공(中共)-일본(日本)은 소련에 대(對)하여 하나의 연합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日本)은 미국(美國)이 한국(韓國)으로부터 철수하고 소련함대가 서태평양

(西太平洋)을 위협하는 상황에 임하여 자기 군비를 증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재인식하고 있다. 특히 산유국(產油國)과 해상통로를 방위하기 위하여 현재 헬리콥터 항모(航母)도 계획하고 대잠수함용(用) F-15전투기도 구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확충은 법률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민당(自民黨) 지도층은 GNP의 1% 이상으로 군비를 보완하여 나아가서 미(美)·일(日)안보조약도 재개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핵우산을 제외하면 일본(日本)은 재래식 무기, 특(特)이 해(海)·공군(空軍)에 있어서는 연안과 서태평양(西太平洋) 및 인도양(印度洋)까지 일본(日本) 상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건출 할 것이다. 더우기 세계(世界) 제(第)3경제강국으로서 수백억불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日本)은 미국(美國)과 군비확충에 있어서 비용을 점차로 분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하(以下) 표(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東亞)에 있어서 군사(軍事)정세는 물량적(物量的)인 면에서는 그 차이가 있지만 그 질적(質的), 정치적(政治的)인 면(面)에서 하나의 균형을 형성하고 있다. 이상(以上)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균형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다. 각(各)강국(強國)이 타강(他強)가는 정세에 적응해가며, 政策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양극화(兩

<표(表) 1> 극동(極東)의 군사력(軍事力)

구 분	극동(極東) 미군(美軍)				한국(韓國)	대만(臺灣)	일본(日本)	극동 소련(極東蘇聯)	중공(中共)	북괴(北傀)
	일(日)	한(韓)	비(比)	제(第)7함대(艦隊)						
육군(陸軍)	보병(步兵)	1			18	18	12	30 이상(以上)	보(步) 121기(騎) 310 장갑(裝甲) 4공정(空挺)	22(보병(步兵))
	기계(機械)									2(기갑(機甲))
	사단수(師團數) (병력수(兵力數))	0.4만(萬)	13.2만(萬)		18(52만(萬))	20(33만(萬))	13 15.5만(萬)	30만이상(萬以上)	138 300만(萬)	24 (43만(萬))
해군(海軍)	항모(航母)			2						
	순양함(巡洋艦) (미사일)			4				10 (5)		
	구축함(驅逐艦) (호위함(護衛艦))			20	10 (3)	31 (13)	44 (14)	80 (50)	31 (23)	2 (2)
	잠수함(潛水艦) (원잠(原潛))			5		5	15	125 (50)	64	13
	기타(其他)			9	80	102	68	300	910	351
	계(計)			40	90	138	127	515	1,005	366
포함정(補助艦艇)	포함정척수(浦助艦艇隻數) 총보유(總保有) 수(數) 해병대병력수(海兵隊兵力數)	2.0만(萬)	0.1만(萬)	15 60만(萬) 0.28만(萬)	19 8.2만(萬) 2만(萬)	35 18만(萬) 2.9만(萬)	20 16.7만(萬) 만(萬)	240 125만(萬) 0.4만(萬)	433 41만(萬) 3.8만(萬)	10 5.3만(萬)

공군(空軍)	폭격기(爆撃機)								500	566 이상(以上)	70
	전투기(戦闘機)	150	60	50	130	192	250	457	1,380	4,275 이상(以上)	530
	기타(其他)	50		10	20	12	17	14	140	100	
	계(計)	200	60	60	150	204	267	471	2,030	4,940	600

출처 : 중앙일보(中央日報) 1978년 2월 13일

極化)는 사라지고 패권국이 없는 사강체제(四強體制)가 출현(出現)하고 있다. 따라서 사강간(四強間)에 구조적으로는 다소 안정된 균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강상호간(四強相互間)에 전쟁가능성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강(四強)균형과 실제양상은 매우 유동적이다. 이것은 각국(各國)이 상이한 이익과 능력을 갖고 상이한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강(四強)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국지적(局地的) 불안요소가 아직도 존속하니 그것이 남북한(南北韓) 대결, 대만 문제, 월남과 인도지나 분쟁 등이다. 이 중(中) 한국(韓國)문제가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미군(美軍)철수와 북괴 지도자들의 예측불가능한 정책행동(政策行動)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비록 사강(四強)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순수한 지역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사강개입(四強介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韓國) 안보(安保)가 동아(東亞)에 있어서의 사강체제(四強體制)와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것도 이러한 지정학적(地政學的) 이유(理由) 때문인 것이다.

4. 아시아 군사정세(軍事情勢)와 한국안보(韓國安保)

동아(東亞)의 군사정세(軍事情勢)는 급격히 변하고 있고 이 변화(變化)는 한국(韓國)의 안보(安保)를 위협하고 있다. 만약 이 위협이 한국안보(韓國安保)를 파괴 한다면 이는 역(逆)으로 사강(四強)균형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동아(東亞)의 안보(安保)와 한국(韓國)의 안보(安保)는 직결되어 있다. 미군(美軍)철수와 소련함대 증강이 비록 균형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보완조치와 계획중인 군사정책이 실행되면 기본적으로 군사적(軍事的)인 균형은 파괴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이것은 상술(上訴)한 바와 같이 사강자신(四強自身)들이 상호간에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전쟁이 가능하다면 1950년 한국전(韓國戰)과 1960년대(年代)의 월남전쟁처럼 국지전쟁에 열강(烈強)들이 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美國)은 또 하나의 아시아 대륙전(大陸戰)에 말려 들지 않기 위하여 미군(美軍)을 대륙(大陸)으로부터 철수하고 있지만, 그 공약(公約)은 엄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미군(美軍)의 재개입(再介入) 가능성(可能性)은 항상 있는 것이다. 한국(韓國)의 안보(安保)가 현재의 아시아정세(情勢)에 있어서 여하(如何)히 좌우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 강조할 점은 「안보(安保)」란 상대적 개념이며, 인식(Perception)의 문제란 것이다. 즉(卽), 한국(韓國)의 안보(安保)는 타국(他國)과 상대적(相對的)으로 결정되며, 구체적으로 그 주위환경과 적국의 정책에 의존한다. 동아(東亞)에 있어서의 사강(四強)균형은 한국안보(韓國安保)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그 동적(動的)양상은 위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特)히 중공(中共)과 소련은 현상 유지에 도전함으로써 북괴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북괴의 정책이 한국(韓國)에 대(對)하여 혁명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북괴정권의 정통성(正統性)이 그러한 혁명 노선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전쟁가능성이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부연할 점은 국가 이익과 안보는 궁극적으로 인식의 문제란 것이다. 비록 사강(四強)균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르게 오인할 수 있으며, 이념(理念)과 정치사회화(政治社會化)의 차이점으로 인(因)하여 정책수립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색안경을 통하여 현실(現實)을 인식 하고 그 인식에 의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군(美軍)의 철수와, 소련함대증강, 그리고 미국(美國)의 대동아정책(對東亞政策)을 북괴가 오인한다면 1982년(年) 이후(以後)에 가서는 그들이 어떠한 사태를 야기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미군(美軍)철수가 실제로 실천에 옮겨지면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에서는 그 심리적(心理的)인 충격을 금할 수 없고, 또 이것을 북괴가 오인하고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安保)란 단순히 군사적(軍事的) 균형에만 의존할 것은 아니고 정치적(政治的), 정신적(精神的), 심리적(心理的)인 균형 및 태세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둘째, 아시아 군사정세(軍事情勢)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事實)이지만 그것이 사강(四強)균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한국안보(韓國安保)에 대(對)하여는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해군(美海軍)이 소해군에 수적(數的)으로 열세라 볼 수 있어도 그 질적(質的) 및 구성적인 면(面)에서 소련 군사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생산중인 「크루즈미사일」을 미(美)함대가 적재하면 소련의 육상해군기지나 함대를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사강(四強)의 군사정책(軍事政策)이 그들 상호간의 전쟁은 가능한 한 피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한국(韓國)과 북괴는 1972~73년에 남북대화를 개시하였으나 1973년 이후에 중단되고 말았다. 1978년부터 실시될 미군철수는 불행하게도 남북대화를 더욱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美)·중(中) 관계정상화와 일(日)·중(中) 평화조약이 성취되면 한국(韓國)은 미(美)·일(日)·중공(中共)을 연결하는 구축에 간접적으로 가담할 것이며, 이것이 한국안보(韓國安保)의 현상유지에 도움이 될것이 예측된다.

셋째, 이상(以上)에서 추리할 수 있는 것은 한국안보(韓國安保)는 결국 남북한 관계, 남북한 간의 군사균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중공(中共)과 소련은 그들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북괴를 자기세력으로 만드려 하며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북괴의 정책(政策)을 지지하지만 실제

<표(表)2> 남북한(南北韓) 군사력

		한국(韓國)	북괴(北傀)
육군 (陸軍)	병력	52만	44만
	전투사단	20	25
	보병사단	19	20
	기계화사단	0	3
	기갑사단	1	2
	독립보병여단	2	4
	독립기갑연대	2	5
	경보병여단	0	6~8
	예비군	2백80만	2백50만
	중형전차	840	1,850
	수륙양용전차	0	100
	경장갑차	500	750
	야포	2,000	3,000
	다탄두로켓발사기	0	1,300
	박격포	5,300	9,000
해군 (海軍)	대전차무기	11,000	24,000
	대공화기	700	5,500
	지대공 미사일	33	38~40
	병력	46,000	27,000
	기갑	8	18
공군 (空軍)	전투합정수	104	425~450
	초계정	9	6~7
	미사일정	68	17~19
	연안초계정		300
	수륙양용정	18	90
공군 (空軍)	잠수함	0	10~12
	병력	30,000	45,000
	제트전투기	300	500
	전폭기	0	20
	경폭기	0	85
공군 (空軍)	수송기		250
	헬리콥터	14	65
	제트기이착륙비행장	12	20

출처 : 한국일보 1978년 1월 24일

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방위적인 태세를 세우고 있지만 북괴는 오랫동안 전쟁수행을 준비해 왔으며, 따라서, 공격적 태세를 취해왔던 것이다. 북괴는 GNP의 10% 이상을 군비에 충당하고 모든 경제체제를 전쟁준비를 위한 것으로 전환시켰고 외국에 대한 20억 불의 채무까지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계속 군비에 여념이 없다. 단기적으로 볼 때 한국(韓國)은 북괴에 의한 전쟁을 막기 위하여는 신빙성 있는 억지력(Credible Deterrence)을 구축해야만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韓國)의 국력(國力)은 다음 표(表)3이 과시하듯이 잠재적으로 막강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괴가 도저히 추월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로는 남북한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미군(美軍)의 철수가 남북한간의 군사균형을 파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도 다 주장한다. 다음 표(表)2에서 볼 수 있듯이 수적(數的)으로는 육군(陸軍)을 제외하고는 북괴가 한국보다 다소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적 비교는 무의미한것이다. 왜냐하면 한국(韓國)군비의 질과 구성이 다른 전략적 개념과 기술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괴가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韓國)이 갖고 있는 전차의 성능이 우월하고 또 「토우」미사일을 사용하면 북괴 전차를 효과적으로 격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空)·해군(海軍)에서 북괴가 다소 우월하지만 미공(美空)·해군(海軍)이 동아시아에서 계속 강화될 것이며, 한국공(韓國空)·해군(海軍)도 장비와 훈련상 현대화가 진행중이다. 그러므로 현재 계획중인 미국(美國)으로부터의 군사보완조치가 예정대로 완수되면 남북한간과 군사균형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북괴도 군비를 계속 확충할 것이므로 한반도에서 군사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시 여기서 강조할 점은 전쟁을 억지하는 것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북괴에 의한 전쟁도발

<표(表)3> 남북한 주요지표(南北韓主要指標) (76년 기준)

구분	남한	북한
G N P (억 달 러)	251	58
1 인 당 (人 當) G N P (달 러)	700	363
G N P 국 방 비 부 담 륜 (%)	5.3	14.9
1 인 당 (人 當) 국 방 비 (달 러)	37	54
총 무 역 거 래 (억 달 러)	165	14.9
경 제 성 장 륜 (經 濟 成 長 率) (%)	15.5	4~5
1 인 당 (人 當) 총 소 비 (달 러)	506.9	172.9
동 력 경 윤 기 (動 力 耕 耘 機) (대)	122.0	-
트 랙 터 (대)	564	7~8만
화 학 (化 學) 비 료 생 산 (만 t 75년 (年))	86	50
농 약 생 산 (7 5 · 천 t)	88	15
합 성 수 지 생 산 (7 5 · 천 t)	267	120
원 유 처 리 (7 5 · 천 배 렐)	435	45
각 종 공 작 기 계 (7 5 대 (臺))	3,600	3만
조 선 능 력 (造 船 能 力) (만 t)	239	-
최 대 선 (船) 건 조 (t)	26만	2만
시 멘 트 생 산 (만 t)	1,278	625
판 (板) 유 리 (7 4 년 · 만 상 자)	195	50
직 물 생 산 (織 物 生 產) (천 만 개)	82	45
자 동 차 생 산 (천 대)	214(76)	15(75년)
T V 수 상 기 생 산 (7 5 년)	1백21만5천대	수입단계
라 디 오 (")	4백28만대	수요자급
냉 장 고 (")	10만대	수입단계
발 전 시 설 용 량 (만 k w)	481	451
발 전 량 (억 K W H)	231	213
철 도 총 연 장 (km)	5,653	4,292
전 철 (電 鐵) (km)	424.3	1,223
고 속 도 로 (高 速 道 路) (km)	1,142	100

출처 : 한국일보 1978년 1월 24일

그러나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소련과 중공(中共)은 북괴의 멸망을 허용치 않을 것이며, 미국(美國)과 일본(日本)도 한국(韓國)의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므로 1953년 휴전 때와 같이 결국은 다시 교착상태로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노력은 또 다른 한국 전쟁을 방지하는데 경주해야 하겠다. 그런데 이 노력에는 정치적(政治的), 심리적(心理的)인 인식이 군사력(軍事力)에 못지 않게 중시된다는 점이다.

1982년 후 미군철수가 완결되면 한국사태에 다시 미군(美軍)이 개입(介入)할 것인가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사태의 형태와 북괴의 인식에 달려있다. 예컨대 북괴가 미공약(美公約)을 오인하고 전면전쟁, 혹은 서울점령을 위한 기습전을 수행하면 미군(美軍)이 재개입(再介入)할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西)해안 백령도 등에 불안을 조성하여 미공약(美公約)을 시험한다든지 한국내(韓國內)의 정치불안을 획책하려는 유격전을 시도할 때는 미국(美國)은 한국군(韓國軍)으로 하여금 자기적(自己的)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고 그 대신 병참 및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上記)한 요점(要點)을 종합한다면 군사(軍事)와 정치(政治)는 불가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卽), 한국안보(韓國安保)를 둘러싼 주변세력 간의 군사적 균형과 남북한 내(內)의 정치정세는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한반도내(韓半島內)에 정치불안이 생겼을 때, 아니 그런 것이 실제로 없더라도 있다고 인식될 때 그것을 이용(利用)하려는 군사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美國)이 월남전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政治的)인 지지와 총화(總和)가 결여되었을 때 아무리 강한 군사력(軍事力)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국내정치안정(國內政治安定)과 총화가 국력(國力)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원동력(原動力)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韓國)의 안보(安保)는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사강간(四強間)의 군사적 균형에 의존하지만 그것이 남북한간의 군사 및 정치적 관계에 귀결되고 대내적(對內的)으로는 정치(政治) 및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에 의존된다고 하겠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균형과 안정에 대(對)한 북괴의 인식 여하에 따라 안보(安保)가 좌우됨을 명심해야 한다.

◆ 박 대통령 각하 말씀중에서 ◆

- ◎ 누구의 도움을 바라기에 앞서, 그리고 그 누구를 허물하기 전에 나의 운명을 내 손으로 개척한다는 자립의 의지를 굳게 할 때 비로소 보람찬 결실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 ◎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땀흘려 일하면 일한만큼의 노력의 대가와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뿐이다.

오늘의 우리 경제(經濟)와 80년대(年代)의 전망(展望)



〈연세대(延世大) 상경대(商經大) 교수(教授)〉

정창영(鄭暢泳)

1980년대(年代) 중엽(中葉) 이후부터 우리 국민경제(國民經濟)는 선진국(先進國)으로의 본격적(本格的)인 발돋움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오랜 숙원(宿願)이었던 경제발전(經濟發展)은 시간문제(時間問題)일 뿐이다.

I.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성장실적(成長實績)

한국경제(韓國經濟)가 1960년대(年代)의 초엽(初葉) 이후 비약적인 성장(成長)을 계속해 왔음은 이제 세계적(世界的)으로 널리 주지(周知)된 사실(事實)이다.

국제연합(國際聯合)(UN)은 1960년대(年代)를(1960~1969) “개발(開發)의 년대(年代)(Development Decade)로 정(定)하고 모든 후진국(後進國)이 최소한(最小限) 매년(每年) 실질(實質)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GNP)을 5%씩 증대(增大) 시킬 것을 목표(目標)로 채택한 바 있었는데, 한국(韓國)은 개발년대(開發年代)의 기간중(期間中)(1960~1969) 매년(每年) 평균(平均) 9.1%의 GNP 성장률(成長率)을 보임으로써 대만의 연평균(年平均) 실질(實質)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 10.3%와 더불어 후진국(後進國)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이룩한 국가(國家)에 속한다. (1)

1960년대(年代)의 중엽(中葉) 이전까지만 하여도 한국경제(韓國經濟)에 관한 세계학계(世界學界)에서의 논의(論議)는 주(主)로 한국전쟁(韓國戰爭)이 세계경기(世界景氣)에 미친 영향(影響)을 중심으로 하여서만 이루어졌으며, 한국경제(韓國經濟) 자체에 대한 분석(分析)은 거의 전무(全無)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최근(最近)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한국경제(韓國經濟)를 후진국(後進國)중에서 일종의 모범적(模範的)인 성공사례(成功事例)로서 보시기 시작하였으며, 분석(分析)

의 초점(焦點)도 한국(韓國)의 성장경험(成長經驗)으로부터 다른 후진국(後進國)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問題)에 두어지게 되었다. 그 한 예(例)로서 1975년(年)의 미국경제학회(美國經濟學會)에서 경제발전론(經濟發展論)의 현위치(現位置)를 다루는 논문(論文) 세 편이 모두 한국경제(韓國經濟)를 직접적인 분석대상(分析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다(2).

1950년대(年代)에는 일본경제(日本經濟)의 성장(成長)이 매우 눈부시자 세계경제학계(世界經濟學界)의 관심이 일본경제(日本經濟)를 분석(分析)하는데 크게 쏠렸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現象)이 한국경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경제(韓國經濟)에 대한 연구(研究)가 세계(世界) 학계(學界)에서 최근에는 일종의 「붐」을 형성(形成)하게 되었다.

당대(當代)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立場)에서 볼 때에도 역사적(歷史的)인 의의(意義)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현재(現在) 우리는 한국경제(韓國經濟)가 산업혁명(産業革命)(Industrial Revolution)의 과정(過程)을 겪고 있는 기간중(期間中)에 살고 있을 가능성(可能性)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원래 산업혁명(産業革命)이라는 말은 경제사(經濟史)에서 증기기관을 포함한 기계(機械)인 방법(方法)을 영국제조업(英國製造業)에 적용(適用)한 것이 영국(英國)의 경제구조(經濟構造)와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뚜렷한 변화(變化)를 초래하였던 1750년(年)부터 1825년(年)까지의 기간(期間)을 말한다(3). 실제(實際)로 과거(過去) 15년여(年餘)에 걸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성장경험(成長經驗)은 산업혁명(産業革命)이 진행중(進行中)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충분(充分)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제 아래에서는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성장실적(成長實績)을 몇 가지 측면(側面)으로 나누어서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의 성장(成長)

우리 나라의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의 성장추이(成長推移)를 보기 위하여 편의상 기간(期間)을 다섯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첫번째 기간(期間)은 1945년(年)의 해방(解放) 이후 1953년(年)의 휴전(休戰)이 성립(成立)할 때까지이다. 두번째 기문(期間)은 1954년(年)부터 1961년(年)까지이다. 세 번째 기간(期間)은 제(第)1차(次) 경제개발(經濟開發)5개년계획(個年計劃) 기간(期間)인 1962년(年)부터 1966년(年)까지이고, 네번째 기간(期間)은 제(第)2차(次) 경제개발(經濟開發)5개년계획(個年計劃) 기간(期間)인 1967년(年)부터 1971년(年)까지이며, 다섯번째 기간은 제(第)3차(次) 경제개발(經濟開發)5개년계획(個年計劃) 기간(期間)인 1972년(年)부터 1976년(年)까지이다.

첫번째 기간(期間)인 해방(解放) 이후 휴전(休戰)이 성립할 때까지는 극심한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會的) 혼란(混亂) 및 전쟁(戰爭)과 「인플레이션」이 겹쳤던 시기(時期)로서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에 대한 통계자료(統計資料)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번째 기간(期間)(1954년(年)~1961년(年))은 다시 둘로 나누어 1954년(年)부터 1958년(年)까지의 외국원조(外國援助)에 의한 전재후구기(戰災後舊期) 중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보였던 기간(期間)과 1959년(年) 이후 1961년(年)까지 성장률(成長率)이 다소 둔화(鈍化)된

안정기(安定期)로 구분할 수가 있다. 두번째 기간(期間)을 통틀어서 보면 1954년(年)부터 1961년(年)까지의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의 연평균(年平均) 성장률(成長率)은 1970년(年) 불변가격(不變價格)으로 4.4%이었다(4). 그러나 두번째 기간중(期間中)의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특징(特徵)은 주로 외국원조(外國援助)에 의(依)한 것이었으므로 자립경제(自立經濟)의 기반구축(基盤構築)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점(點)이다. 즉 외국원조(外國援助)가 주로 소비재(消費財)를 중심으로 공여(供與)되었기 때문에 전후(戰後)의 「인플레이션」을 수습(收拾)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한국경제(韓國經濟)의 구조적(構造的)인 개선(改善)에는 별로 기여하지를 못하였던 것이다.

이 기간중(期間中)의 성장요인(成長要因)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막대한 외국원조(外國援助)가 경제성장(經濟成長)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둘째는 일제(日帝) 식민지하(植民地下)에서 자본(資本)의 원시적(原始的)인 축적(蓄積)을 할 수가 없었던 민간(民間)이 외국원조(外國援助)에 바탕을 둔 3차산업(次産業)의 기형적인 비대화과정(肥大化過程)을 통하여 비정상적(非正常的)인 상업자본(商業資本)의 축적(蓄積)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재원(財源)이 되어 소비재산업(消費財産業)에 대한 투자(投資)가 크게 신장(伸張)되었으며, 세째는 주로 대충자금(對充資金)을 재원(財源)으로 한 정부(政府)의 전력(電力), 석탄(石炭), 시멘트, 비료(肥料), 운수(運輸) 및 통신시설(通信施設) 등의 기간산업(基幹産業)에 대한 투자(投資)가 경제성장(經濟成長)에 크게 이바지한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韓國經濟)가 지속적(持續的)인 경제성장(經濟成長)과 구조적(構造的)인 개선(改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第)1차(次) 경제개발(經濟開發)5개년계획(個年計劃)이 시작된 1962년(年) 이후의 일이다. 그리하여 1차(次) 5개년계획(個年計劃) 기간(期間) 중 GNP의 연평균(年平均) 성장률(成長率)은 1970년(年) 불변가격(不變價格) 기준(基準)으로 7.8%이었으며, 5개년계획(個年計劃) 기간(期間) 중에는 10.5%이었고, 3차(次) 5개년계획(個年計劃) 기간(期間) 중에는 11.2%이었다. 이에 따라 1인당(人當) GNP도 경상가격(經常價格) 기준(基準)으로 1962년(年)의 87불(弗)로부터 1976년(年)의 700불(弗)로 8배(倍)나 증가(增加)되었다.

이제 1954년(年) 이후 1976년(年)까지의 산업별(産業別)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보면 다음의 <표(表)1>과 같다. 여기서 발견(發見)하는 것은 전기간(全期間)을 통하여 광공업(鑛工業) 부문(部門)과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부문(部門)의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 여타(餘他)의 경제부문(經濟部門)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점(點)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分析)하기 위해서 산업별(産業別)로 GNP 성장(成長)에의 기여율(寄與率)을 보면 다음의 <표(表) 2>와 같다.

<표(表)1> 산업별(産業別) GNP 성장 기여율(成長 寄與率) (5)

(1970년 불변시장가격(不變市場價格)) (단위(單位) : %)

산업(産業) \ 기간(期間)	1945~1961	1962~1966	1967~1971	1972~1976
농림어업(農林漁業)	3.6	5.3	2.5	5.9
광공업(鑛工業)	11.3	14.2	20.3	20.1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및 기타서비스 (사회간접자본) (社會間接資本)	3.8 (12.1)	8.4 (16.9)	12.3 (19.1)	8.5 (12.6)
GNP	4.4	7.8	10.5	11.2

<표(表)2> 산업별(產業別) GNP 성장 기여율(成長 寄與率) (6)

(1970년 불변시장가격(不變市場價格)) (단위(單位) : %)

기간(期間) 산업(產業)	1945~1961	1962~1966	1967~1971	1972~1976
농림어업(農林漁業)	36.6	27.3	7.3	13.2
광공업(鑛工業)	23.8	24.9	37.5	51.1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및 기타서비스 (사회간접자본) (社會間接資本)	39.6 (12.5)	47.9 (15.8)	55.2 (25.6)	35.7 (20.5)
GNP	100.0	100.0	100.0	100.0

<표(表) 2>에 의하면 광공업부문(鑛工業部門)의 성장(成長)이 전체(全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성장(成長)에 기여(寄與)한 정도(程度)가 최근(最近)에 들어올수록 증대(增大)됨을 발견(發見)할 수가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부문(部門)의 전체(全體) GNP에 대한 성장(成長)의 기여도(寄與度)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크게 증대(增大)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얻는 결론(結論)은 1차(次) 5개년계획(個年計劃) 이후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성장(成長)을 주도(主導)한 부문(部門)은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과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부문(部門)의 성장(成長)이라는 점(點)이다.

2. 수출입(輸出入)의 성장(成長)

우리 나라의 재화(財貨)의 수출(輸出)과 수입(輸入)은 경상시장가격(經常市場價格)으로 1962년(年)에 각각(各各) 55백만불(百萬弗)과 422백만불(百萬弗)로서 무역수지(貿易收支)(Balance of Trade)는 367백만불(百萬弗)의 적자(赤字)를 보였다. 1976년(年)의 상품수출(商品輸出)과 상품수입(商品輸入)은 각각 7, 715백만불(百萬弗)과 8, 774백만불(百萬弗)로서 1, 059백만불(百萬弗)의 무역수지(貿易收支)상의 적자(赤字)를 나타냈다(7). 이러한 무역규모(貿易規模)의 급신장(急伸張)은 수출(輸出)은 약 140배(倍)의 성장(成長)을 뜻하며, 수입(輸入)은 약 21배(倍)의 증가(增加)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GNP의 재화(財貨) 및 용역(用役)의 수출입의존도(輸出入依存度)도 1962년(年)에는

수출(輸出)이 GNP 의 5.2%이며, 수입(輸入)은 16.9%로써 의존도(依存度)는 이 둘의 합계(合計)인 22.1%이었으나, 1976년(年)에는 수출(輸出)은 GNP의 35.6%이며, 수입(輸入)은 36.2%로써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는 71.8%에 이르렀다. 이는 곧 우리 나라가 1962년(年) 이후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인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추구하여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대한 수출(輸出)(재화(財貨) 및 비요소(非要素) 용역(用役)의 기여율(寄與率)을 보면 1962~1966년(年)의 기간 동안에는 15.7%, 1967~1971년간(年間)은 30.4%, 그리고 1972년(年)~1974년간(年間)은 55.2%로써 최근에 들어오면서 GNP의 성장(成長)에 대한 수출(輸出)의 기여도(寄與度)가 크게 증대(增大)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발견(發見)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수출(輸出)의 급속(急速)한 신장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산업구조(產業構造)의 개선(改善)

경제발전(經濟發展)은 한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양적(量的)인 성장(成長), 즉 GNP의 성장(成長)뿐만이 아니라 질적(質的)인 개선(改善), 즉 산업구조(產業構造)의 변화(變化)도 초래한다. 1962년(年)의 산업구조(產業構造)를 보면 경상시장(經常市場) 가격(價格)으로 전체(全體) GNP에서 농림어업(農林漁業), 광공업(鑛工業) 및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과 서비스 부문(部門)이 차지하는 비중(比重)은 각각(各各) 40.3%, 13.3% 및 46.4%이었다. 그러나 1976년(年)에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比重)이 각각(各各) 24.8%, 31.0% 및 44.2%로써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 부문(部門)의 비중(比重)에는 큰 변화(變化)가 없으나 농림어업부문(農林漁業部門)의 비중(比重)은 크게 증대(增大) 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산업구조(產業構造)가 개선(改善)된 것은 광공업(鑛工業) 부문(部門)의 성장(成長)이 여타(餘他)의 경제부문(經濟部門)에 비하여 빨랐던데 기인하며, 이는 선진제국(先進諸國)의 성장경험(成長經驗)에서도 일반적(一般的)으로 발견(發見)되는 현상(現象)이다.

4. 고용구조(雇傭構造)의 개선(改善)

산업구조(產業構造)의 개선(改善)과 더불어 고용구조(雇傭構造)도 어느 정도(程度)는 개선(改善)을 보였다. 즉 1963년(年)에는 총취업자(總就業者) 중에서 농림수산업(農林水産業), 광공업(鑛工業) 및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과 기타 서비스 부문(部門)이 차지하는 비중(比重)이 각각(各各) 63.1%, 8.7% 및 28.2%이었으나 1975년(年)에는 이 비율(比率)이 각각(各各) 45.9%, 19.1% 및 35.0%로 변화(變化)하였다. 즉 농림어업(農林漁業) 부문(部門)이 전체고용(全體雇傭)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은 감소한 반면에 광공업(鑛工業) 부문(部門)과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 부문(部門)의 비중(比重)은 증대(增大)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산업구조(產業構造)의 개선정도(改善程度)에 비하여 고용구조(雇傭構造)의 개선폭(改善幅)은 매우 더디다는 점(點)이다. 즉 농림어업부문(農林漁業部門)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데 비하여 전체(全體) 고용(雇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으며, 광공업(鑛工業)의 경우에는 GNP 상(上)의 비중(比重)이 커진 것만큼 고용상(雇傭上)의 비중(比重)이 커지지는 못하였다. 이는 곧 산업구조(產業構造)에 비하여 고용구조(雇傭構造)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변화(變化)함을 나타낸다.

5.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성장요인(成長要因)

지금까지 우리는 1962년(年)에 제(第)1차(次) 경제개발(經濟開發)5개년계획(個年計劃)이 실시되기 시작한 이후 1976년(年) 제(第)3차(次) 5개년계획(個年計劃) 기간(期間)이 끝나는 15년(年) 동안 한국경제(韓國經濟)가 지속적(持續的)인 고도성장(高度成長)과 질적(質的)인 개선(改善)을 시현해 왔음을 몇 가지 측면(側面)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렇게 팔목(刮目)할만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성장요인(成長要因)들은 무엇인가? 주요(主要)한 성장요인(成長要因)으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질적(質的)으로 우수(優秀)하며 양적(量的)으로도 풍부한 저렴한 노동력(勞動力)이 있었다는 것이다. 종래에는 자본(資本)의 개념 안에 기계(機械)와 공장(工場)같은 실물자본(實物資本)(Physical Capital)만을 포함시켰으나 1960년대초(年代初) 이후 경제학(經濟學)에서는 교육(教育)받은 인간(人間)을 인간자본(人間資本)(Human Capital)으로 정의(定義)하고 자본(資本)개념 안에 실물자본(實物資本) 이외에 인간자본(人間資本)도 포함시키는 것이 거의 일반화(一般化)되었다(8). 경제발전(經濟發展)도 궁극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인간자본(人間資本)이 기여한 몫은 가장 높이 평가(評價)되어야 한다.

둘째는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주어진 여건(與件)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適合)한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인 개발전략(開發戰略)을 택하였다는 점(點)이다. 즉 자원부존(資源賦存)이 빈약(貧弱)하며, 경제적(經濟的)인 크기가 적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수입대체(輸入代替)를 주축(主軸)으로 하는 대내지향적(對內指向的)인 개발전략(開發戰略)은 큰 부담(負擔)이 뒤따르게 마련인데 우리의 경우 이를 피하고 수출촉진(輸出促進)을 위주로 하는 개발전략(開發戰略)을 택하였던 것이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성장(成長)에 결정적(決定的)인 역할(役割)을 하였다.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인 개발전략(開發戰略)의 구체적(具體的)이며, 가장 뚜렷한 성과(成果)는 수출(輸出)의 급속한 신장(伸張)과 이에 의한 국민경제성장(國民經濟成長)의 주도(主導)이다. 만일 우리 나라가 처음부터 국내수요(國內需要)에 주로 의존(依存)하는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선택하였다면 수출(輸出)의 급속한 성장도 없었을 것이며, GNP의 지속적인 성장(成長)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세째는 원활한 외자도입(外資導入)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경우, 가능(可能)한 최대(最大)의 수출액(輸出額)(Export Maximum)은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계류(機械類) 등의 도입(導入)에 소요(所要)되는 최저한(最低限)의 수입액(輸入額)(Import Minimum)에 미달(未達)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양자(兩者) 사이의 차이(差異)를 무역격차(貿易隔差)(Trade Gap) 또는 외환격차(外換隔差)(Foreign Exchange Gap)라고 하는데, 외자도입(外資導入)은 바로 이 무역격차(貿易隔差) 또는 외환격차(外換隔差)를 메꾸어줌으로써 국민경제(國

민경제(民經濟)를 애로요인에 봉착시킴이 없이 지속적(持續的)으로 성장(成長)하게 만든다. 이러한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담당하는 외자(外資)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한국경제의 성장도 거의 불가능(不可能)하였을 것이다.

II.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성장전망(成長展望)

위에서 우리는 주로 과거(過去) 15년(年) 동안에 걸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성장실적(成長實績)을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의 성장(成長), 수출입(輸出入)의 성장(成長), 산업구조(產業構造)의 개선(改善) 및 고용구조(雇傭構造)의 개선(改善) 등 양(量) 및 질적(質的)인 측면(側面)에서 검토(檢討)한 후(後)에 한국경제성장(韓國經濟成長)의 세 가지 기본적(基本的)인 요인(要因)으로 질적(質的)으로 우수(優秀)하며, 양적(量的)으로도 풍부한 인간자본(人間資本), 우리의 경제여건(經濟與件)에 적합(適合)한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인 개발전략(開發戰略)에 기초를 둔 수출(輸出)의 급속한 신장(伸張) 및 무역격차(貿易隔差)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외자(外資)의 원활한 도입(導入)을 들었다.

이제 그러면 한국경제의 성장전망(成長展望)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研究院)은 최근에 한국경제의 장기계획(長期計劃)을 발표한 바 있다(9). 이에 의하면 1981년(年)의 GNP는 1975년(年)의 불변가격(不變價格)으로 표시(表示)할 때 511억불(億弗)에 다달으며, 1인당(人當) GNP도 1, 317불(弗)에 이르게 된다. 또한 상품수출액(商品輸出額)도 1975년(年) 불변가격(不變價格)으로 표시할 때 1981년(年)에는 약 160억불(億弗)에 이르며, 상품수입액(商品輸入額)은 약 188억불(億弗)에 달한다.

산업구조(產業構造)도 크게 개선(改善)되어 1981년(年)에 농림수산업(農林水產業)이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GNP)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은 8.9%, 광공업(鑛工業)이 차지하는 비중(比重)은 58.3%, 그리고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및 기타의 서비스업(業)이 차지하는 비중(比重)은 32.8%로 계획(計劃)되어 있다.

물론 장기계획(長期計劃)이란 국민경제(國民經濟)가 나아갈 일반적(一般的)인 기본방향(基本方向)을 제시(提示)하는데 그 기본목표(基本目標)가 있으므로 위에서 열거한 개별적(個別的)인 수치(數値)들의 절대적(絶對的)인 크기는 상당(相當)한 오차(誤差)의 폭(幅)을 보일 것이나, 필자(筆者)의 생각으로는 위의 수치(數値)들은 확고하게 현실(現實)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얻은 결론(結論)은 한국경제(韓國經濟)는 1980년대(年代) 초(初)에 중진국(中進國)으로서의 발판을 확고하게 구축(構築)할 것 이라는 점(點)이며, 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大部分)의 사람들이 의견(意見)의 일치(一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980년대(年代) 중엽(中葉) 이후부터 우리 경제(經濟)는 선진국(先進國)으로의 본격적(本格的)인 발돋움을 시작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오랜 숙원(宿願)이었던 경제발전(經濟發展)은 시간문제(時間問題)일 뿐이다.

III.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문제점(問題點)

위에서 우리는 한국경제(韓國經濟)의 과거(過去) 15년(年) 동안에 걸친 성장실적(成長實績)을 높이 평가(評價)하였으며, 또한 앞으로의 성장전망(成長展望)도 매우 밝은 것이라고 결론(結論) 지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經濟)는 몇 가지 기본적인(基本的)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이 기본적인(基本的)인 문제점(問題點)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문제(問題)는 저축(貯蓄)의 부족(不足)이다. 저축(貯蓄)이 많아야 이 돈을 가지고 투자(投資)를 하여 생산능력(生産能力)을 확충(擴充)시킬 수가 있는데 저축(貯蓄)이 부족(不足)한 것이다. 1975년(年)의 우리나라 저축율(貯蓄率)(저축(貯蓄))/((GNP))은 18.1%에 불과하였는데 반해서 일본(日本)과 대만의 저축율(貯蓄率)은 1973 년(年)에 각각 37.3%와 33.0%로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담·스미스」의 “모든 검소한 생활(生活)을 하는 사람은 사회(社會)의 은인(恩人)이며, 낭비(浪費)하는 자(者)는 사회(社會)의 적(敵)이다.”(10)는 경제논리(經濟論理)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두번째 문제(問題)는 과도(過度)한 해외 의존도(海外依存度)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여건(與件)으로 보아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인 개발전략(開發戰略)이 불가피함은 다시 말 할 필요(必要)가 없으나 높은 해외 의존도(海外依存度)는 세계경제(世界經濟)의 영향을 너무 과다(過多)하게 받도록 만듦으로써 자립경제(自立經濟)의 달성(達成)을 더디게 하는 것이다. 1976년(年) 현재 수출(輸出)의 GNP에 대한 비율은 35.6%이며, 수입(輸入)의 GNP에 대한 비율(比率)은 36.2%로서 이 둘을 합한 한국경제의 해외 의존도(海外依存度)는 71.8%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方向)은 가능(可能)한 한도(限度) 안에서는 해외 의존도(海外依存度)를 줄이도록 장기계산(長期計畵)이 짜여져야 할 것 이다.

세 번째 문제(問題)는 형평(衡平)의 증진(增進)이다. 1970년(年) 현재(現在) 하위(下位) 40%의 소득(所得)계층이 전체 국민소득의 18.0%를 분배받으며, 중위(中位) 40%의 국민이 GNP의 37.0%를 차지하고 상위(上位) 20%의 국민이 GNP의 45.0%를 분배(分配)받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所得分配)는 여타(餘他)의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비하여는 “상대적(相對的)”으로 공평(公平)한 편이나(11) 우리의 목표(目標)는 더욱 공평(公平)의 정도(程度)를 늘리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經濟發展)이 가속화(加速化)됨에 따라서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공평도(公平度)는 오히려 악화(惡化)되는 경향(傾向)이 있으므로 이 문제(問題)에 대한 정부(政府)의 각별한 정책(政策)이 요청되고 있다.

- 주(註) -

- (1) Pan A. Yotopoulos and Jeffrey B. Nugent, Economics of Development, Harper & Row, N, Y., 1976. p. 5.

- (2) American Economic Review 1975년(年) 5월호(月號)의 “A Reassessment of Development Economics,”에 포함된 세 편의 논문을 참조할 것.
- (3) J.R.T. Hughes, “Industrialization”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Macmillan, N.Y., 1968, vol. 7, p. 253.
- (4) 한국은행(韓國銀行), 한국(韓國)의 국민소득(國民所得) 1975, 서울, 1975, PP.9~10.
- (5) 한국은행(韓國銀行), 한국(韓國)의 국민소득(國民所得) 1975, 서울, 1975, p.13.
한국은행(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1977, 서울, 1977, pp.296~297.
3차(次) 5개년계획(個年計劃) 기간(期間) 중의 수치는 필자(筆者)가 확정통계(確定統計)를 사용하여 계산한 것임.
- (6) 한국은행(韓國銀行), 한국(韓國)의 국민소득(國民所得) 1975, 서울, 1975, p. 13.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7, 서울, 1977, pp.296~297.
3차(次) 5개년계획(個年計劃) 기간(期間) 중의 수치는 필자(筆者)가 확정통계(確定統計)를 사용하여 조사한 것임.
- (7) 한국은행, 통계월보, 1977년 7월호, p.86.
- (8) Theodore W. Schultz,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1961)
- (9)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研究院), 장기경제사회발전(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년(年), 서울, 1977년(年) 12월(月).
- (10)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N.Y : Modern Library, 1937), p. 324.
초판(初版)은 1976년(年)에 출판(出版)되었음.
- (11) H.B. Chenery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p.8~9.

◇ 박 대통령 각하 말씀중에서 ◇

- ◎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소중하다. 하루의 시간을 허비하면 조국 근대화가 하루 늦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낭비한 시간을 우리들이 회복 하자는 것이다.
- ◎ 비록 오늘 우리가 평온 속에 살고 있다 해도 항상 불의의 사태에 대처할 결의와 대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 ◎ 우리 겨레의 절실한 염원은 끝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굳건히 지키고 다짐 힘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위정신(自衛精神)과 안보대책(安保對策)

전쟁(戰爭)이란 병력(兵力)이나 장비(裝備)의 수(數) 등 양적(量的) 우세(優勢)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양(量)으로 헤아릴 수 없는 다른 분야(分野)에서 승패(勝敗)를 결정하는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서울신문 논설위원(論說委員)〉
문도빈(文道彬)



1. 주변정세(周邊情勢)와 자위(自衛)의 요청(要請)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각하(閣下)는 지난 1월 18일 연두(年頭)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올해 국가시정(國家施政)의 기본방향은 첫째, 자주정신(自主精神)의 함양으로 국민총화(國民總和)를 공고히 하고, 둘째, 경제안정(經濟安定)과 지속적인 성장(成長)을 도모하며, 셋째, 총력 안보체제(總力安保體制)로 자위력(自衛力)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군(軍)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들로서 올 한해 동안 가장 관심(關心)을 갖고 힘써 나가야 할 과제(課題)가 셋째의 「자위력(自衛力) 강화」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자위력(自衛力)을 갖추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절대절명(絶對絶命)의 시대적(時代的) 요청(要請)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이 한해 동안 우리를 둘러싼 주변정세(周邊情勢)가 어떻게 전개돼 나갈 것인가 하는 전망을 내다보면 스스로 도출되는 결론(結論)인 것이다. 우선 한반도(韓半島) 문제의 평화적(平和的) 해결에 있어서는 이를 위해 우리가 제의하고 있는 상호 불가침협정안(相互不可侵協定案), 휴전당사자회담안(休戰當事者會談案), 「유엔」동시가입안(同時加入案) 등에 대한 북괴(北傀)의 부정적(否定的) 자세가 여전하며 이에 동조(同調)하는 중공

(中共)과 소련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變化)가 생기리라는 징후(徵候)는 아직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군사정세(軍事情勢)에 있어서는 소위 적화(赤化) 통일(統一)을 망상하고 있는 북괴(北傀)의 군사력(軍事力)이 최근 현저히 강화되었을뿐만 아니라 근자에는 그의 배후세력(背後勢力)인 소련의 급작스러운 극동(極東)배치, 해(海)·공군력(空軍力)의 증강조치로 말미암아 불안(不安)한 상황(狀況)이 날로 가중(加重)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동북(東北) 「아시아」에 있어서 서방측(西方側) 집단안보(集團安保)의 주축(主軸)이 되어 온 미국(美國)의 군사력(軍事力)은 월남전(越南戰) 종료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美國)은 한국(韓國)의 자주국방력(自主國防力)과 일본(日本)의 자위력(自衛力) 확대, 그리고 미(美)·중공(中共), 일(日)·중공(中共)간의 정치적 제안(提案) 등을 통해 소련세력(勢力)의 견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난 2월 초 「브라운」미국방(美國防) 장관이 의회(議會)에 제출한 「79년도 국방정책(國防政策) 보고서」에서 「미국(美國)과 동맹국(同盟國)의 재래식(在來式) 전쟁능력의 적정수준(適正水準) 유지」와 「중소(中蘇)간의 분쟁상태」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일본(日本)이 F-15전투기(戰鬥機) 1백대와 P3C대잠초계기(對潛哨戒機) 45대를 미국(美國)에 발주(發注)키로 결정하는 한편 1만 t급 항공모함(航空母艦) 4척의 자체 건조계획을 발표하는 등 방위력(防衛力) 확대를 전에 없이 서두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미국(美國)의 군사정책(軍事政策) 변화(變化)에 대한 대응(對應)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적(政治的)·군사적(軍事的)으로 주변정세가 불안정(不安定)한 가운데 주한미지상군(駐韓美地上軍)의 제1진이 올해 안에 철수키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美國)은 앞으로 4~5년에 걸쳐 주한미지상군(駐韓美地上軍)을 모두 철수시키더라도 해(海)·공군력(空軍力) 및 병참지원(兵站支援)에 의해 대한방위공약(對韓防衛公約)을 계속 굳게 지킬 것이며 만일의 경우는 지상군(地上軍)을 재투입(再投入)할 결의(決意)까지 마련되어 있음을 누누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銘心)해야 할 것은 한반도(韓半島)의 지상방위(地上防衛)에 있어서는 1차적 책임(責任)은 한국(韓國) 스스로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이 미국(美國)의 새로운 대한정책(對韓政策)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한 방위책임(防衛責任)의 분담구상(分擔構想)이 일본(日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앞으로 4~5년간은 우리의 국가안보(國家安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북괴(北傀)의 남침기도(南侵企圖)를 독자적으로 꺾어낼 수 있는 자위력(自衛力)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힘을 기르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총화단결(總和團結)해서 힘써 나가야 할 자주국방(自主國防)과 총력안보(總力安保)의 지상과제(至上課題)임을 거듭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2. 우리 역사(歷史)에서 본 자위정신(自衛精神)

전쟁이 없는 동안에 자위력(自衛力)을 꾸준히 길러 일단 유사시(有事時) 외적(外敵)의 침략(侵略)을 단호히 물리침으로써 국난(國難)을 슬기롭게 극복해 낸 교훈(教訓)은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歷史)에도 많이 있다. 그것을 여기에 일일이 다 열거하기란 힘든 일이지만 대표적인 사례(事例)로써 고구려(高句麗)의 대수전사(對隋戰史), 그리고 임진란(壬辰亂)의 해전사(海戰史) 등 두 경우만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서기(西紀) 590년께 중국(中國)을 통일(統一)한 수문제(隋文帝)는 597년 고구려(高句麗) 영양왕(嬰陽王)에게 글을 보내어 강복(降伏)하고 신하(臣下)의 예(禮)를 받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에 대노(大怒)한 영양왕(嬰陽王)은 군신회의(君臣會議)를 열어 절대항의(絕對抗議)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고구려(高句麗)와 수(隋)와의 사이에는 20년에 걸친 혈투(血鬪)가 벌어진다. 598년(年) 문제(文帝)는 30만 대병(大兵)을 거느리고 침공(侵攻)을 해오지만 고구려(高句麗)는 이를 임유관(臨榆關)(산해관(山海關))에서 맞아 완전히 물리친다.

그 후 문제(文帝)가 죽고 뒤이어 즉위(即位)한 양제(楊帝)가 또다시 백만대군(百萬大軍)을 동원, 2차에 걸쳐 고구려(高句麗)를 침공하나 고구려(高句麗)의 총수(總帥)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은 1차침략을 패강(溟江)(대동강(大同江))에서 2차침략을 살수(薩水)(청천강(淸川江))에서 맞아 모두 공전(空前)의 대첩(大捷)을 거두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高句麗)가 수(隋)에 대군(大軍)을 맞이하여 승전(勝戰)한 것은 물론 을지문덕(乙支文德)장군의 뛰어난 용병작전(用兵作戰)이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그 당시 문무일치(文武一致)의 교육(教育)이 보편화(普遍化)되어 있었고 또 수(隋)의 침략에 대비, 군량(軍糧)과 무기(武器), 우마(牛馬) 등 전쟁준비에 오랜 기간을 두고 힘써온 온 국민의 상하일치(上下一致)된 자위정신(自衛精神)에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看過)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1592년(임진년(壬辰年))부터 7년 동안 계속된 임진란(壬辰亂)에 있어서 왜군(倭軍)과의 싸움을 매양 빛나는 승리로 이끈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장군의 해전사(海戰史)야말로 자위정신(自衛精神)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공(公)은 전쟁이 일어나기 1년전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로 부임하자마자 왜적(倭敵)의 침략을 예견(豫見)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萬般)의 태세를 갖추었다. 관하의 각 포구(浦口)를 직접 순시하면서 병기(兵器)의 제조(製造)와 정비(整備)를 점검하고, 훈련(訓練)을 독려하는 한편, 세계(世界) 최초(最初)의 철갑선(鐵甲船)인 거북선의 건조(建造)를 진두지휘(陣頭指揮)하였다. 이 거북선의 건조를 마친 바로 이틀 후에 왜군(倭軍)의 침공(侵攻)이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공(公)의 투철한 선견지명(先見之明)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에는 오직 머리가 숙여질 뿐인 것이다.

오늘날 십상지 않은 변화(變化)를 보이고 있는 주변정세(周邊情勢), 특히 적화통일(赤化統

一)을 위한 전쟁도발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괴(北傀)의 군사동향(軍事動向)을 직시할 때, 그들의 대남도발(對南挑發)이 잦거나 뜸하거나를 막론하고 우리는 국가안보(國家安保)를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박(朴) 대통령 각하(閣下)께서 연두회견시(年頭會見時) 손자병법(孫子兵法)에 나오는 「천하수안 망전필위(천하수안(天下雖安) 망전필위(忘戰必危))라는 말을 인용, 세상이 평온하다하여 전쟁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면 반드시 위태롭다고 경고(警告)한 것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現實)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위정신(自衛精神)을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일깨운 말씀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우리는 국난(國難)을 당했을 때 자위정신(自衛精神)을 유감없이 발양(發揚)한 역사의 교훈(教訓)을 여기서 새삼 감명(感銘) 깊게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3. 스위스·이스라엘의 자위(自衛) 태세(態勢)

박(朴) 대통령 각하(閣下)께서는 연두회견(年頭會見)에서, 또한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이면서도 굳건한 자위(自衛) 태세(態勢)를 갖추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를 지적, 우리는 그 나라 국민들의 철저한 국방정신(國防精神)을 본받아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 「스위스」의 자위태세(自衛態勢)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스위스」는 양차(兩次)의 세계대전(世界大戰)에서 같은 중립국(中立國)인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등이 독일군(獨逸軍)에 유린 당했어도 외국군대의 침략을 일체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장중립(武裝中立)」이 국시(國是)로 되어있는 「스위스」의 강력한 국방체제(國防體制)와 병역(兵役)은 「스위스」국민의 「제(第) 2의 직업(職業)」이라고 말할 여질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의 철저한 자위정신(自衛精神)에서 연유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스위스」의 국방체제(國防體制)는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스위스」의 동원시(動員時) 병력(兵力)은 육군(陸軍) 59만명, 공군(空軍)이 약 7천명이며 전쟁(戰爭)이 나면 48시간 내에 6백 50만 인구(人口)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백만명까지 전투요원(戰鬪要員) 또는 민방위(民防衛)요원으로 동원(動員)된다. 양차대전(兩次大戰)에서 독일(獨逸)이 「스위스」를 몇 차례나 침범하려 했다가 끝내 단념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막강한 자위력(自衛力) 때문이었던 것이다.

「스위스」는 군사적(軍事的) 대비에 있어 산(山)의 중복(中腹)을 뚫고 그 안에 격납고(格納庫)를 만들어 어떠한 적(敵)의 선제공격(先制攻擊)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신예전투기(新銳戰鬪機)를 발진(發進)시킬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또 민방술(民防術)에 있어서는 거대한 지하(地下) 핵(核) 대피시설을 만들어 그 안에서 온 국민이 몇달 동안은 생활할 수 있는 훈련(訓練)이 되어 있다. 흔히 우리는 「스위스」를 전쟁을 모르는 지상낙원(地上樂園)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평화(平和)는 모든 국민들이 군인(軍人)으로 또는 민방위대원(民防衛隊員)으로

동원되어 국방체제(國防體制)를 튼튼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 2백년 동안이나 보장(保障)되어 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 기회에 1948년에 독립(獨立)된 이후 불과 3백 50만의 인구(人口)로 1억이 넘는 「아랍」 국가군(國家群)과 대결, 세 차례나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독립(國家獨立)을 굳게 지켜 낸 「이스라엘」의 자위태세(自衛態勢)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은 6만7천명의 상비병력(常備兵力)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는 물론이고 여자(女子)까지 현역(現役)으로 징집하게 되어 있는 병역제도(兵役制度)라 하겠다.

이 제도(制度)에 의해 「이스라엘」국민들은 18세만 되면 모든 남녀(男女)가 현역(現役)으로 징집되고 예비역(豫備役)은 남자(男子)는 48세까지, 여자(女子)는 34세까지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비역(豫備役)은 1년에 4개월간의 소집훈련(召集訓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3일 이내에 전국민(全國民)이 국방태세(國防態勢)에 돌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둔전병(屯田兵)」 제도(制度)에 의한 국경방위(國境防衛)가 또한 「이스라엘」 국방체제(國防體制)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둔전병제도(屯田兵制度)란 국경 지역에 배치된 자기방위능력을 갖춘 전략촌(戰略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주임무(主任務)는 적(敵)의 침공이 있을 때 예비군(豫備軍)이 동원되어 전투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격을 지연시켜 최소 3일간의 시간을 버는데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박격포(迫擊砲), 기관총(機關銃), 대전차포(對戰車砲) 등을 갖춘 가운데 평시에는 생업(生業)에 종사하고 유사시(有事時)에는 전투원(戰鬪員)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국민개병(國民皆兵)제도가 철저히 생활화(生活化)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아랍」국가들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인구(人口)를 가지고 생사(生死)를 건 여러 차례의 전쟁(戰爭)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4. 우리의 안보대책(安保對策)은 만전(萬全)한가.

끝으로, 오늘날 북괴(北傀)의 부단한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자위태세(自衛態勢)와 안보대책(安保對策)은 과연 만전(萬全)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주한미지상군(駐韓美地上軍)의 철수문제가 거론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같은 사태를 예견, 정부와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주국방(自主國防)에 힘써 왔다.

국민이 거둔 방위세(防衛稅)와 방위성금(防衛誠金)으로 국군(國軍)의 장비(裝備)는 나날이 현대화(現代化)되어 가고 있다. 금년으로서 창설 10돌을 맞이하게 되는 향토예비군(鄉土豫備軍)도 조직과 장비, 훈련 면에서 막강한 전력(戰力)으로 자라고 있다. 또 민방위대(民防衛隊), 학도호국단(學徒護國團) 등도 미려운 국민의 자위조직(自衛組織)으로서 나날이 성장(成長)하고 있다.

방위산업면(防衛產業面)에 있어서도 또한 시작은 북괴(北傀)보다 약 10년이 늦었지만 성능면(性能面)에서 모두 북괴(北傀)의 것을 능가하는 각종 장비를 양산(量產)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올해부터 항공기(航空機) 「미사일」등 고도정밀(高度精密) 분야의 전투장비까지 생산(生產)에 착수하게 되었음은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얼마 전 박(朴)대통령 각하(閣下)의 국방부(國防部) 연두순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쟁(戰爭)이란 병력(兵力)이나 장비(裝備)의 수(數) 등 양적(量的) 우세(優勢)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양(量)으로 헤아릴 수 없는 다른 분야(分野)에서 승패(勝敗)를 결정하는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 안 되겠다.

그 첫째가 훈련(訓練)인 것이다. 오늘날의 무기체계(武器體系)는 점차 복잡해지고 그것을 조작하는 기술(技術)도 전문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그것을 다루는 장병(將兵)들의 기술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무기로 할지라도 제대로 충분한 성능(性能)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1967년 6월 중동전쟁(中東戰爭)에 있어서 「아랍」군(軍)은 다량의 최신무기(最新武器)를 소련(蘇聯)으로부터 원조받아 갖추고 있었지만 그 무기를 조작하는 기술이 미숙했던 탓으로 본래의 성능(性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패배(敗北)의 결정적 요인(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정신(精神) 전력(戰力)이 또한 훈련(訓練)에 못지 않는 중요시되는 요소이다. 전략가(戰略家) 「클라우제비츠」는 병력(兵力)의 수(數)보다도 장병(將兵)의 영웅적(英雄的) 용기(勇氣)와 높은 사기(士氣)가 승전(勝戰)의 관건(關鍵)이라고 강조했고 또 「나폴레옹」은 전쟁에 있어서 정신력(精神力)과 물질(物質)의 비율을 「3대 1」이라고까지 갈파했다. 그만큼 정신전력(精神戰力)은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중요하게 여겨져 온 것이다. 임진란(壬辰亂)의 노랑해전(鰲梁海戰) 때 불과 12척의 전선(戰船)으로 1백 33척의 왜군함대(倭軍艦隊)를 격파한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저 유명한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교훈(教訓)이 바로 그 실증적(實證的)인 사례(事例)라 하겠다.

장비(裝備)의 성능(性能)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기 위한 훈련(訓練)과, 물량적(物量的) 열세(劣勢)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전력(精神戰力)의 중요성은 특히 높은 기술수준(技術水準)을 요하는, 우리 공군(空軍) 장병(將兵)들에게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요청에 우리는 전력(全力)을 다하여 부응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 그래야만 우리의 안보대책(安保對策)은 비로소 만전(萬全)을 가(可)기할 수 있는 것이다.



충효사상(忠孝思想)의 본질(本質)과 현대적 정립(現代의 定立)

이성이 그 지위를 회복하고 인간생명이 그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현대적 윤리규범으로서 충효(忠孝)가 지시하는 자기존재의 의무와 생명의 끊임
없는 계승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동덕여대(同德女大) 전강(專講)〉
금장태(琴章泰)



윤리관의 확립과 전통사상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허무주의적 표현에 찬성하고 싶지가 않다. 오히려 축복을 받고 왔다가 보람을 얻어 가는 것이라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라는 말보다, 사람만이 거듭 태어나고 거듭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주장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 그저 몸뚱이가 아니라 무궁하고 신비한 정신을 지녔기 때문이다.

백년 전부터 개화를 하고 근대화를 하고 경제건설을 하여 오늘의 눈부신 변화와 발전에 저절로 어깨에 힘이 주어지는 기분인데, 바로 그 때문에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곳이 인간의 삶이 실현되는 사회요 역사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아무리 규격화시켜도 내가 너와 구별될 때 자기일 수 있고, 한국인이 아무리 서양적

근대질서에 동화되어도 오히려 진정한 한국인이 됨으로써만이 이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현대의 기계화·물질 중심·대량화의 급류 속에서 익사하여 생명을 잃고 한명이 유기물로 떠내려가지 않겠다는 인간적 자기 각성은 얼굴없는 대중이니 인간상실이 라는 현대문명의 병폐를 심각하게 경고하여 왔다.

오늘의 우리 사회가 물량적 발전을 이룩한만큼 우리의 정신적 가치규범의 적응과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는 인간적 의지에 의해 능동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산비탈을 굴러 내리는 눈덩이처럼 수동적으로 하강하는 것이 되고 만다. 개인이거나 민족이거나 생명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면, 그 존재 가치는 물질의 양적 팽창을 넘어서 자기 통제력의 질적 중심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늘날 정신적 가치 규범 곧 윤리관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이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소홀히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통의 연속과 계승이 민족의 생명에 대한 증거이므로 현대의 윤리관도 전통사상의 기반을 떠날 수 없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토끼를 먹었다고 호랑이가 토끼로 변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전통은 현대적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러나 전통이 포기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연속성을 상실하는 것이 되고 만다.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 「충」·「효」의 윤리규범이 지닌 넓고도 깊은 뿌리를 주의한다면 우리는 충효사상의 전통이 우리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떤 기능을 갖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시대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보편적 윤리규범이므로 더욱 오늘의 우리 시대에 다시금 해석되고 또 적용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충(忠) — 「나」의 발견과 확대

흔히 「충(忠)」이란 말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군주나 국가나 인격체 또는 조직체에 대한 충성이라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충성이 바쳐지는 대상적 요소가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앞서서 누가 충성하는 것인가의 주체적 요소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충(忠)이라는 글자가 중(中)자와 심(心)자로 이루어진 것은 「충」이 바로 속마음, 곧 주체적 인격의 자리임을 말해준다. 그것은 「충」이 속마음에 자리잡은 것임을 뜻하는 동시에 속마음이 곧 충이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성리학자의 정의에 의하면 「충」은 「자기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진기지위충(盡己之謂忠))이다. 여기서 「충」은 본질적으로 인격의 내면성에 근본을 둔 자기존재의 발전이요 각성임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동물적 단계를 넘어서 내면의 깊은 영혼을 자각할 때에 진정한 인격적 가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충」은 이처럼 깊은 내면성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바로 참된 나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정몽주가 읊은 「임 향한 일편단심」이란 귀절에서, 일편단심 곧 나의 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한조각 붉은 마음이 바로 「충」이다. 신라 때 대야성(大耶城)을 지키던 죽죽(竹竹)은 백제군사의 침공을 받아 성이 위태로와졌을 때 주위에서 항복하기를 권유하자, 「나의 아버지가 내 이름을 죽죽이라고 지어준 것은 내가 날이 추워져도 시들지 말고 꺾여질지언정 굽어질 수 없도록 하신 것이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절하여 성이 함락할 때까지 싸우다 죽었다. 천수백년 전의 옛 선조인 죽죽이란 인물의 이름과 행동은 바로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서 대나무처럼 곧은 내면의 인격적 생명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었으며, 바로 이 시들지 않고 굽힐 수 없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였다. 여기에 곧 「충」의 정신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하겠다.

「충」은 속마음이고 진정한 자기존재의 인격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통에서 「충」을 강조하고 윤리규범으로 확립하였던 것은 곧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상실을 극복하고 자기 발견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헛된 것이라」는 예수의 말에서도 의미와 가치의 근거를 내면의 인격적 핵심인 영혼에서 찾고 있다. 인간이 영혼 내지 자기존재의 본질을 잃으면 곧 자기 상실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 반면 영혼을 각성하고 자기존재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충」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한 마디로 「충」은 나의 발견이요, 나의 실현이다.

「충」이 진정한 자아의 발견에서 출발 한다면, 이 인격적 자기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좀 더 깊이 분석하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참된 나는 감각적, 신체적 개별성에 있는 것(소아(小我))인가 아니면 이성적 보편성에 있는 것(대아(大我))인가? 사실 「나」는 직접적으로 나의 피부 안에 들어있는 살과 정신이 결합된 개체이다. 그러나 정신 내지 영혼이라는 내면성은 공 속에 바람이 들어 있듯이 나의 피부 속에 간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은 이미 물질이 아니므로 물질에 의해 구속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신체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정신은 우주만큼이나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 물론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에서처럼 신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신은 신체를 초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격은 개체적 존재로서의 「나」를 넘어서서 무한에 이르기까지 넓혀질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 여기서 참된 「나」는 나의 이웃과 통하고 사회와 통하고 사물과 통하고 우주와 통하게 된다.

「충」이 진정한 인격성인 만큼 그것은 개별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개념에 구속된 것이 아니

라, 사회와 국가와 인류어로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 「나」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충」의 대상적 요소는 「나」의 존재가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하는 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군주이든지 국가이든지 「나」 아닌 인격체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그 대상과 나의 존재가 일체화하는데까지 「나」의 존재가 확대되는 데서 「충」이 실현된다. 군주에 충성하는 충신(忠臣)이 주인에 충성하는 충견(忠犬)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충」은 결코 맹목적인 복종과 예측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 결합이요 진정한 자아의 확대이다. 따라서 옛사람은 임금의 잘못을 꾸짖는 쟁신(爭臣)을 충신의 한 모습으로 지적하였던 것이다. 나라에 대한 충성은 나라에 대한 사랑과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사랑은 결합을 지향하는 것이요, 이러한 사랑이 아닌 일방적의 무로서의 나라에 대한 충성이란 진정한 「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효(孝) — 생명의 긍정과 계승

하늘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언젠가 죽어야 할 운명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 대신 종자를 퍼뜨려 이 유한한 생명을 무한히 이어갈 수 있게 마련해 주셨다. 따라서, 동물들에서조차 새끼를 위해 어미가 기울이는 희생과 사랑의 행위는 자기 생명의 보존에 대한 집념 이상으로 본능적이다. 그렇지만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이 어미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사람이 그 부모를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은 동물과 달리 본능을 넘어서 인간적인 삶의 기본양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은 타고난 본능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생명의 근원을 반성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다. 바로 이처럼 인간이 자기 생명의 근원을 자각하여 감사하고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생명에 대한 긍정에서 효(孝)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긍정하는 근본입장은 이 생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행동으로 실천을 추구하게 된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효」를 부모와 자녀관계의 가족윤리뿐만 아니라 한정시키지 않았다. 「효」는 「참된 인간실현과 근본」(위인지본(爲仁之本))으로 심화되기도 하고, 「정치와 교화의 근원」(교지소유생(敎之所由生))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군주제도의 전통사회에서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윤리도 부자관계의 윤리가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효」는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모든 행위의 근원적인 원리요 전통적 윤리 체계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효」에는 그 정신으로서 부모에 대한 사랑(愛親)과 공경(敬親)과 마음이 강조되고, 그 형식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자리를 살피고 문안하는 예절(혼정신성(昏定晨省))

이나 상례(喪禮)와 제사에서 예절에 맞도록 행동절차가 요구되어 왔다. 이때에 효행(孝行)을 실천하면 이웃과 사회의 칭송을 받거니와 효행을 저버리면 이웃의 지탄과 국가의 형벌까지 받게 된다. 이처럼 효행이 사회적 윤리규범으로 확립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자율적으로 발휘되기도 오호려 사회의 칭찬이나 비난에 좌우되어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쉽사리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전통사회에서 「효」의 윤리가 가족을 결속시키고 사회의 풍속을 순화하는데 기여하였던 긍정적 사실을 주목 하면서도, 효도의 예절이 형식적으로 고정화되고 관습화하자 개인의 진취적 기상을 억압하고 사회와 합리적 개혁을 둔화시켰던 부정적 측면도 아울러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동양사회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장애요인으로 「효」를 비롯한 전통윤리의 형식성, 보수성, 봉건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전통윤리의 본질적 정신과 형식적 폐단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갖추어진다면, 또한 서구적 지표의 현대사회가 또 다른 모순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의 타개를 위한 요구를 절감한다면, 우리는 전통윤리로서의 「효」에 대해 다시금 이해하고 오늘 날에서 그 참된 가치를 다시금 실현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대가족제도가 붕괴된 현대의 사회구조 속에서는 핵가족조차 개인주의의 어설픈 결합으로 그 구성원 사이가 더욱 유리되고 고립되어만 간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결속시켜 주는 힘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지는 육친(肉親)의 사랑」(부자자효(父慈子孝))에서부터 다시 살려내어야겠다. 「부모에 대한 사랑」(효(孝))의 짝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도 뻗어가고 이 사랑이 자연에까지 나아가 일체감을 이루는 성장(친친(親親), 인민(仁民), 애물(愛物))을 해 나간다면, 인간은 계약사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거나 법조문의 지배 아래 고립되고 소외되는 비인간화(非人間化)에서 해방되어 진실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인간생명을 공간적으로 확대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의 중심을 부모와 자녀관계의 수직적 질서에 두었던 전통윤리에 대해 부부관계의 수평적 질서에 두려는 서구적 윤리체계에만 빠져간다면 인간의 생명이 갖는, 시간적 폭은 한 세대(世代)의 단위로 단절되어 버리기 쉽다. 물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효」의 정신은 이 세계에서 생명의 연속성을 밝혀주고 있다. 「효」를 정의하여 「한 사람(부모)의 의지를 계승하고 그 사업을 완성하는 것(선계인지지(善繼人之志), 선술인지사(善述人之事))」이라 한 말에서 생명이 자손을 통하여 계승되고 발전해 가는 연속성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여기에서 「효」는 복고적 침체성을 떨치고 역동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의지를 근본에 내포하

게 되는 것이며, 인간 생명을 시간적으로 확대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효」가 그 본질의 깊은 정신의 빛을 우리 시대에 다시 비쳐줄 수 있다면, 이것은 전통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전통의 올바른 계승은 바로 「효」 그 자체의 정신을 실현이라 볼 수 있다.

충효사상과 현대인의 윤리관

「충」이 보다 인격적이고 이성적 개념 이라면, 「효」는 보다 생명적이고 감성적인 개념이라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과 「효」는 모두 인간성의 발견이요 긍정이며 확대요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현대의 문명체계가 지닌 물질주의, 기계주의의 질서가 뿔어내는 비인간화의 위기에서 인간을 다시 살려내고 지켜주며 인간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기능을 「충효」의 이념에서 발견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균형과 조화를 이룬 인간존재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현대 문명을 발전시켜 가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해 가는 것으로만 그칠 수 없다. 이성이 그 지위를 회복하고 인간생명이 그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현대적 윤리규범으로서 「충효」가 지시하는 자기존재의 의미와 생명의 끊임없는 계승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실한 현실적 요청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국민적(國民的) 단합(團合)과 총화체제(總和體制)의 강화(強化)

우리의 정치체제(政治體制)가 안정(安定)된 상태(狀態)에서 기능(機能)하게 된다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온갖 음모(陰謀)와 책동(策動)은 무위(無爲)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유(自由)아카데미 교수(教授)〉

이용필(李容弼)

1975년(年) 인지반도(印支半島)의 공산화(共產化)에 자극(刺激)된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產主義者)들은 온갖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을 다하여 남한(南韓)의 적화(赤化)를 위해서 계속 광분시도(狂奔試圖)하는 실정(實情)에 있다. 그들이 직접적(直接的)인 무력(武力), 경우에 따라서는 교묘(巧妙)한 평화(平和)를 위장(偽裝)한 간접적(間接的) 수단(手段)을 사용(使用)해서 적화(赤化)를 기도(企圖)하는 한(限) 남북한(南北韓)의 갈등(葛藤)은 극한적(極限的)으로 발전(發展)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產主義者)들이 적화(赤化)의 야욕(野慾)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以上) 우리는 최소한(最小限) 그들의 남침(南侵)을 억제(抑制)할 수 있는 군사력(軍事力)을 강화(強化)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 8.18 사태(事態)에서 우리가 경험(經驗)한 바와 같이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產主義者)들은 야만적(野蠻的) 살육(殺戮)을 주저없이 감행(敢行)하였거니와 이에 대한 우리 측(側)의 힘(力)이 과시(誇示)에 의해서만 비로소 보다 큰 규모(規模)의 도발(挑發)을 억제(抑制)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어떠한 형태(形態)의 도발(挑發)을 하여도 즉각(即刻) 대응(對應)해서 응징(膺懲)할 수 있는 군사능력(軍事能力)과 조직적(組織的)인 태세(態勢)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共產主義)와의 대결(對決)은 단순(單純)한 군사적(軍事的) 의미(意味)에서의 대결(對決)이 아니다.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침투력법(浸透力法)은 주어진 상황(狀況)에 따라서 신축성(伸縮性)있게 변화(變化)되고 있으므로 그 대응책(對應策)도 마찬가지로 변화(變化)되지 않을 수 없다. 인지(印支)에서의 경험(經驗)이 보여 준 바에 의하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과의 대결(對決)은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그 밖에 모든 분야(分野)에 걸친 총력적(總力的) 역량(力量)과 결부(結付)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

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침투(浸透)는 정면(正面)으로 도전(挑戰)하기 어려운 상황(狀況)에서는 전술적(戰術的) 후퇴(後退) 또는 우회적(迂迴的) 수단(手段)을 쓰는 것이 통례(通例)로 되고 있다. 그들이 과적(樞的)으로 삼고 있는 체제내(體制內)의 균열(龜裂)을 최대한(最大限)으로 조장(助長)하기 위해서 불평(不平)과 불만(不滿)을 교묘(巧妙)하게 이용(利用)해서 반목(反目)과 갈등(葛藤)을 첨예화(尖銳化)시킨다. 다시 말해서 체제내(體制內)의 모순(矛盾)을 격화(激化)시켜서 정치(政治), 경제(經濟) 및 사회질서(社會秩序)를 혼란(混亂)하게 만들도록 획책(劃策)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음모(陰謀)와 책동(策動)이 어느 정도 성공(成功)을 거두게 되는 경우 소위(所謂) 혁명(革命)의 성숙(成熟)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동(煽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과의 대결(對決)은 군사력(軍事力) 만으로는 결코 충분(充分)한 것이 못된다. 보다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에서 보아 정치(政治), 사회(社會), 경제(經濟) 전반(全般)에 걸친 안정(安定)이 요초(要誚)된다. 그 중(中)에서도 정치체제(政治體系)의 적응능력(適應能力)이 갖추어질 때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產主義者)들의 간단(間斷)없는 획책(劃策) 그리고 국내외적(國內外的) 환경(環境)의 변화(變化)에 대응(對應)해서 우리의 정치체제(政治體系)가 건전(健全)하게 기능(機能)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觀點)에서 논자(論者)는 국민총화체제(國民總和體制) 구축(構築)을 위한 구체적(具體的) 방안(方案)을 검토(檢討)해 보고자 한다.

오늘의 한국(韓國)에 있어서 국민적(國民的) 총화(總和)를 이룩하고자 하는 문제(問題)도 국민적(國民的) 통일성(統一性)의 맥락(脈絡)에서 파악(把握)되어야 하겠다. 국민적(國民的) 통일성(統一性)이란 무엇보다도 정치적(政治的) 공동체(共同體) 또는 정치체제(政治體制)에 대한 기본적인(基本的) 합의(合意)(Consensus)를 형성(形成)하는 경우에 성취(成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기본적인(基本的) 합의(合意)란 무엇인가를 고찰(考察)함으로써 우리가 요구(要求)하는 국민총화(國民總和)의 의미(意味)를 보다 체계적(體系的)으로 이해(理解)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시점(現時點)에서 요청(要請)되고 있는 국민총화(國民總和)는 단순(單純)한 의미(意味)에서의 성원(成員)들 간(間)의 합의(合意)라기보다는 남북간(南北間)의 극한적(極限的) 갈등상황(葛藤狀況)에서 총력적(總力的) 체제구축(體制構築)을 확립(確立)하기 위한 바탕으로서 전제(前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국민총화(國民總和)에 의거(依據)해서 우리의 정치체제(政治體系)는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產主義者)들의 교묘(巧妙)한 적화기도(赤化企圖)를 분쇄(粉碎)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외(內外)로부터의 변화(變化)와 중압(重壓)에 대응(對應)해서 적절(適切)히 적응(適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출발점(出發點)에서 국민총화체제(國民總和體制) 구축(構築)을 위한 구체적(具體的) 방안(方案)을 체계이론(體系理論)의 맥락(脈絡)에서 광범위(廣範圍)하게 논의(論議)하고자 한다.

정치체제(政治體系)의 가동력과 총화(總和)

정치학(政治學)에 있어서 체계이론가(體系理論家)들(System Theorists)에 의하면 정치체제(政治體系)의 작동(作動)(Operation of Political System)은 체계(體系)와 그것을 특징(特徵) 지워주는 대내적(對內的) 제관계(諸關係)의 역사(歷史)에 비추어 보아서 이해(理解)되지 않음

면 안 된다고 한다. 「이스튼」(David Easton)도 지적(指摘)한 바와 같이 어떠한 정치체계(政治體系)도 완전무결(完全無缺)하게 주어진 환경(環境) 아래서 작동(作動)할 수 없다. 모든 정치체계(政治體系)는 어느 정도(程度)의 중압(重壓)(Stress) 아래서 작동(作動)하게 마련이지만 그와 같은 중압(重壓)에 대해서 적시(適時)에 또 적절(適切)하게 반응(反應)함으로써 정치체계(政治體系)가 환경(環境)의 변화(變化)에 적응(適應)해 나갈 수 있다.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產主義者)들이 남한(南韓)의 적화(赤化)를 성취(成就)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체계(政治體系)의 정상적(正常的) 작동(作動)을 온갖 방법(方法)과 수단(手段)을 구사(驅使)해서 저해(沮害)코자 획책(劃策)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침투공작(浸透工作)을 근본적(根本的)으로 봉쇄(封鎖)할 수 있는 길은 정치체계(政治體系)의 안정(安定)을 유지(維持)하는데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적(國內外的) 정치(政治), 사회(社會) 및 경제(經濟)의 환경(環境)이 급격(急激)히 변동(變動)해 가고 있는 상황(狀況)에서 우리의 정치체계(政治體系)는 체계(體系) 내(內)의 모든 성원(成員)에 의해서 지지(支持)되는 동안 체계(體系)의 적응(適應) 및 가동능력(能力)이 유지(維持)될 수 있다. 체계내(體系內)에 있어서 정치과정(政治過程)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重要)한 요소(要素)는 체계내(體系內)에 존재(存在)하는 합의(合意)의 정도(程度)(Degree of Consensus)라고 하겠다.

모든 성원간(成員間)의 합의(合意)는 형성(形成)에 의해서만 체계(體系)의 적응(適應) 및 가동능력(能力)이 증가(增加)되며 이것에 의해서 극한적(極限的) 갈등(葛藤)을 극복(克服)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角度)에서 우리가 국민총화(國民總和)의 의미(意味)를 파악(把握)하는 것이 가장 타당(妥當)한 것으로 생각한다. 체계이론(體系理論)에 의거(依據)해서 설명(說明)한다면 모든 성원(成員)에 의해서 유출(誘出)된 체계(體系)에의 지지(支持)(Support)가 바로 국민총화(國民總和)라고 정의(定義)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定義)된 국민총화(國民總和)는 거의 모든 성원간(成員間)에 광범(廣範)하게 공유(共有)된 체계(體系)에의 지지태도(支持態度)를 표시(表示)하는 것이다. 이 의미(意味)에서 가동력과 적응능력(適應能力)을 갖춘 정치체계(政治體系)는 급격(急激)히 변화(變化)되고 있는 세계(世界)에서도 반응적(反應的) 제행동(諸行動)을 통해서 유지(維持)될 수 있다.

총화형성(總和形成)을 위한 권위적(權威的) 배분(配分)

정치체계(政治體系)는 어떠한 형태(形態)이든 간에 그 본질적(本質的) 제변수(諸變數)들(The Essential Variables, 즉(卽) 제가치(諸價値)의 권위적(權威的) 배분(配分))이 주어진 범위(範圍) 안에서 기능(機能)하는 한(限) 그 특징적(特徵的) 속성(屬性)들을 유지(維持)하게 된다. 정치체계(政治體系)의 본질적(本質的) 제변수(諸變數)를 설명(說明)하기 위해서 생물(生物)의 체계(體系)와 비교(比較)해 보기로 한다. 생물체(生物體)의 유기적(有機的) 체계(體系)에 대한 내부적(內部的) 어떤 변수(變數)들의 변화(變化)는 그 생물체(生物體) 전체(全體)의 정상적(正常的) 기능양식(機能樣式)을 파괴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컨대 눈, 수족(手足) 또는 기타 두개(個)의 부분(部分)으로 구성(構成)된 기관(器官)의 상실(喪失)이 어떤 불안정(不安定)한 상황(狀況)에 대응(對應)하는데 있어서 신축성(伸縮性)을 감소(減少)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이 생물체(生物體)의 정상

적(正常的) 기능(機能)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유기적(有機的) 체계(體系)의 본질적(本質的) 제변수(諸變數)가 정상적(正常的) 기능(機能)의 범위(範圍) 안에서 작용(作用)하고 있다고 말한다. 만일 전체(全體)로서의 체계(體系)가 지속(持續)하려면 그러한 본질적(本質的) 제변(諸般) 변수(變數)가 정상적(正常的) 범위(範圍) 안에서 기능(機能)해야 하며, 만일(萬一) 그것이 그 범위(範圍)의 한계(限界)를 넘어서 위험(危險)한 영역(領域)으로 접근(接近)한다면 정치체계(政治體系)의 제기능(諸機能)은 마비(痲痺)될 것이다.

정치체계(政治體系)의 특징적(特徵的) 행동양식(行動樣式)은 사회(社會)에 대해서 제가치(諸價値)를 배분(配分)하는데 있다. 그 배분(配分)의 수용(受容)을 확실(確實)하게 하는 것이 체계(體系)의 가동력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즉(卽) 사회(社會)에 대해서 결정(決定)을 내리는 가동력과 그 체계(體系)의 「멤버」들에 의해서 권위적(權威的)인 것으로 수용(受容)되는 확률(確率)에 관련(關聯)된 행동(行動)이다. 이러한 정치체계(政治體系)의 본질적(本質的) 제변수(諸變數)로서의 제가치(諸價値)의 권위적(權威的) 배분(配分)은 결국 체계(體系)에의 지지(支持)(분산적(分散的)이든 또는 특수적(特殊的)이든 간에)과 밀접(密接)한 관련(關聯)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정통성(正統性)의 문제(問題)가 있다.

이러한 의미(意味)에서 정치체계(政治體系)의 안정(安定)은 일정(一定)한 수준(水準)의 사회적(社會的) 및 경제적(經濟的) 발전(發展)에 의존(依存)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립세트」도 사회적(社會的) 및 경제적(經濟的) 필수요건(必須要件)들이 민주정치(民主政治)의 제도화(制度化)와 그 유지(維持)에 불가분(不可分)의 것이라고 지적(指摘)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발전도상국가(發展途上國家)에 있어서 정치적(政治的) 불안정(不安定)은 부분적(部分的)으로는 원망(願望)과 그러한 원망(願望)의 상승(上昇)에 의해서 생긴 기대간(期待間)의 함수(函數)라고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혁명(革命)은 지속적(持續的) 경제성장(經濟成長)의 시기(時期)가 급격한 경제적(經濟的) 역전(逆轉)에 의해서 제기(繼起)되는 경우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主張)에 의하면 정치적(政治的) 불평등(不平等)은 정치적(政治的) 불안정(不安定)의 내재적(內在的) 측면(側面)이라고 한다. 정치적(政治的) 불안정(不安定)은 정통성(正統性)의 위기(危機), 일체감(一體感)의 위기(危機), 참여(參與)의 위기(危機), 그리고 배분(配分)의 위기(危機)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連結)된다.

더우기 배분(配分)의 위기(危機)는 권위당국자(權威當局者)들로부터 물질적(物質的) 혜택(惠澤)을 얻기 위한 대중적(大衆的) 요구(要求)의 급진적(急進的) 증가(增加)와 관련(關聯)되고 있다. 평등(平等)의 원리(原理)는 모든 시민(市民)들이 동등(同等)한 물질적(物質的) 및 비물질적(非物質的) 혜택(惠澤)의 향유(享有)를 전제(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平等)의 원리(原理)를 실현(實現)할 수 있는 체계(體系)의 가동력은 그 국가(國家)에 주어진 자원량(資源量)과 관련(關聯)이 있는 것이다.

정치체계(政治體系)에의 지지투입(支持投入)

정치체계(政治體系)의 가동력은 끊임없이 체계(體系)에의 요구투입(要求投入)과 그 변환(變換)에 의해서 자극(刺激)되며, 그것이 이어서 지지(支持)의 「메커니즘」으로 전환(轉換)된다. 체

계(體系)가 지속적(持續的)으로 유지(維持)되기 위해서는 광범위(廣範圍)한 의미(意味)에서 성원(成員)들의 지지(支持)가 필요(必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지(支持)의 범위(範圍)가 강도(強度)는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 또는 국민총화(國民總和)의 내용(內容)을 결정(決定)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는 장기간(長期的)으로 보아 제가치(諸價値)의 권위적(權威的) 배분(配分)과 밀접(密接)한 관련(關聯)이 있다.

정치체계(政治體系)는 제가치(諸價値)를 사회(社會)에 대해서 권위적(權威的)으로 분배(分配)하는 가장 포괄적(包括的) 행위체계(行爲體系)라고 정의(定義)되고 있다. 정치체계(政治體系)의 어떠한 기능(機能)은 본질적(本質的)인 것으로서 체계(體系)와 환경(環境)을 연결(連結)시키는 주요(主要)한 변수(變數)가 된다. 체계(體系)에 대한 지지(支持)의 진동(振動)은 여러가지 양식(樣式)으로 체계(體系)에 대해서 중압(重壓)을 가(加)한다.

첫째로, 지지(支持) 없이는 권위당국자(權威當局者)들은 대중(大衆)의 제요구(諸要求)를 제 산출(諸產出)으로 처리(處理)할 수 없다.

둘째로, 지지(支持) 없이는 제요구(諸要求)를 제 산출(諸產出)으로 변환(變換)시키는 제(諸) 「무울」과 구조(構造)에 있어서 각종(各種)의 안정성(安定性)을 확보(確保)할 수 없다.

셋째로, 지지(支持)는 「멤버」들 안에 있어서 최소한(最小限)의 결집력(結集力)을 유지(維持)하기 위해서 중요(重要)하다. 만일 권위당국자(權威當局者)들이 강제력(強制力) 없이도 그들의 제결정(諸決定)을 구속적(拘束的)인 것으로 수용(受容)하도록 할 수 있다면 단합력(團合力)이 권위당국자(權威當局者)들의 주위(周圍)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능(機能)하고 있는 체계(體系) 안의 주요측면(主要側面)을 위요(圍繞)해서 발전(發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형태(形態)의 체계(體系)에 있어서든 간에 지지(支持)의 유입(流入)이 최근(最近)의 한계점(限界點) 이하(以下)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체계(體系)의 기능(機能)을 위협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소극적(消極的) 지지(支持)라고 부른다. 지자(持者)들의 함수(函數)라고 지적되고 있다. 체계(體系)의 대부분(大部分)이 「멤버」들의 측(側)에서 지지(支持)의 정도(程度)는 집합적(集合的)으로 고려(考慮)한다면 매우 낮으므로 소수(少數)의 열정적(熱情的) 감정(感情)이 다수(多數)의 목적(目的)없는 감정(感情)보다도 훨씬 더 중요(重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체계(體系)를 가동(加動)시키기 에 양적(量的)으로 충분(充分)한 지지적(支持的) 에너지가 소수(少數)에 의해서 도출(導出)된다는 것이다. 특(特)히 활동적(活動的)인 정치적(政治的) 엘리트, 군간부(軍幹部) 또는 조직화(組織化)된 인텔리와 같은 소수(少數)의 유력(有力)한 「멤버」들의 적극적(積極的) 및 소극적(消極的) 지지(支持)가 비조직적(非組織的) 대중(大衆)으로부터의 지지(支持) 높은 수준(水準)보다도 더 중요(重要)한 것이다. 체계(體系)의 유지(維持)나 또는 변화(變化)의 관점(觀點)에서 볼 때 집단(集團)의 효율적(效率的) 도구(道具)를 지지적(支持的) 투입(投入)이 없어서는 아니 될 부분(部分)이라고 명확(明確)히 할 필요(必要)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어떠한 체계(體系)도 일정(一定)한 수준(水準)의 가동력 또는 투입(投入)과 산출(產出)이라는 기본적(基本的) 변환능력(變換能力)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정치체계(政治體系)가 급변(急變)하는 환경(環境) 속에서 폭주(輻輳)하는 중압(重壓)과 이에 수반된 위기(危機)에서도 순조(順調)롭게 또는 다소(多少)의 기복(起伏)을 겪으면서도 지속적(持續的)으로 기능(機能)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체계(體系) 자체(自體)의 가동력과 적응능력

(適應能力)의 정도(程度)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문제(問題)는 체계(體系)가 여러가지 요구(要求)의 계속적 투입(投入)을 규제(規制)하거나 또는 충족(充足)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제기능(諸機能)의 강화(強化)에 의해서 체계(體系)의 지지(支持)를 지속적(持續的)으로 투입(投入)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체계(體系)가 이와 같이 지속적(持續的)으로 기능(機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체계(體系) 자체(自體)의 반응(反應)을 산출(產出)시키기 위한 가동력의 강화(強化)가 요구(要求) 된다. 그것은 대체로 체계내(體系內)의 두개(個)의 중심적(中心的) 과정(過程)에서 도출(導出)된다. 그

첫째는, 체계(體系)의 상태(狀態)와 그 환경(環境)에 대한 정보(情報)가 권위(權威) 당국자(當局者)들에게 전달(傳達)되어야 한다.

둘째는, 이에 의해서 체계(體系)는 체계(體系) 자체(自體)가 놓여 있는 주어진 조건(條件)을 변경(變更)하거나 또는 유지(維持)하도록 어떤 조치(措置)를 적절(適切)히 취(取)해야 한다. 체계(體系)는 스스로 행동(行動) 코오스를 수정(修正)할 수 있는 능력(能力)과 대응(對應)할 수 있는 가동력을 구비(具備)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능력(能力)의 결합적(結合的) 사용(使用)에 의해서 체계(體系)는 그 자체(自體)의 행동(行動)을 수정(修正)하거나 또는 재조정(再調整)함으로써 체계(體系)에 닥쳐오는 압력(壓力)을 신축성(伸縮性) 있게 규제(規制) 조정(調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체계(體系)의 적응능력(適應能力)(Adaptive Capacity)이라고 불리워 진다.

체계(體系)의 적응능력(適應能力)을 확보(確保)하기 위해서는 권위당국자(權威當局者)들은 환경(環境) 자체(自體)의 제조건(諸條件)에 대해서 면밀(綿密)히 확인(確認)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권위당국자(權威當局者)들은 지지수준(支持水準)의 저하(低下)로 이끌어갈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狀況)을 예기(豫期)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대비(對備)되어야 한다. 이것과 더불어 권위당국자(權威當局者)들은 성원(成員)들의 지지적(支持的) 심리상태(心理狀態), 그리고 특(特)히 정치적(政治的)으로 유력(有力)한 성원(成員)들이 제요구(諸要求)에 대한 정보(情報)를 획득하도록 노력(努力)해야 할 것이다. 성원(成員)들이 과연 체제(體制)에 대해서 묵종(默從)하고 있는지 또는 적극적(積極的)으로 충성(忠誠)을 다하고 있는지, 또는 정치적(政治的) 공동체(共同體)와 일체감(一體感)을 가지고 있는지 권위당국자(權威當局者)들은 확인(確認)해야 한다. 반대(反對)로 그들은 성원(成員)들 중에서 반체제적(反體制的)이거나 또는 어떤 종류의 불평(不平)과 불만(不滿)이 있는지도 확인(確認)하고 산출(產出)에도 변환(變換)하든지 아니며 적절(適切)히 규제(規制)해야 할 것이다.

결론(結論)

앞에서 지적(指摘)한 바와 같이 국민총화(國民總和)는 우리의 정치체계(政治體系) 유지(維持)에 있어서 가장 중대(重大)한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문제(問題)라고 하겠다. 국민총화(國民總和)는 단순(單純)히 성원(成員)들의 의견(意見)을 합치(合致)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성원(成員)들 간(間)의 유기적(有機的) 단결(團結)과 에너지의 동원(動員)에 의해서 정치체계(政治體系)의 가동력과 적응능력(適應能力)을 배가(倍加)시키는 필수조건(必須條件)이 되고 있다.

우리가 현재(現在) 직면(直面)하고 있는 환경(環境), 그리고 우리가 미래(未來)에 직면(直面)해야 할 환경(環境)은 결코 순탄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마치 거친 폭풍(暴風)과 파도(波濤)가 난무(亂舞)하는 망망 대해(大海)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무쌍(變化無雙)한 대해(大海)를 항해(航海)하고 있는 배가 바로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정치체제(政治體系)라고 비유(比喩)할 수 있다. 공동운명체(共同運命體)로서의 우리의 정치체제(政治體系)가 원만(圓滿)하게 항해(航海)를 계속하려면 체제(體系)의 구성분자(構成分子)들, 즉(卽) 성원(成員)들은 체제(體系)의 가동력을 발휘(發揮)시킬 뿐만 아니라 체제(體系) 자체(自體)의 안정(安定)을 유지(維持)해야 할 것이다. 체제(體系) 자체(自體)의 안정(安定)없이 체제(體系)의 가동력은 방향(方向)을 잃게 되고 그 기능(機能)조차 마비(麻痺)되게 마련이다. 만일 추호라도 체제(體系)의 가동력이 마비(麻痺)되거나 또는 그것이 저하(低下)된다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침투(浸透)해 올 소지(素地)를 제공(提供)해 주는 결과(結果)가 되며, 그들의 판단(判斷)으로는 소위(所謂) 공산혁명(共產革命)의 성숙기(成熟期)라고 여겨지게 된다.

우리의 정치체제(政治體系)가 안정(安定)된 상태(狀態)에서 기능(機能)하게 된다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온갖 음모(陰謀)와 책동(策動)은 무위(無爲)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제(體系)의 모든 성원(成員)들이 정치체제(政治體系)의 유지(維持)와 그 기능(機能)의 강화(強化)를 위해서 그들의 지지(支持)를 최대화(最大化)하도록 합의점(合意點)을 조속(早速)히 채구(採求)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지(支持)는 성원(成員)들의 일방적(一方的) 노력(努力)에 의한 것이 아니며 권위당국자(權威當局者)들에 의한 본질적(本質的) 기능(機能)의 수행(遂行)에 의지(依支)하고 있다. 정치체제(政治體系)의 권위적(權威的) 배분기능(配分機能)이 원활(圓滑)하게 수행(遂行)되는 한(限) 특수지지(特殊支持)와 보다 장기적(長期的)으로 보아 분산지지(分散支持)도 산출(產出)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기능(機能)이 지속(持續)될 때 권위당국자(權威當局者)들의 정통성(正統性)이 확립(確立) 내지(乃至) 유지(維持)될 수 있으며 결국(結局) 체제(體系)는 장기(長期)에 걸쳐서 안정(安定)을 확립(確立)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에 의한 적화야욕(赤化野慾)이 완전(完全)히 봉쇄(封鎖)될 수 있다. 국민총화(國民總和)는 바로 이러한 목표(目標)를 달성(達成)함에 있어서 불가결(不可缺)의 요건(要件)임을 강조(強調)하게 된다. 수많은 성원(成員)들의 제요구(諸要求)와 그들의 선호(選好)가 상이(相異)할진대 우리는 모름지기 단합(團合) 속에서 다양성(多樣性)(Diversity in Unit)을 유지(維持)하도록 기도(企圖)할 때 정치체제(政治體系)의 가동력과 적응능력(適應能力)을 발휘(發揮)할 수 있게 된다.

◇ 박 대통령 각하 말씀중에서 ◇

경제자립과 자주국방, 그것은 실로 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이며 통일의 지름길이며 5천만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는 중흥의 길이 될 것이다.

최근(最近) 북괴(北傀) 정치(政治) 외교(外交) 동향(動向)

예년(例年)과는 달리 북괴(北傀)는 전선도발(前線挑發)을 자제(自制)하여 이른바 그들 「평화(平和)」노력(努力)에 대(對)한 미국(美國)의 신뢰(信賴)를 유도(誘導)함으로써 철군(撤軍)을 촉진(促進)시키고자 기도(企圖)하고 있다.

〈내외통신(內外通信) 주간(主幹)〉

김태서(金泰瑞)

1. 서언(序言)

최근(最近) 북괴(北傀)의 정치외교(政治外交)는 중대(重大)한 전환기적(轉換期的) 국면(局面)을 맞이하고 있다.

1970년대(年代) 초반(初半)에 북괴(北傀)는 동서해빙(東西解氷)추세와 전후체제(戰後體制) 탈피(脫皮)를 위한 강대국간(強大國間) 세력(勢力) 재편(再編), 그리고 제(第)4차(次) 중동전(中東戰)(73.10)의 여파(餘波)를 탄 제(第)3세계(世界)의 반서방(反西方) 결속(結束) 강화등(強化等)에 편승(便乘), 평화지향적(平和指向的) 자세(姿勢)와 대(對)3세계유대명분(世界紐帶名分)을 내걸고 외교진출(外交進出)을 적극화(積極化)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通)해 반미(反美), 반한연합(反韓聯合) 전선(戰線)을 시도(試圖)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年代) 중반기(中半期)로 들어서면서 종전(從前)의 미(美)·일대(日對) 중공(中共) 대(對) 소련의 도식(圖式)이 미(美)·일(日)·중공(中共) 대(對) 소련으로 변모(變貌)하면서 동서진영(東西陣營) 개념(概念)이 퇴색(褪色)되는 한편(便) 제(第)3세계(世界) 국가(國家)의 경제문제(經濟問題) 중시(重視) 경향(傾向)이 명백(明白)해짐에 따라 이념(理念), 명분외교(名分外交)는 한계(限界)에 이르러 국제진출(國際進出)이 둔화(鈍化)되고 대한(對韓)·미(美) 국제전선(國際戰線) 형성노력(形成努力)은 좌절(挫折)에 직면(直面)하게 되었다.

2. 대(對) 중(中)·소관계(關係)

북괴(北傀)와 중(中)·소간(間)은 동일(同一)한 세계공산화(世界共產化) 목표(目標) 아래 기본동맹관계(基本同盟關係)를 견지(堅持)하고 있다.

때문에 77.5~6간(間) 각각(各各) 북괴(北傀)를 방문(訪問)한 중공(中共) 신강군구사령관(新疆軍區司令官) 양용(楊勇)이 유사시(有事時) 공동(共同)의 전호(戰壕)에서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고 또한 소련 최고(最高) 간부회(幹部會) 부의장(副議長) 「길라 시비리」가 북괴통일로선(北傀統一路線)을 지지(支持)하는 등, 기본관계(基本關係)의 불변(不變)함을 강조(強調)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중공(中共), 소련의 대북괴(對北傀) 관계(關係)가 장기적(長期的) 내지(乃至) 전략적(戰略的)으로는 절대확고(絕對確固)하나 단기적(短期的) 내지(乃至) 전술적(戰術的)으로 볼 때는 이들 각자(各自)의 당면(當面) 이익추구방향(利益追求方向)의 상이(相異)로 인(因)해 매사(每事)에 공동보조(共同步調)를 취(取)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북괴(北傀)는 대중(對中)·소 등거리(等距離) 정책하(政策下) 실리추구(實利追求)에 주력(注力)하는 것이며, 중(中)·소 또한 자기(自己)의 세계정책(世界政策) 및 강대국(強大國) 정책(政策)을 우선(優先)하면서도 북괴(北傀)가 타방(他方)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견제(牽制)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괴(北傀)·중공(中共)·소련간(間)의 당면전술상(當面戰術上) 상이점(相異點)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괴(北傀)는 공산주의(共產主義) 진영(陣營)의 단결(團結)을 공고화해야 한하는데 대(對)해 중공(中共)은 오늘날 세계(世界)는 미(美)·소 양패(兩霸)와 세계인민간(世界人民間)의 모순(矛盾)과 중소국가(中小國家)가 연합(聯合)하여 미(美)·소와 투쟁(鬭爭)하는 모순(矛盾)이 있다고 하여 공산주의 진영(共產主義陣營)이 없다(71.12. 주은래(周恩來)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북괴(北傀)가 적화통일(赤化統一)과 미군조기철수(美軍早期撤收)를 긴급과제(緊急課題)로 보는데 대(對)해 중공(中共)은 현상유지(現狀維持)가 좋으며 미군주둔(美軍駐屯)을 일관(一貫)한 외교방침(外交方針)으로 반대(反對)하지만 탄력적(彈力的) 책략(策略)의 운용(運用)으로서는 잔류(殘留) 계속을 지지(支持)한다 (76.8. 중공당(中共黨) 대외연락부장(對外連絡部長)는 태도(態度)이다.

또한 북괴(北傀)는 아주탁구대회시(亞洲卓球大會時) 「반제(反帝)」를 제기(提起)치 않는 것은 수정주의(修正主義)라고 한데 대(對)해 중공(中共)은 이를 묵살(默殺), 「제일(第一)의 전우(戰友)로서 북괴(北傀)를 지지(支持)하고 대동(大同)을 구(求)하나 소이(小異)는 남겨두며…… 월맹(越盟)이 낡은 북경(北京) 방문(訪問) 수락(受諾)을 이해(理解)치 못하면 천천히 설득(說得)하면 된다」고 하여 「반제(反帝)」보다는 소련 반대(反對)에 더 비중(比重)을 두고 있다.

물론(勿論) 중공(中共)의 연미항(聯美抗)소 정책(政策)이 북방(北方)으로부터의 압력(壓力)을 막기 위(爲)해 미국(美國)과 손잡으며, 동(同) 압력(壓力)을 어느 정도(程度) 극복(克服)할 경우(境遇) 그간(間) 대(對)소 대항(對抗)에서 피로해진 미국(美國)을 격파(擊破)코자 하는 기도(企圖)임을 도외시(度外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 북괴(北傀) 소련간(間)의 당면전술상(當面戰術上) 상이점(相異點)으로서 북괴(北傀)는 공산주의진영내부(共產主義陣營內部)의 독자노선(獨自路線)을 채택하고 있는데 대(對)해 소련은 동구(東歐)의 탈(脫)소 억제(抑制) 및 유로코뮤니즘을 견제(牽制)하는데 시사(示唆)되는 바 같이 독자노선(獨自路線)에 제한(制限)을 가(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괴(北傀)가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와 대남적화(對南赤化)의 직결(直結)을 기도(企圖)하고 있는데 대(對)해 소련은 미군철수(美軍撤收)를 촉구(促求)하고는 있으나 최소한(最小限) 대중공포위(對中共包圍), 대아주제패(對亞洲制霸)를 촉진(促進)할 때까지는 현상인정(現狀認定)태도를

분명(分明)히(73.9.그로미코) 하고 있다. .

이상(以上)과 같은 전술상(戰術上)의 차이(差異)로 인(因)해 북괴(北傀)의 대중(對中)·소 실리(實利) 추구(追求) 노력(努力)은 일정(一定)한 한계(限界)가 있게 마련이다. 북괴(北傀)의 대중공(對中共) 무역(貿易)은 71~75년간(年間) 계속 증가일로(增加一路)에 있었으나 76년(年) 이래(以來) 쌍방간(雙方間) 약정(約定)한 무역계획(貿易計劃)의 40~20%나 감소(減少)되고 중공(中共)으로부터의 군사장비지원(軍事裝備支援) 역시(亦是) 70년대(年代) 전반기간(前半期間)을 상회(上廻)치 못하고 있으며, 특(特)히 76.10. 화국봉체제(華國鋒體制) 등장(登場) 이후(以後) 북괴(北傀)는 중공(中共) 실용주의노선(實用主義路線)의 유입(流入)을 경계(警戒)하고 있는 처지(處地)이다.

한편(便) 북괴(北傀)의 대(對)소무역(貿易) 역시(亦是) 76년(年) 이후(以後) 감소(減少) 추세에 있고 박성철(朴成哲)의 방(訪)소(77.1. 「구나에프」 소련당정치국원(黨政治局員)의 방북(訪北)(78.1) 등에도 불구하고 소련으로부터의 경제(經濟) 지원(支援)은 미미(微微)하며 군사원조(軍事援助)마저 격감(激減)되어 가고 있고 또한 북괴(北傀)는 그들 외교진출(外交進出)에 장애(障礙)를 조성(造成)하는 소련의 대중동아(對中東阿) 「지배(支配) 주의(主義)」성향(性向)을 경계(警驚)하고 있는 상태(狀態)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술적(戰術的) 내지(乃至) 단기적(短期的) 이해상충(利害相衝)에도 불구하고 하고 북괴(北傀)는 중(中)·소로부터 경쟁적(競爭的) 지원(支援)을 획득할 수 있는 지경학적(地政學的) 위치(位置)와 기본연대(基本連帶) 관계(關係)에 놓여 있다는 사실(事實), 그리고 당면(當面)하게는 일(日)·중공(中共) 평화조약(平和條約) 체결시(時) 소련의 대북괴(對北傀) 밀착가능성(密着可能性) 또는 소련이 북괴(北傀)를 이용(利用)한 다각적(多角的) 정세조작가능성(情勢造作可能性)등이 있다는 점(點)을 소홀(疎忽)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3. 대비동맹외교(對非同盟外交)

북괴(北傀)는 비동맹제국(非同盟諸國)을 포함한 제(第)3세계(世界) 국가(國家)들과의 관계(關係)를 강화(強化)함에 있어 중동(中東)·아(阿)의 반(反)「시오니즘」과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 및 동남아국가(東南亞國家)의 중립화경향(中立化傾向) 내지(乃至) 친중공(親中共) 접근(接近)추세, 그리고 중남미(中南美) 제국(諸國)의 미국(美國) 경제지배(經濟支配) 탈피(脫皮) 노력(努力) 등에 편승(便乘)하여왔다. 이리하여 특(特)히 1972~75년간(年間) 38개(個)의 제(第)3세계국가(世界國家)와 정치적(政治的) 관계(關係)를 발전(發展)시키는 외교신장(外交伸張) (기간중(期間中) 한국(韓國)은 11개국가(個國家)을 나타냈다.

북괴(北傀)는 이같은 추세(趨勢)에 따라 75.8. 「리마」에서 개최(開催)된 비동맹국가외상회의(非同盟國家外相會議)에 가입(加入)을 했고 그 여세(餘勢)를 몰아 제(第)30차(次) UN 총회(總會)(75.11)에서 한반도(韓半島) 문제에 관한 공산측(共產側)을 서방측안(西方側案)과 함께 통과(通過)시키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976년(年) 8월(月)에 개최(開催)된 「스리랑카」 비동맹(非同盟) 정상(頂上) 제(第)5차회의(次會議)에서는 25개국(個國)의 반대(反對) 내지(乃至) 유보(留保) 속에 북괴 지지결의안(北傀支持決議案)이 겨우 통과(通過)되는 위축상(萎縮相)을 나타냈고 77.4. 인도(印度)에서 개최(開催)된 비동맹조정부외상회의(非同盟調整委外相會議)에서는 지난 5차정상회의(次頂上會議)의 북괴지지결의안내용(北傀支持決議案內容)을 사실상(事實上) 완화(緩和)시켜 반한(反韓), 반미(反美)를 크게 약화(弱化)케 하였다.

이같이 북괴(北傀)에 대(對)한 비동맹국가(非同盟國家)로부터의 절대적(絶對的) 지지(支持)가 76년(年)부터 점차(漸次) 퇴조(退潮)되는 것과 함께 이제는 오히려 한국(韓國)의 대(對) 비동맹국가(非同盟國家) 진출(進出)이 북괴(北傀)의 그것보다 증가(增加)되는 현상(現狀)을 나타내기 시작(始作)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북괴(北傀)는 비동맹권(非同盟圈)에 대(對)한 기존외교기반(既存外交基盤)을 고수(固守)하면서 이들 국가(國家)에의 한국침투(韓國浸透)를 견제(牽制)코자 하는 정책(政策)으로 전환(轉換)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원인(原因)은 제(第)3세계국가(世界國家)들의 경제문제(經濟問題) 중시경향(重視傾向)과 중동아지역(中東阿地域)에 대(對)한 미(美)·중(中)·소 등 강대국(強大國)의 쟁탈전(爭奪戰)이 치열화(熾烈化)함으로써 이념적(理念的) 결속(結束)이 무실화(無實化)되어 가는 데다 주한미군(駐韓美軍)의 단계적(段階的) 철군(撤軍)에 따른 이른바 반한(反韓), 반미(反美) 위주(爲主)의 반제통일전선(反帝統一戰線) 명분(名分)의 약화(弱化) 및 한국(韓國) 국력신장(國力伸張)으로 인(因)한 대북경제적(對北經濟的) 우위(優位)가 투영(投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괴(北傀)가 제(第)3세계국가(世界國家)임을 공언(公言)(73.2)하면서 이들 국가(國家)의 지지하(支持下), UN에서 표대결(票對決)로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를 결의(決議)케 하는 한편(便) 한국(韓國)을 국제적(國際的)으로 고립화(孤立化)시켜 이른바 국제혁명지원역량(國際革命支援力量)을 결정적(決定的)으로 강화(強化)하려던 외교공세(外交攻勢)는 벽(壁)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나 북괴(北傀)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대(對)3세계외교정책(世界外交政策)을 전환(轉換)하면서도 대한(對韓) 우위(優位)를 견지(堅持)코자 광분(狂奔)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北傀)는 77년간간중(年期間中) 23개(個) 비동맹국가(非同盟國家) 주재(駐在) 공관장(公館長)을 교체(交替)하여 해외공관(海外公館)을 대폭(大幅) 재정비(再整備)하면서 13명(名)의 외교실무전문가(外交實務專門家)를 대폭(大幅) 기용(起用)하는 일방(一方) 「가이아나」, 「소말리」, 「우고」, 「적도(赤道)기네」 등(等) 9개국(個國)의 원수(元首)를 초청(招請)하고 박성철(朴成哲), 허담(許談) 등 13개(個) 고위대표단(高位代表團)을 파견(派遣), 유대(紐帶) 공고화에 주력(注力)했다.

이와함께 비동맹세력(非同盟勢力)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浮刻), 이들에게 영합(迎合)코자 중립국가(中立國家)에 대(對)한 강대국(強大國) 지배주의(支配主義)를 반대(反對)한다고 성명(聲明)하는가 하면 금년(今年) 가을 평양(平壤)에서 비동맹국(非同盟國) 경제문제(經濟問題) 「심포지움」을 개최(開催)기로 하는 등 영향력(影響力) 강화(強化)를 기도(企圖)하고 있다. 또한 한국(韓國)이 경제진출(經濟進出)을 바탕으로 중동아국가(中東阿國家)에 외교관계(外交關係)를 설정(設定)하고 있는 사실(事實)에 자극받아 그들은 최초(最初) 「리비아」의 주택건설(住宅建設)을 수주(受注)(600만불(萬弗) 상당(相當))하고 도로(道路)건설과 농지(農地)개간 교섭(交涉)을 하며 「쿠웨이트」에 항만(港灣)건설 등을 제의(提議)하는 등 용역수출(用役輸出)을 적극화(積極化)할 자세(姿勢)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북괴(北傀)는 세계경제(世界經濟)와 UN에 변혁(變革)을 가져온 제(第)4차중동전쟁(次中東戰爭) (73.10)과 같은 충격적(衝擊的) 사태(事態)가 도래(到來)하지 않는 한(限) 중동아제국(中東阿諸國)에 대(對)한 남북한외교경쟁(南北韓外交競爭)이 주(主)로 경제(經濟) 외교(外交)에 의(依)해 결판(決判)내리라는 것을 십분인식(十分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대(對)UN동향(動向)

북괴(北傀)의 대(對) UN 정책기조(政策基調)는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와 미국(美國)의 한반

도(韓半島) 개입명분(介入名分) 말소(抹消)를 결의(決議)케 함으로써 통일문제(統一問題)의 민족내부문제화(民族內部問題化)를 위(爲)한 국제적(國際的) 여건(與件)을 조성(造成)하는데 있는 만큼 한반도(韓半島)를 위요한 국제력학관계(國際力學關係)와 한(韓)·미(美)의 전략(戰略)을 상대(相對)로 해야 하고 UN에 의해 민족내부(民族內部) 문제화(問題化)의 국제적(國際的) 공인(公認)을 얻을 때까지 전개(展開)해야 할 필연성(必然性)을 안고 있는 것이다.

환언(換言)하면 UN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를 결의(決議)케 할 뿐만 아니라 UN군(軍)의 이름으로 6.25참전(參戰)을 했던 합법성(合法性)을 무실화(無實化)시킴으로써 한(韓)·미 공동방위체제(美共同防衛體制)를 약화(弱化)시키게 하여야만 그들이 주장(主張)하는 이른바 외세(外勢)의 간섭(干涉)없이 남북한간(南北韓間)(민족내부(民族內部))에 적화통일문제(赤化統一問題)를 처리할수 있게 국제적(國際的)으로 공인(公認)토록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괴(北傀)는 대(對)UN정책(政策)에 있어 미군철수(美軍撤收)를 기본(基本)으로 하는 상기(上記) 국제적(國際的) 공인노력(公認努力)을 소위(所謂) 「조선(朝鮮)에 관(關)한 문제(問題)」로서 제기(提起)하여 왔고 이른바 민족내부(民族內部) 문제화(問題化)에 의해 통일(統一)을 달성(達成)하려는 「조선문제(朝鮮問題)」 즉 (卽) 통일문제(統一問題)는 결(決)코 UN에서 운위(云謂)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괴(北傀)는 특(特)히 70년대(年代)에 들어 그 간(間) UN무대(舞臺)에 진출(進出)한 다수(多數) 비동맹국가(非同盟國家)와의 연대(連帶)를 기반(基盤)으로 「한반도(韓半島)의 자주적(自主的) 평화통일(平和統一)의 촉진(促進)을 위(爲)한 유리(有利)한 제여건조성(諸與件造成)」이라는 「알제리」안(案)을 제시(提示)한 27차총회(次總會)(1972년(年))부터 본격적(本格的) 대결자세(對決姿勢)로 나왔다.

73년(年)에 북괴(北傀)가 UN에 「옴저버」로 진출(進出)했고 아측(我側)이 74년(年)의 29차(次) 총회(總會)를 앞두고 「언커크」를 자진해체(自進解體)하는 전환기적(轉換期的) 국면(局面)에 처(處)해서 서방측(西方側)은 UN특수문제(特殊問題)와 휴전효력유지(休戰効力維持)의 대안(代案)마련을 내걸었고 공산측(共產側)은 UN기하(旗下)의 외군철수(外軍撤收) 및 모든 외군(外軍)의 철수(撤收)를 주장(主張)하였다. 그리고 북괴(北傀)는 방위조약(防衛條約)에 의한 미군주둔(美軍駐屯)을 명백(明白)히 하는 한미측(韓美側)에 대항(對抗)하여 대미평화협정(對美平和協定)으로 맞서는 사태(事態)로 진전(進展)하였다.

이같은 상황하(狀況下)에 29차총회(次總會)(74.12)의 한국문제(韓國問題) 표대결(票對決)에 이어 75.11. 30차(次) UN 총회(總會)에서는 그해 8월(月)의 「리마」 비동맹외상(非同盟外相)의 여세(餘勢)를 몰아 쌍방안(雙方案)이 동시(同時) 통과(通過)되는 이변(異變)을 낳았다.

따라서 북괴(北傀)는 그 다음 해인 76년(年)의 31차(次) UN총회(總會)를 표(票)의 대서방우위(對西方優位) 내지(乃至) 일방적(一方的) 통과(通過)로서 마무리 짓고자 총력(總力)을 경주(傾注)케 되었다.

아측(我側)은 이 같은 30차총회(次總會) 전후(前後)와 31차(次) 총사(總務)를 앞둔 대결사태(對決事態)에 직면(直面), 기본전략방향(基本戰略方向)을 대결(對決)회피 및 UN 밖에서의 논의(論議)의 필요성(必要性)을 의식화(意識化)시키는데 두고 한반도(韓半島) 평화정착(平和定着)을 바탕으로 현상인정(現狀認定)을 지향(指向)하는데 기여(寄與)토록 촉구(促求)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전협정대안(休戰協定代案)마련과 함께 UNC를 해체(解體)하며 이를 위(爲)한 직접(直接) 당사자(當事者) 협의(協議)를 제시(提示)하고 남북한(南北韓) UN동시가입(同時加入)과 교차승인(交叉承認)을 비롯 사자회담(四者會談)과 그 확대회의(擴大會議)를 골자(骨子)로 하는 휴전효력 유지(休戰効力 維持) 문제를 제안(提案)(75.9. 키신저)하는 일방(一方) 한(韓)·미(美)가 중심(中心)이 되어 30차총회시(次總會時)

공산측(共產側) 안(案)에 동조(同調)했던 일부(一部) 중립국가(中立國家)에 강력(強力)한 외교(外交) 공세(攻勢)를 전개(展開)했다.

이와 반면(反面) 북괴(北傀)는 실효성(實効性) 없는 UN대결(對決)에 회의를 느끼는 루마니아, 유고 등 일부(一部) 동구공산국가(東歐共產國家)와 중(中)·소의 대북괴(對北傀) 지지(支持) 태도(態度)의 소극화(消極化) 그리고 북괴지지원(北傀支持一部)·비동맹국가(非同盟國家)의 기피경향(忌避傾向) 등을 의식(意識), 76.8.5. 전선총격도발(前線銃擊挑發)과 함께 한(韓)·미측(美側)이 북침전쟁(北侵戰爭)을 야기(惹起)하는 단계(段階)에 이르렀다는 성명(聲明)을 발표(發表)하고 8.18 판문점(板門店) 도끼만행(蠻行)을 저지르는 등 스리랑카 비동맹정상회의(非同盟頂上會議)와 UN을 겨냥한 광적(狂的) 전략(戰略)을 전개(展開)했다.

그러나 기(既)히 언급(言及)한 바 있는 일부(一部) 비동맹국가(非同盟國家)의 대북괴(對北傀) 이탈(離脫)과 일부(一部) 공산국가(共產國家)의 소극적(消極的) 태도로 인(因)해 31차(次) UN총회(總會)의 대결(對決)에서는 승산(勝算)을 전망(展望)한 수 없어 자진철회(自進撤回)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괴(北傀)는 쌍방안(雙方案)이 동시(同時) 통과(通過)된 30차(次) 총회(總會) 결의(決議)를 명분(名分)으로 보전(保全)하면서 그들에게 유리(有利)한 상황도래(狀況到來)를 대기(待機)해야 할 입장(立場)으로 되었는데 지난 32차총회(次總會)(77년(年))에도 그들 안(案)을 제출(提出)치 못한 것을 보면 앞으로 국제정세(國際情勢)에 급격(急激)한 변화(變化)가 없는 한(限) 금년도(今年度) UN대결(對決)도 기도(企圖)치 못할 것이 명백(明白)해지고 있다. 이같은 전반적(全般的) 최근(最近) 경위(經緯)는 북괴(北傀)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問題點)을 제기(提起)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美國)이 단계적(段階的) 철군정책(撤軍政策)을 분명(分明)히 하고 있는 이때 UN대결(對決)로서 조기철군(早期撤軍)을 결의(決議)케 하려는 노력(努力)이 국제적(國際的) 공감(共感)을 유도(誘導)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UN결의(決議)로서 실사(設使) 민족내부문제화(民族內部問題化)의 국제적(國際的) 공인(公認)을 촉구(促求)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南)·북방삼각관계(北方三角關係)의 균형유지(均衡維持) 내지(乃至) 철군보완(撤軍補完) 조치(措置)(한국(韓國) 군강화(軍強化)) 등을 기(期)하려는 강대국(強大國)(미국(美國)) 정책(政策)을 억제(抑制)시킬 수는 없는 추세(趨勢)이다. 이것은 북괴(北傀)로 하여금 UN에서의 승리(勝利)보다는 주변강대국(周邊強大國) 관계(關係)에서의 자신(自身)의 승리(勝利)가 이른바 국제혁명지원역량(國際革命支援力量)을 강화(強化)하는 것 못지 않게 중대(重大)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모(變貌)되어 가는 비동맹중립국가(非同盟中立國家)들의 성향(性向)을 감안(勘案), 이들과의 유대(紐帶)를 여하(如何)히 계속 유지(維持) 강화(強化)하면서 한국(韓國)의 역공(逆攻)을 견제(牽制)토록 하느냐 하는 문제(問題)에 직면(直面)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북괴(北傀)는 지난 2.1 남북한(南北韓) UN동시가입(同時加入) 및 교차승인(交叉承認) 반대(反對) 골자(骨子)로 비망록(備忘錄)을 발표(發表)하고 부주석(副主席) 박성철(朴成哲)로 하여금 그들을 지지(支持)해온 비동맹국가(非同盟國家)인 남(南)예멘, 잠비아, 탄자니아 등(等) 중동아국가(中東阿國家) 설득(說得) 외교(外交)에 나서는 등 자체(自體) 전열유지(戰列維持)를 위(爲)한 방어적(防禦的) 외교행각(外交行脚)에 주력(注力)하고 있는 것이다.

5. 대미(對美)·일관계(日關係)

북괴(北傀)의 대(對) 미(美)·일관계(日關係) 촉진정책(促進政策)은 북방삼각동맹(北方三角同盟) 관

계(關係)대(對) 중(中)·소를 유지(維持)하며 이를 훼손치 않는 한도내(限度內)에서 인민외교(人民外交)를 전개(展開), 이들의 대한관계이완(對韓關係弛緩) 및 남방삼각관계(南方三角關係)의 모순(矛盾)을 확대(擴大)시키는데 목표(目標)를 두고 있다. 이를 위(爲)해 대(對) 미(美)·일(日) 현안문제(懸案問題)를 제기(提起)하며 또한 이에 대(對)한 관심(關心)과 동조(同調)를 촉구(促求)하면서 단계적(段階的)으로 목표접근(目標接近) 노력(努力)을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대미관계(對美關係)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를 포함, 한미(韓美) 안보(安保) 유대를 취약화(脆弱化)시키는 문제(問題)에 초점(焦點)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북괴(北傀)는 파리평화협정(巴里平和協定)(73.1)에 의한 월남(越南)에서의 미군철수(美軍撤收) 및 한국(韓國)의 불가침협정제의(不可侵協定提議)(74.1) 등을 의식(意識), 종전(從前)까지의 한국상대(韓國相對) 대미평화협정(對美平和協定) 제의를 대미평화협정(對美平和協定)으로 변형(變形)시켜 제의(提議)(74.3)하고 나섰다.

북괴(北傀)는 「싸우던 월남(越南)에서도 평화협정(平和協定)이 체결되었는데 정전협정(停戰協定)이 된지 20년(年)이 지난 지금 미국(美國)과 평화협정(平和協定)을 체결 못할 이유(理由)가 없다.」 운운(云云)하면서 75년(年)의 30차(次) UN총회(總會)에 대미평화협정(對美平和協定) 문제를 담은 공산측(共產側) 결의안(決議案)을 내놓은 바 있었다. 그리고 김일성(金日成)은 「카터」가 당선(當選)되자 「부토」 「파키스탄」수상(首相)을 통(通)해 당선축하서신(當選祝賀書信)(76.12)을 보냈고, 그의 집권직후(執權直後) 「부토」수상(首相)(77.2), 「봉고」대통령(大統領)(77.2), 「티토」대통령(大統領)(77.8)을 통(通)해 대미평화협정(對美平和協定)을 포함한 한반도평화(韓半島平和) 유지문제(維持問題)의 논의용의(論議用意) 있음을 간접적(間接的)으로 제의(提議)하였다.

이렇듯 북괴(北傀)가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 및 한(韓)·미(美) 안보유대약화(安保紐帶弱化)를 겨냥하여 제일단계(第一段階)로 대미접촉(對美接觸) 통로(通路)를 마련코자 책동(策動)하고 있는데 대(對)해 「카터」는 미수교(未修交) 14개국(個國)과의 관계개선검토(關係改善檢討)를 표명(表明)(77.2)하고 한국(韓國)을 참가(參加)시킨다면 대북(對北) 접촉용의(接觸用意)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77.6) 간접적(間接的)으로는 미(美)·북괴간(北傀間) 대화(對話)가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쌍방간(雙方間) 기본관점(基本觀點)에서는 아직도 커다란 거리(距離)가 있음을 엿보이게 하고 있다.

한편(便) 북괴(北傀)는 지난 9월(月) 「뉴욕」에서 비동맹국외상특별회의(非同盟國外相特別會議)가 개최(開催)되는 것을 기화(奇貨)로 외상(外相) 허영(許鏐)을 미국(美國)에 파견 한(韓)·미현안(美懸案) 등을 역용(逆用)한 대미(對美) 접근(接近)을 시도(試圖)코자 미국(美國)과의 선(先) 협상(協商), 후(後) 한국참여(韓國參與)를 주장(主張)하는 내용(內容)의 기자회견(記者會見)을 하는 등 탐색전(探索戰)을 벌였다. 또한 북괴(北傀)는 77년(年)부터 예년(例年)과는 달리 전선도발(前線挑發)을 자제(自制)하여 이른바 그들 「평화(平和)」노력(努力)에 대(對)한 미국(美國)의 신뢰(信賴)를 유도(誘導)함으로써 살군(撤軍)을 촉진(促進)시키고자 기도(企圖)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북괴(北傀)가 평화(平和)를 가장(假裝)코 대미접근(對美接近)을 적극(積極) 시도(試圖)하고 있는 것은 단계적(段階的) 미군살수정책(美軍撤收政策)과 관련(關聯) 미측(美側)이 한반도평화(韓半島平和) 설정(設定) 노력(努力) 과정(過程)에 당사자(當事者)의 일원(一員)인 북괴(北傀)를 상대(相對)치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點)을 감안(勘案)한 것으로, 이는 「카터」의 살군공약(撤軍公約)이 후퇴(後退)되지 않도록 저지(沮止)하는 가운데 대미평화협정(對美平和協定) 운운(云云)으로 살군촉진(撤軍促進)으로 유도(誘導)하려는 책략(策略)인 것이다.

다음 대일관계(對日關係)에서는 경제교류(經濟交流) 확대(擴大)에 의한 자본(資本) 및 기술도입(技術導入), 그리고 대남북(對南北)·한(韓) 등거리정책(等距離政策)을 유도(誘導)함으로써 한(韓)·일(日) 관계(關係)를 약화(弱化)시키려는데 초점(焦點)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북괴(北傀)는 일본(日本) 사회당(社會黨), 총평(總評) 등 좌익세력(左翼勢力)과 뉴대(紐帶)를 강화(強化)하여 경제(經濟), 문화(文化) 대표단(代表團)을 상호(相互) 교류(交流)하면서 「일(日)·조우호촉진의원연맹(朝友好促進議員聯盟)」등 108개(個)의 친북(親北), 반한(反韓) 단체(團體)로 하여금 대북괴관계개선촉구운동(對北傀關係改善促求運動) 및 한국비방활동(韓國誹謗活動)을 하도록 조정(調整)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교류면(經濟交流面)에서는 74년(年)까지의 급속(急速)한 확대(擴大)(대일(對日) 수출(輸出) 1억(億)900만불(萬弗), 수입(輸入) 2억(億) 5, 200만불(萬弗))을 고비로 연대(延帶) 등 신용(信用)추락으로 인(因)해 격감(激減)되기 시작(始作)했다.

이러한 추세하(趨勢下)에 북괴(北傀)는 일본(日本)으로 하여금 남북한(南北韓) 등거리외교(等距離外交)를 유도(誘導)케 하는 방책(方策)의 하나로 유리(有利)한 대일어업협정(對日漁業協定)을 체결케 하고자 75.9. 어선송생환(漁船松生丸) 총격사건(銃擊事件)을 저지르고 77.8.에는 이른바 경제군사(經濟軍事) 수역(水域)을 선포(宣布)하였다.

물론(勿論) 해상(海上)의 경제(經濟) 군사수역(軍事水域) 선포(宣布)가 서해(西海)5개도서(個島嶼)에 대(對)한 통제구실(統制口實) 강화(強化) 및 대미(對美)·일(日) 장기전략(長期戰略) 등의 포석(布石)이기는 하나 동수역내(同水域內)에서 일본(日本) 어선(漁船)의 활동(活動)을 규제(規制)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우선적(優先的)으로 일본정부(日本政府) 보증하(保證下) 민간어업(民間漁業) 협정(協定)을 유도하며 동수역내(同水域內)에서의 고급어(高級魚)를 어로(漁撈)하여 외화(外貨)획득 목적(目的)의 대일(對日) 수출(輸出)을 하려는 당면입장(當面立場)을 반영(反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日本)은 동수역내(同水域內)에서의 안전조업(安全操業) 및 어획량(漁獲量) 할당(割當)을 보장(保障)받고 어선(漁船) 및 어획장비(漁獲裝備)의 대북(對北) 수출(輸出)을 해야 할 입장(立場)에 있다. 아문든 북괴(北傀)로서는 지난 9월(月)의 쌍방민간어업(雙方民間漁業) 잠정합의서(暫定合意書)에 따라 76년말(年末)까지 종료(終了)된 민간(民間) 무역협정(貿易協定)이 금년(今年) 6월(月)까지 연장(延長)되었으므로 동연장기간(同延長期間)에 새로운 무역협정(貿易協定)을 체결하는데 주력(注力)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便) 북괴(北傀)는 일본(日本)의 재야(在野) 및 자민당내(自民黨內) 친북세력(親北勢力)의 대북관계(對北關係) 정상화(正常化) 주장(主張)에 편승(便乘)하여 최고(最高) 인민회의(人民會議) 대의원(代議員) 현준곡(玄峻極)(77.5), 여감부위원장(女監副委員長) 허정숙(許貞淑)(77.10), 직맹부위원장(職盟副委員長) 문병록(文炳錄)(77.12) 등(等) 정치인물(政治人物)을 방일(訪日)시켜 일본정부(日本政府)의 묵인하(默認下), 「주한미군살수(駐韓美軍撤收)와 일본(日本)의 대북괴(對北傀) 적대시정책(敵對視政策) 폐기」를 역설(力說)하는 정치활동(政治活動)을 전개(展開)함으로써 대일(對日) 접근(接近) 기반(基盤) 확대(擴大)에 부심(腐心)하였다.

이같은 북괴(北傀)의 책동(策動)과 일본(日本)의 태도(態度)로 볼 때 연체파동(延滯波動)에도 불구(不拘)하고 쌍방(雙方) 경제교류(經濟交流)는 저조상태(低調狀態)나마 지속(持續)될 것이며, 특(特)히 일본(日本)은 한국(韓國)의 강력(強力)한 반발(反撥)을 초래(招來)치 않는 범위내(範圍內)에서 대북괴(對北傀) 교류(交流)를 점진적(漸進的)으로 확대(擴大)시켜 영향력(影響力)을 행사(行使)하려고 할 것이다.

6. 결론(結論)

북괴(北傀)는 그들 배후세력(背後勢力)인 중(中)·소에 대(對)해 계속 등거리정책(等距離政策)을 고수(固守)하면서 경쟁적지원(競爭的支援)을 유도(誘導)코자 하는 일방(一方) 비동맹권(非同盟圈)과의 기존유대유지(既存紐帶維持)에 부심(腐心)하면서 대서방(對西方) 접근(接近)에 주력(注力)할 것이다.

대중(對中)·소 관계(關係)에서는 이들의 북괴(北傀) 통일정책(統一政策)에 대(對)한 지지(支持) 등 공동유대(共同紐帶) 견지(堅持)를 기초(基礎)로 당면(當面)한 제(第)2차(次) 7개년(個年) 경제계획(經濟計劃)(78~84) 수행(遂行)을 위(爲)한 경제원조(經濟援助) 획득과 신에장비수원노력(新銳裝備受援努力)에 역점(力點)을 둘 것이다.

비동맹권(非同盟圈)에 대(對)해서는 최근(最近) 「수단」, 「기네」 등 친북(親北) 세력(勢力)의 아국(我國)과의 수교(修交) 및 「자이레」, 「모리타니아」 등(等)의 대북관계(對北關係) 악화(惡化) 그리고 급진(急進)「아랍」, 「리비아」의 대한(對韓) 영사관계(領事關係) 설정(設定) 등을 의식, 선별적(選別的) 초청(招請)·방문외교(訪問外交)와 강대국(強大國) 개입(介入)의 중동아지역분쟁(中東阿地域紛爭)에서 중립적(中立的) 태도를 견지(堅持)하면서 용역(用役) 등 경제협력(經濟協力)을 강화(強化)함으로써 이들 나라에 대(對)한 한국(韓國)의 침투(浸透)를 견제(牽制)코자 할 것이다.

서구(西歐)에 대(對)해서는 차관(借款) 및 기술증입(技術增入)을 위(爲)한 경제외교(經濟外交)에 역점(力點)을 둘 것이나 문제(問題)가 되고 있다. 연체파동(延滯波動)을 감안(勘案) 신중(慎重)을 기(期)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對) 미(美)·일(日) 기존외교(既存外交) 책략(策略)도 지속(持續)할 것이다. 북괴외교(北傀外交)는 전반적(全般的)으로 76, 77년(年)을 고비로 하여 현실(現實), 유연로선(柔軟路線)으로 전환(轉換)되고 있으므로 78년도(年度)의 내외(內外) 정세(情勢)에 급격(急激)한 변화(變化)가 없는 한(限) 그들의 외교적(外交的) 대한공세(對韓攻勢)는 미약(微弱)할 것으로 전망(展望) 된다.

그러나 북괴(北傀)가 처(處)한 대내적(對內的) 고난(苦難)과 외교역량(外交力量)의 한계(限界) 및 실리추구(實利追求) 성과(成果)의 부진(不振) 그리고 대남책동성과(對南策動成果)의 태무(殆無) 등 지난 해까지의 그들 내외적(內外的) 압박가중상(逼迫加重相)을 감안(勘案)할 때 그들은 내외(內外) 여론(輿論)과 시각(視角)을 오도(誤導)케 할 획기적(劃期的)인 대외정책(對外政策) 선언(宣言)을 할 가능성(可能性)이 증대(增大)되고 있어 이에 대(對)한 대비책(對備策)을 사전(事前) 수립(樹立)해야 할 것이다.

한자 음과 뜻

기변지교(機變之巧) … 그때 그때에 따라 쓰는 교묘한 수단
기산지지(箕山之志) … 은둔하는 고결한 뜻
금정옥액(金精玉液) … 뛰어나게 효과있는 약
금독지행(禽犢之行) … 일가간에 생긴 음행(淫行)

<속담 풀이>

- 매굴 방자를 하였나 … 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두고 일컫는 말
- 망건 쓰자 파장 … 일이 늦어져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됨

한국정사(韓國正史)와 우리의 금지

자주(自主)를 향한 역사(歷史)의 계속적(繼續的)인 전진, 여기에서 우리는
5천년 우리들 역사(歷史), 어느 순간에도 끊이지를 않고 밝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주체성(主體性)이라는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서울대(大) 교수(教授)〉
최창규(崔昌圭)

1. 한민족(韓民族)이 찾아야 할 올바른 자기(自己) 모습

이 세상 어떠한 생명체(生命體)에게도 자기의 참모습이란 것은 있다. 말하자면 주체(主體)의 진면목(眞面目)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主體)도 자기의 참모습인 그 진면목(眞面目)을 잃을 때 주체(主體)로서의 가치는 언제나 그만큼 떨어지게 마련이다.

여기서 주체(主體)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지켜야 할 참 모습이란 것이 매우 소중하다.

우리는 한민족(韓民族)에다 4천년 이상을 살아 와서 오늘에 살아남았다. 그런데 우리는 4천년 이상을 바로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살아왔다.

우리들이 4천 3백 10년 이상을 이같이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살아오는 동안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한민족(韓民族)으로서 갖는 참된 자기 모습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일까? 위대한 것일까?

이것이 바로 5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찾으려는 민족적(民族的) 참모습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5천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쌓아온 우리들 한민족(韓民族)의 참모습, 이것을 일러 우리는 일단 여기서 한국정사(韓國正史)라 부르기로 한다. 실로 5천년이라는 긴 역사 그 자체 위에서 확인되어야 할 우리들의 정사(正史)의 모습, 우선 그 가까운 몇 가지 모습에서부터 살펴보자.

우리들에게는 가까운 금세기 초에 저 일제(日帝) 36년이라는 쓰라린 역사의 상처가 있었다. 그 당시 우리들 한민족(韓民族)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이요, 암흑이요 절망이었다.

비극과 암흑과 절망,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들 한민족(韓民族)의 모든 모습이지는 않았다. 만약 그것만이 우리들의 참모습 모두였다면 우리들의 역사는 이미 거기에서 끝났어야 했을 것이다. 이제 그 참모습 가운데 한 면만을 살펴 보자. 그것은 일제(日帝)의 암흑 가운데에서도 가장 처참했던 저 1910년대 말의 이야기이다.

즉 일제(日帝)는 총칼로써 이 땅을 짓밟은 다음(1910년) 즉시 저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과 같은 것을 벌여 10년에 걸친 이 나라 침략에 대한 기초자료들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그야말로 우리들 한민족(韓民族)의 운명은 이제 저 일제(日帝)가 내려치는 칼날을 받으며 요리되어야 하는 도마 위의 고기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같이 비극적인 절망 속에서도 우리들 한민족(韓民族)이 보인 뜨거운 참모습은 분명, 따로 있었다. 우리들 민족주의(民族主義)의 분기, 바로 저 3·1 대운동이었다.

「1919년 봄에 일어난 한국국민(韓國國民)의 평화적인 항일봉기는 세계적인 하나의 경이였다. 이제까지 세계(世界) 정치인들에게 무기력하게만 보여 온 한 나라가 아주 높은 수준의 영웅심을 발휘한 것이다.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예상했던 온갖 것, 즉 억눌리고 짓밟히는 온갖 고통을 견디어냈다.

한쪽이 감옥에 끌려 가면 다른 이들이 대신 그들 자리에 들어 섰고, 이들이 끌려 가면 또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일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고도 만약에 문명세계의 항의가 일본의 행동을 중지 시키지 못할 경우 더 많은 사람이 이 무서운 행렬에 가담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맥켄지, 「한국(韓國)의 독립운동(獨立運動)」).

이상은 당시 외국인이었던 캐나다의 선교사인 맥켄지의 눈에 비친 3·1 대운동 당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우리들이 찾아야만 할 우리들 참모습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외국인의 눈에까지도 이같이 비친 이러한 참모습들을 오늘날 우리들 한민족(韓民族)은 과연 얼마나 보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여기서 다시 한 번 그 현장을 살펴 보자.

「이제는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었다.

남자들 곁에는 여자들이 있었으며 어린애까지도 가담하였다. 아버지가 감옥으로 끌려갈 때 여섯살짜리 아들이 굳세고 꺾이지 말라고 아버지를 격려했으며 열 두살 먹은 소녀는 아예 자기도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앞의 책 「한국(韓國)의 독립운동(獨立運

動)」제15장).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 한 민족의 참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매켄지도 지적하였듯이 「결국 일본은 한국 민족을 동화하는데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는 한국(韓國) 민족주의(民族主義)의 승리였다.

과연 한국(韓國)의 민족주의(民族主義)는 저 무서운 일본의 제국주의(帝國主義)를 이겨냈다. 그것은 바로 한민족(韓民族)이 맨주먹으로 벌인 평화(平和)의 민족 운동이 저 무서운 일제의 총칼도 이겨낼 수 있었던 우리 한민족(韓民族)만의 참모습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2. 역사(歷史)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님

민족(民族)이 걸어온 자기 모습은 언제나 역사 속에 들어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역사를 통하여 자기의 참 모습을 찾게 된다.

민족(民族)의 참모습이 들어 있는 우리들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바로 민족(民族)의 가장 소중한 님으로 확인된다.

님과 헤어진 생명체가 불행하듯이 역사와 만나지 못하는 민족은 반드시 불행 하고, 님과 영원히 떨어진 생명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듯이 역사와 영원히 결별한 민족(民族)은 이 지구상에 살아 남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들 한민족(韓民族)은 우리의 소중한 님의 역사와 실로 서른 여섯해나, 강제로 떨어져 살아와야 했다. 일제(日帝) 36년 동안 이 겨레 역사의 주인(主人) 자리를 저들 일제가 빼앗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떨어진 우리의 역사의 님과 다시 만나야 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들의 참 모습들을 올바르게 다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렇게나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우리들 5천년 역사의 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아름다운 것일까? 삭막한 것일까?

그러나 이제 웬일인가? 우리들이 그렇게나 사모하며 만나고 싶어 바라본 우리들 역사의 님의 모습은 그것이 아름답거나 화사하지만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얼굴은 이리 할퀴고 저리 찢기어 한없이 이즈러지고 온 몸은 수도 없이 얻어 맞아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역사의 님은 어찌하여 그렇게나 많은 상처를 입어야 했을까? 그 상처는 도대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깊은 아픔을 남기고 있을까?

우리들은 이제까지 살아 오는 동안에 근 천년에 달하는 역사의 상처를 당하였다. 기록된 숫자만 가지고 보아도 그것은 931회에 달한다.

근 천년에 가까운 이 많은 상처들이 이제까지 우리들 역사의 고운 님의 모습을 한없이 때려서 그 머리 끝으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시퍼렇게 멍을 들여 놓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역사의 님의 모습은 그 같이 이즈러진 험한 상처의 모습만으로 결코 끝날 수는 없다. 거기에는 그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우리들이 분명히 찾을 수 있는 험찬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다.

한 마디로 이제까지 우리들 역사의 님을 꺾으려 밀어닥친 국난이란 상처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 많은 국난 가운데에서 우리들 한 민족이 궁극적으로 이겨내지 못한 국난과 상처가 단 한 번이라도 과연 있었는가?

수(隋)나라 수백만의 침략이 아무리 무서웠어도 우리의 역사는 총인구가 백여만 밖에 안 되는 고구려가 분명히 싸워 이기는 승리로 끝났고, 저 임나 7년전쟁이 아무리 쓰라렸어도 역사는 분명히 조선조가 그 7년을 끈질기게 싸워서 끝내 이겨내는 우리들 한민족(韓民族)의 승리로 끝났던 것이다.

여기서 1300년 전 우리들 역사의 참 모습은 수(隋)나라 수백만 침략군 앞에 시달리는 상처가 아니고 오히려 총인구가 2백만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도 무서운 침략군 수백 만을 이겨내던 찬란한 승리의 영광이며, 다시 여기서 근4백년 전 우리들 역사의 참모습은 7년 왜구 침략 앞에 온 강토가 짓밟히는 쓰라린 참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 무서운 참상 속에서도 우리들이 끝내 싸워서 이겨내는 장한 우리들 한민족(韓民族)의 승리며 영광인 것이다.

그렇기에 13세기 고려의 대몽항쟁(對蒙抗爭)도 북방민족 앞에 이 강토가 만 40년이나 짓밟히는 쓰라린 참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속에서 우리들 한민족(韓民族)만이 홀로 저 무서운 몽고족(蒙古族) 앞에 만 40년이나 싸워낸 강인한 민족의 표상이었으며, 저 7세기 당나라의 침략 앞에 마지막 무너진 고구려(高句麗)의 좌절도(668) 그것은 대륙의 세력 앞에 우리들의 역사가 완전히 무릎 꿇은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같은 충격 뒤에서도 우리는 역사를 민족의 통일을 통하여(668) 더욱 힘차게 밀고 나가는 위대한 도전 속에서의 창조였던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그 참모습을 가지고 힘차게 실증을 해주고 있지 않은가?

보라. 저 40년 대몽항쟁 당시 우리들이 저 무서운 몽고족 앞에 만 40년간이나 싸우고 있을 때 과연 이 아시아 속의 그 어떤 강한 민족이나 큰 나라들이 몽고족 앞에 단 4년의 저항이나 하여 보았던가? 그리고 저 고구려가 당나라에 꺾이던 668년은 바로 우리들 민족사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분명 신라(新羅)의 삼국통일(三國統一)을 통하여 우리들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활발한 새 출발이 아니었던가?

3. 강제로 바뀌고 일그러진 우리 역사의 님—식민사관의 상처

그러나 이같은 우리 역사의 참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앞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를 못한다. 그것을 헐뜯고 뒤바꿔놓은 또 하나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일제(日帝) 36년의 상처였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들의 역사를 일제(日帝)가 강제로 36년간이나 앗아간 쓰라린 상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상처는 일제(日帝)가 우리의 역사를 단순히 36년간 짓밟는 상처만으로 끝나주지를 않았다.

거기에는 실로 우리들 5천년 역사, 전반에 파고든 심각한 상처가 또한 겹치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일제(日帝)의 독기 어린 붓끝을 통하여 우리들의 온 역사가 그대로 멍이 들어야 했던 저 어이없는 일제(日帝) 식민사관의 상처였다.

본래 역사의 주인(主人)에는 진행되는 역사를 직접 담당하며 실천하는 오늘의 실천주체(實踐主體)와 함께 일단 그같이 실천된 역사를 뒤에서 다시 정리 마무리해주는 서술주체(敘述主體)라는 그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역사적 전통에서는 역사의 실천주체와 그 서술주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다. 그래서 삼국시대와 역사의 실천주체는 그 삼국을 살다간 우리들의 조상들이지만 그렇게 실천된 삼국시대의 역사는 그 3국 당시에 서술되지를 못하고 반드시 3국이 지나간 다음 역사 단계인 고려조에 와서 비로소 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으로 서술되어 나왔던 것이다.

여기에 바로 삼국시대 역사의 실천주체는 그 삼국시대에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서술 주체는 다음 고려시대에 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실천주체와 서술주체의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

그것은 그대로 계속되어 고려시대의 역사는 그 실천주체가 고려시대였지만 그에 대한 서술은 반드시 다음 역사단계인 조선조를 기다려 고려사 고려사절운동으로 서술되어 나왔고, 다시 조선조 근세의 역사는 5백년 조선조시대에 실천되었지만 그에 대한 서술은 그 근

세 5백년이 지나간 다음 역사 단계를 기다려야 했었다.

그런데 1910년의 역사적 비극은 바로 조선조 다음의 이 겨레의 역사를 그만 정통 우리들 한민족(韓民族)이 아닌 저 침략자 일제(日帝)의 손아귀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여기서 일제(日帝)가 총칼을 가지고 우리 한민족(韓民族)을 짓밟은 것은 36년간이나 되었지만 그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서술의 붓끝을 가지고 마구 이 역사를 허물 수 있었던 것은 전 조선조 5백년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붓끝의 상처는 조선조 5백 년만으로도 끝나주지를 않았다. 그들은 소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대 사학이란 이름을 가지고서 이미 우리에게 의하여 서술된 조선조 이전의 온 역사에 대하여도 어이없게 그들 자의대로의 난도질을 마구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바로 우리들의 온 5천년 역사가 그대로 저 일제(日帝)의 날카로운 붓끝에 의하여 이리저리 한없이 허물어져야 했던 실로 만신창이의 상처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식민사관의 상처인 것이다.

일제(日帝) 식민통치의 상처는 그들의 총칼이 아무리 무서웠어도 일단 36년으로 끝나주었지만, 그들 식민사관의 상처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같이 우리들 온 5천년 역사의 구석구석에 남아 아직 뼈저리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사대주의라는 어이없는 비난도 있었고 역사의 정체성이나 반도적 성격과 같은 터무니없는 날조 등도 함께 있었다.

즉 그들은 한민족(韓民族)은 근본적으로 역사의 자주능력이 없어 이제까지 큰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올 수 없었다는 소위 사대주의를, 특히 명(明)나라와의 관계를 들면 서까지 우겨댔고, 다시 여기에 한민족(韓民族)의 역사는 그래서 스스로의 발전 능력이 없어 언제나 역사의 진보가 없이 동일한 역사단계만이 그대로 반복될 뿐이라는 소위 저 역사의 정체성까지 아울러 날조하며 나왔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선 초의 교체가 역사의 진보가 아니라 단순히 왕씨 고려가 이씨의 조선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뿐인 어디까지나 동일한 역사단계의 계속이라는 저 여·선 동일 역사단계설까지 만들어냈던 것이다.

여·선동일 역사단계설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중세 고려가 아닌 근세 조선에서 새롭게 찾아야 할 험한 5~6백년 역사의 에너지를 그대로 중세 고려 속에 묻어버리면서 잃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다시 찾아 세워야 할 우리들의 정사(正史)－주체사관(主體史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그 참모습에서 새롭게 살펴보자. 일제(日帝)의 식민사관이 그려진 비뚤어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으로 그 참 모습을 직접 찾아보자.

저 14세기 말 여·말 선초의 역사부터 살펴볼 때 그것은 일제가 헛뜯었듯이 동일한 역사 단계의 지속적인 반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들어가던 중세 역사를 일단 뛰어 넘고 새로운 역사인 근세를 창조해낸 역사의 힘찬 전진이었던 것이다.

당시 역사의 주체는 주체성이 강하던 사대부(士大夫)(뒷날 사림(士林))들이었고 그들이 뛰어 넘으려던 여말 역사의 어려움을 바로 저 원나라의 간섭과 같은 쓰라린 자주의 상처였다.

그래서 원나라의 간섭과 같은 자주의 상처를 뛰어 넘기 위하여 일어난 사대부(士大夫)라는 주체, 그리고 그 사대부(士大夫)가 주체가 되어 새롭게 이끌고 나온 조선조라는 새로운 역사 등에서는 우리들이 새롭게 찾아내야 할 역사의 참 모습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 압록·두만강 등으로 그려진 이 겨레 역사상 최초의 국경선의 확정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곧 원의 간섭과 같은 고려 역사의 쓰라린 아픔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롭게 일어난 조선왕조가 여기까지는 바로 우리들의 강토요 우리들의 주권영역임을 역사 앞에 명시하고 나온 일종의 역사적 자주의 선포였던 것이다.

이같이 국경선을 확정하고 주권을 선포하며 나온 조선조의 새 역사는 그렇기에 저 중세 고려조의 역사를 뛰어 넘은 우리들의 새 역사, 즉 우리들의 분명한 근세사였던 것이다. 이 같은 근세사적 새 활력을 바탕으로 하여 바로 그 조선조에서는 문화적으로도 저 한글의 창제와 같은 새로운 창조력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같은 주권개념이나 근세문화의 창조력과 같은 역사의 새로운 터전 위에서 당시의 대명관계로 살펴야만 한다.

그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할 때 큰 나라인 명(明)에 대한 사대관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권과 독립을 승인하는 명(明)에 대한 우호관계였던 것이다.

명(明)은 한반도에서 새로 일어난 조선왕조(朝鮮王朝)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음과 같이 그 자주를 승인하며 나왔다.

「고려(즉 조선)는 산으로 막히고 바다로 떨어져 있어 하늘로부터 이미 정해진 동이(東夷)의 땅이다. 우리 중국이 다스릴 바아니니 정치화 교화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자유이다…」(명(明)이 조선(朝鮮)에 보낸 고명(誥命)의 일부)

명(明)은 이같이 처음부터 조선조를 발전한 하나의 독립국으로 확인하면서 그래서 그 정

치적 자주를 분명히 승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조의 명(明)에 대한 우호관계는 바로 자신의 자주와 주권을 승인해준 전제 밑에서의 그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 조 주권의식의 대외적인 한 표현이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권을 짓밟은 원(元)에 대하여 끝까지 항거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새로이 승인한 명(明)에 대하여 우호를 맺은 배원친명(排元親明)의 정책은 그대로 주권의 유린 상태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주권의 확인관계로 밀고 나간 자주적 역사의 새로운 진전이었던 것이다.

이같이 자주를 향한 역사의 계속적인 전진, 여기서 우리는 5천년 우리들 역사, 어느 순간에도 끊이지를 않고 밝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주체성이라는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들 역사에 이제까지 그렇게나 많았던 저 931회의 국난을 뚫고서 이같이 씩씩하게 살아 남은 우리들, 오늘의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역사가 알려 주는 주체성의 참모습인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이제까지 931번에 달하는 국난이 역사에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931회에 달하는 국난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모두 물리쳐 이겨냈기 때문에 이날이 살아 남았다.

여기서 우리는 저 역사상 931회란 숫자를 이 역사를 할퀴고 간 쓰라린 상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들이 그 쓰라린 국난을 모두 이겨냄으로써 얻어 낸 자랑스러운 승리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역사는 비로소 그 정사로서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역사에서 이같이 그 정사로서의 참모습이 밝혀질 때 우리는 모두 훌륭한 역사를 이룩해 온 실로 자랑스러운 주체로서의 자신들을 함께 확인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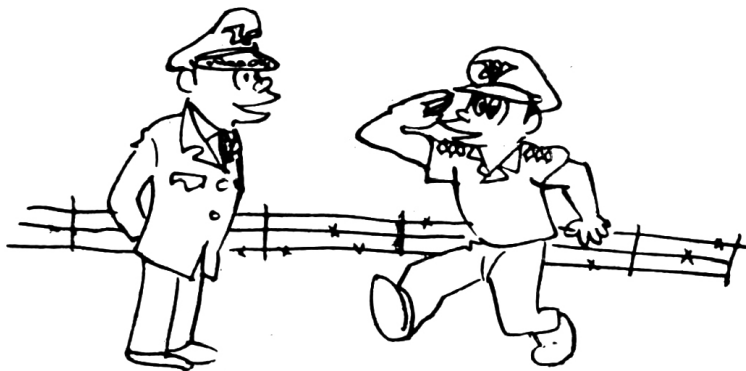
공·군·만·상

정운섭(鄭雲燮)



<호칭>

- 박형! 바쁘지 않으면 이것 좀 도와 주시오.
- 김대위! 군인은 군인다웁게 박대위라고 불러 주게나.



<진급의 의미>

- 김대위 진급하니 어깨가 무겁겠군!
-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군·만·상



<군인의 가치관>

- 군인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뿐이지,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따위는 생각도 안 해! 그런 말 다시 하면 절교할테다.



<러브레터>

- 영- 문구가 떠오르지 않는데.
- 미사여구로 나열하는 것보다 소박하고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더 좋을거야.

청년장교(靑年將校)의 생활윤리(生活倫理)



조정기(曹正基)

1. 서언(序言)

지구(地球)와 대자연계(大自然界)는 그 무슨 힘에 의해서 지배(支配)되듯이 인간사회(人間社會)도 그 무슨 힘에 의해 지배(支配)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계(自然界)는 타율적(他律的)인 기계적 법칙(法則)에 의해서 지배(支配)되지만, 인간계(人間界)는 자율적(自律的)인 규범(規範)의 법칙(法則)에 의해 지배(支配)되고 있다.

인간계(人間界)가 그 규범(規範)의 법칙(法則)에 의해 지배(支配)되는 것이 원칙(原則)이지만 때로는 그 규범(規範)이 제기능(機能)을 잃고 어떤 불의(不義)와 야합(野合)하여 마땅히 지녀야 할 인간(人間)의 기능(機能) 곧 이성(理性)의 권위(權威)와 양심(良心)의 기능(機能)을 상실하고 목전(目前)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계산(計算)하게 된다. 여기서 인간(人間)의 처리(處理)가 발생(發生)하게 된다. 우리 인간(人間)이 어디까지나 인간(人間)의 자주성(自主性)과 자율성(自律性)에 의(依)하여 그 행위(行爲)와 생활(生活)이 규제(規制)될 때에는 올바른 궤도(軌道)를 밟아 정당(正當)한 인간(人間) 생활(生活), 인간사회(人間社會)가 운영(運營)될 것이지만 자주성(自主性)과 규범(規範)에 벗어난 모든 행위(行爲)의 생활(生活)은 인간(人間)의 궤도를 벗어나 온갖 불규칙(不規則), 부조리(不條理) 내지 사회병리(社會病理)를 자아내어 인간사회(人間社會)의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옛날에 세계(世界)를 지배(支配)했던 로마제국(帝國)이 멸망한 원인(原因)은 그들의 군사력(軍事力)이나 정치(政治) 때문이 아니다. 로마시민(市民)들의 정신적(精神的) 퇴락(退落)과 윤리적(倫理的) 붕괴(崩壞)에 있었다고 말한다.

근대(近代) 역사학(歷史學)의 개척자인 랑케(L.V. Ranke)가 갈파한 「한 역사적(歷史的) 시대(時代)와 사회(社會)를 평가(評價)할 수 있는 기준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道德的) 활동력(活動力)」이라고 본 것은 바른 견해(見解)이다. 또한 현대(現代) 사학(史學)의 석학(碩學)인 Arnold. J. Toinby는 일(一) 국(國)의 흥망(興亡)은 외적(外敵)의 총각(銃刻)에 의(依)해서보다도 내부적(內部的) 부패(腐敗)로 인(因)한 반동(反動)에 의(依)한다고 말하였다. 오늘날 물질문명(物質文明)과 과학기술(科學技術)의 발달(發達)로 인간(人間)이 물질(物質)에 얽매어 이끌려 가는 시대적(時代的) 조류(潮流)이나 물질(物質)과 무기(武器)를 만들고 다루는 주체(主體)는 인간(人間)이기에 물질(物質)과 과학(科學)에 선행(先行)하여 윤리(倫理) 도덕(道德)을 재건(再建)하는 길만이 참된 국민정신(國民精神)을 바탕으로 한 정예화(精銳化)된 군대(軍隊) 육성(育成)이 가능(可能)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觀點)에서

본고(本稿)에선 인간(人間)과 윤리(倫理), 한국민족(韓國民族) 윤리(倫理)의 「핵(核)」사상(思想), 청년장교(靑年將校)의 행태적(行態的) 특성(特性)과 청년장교(靑年將校)의 생활윤리(生活倫理)에 대(對)하여 문헌(文獻)을 정리(整理)하여 서술(敘述)하여 보려고 한다.

2. 인간(人間)과 윤리(倫理)

인간(人間)은 사회적(社會的) 동물(動物)인 동시(同時)에 윤리적(倫理的) 존재(存在)이다. 사회(社會)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도덕적(道德的) 의의(意義)와 내용(內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간(人間)이다.

옛날부터 윤리(倫理)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問題)는 계속(繼續) 연구(研究)되어 왔다. 대부분의 학자(學者)들은 윤리(倫理)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정신적(精神的) 규범(規範)이나 질서(秩序)를 찾아 그대로 행(行)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윤리(倫理)는 이론(理論)이나 학문(學問)이라기보다는 실천(實踐)과 행위(行爲)에 속(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행(行)하면서 살아야 하는가가 문제시(問題視)되어 왔다. 물론 윤리(倫理)는 개인(個人)에 속(屬)하는 면(面)도 있으나 우리 인간(人間)들의 행위(行爲)는 대부분 대인관계(對人關係)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리(倫理)는 오히려 그 사회성(社會性)에서 문제(問題)가 되며 우리가 중시(重視)하는 내용(內容)도 내가 우리 사회(社會)에 대(對)하여 어떤 관심(關心)을 가지며 어떤 윤리적(倫理的) 행위(行爲)를 해야 하는가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윤리(倫理)는 우리 주변(周邊)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윤리현상(倫理現象)에서 어떤 법칙(法則)과 원리(原理)를 찾고, 그에 따라서 생활(生活)할 수 있는 선(善)한 의도(意圖)와 규범(規範)을 얻으며, 사회(社會)에 기여(寄與)할 수 있는 규범행위(規範行爲)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이 옛날부터 인륜(人倫)이라는 말을 사용(使用)해온 것은, 인간(人間)다운 정신적(精神的) 생활(生活)의 원리(原理)는 무엇이며 인간관계(人間關係)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생활(生活)의 질서(秩序)는 어떤 것인가를 질문하였을 때, 얻은 내용(內容)들이었다. 그 질서(秩序)로서의 「윤(倫)」이 우리들의 행위(行爲)와 인간관계(人間關係)를 바로 잡아주며 건전(健全)한 방향(方向)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친(親)의 질서(秩序)에서 부자(父子)의 관계(關係)가 이루어졌으며 신(信)의 질서(秩序)에서 봉우간(朋友間)의 관계(關係)가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人間)은 모두가 사회생활(社會生活)을 통하여 어떤 윤(倫)을 만들어 가면서도 그와 반대(反對)로 사회(社會)에 이미 주어져 있는 질서(秩序)로서의 「윤(倫)」이 우리들의 개인생활(個人生活)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말하자면 인간(人間)은 윤리(倫理)를 만들면서 사회(社會) 속에 살고 있으나, 사회(社會)는 또한 그 윤리(倫理)로 개인(個人)들의 생활(生活)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社會)의 윤리수준(倫理水準)을 높인다는 것은 그 사회(社會)의 정신적(精神的) 생활(生活)을 건전(健全)하게 향상(向上)시킨다는 뜻이며, 도덕의식(道德意識)이 약화(弱化)되거나 저락(低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社會)가 정신적(精神的)으로 약화(弱化)되었다는 증거(證據)가 된다.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文化)와 사회(社會)의 건전(健全)한 발전(發展)도, 그 나라 국민(國民)들의 도덕적(道德的) 의식(意識) 즉(卽), 그들의 정신적(精神的) 질서(秩序)인 윤리관(倫理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청년장교(靑年將校)의 행태적(行態的) 특성(特性)

청년기적(青年期的) 행동특성(行動特性)을 예화(例話)를 들어 설명(說明)하여 보면

광활(廣闊)한 사막에 두 갈래 「길」이 있다. 「이」길로 갈 것이냐 「저」길로 갈 것이냐가 문제(問題)이다. 나이 어린 병사(兵士)가 힘없이 걸어온다. 그 병사(兵士)의 눈은 티없이 맑다. 갈래 길에서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망설인다. 어디서 인지 「오른쪽으로 가라는 소리가 들려 온다」 이 병사(兵士)는 방긋 웃으면서 아무 망설임없이 오른쪽을 다시 두뼘두뼘 걸어간다. 다음엔 어떤 청년장교(青年將校)가 성큼성큼 걸어온다. 그의 눈은 청명한 빛이 있으면서 미간(眉間)에는 어떤 고민이 서려있다. 갈래 길에 이르자 잠시 멈추어 사막을 내다 본다. 어디서인지 「오른쪽으로 가라는 소리가 들린다」 청년장교(青年將校)는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노려 본다. 또 어디선지 「왼편으로 가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청년장교(青年將校)는 움직이지 않은 채 다시 그쪽을 노려본다. 다시 어디선지 『네가 「새」길을 만들어 가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청년장교(青年將校)는 다시 그쪽을 뚫어지게 본다. 빛나는 눈이 한참 사막의 여기저기 멀리 가까이를 살피더니, 마침내 그 청년(青年)은 입가에 결심(決心)을 담고, 어느 길을 택하여 간다. 다음엔 어떤 중년장교(中年將校)가 살금 살금 걸어 온다. 그의 눈은 둔탁(鈍濁)하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이 삼각(三角)으로 닫힌 모습이 꽤 도가적(道家的)인 주장(主張)이 강(強)한 것 같다. 그는 두 갈래 길에 닿아도 멈추지 않는다. 고개를 젖힌채 그대로 오른쪽을 향해 걸어간다. 그러나 그의 둔탁(鈍濁)한 눈에는 넓고 먼 사막의 여기저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3가지 사례(事例)에서 청년장교(青年將校)의 행동적(行動的) 특성(特性)은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을 바라는 나이 어린 병사(兵士)의 문제(問題)와 다르며, 또한 오래 이 길로 가야 한다고 길들여져 있는 중년장교(中年將校)의 문제(問題)와도 다르다. 그것은 두 갈래 갈라진 「길」에서 슬기롭고 용감(勇敢)하게 독자적(獨自的)으로 방향(方向)을 결행(決行)하는 행동(行動)이 바로 청년장교(青年將校)의 행동(行動) 특성(特性)인 것이다. 우리 인간(人間)의 순환과정에서도 소년기(少年期)엔 이상(理想)을 극대화(極大化)하고 현실(現實)을 극소화(極小化)하며, 노년기(老年期)엔 이상(理想)을 극소화(極小化)하고 현실(現實)을 극대화(極大化)하여 추구하나 청년기(青年期)에선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을 잘 조화(調和)하여 중용적(中庸的) 입장(立場)을 취(取)하되 용기(勇氣)와 정열(情熱)을 가미(加味)한 역동적(力動的)이고 실천적(實踐的)인 것이 그 특성(特性)이라 할 수 있다.

5. 청년장교(靑年將校)의 생활윤리(生活倫理)

이 세상(世上)의 모든 존재(存在)와 사물(事物)에는 일정한 원리원칙(原理原則)이 있고 불변(不變)의 질서(秩序)와 법칙(法則)이 있다. 물이 높은데서 아래로 흐르고 섭씨 백도(百度)가 되면 끓고, 영도가 되면 언다. 이것은 물의 불변(不變)의 속성(屬性)이며 법칙(法則)이다. 모든 사물(事物)이나, 존재(存在)의 원리(原理)와 질서(秩序)를 동양사상(東洋思想)에서는 「리(理)」라고 일컫는다. 모든 사물(事物)에는 리(理)가 있으며 우리 인간사회(人間社會)에는 윤리(倫理)가 있다. 우리는 사리(事理)를 알고, 사리(事理)에 맞게 일을 처리(處理)하여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合理的) 생활(生活)이요, 합리적(合理的) 태도(態度)이다. 「합리(合理)」란 말은 문자 그대로 리(理)에 맞게 하는 것이요, 사리(事理)에 적합(適合)하게 행동(行動)하고, 처리(處理)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진(推進)하고 있는 근대화(近代化)

공자(孔子)는 인(仁)을 극기복례(克己復禮) 즉(卽), 자기를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예(禮)로 돌아간다는 함은 예(禮)를 실천(實踐)한다는 뜻이다. 이는 형식적(形式的) 의례(儀禮)를 중시(重視)하는 뜻이 아니라 경애정신(敬愛精神)을 진심(眞心)으로 실천(實踐)한다는 뜻이다. 우리 겨레의 경애정신(敬愛精神)은 오상(五常)인(仁), 의(義),례(禮), 지(智), 신(信)과 오륜(五倫)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사상(思想)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문화발전(文化發展)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오륜사상(五倫思想)은 우리에게 경애(敬愛)의 정신(精神)으로 「사람」됨의 길을 가르쳐준 사상(思想)이라 볼 수 있다.

는 민족중흥(民族中興)을 위한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期待)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것은 이 시대(時代)가 민족(民族)의 장래(將來)를 결정(決定)하는 갈림「길」임이 분명(分明)하고, 이와 같은 역사적(歷史的) 책임(責任)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狀態)에 처(處)한 우리는 우리 전통정신(傳統精神)에서 훌륭한 점을 이어 받고 서구(西歐)의 바람직한 근대정신(近代精神)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생활화(生活化) 함으로써 국민윤리(國民倫理)를 확립(確立)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전통정신(傳統精神)의 중심(中心)은 「성실(誠實)」, 「경애(敬愛)」, 「협동(協同)」이다. 이러한 정신(精神)은 우리 민족(民族)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온 원동력(原動力)이었다. 더우기 물질주의적(物質主義的) 풍조(風潮)가 팽배해지고 인정(人情)이 메말라가는 사회(社會) 풍조(風潮)를 생각할 때 이 성실(誠實), 경애(敬愛), 협동(協同)의 전통(傳統)을 우리의 생활(生活) 윤리(倫理)로서 되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한 서구(西歐)의 합리주의적(合理主義的) 사고방식(思考方式)과 과학적(科學的) 사고방식(思考方式)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생활화(生活化)하여야 하겠다. 또한 그 밖에 책임의식(責任意識)을 높이는 일, 진취적(進取的) 기상을 기르는 일, 계획적(計劃的)이고, 규모 있는 생활(生活)을 하는 일, 근검(勤儉)하고 절약하는 일 등(等)을 정열(情熱)과 용기(勇氣)를 가지고 추진(推進)해 나가는 것을 청년장교(青年將校)의 생활윤리(生活倫理)로 길러야 할 것이다. 특(特)히 청년장교(青年將校)는 정열(情熱)과 용기(勇氣)가 필요(必要)하다. 고대시대(古代時代)의 호메로스(Homer)는 그의 서사시(敘事詩)에서 영웅들이 싸움터에 임해서 용감(勇敢), 성실(誠實), 친절(親切) 등(等)의 미덕(美德)을 찬양하고 인간(人間)은 오직 여러 신(神)이 정해진 운명(運命) 아래서 살 뿐이며 그 중에서 가장 용감(勇敢)한 자(者)를 유덕(有德)한 자(者)라 하고 용자(勇者)의 대표적(代表的)인 헥토르(Hector)는 최선(最善)의 행동(行動)은 「나라」를 위하여 용감(勇敢)히 싸우는 일이라고 설파하였다. 또한 청년장교(青年將校)는 정열(情熱)을 쏟아야 한다. 정열(情熱)은 사람을 살리며, 정열(情熱)있는 자(者)는 생명(生命)이 약동한다. 무엇이고, 성공(成功)하는 자(者)는 한 가지 일에 정열(情熱)을 쏟고 불 태웠을 때, 볼 수 있다. 우리의 성공(成功)은 단지 우리가 세운 일에 힘차게 밀고 나가는 「길」뿐이다. 청년장교(青年將校)의 육체적(肉體的) 힘과 정신력(精神力) 그리고 정열(情熱)을 합치면 그 어떤 힘으로도 당할 자(者)가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청년장교(青年將校)는 전통적(傳統的)인 성실(誠實)과 경애(敬愛), 그리고 협동(協同)하는 정신(精神)과 상부상조하는 민족(民族)의 전통(傳統)을 되살려 민족(民族)의 긍지를 높이고 자주자립(自主自立)하는 국민정신(國民精神)을 확립(確立)하여야 하겠다.

무역(貿易) 자유화(自由化)와 산업(産業) 정책(政策)의 방향(方向)



편집실

◇ 차례(次例) ◇

1. 서언(序言)
2. 무역(貿易) 자유화(自由化) 논의(論議)의 배경(背景)과 필요성(必要性)
3. 무역(貿易) 자유화(自由化)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4. 무역(貿易) 자유화(自由化)에 대비(對備)한 산업정책(産業政策)의 방향(方向)
 - 가. 산업정책(産業政策)의 의의(意義)와 수단(手段)
 - 나. 산업정책전개(産業政策展開)의 기본방향(基本方向)
5. 결어(結語)

1. 서언(序言)

1960년대초(年代初) 이후(以後) 우리 나라 경제(經濟)는 지속적(持續的)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을 통하여 경제규모(經濟規模)의 양적확대(量的擴大)와 더불어 질적(質的)인 면(面)에서도 산업구조(産業構造)의 고도화(高度化)를 이룩함으로써 경제(經濟)의 자립기반(自立基盤)을 다져왔다. 특히 상품수출(商品輸出)은 연평균(年平均) 40% 이상(以上)의 높은 신장(伸張)을 거듭하여 1976년(年)에는 78억(億)「달러」에 달함으로써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이 0.9%에 이르렀으며, 이에 힘입어 석유파동(石油波動) 이후(以後) 악화(惡化)되었던 경상수지(經常收支)는 크게 개선(改善)되었다.

이러한 대외거래(對外去來)의 호조(好調)는 1977년(年)에도 지속(持續)되어 상품수출(商品輸出)이 100억(億)「달러」를 돌파했으며, 80년대초(年代初)까지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흑자기조(黒字基調)가 정착(定着)되고 세계시장(世界市場)에서 차지하는 우리 나라 수출(輸出)의 비중(比重)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展望)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展望)에 비추어 우리 나라는 머지 않아 IMF, GATT 등 국제경제기구(國際經濟機構)나 선진제국(先進諸國)으로부터 무역제한(貿易制限)의 완화(緩和) 내지 철폐(撤廢)를 중용받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내적(對內的)으로 보더라도 종래(從來)와 같은 보호위주(保護爲主)의 상역정책(商易政策)은 정책자체(政策自體)의 효과면(效果面)에서 점차 한계(限界)에 다다르고 있을뿐더러 자원(資源)의 최적배분(最適配分)을 그만큼 저해(沮害)한다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보호(保護)의 정도(程度)를 낮추는 대신 기업(企業)의 자주적(自主的) 경쟁력배양(競爭力培養)을 도모(圖謀)하는 자유화방향(自由化方向)으로 이행(移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무역(貿易) 자유화(自由化) 논의(論議)의 배경(背景)과 필요성(必要性)

우리 나라에서의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에 관한 논의(論議)는 1967년(年) 4월(月) 우리 나라가 GATT에 정식으로 가입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선진제국(先進諸國)의 자유화조치(自由化措置)가 일 단락(一段落)되고 「케네디·라운드」의 타결(妥結)로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가 세계적(世界的)인 조류(潮流)로 뒀에 따라 외향적개발전략(外向的開發戰略)을 추구해온 우리 나라도 이에 보조(步調)를 맞추기 위하여 GATT에 가입(加入)함과 함께 동년(同年) 7월(月)에는 무역관리방식(貿易管理方式)을 종래(從來)의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轉換)하고 자유화(自由化) 폭(幅)을 확대하는 조치(措置)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 개발계획수행(開發計劃遂行)에 따른 시설재도입(施設財導入) 증대(增大), 수출증대(輸出增大)에 기인한 수출용원자재(輸出用原資材) 수입규모(輸入規模)의 확대(擴大), 자유화(自由化) 조치(措置)에 의해 개방(開放)된 일부품목(一部品目)의 수입수요급증(輸入需要急增) 등으로 무역수지(貿易收支)가 악화(惡化)됨에 따라 1968년말(年末)에는 다시 종합수입억제책(綜合輸入抑制策)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다시 석유파동(石油波動)으로 야기된 국제수지(國際收支)의 급격(急激)한 악화(惡化)로 말미암아 자유화논의(自由化論議)는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다시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의 필요성(必要性)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點)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수출(輸出)의 급속(急速)한 신장(伸張)과 무역외수입(貿易外輸入)의 호조(好調)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國際收支)가 현저하게 개선(改善)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즉 상품수출(商品輸出)이 1975년(年)의 5, 081백(百)「달러」에서 1976년(年)의 7, 815백만(百萬)「달러」로 급증(急增)한데 이어 1977년(年)에는 100 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중속산유국(中東產油國)을 중심(中心)으로 한 건설(建設) 「붐」과 더불어 해외건설(海外建設) 용역(用役)의 수출(輸出)이 활발해짐에 따라 무역외수입 규모(貿易外輸入規模)가 급증(急增)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파동이후(石油波動以後) 연간(年間) 약 (約) 20억(億)「달러」에 이르렀던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가 1976년(年)에 3억(億)「달러」선(線)으로 축소된데 이어 1977년(年)부터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균형(均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展望)되어 국제수지방어(國際收支防禦)를 위한 무역제한(貿易制限)의 필요성(必要性)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둘째, 각국(各國)의 우리 나라 상품(商品)에 대한 수입규제(輸入規制)가 강화(強化)되고 있는 최근(最近)와 추세에 비추어 이러한 규제(規制)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方便)으로서 무역자유화폭(貿易自由化幅)의 확대(擴大)가 요청된다는 점이다. 대외거래(對外去來)의 호전(好轉)과 급속(急速)한 경제

성장(經濟成長)은 선진제국(先進諸國)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특별배려(特別配慮)를 받아야 할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認識)을 갖게 하여 우리 나라 상품(商品)에 대한 수입규제(輸入規制)를 강화토록 하는 결과(結果)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한 현재 IMF 14조(條)의 경과규정(經過規程) 및 GATT 18조(條)에 의거 잠정적으로 무역(貿易) 및 외환(外換)에 관해 광범위한 제한(制限)을 가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대해 조만간 국제기구(國際機構) 및 선진제국(先進諸國)으로부터 자유화근고(自由化勸告)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호혜주의(互惠主義)를 원칙(原則)으로 하는 국제무역환경하(國際貿易環境下)에서 우리 나라의 수출(輸出)을 계속 증대(增大)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나마 무역자유화폭(貿易自由化幅)을 확대(擴大)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는 것이다.

셋째,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는 경쟁(競爭)의 영역(領域)을 확대(擴大)시킴으로써 산업(産業) 및 기업(企業)의 능률향상(能率向上)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다시 수출신장(輸出伸張)에 기여(寄與)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선 국제가격기준(國際價格基準)에 따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가능해지므로 수입제한(輸入制限)으로 야기되는 자원(資源)의 낭비(浪費)와 비능률(非能率)을 제거(除去)할 수 있다. 또한 자유화(自由化)는 국내산업(國內産業)의 체질강화(體質強化)를 통하여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증대시키는 효과(效果)도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국내기업(國內企業)이 정부(政府)의 보호(保護)와 지원하(支援下)에 성장(成長)해 왔고 이것이 기업(企業) 스스로의 경쟁력강화노력(競爭力強化努力)을 적게한 요인(要因)이 되어온 일면(一面)이 있는 것도 사실(事實)인 바 자유화(自由化)가 이루어 지면 외국(外國)과의 독자적(獨立的)인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경영합리화(經營合理化)와 기술개발(技術開發)을 통한 원가절감(原價節減)과 품질개선(品質改善)을 도모하게 되어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소비자보호(消費者保護)라는 측면(側面)에서도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는 그 필요성(必要性)이 인정(認定)되고 있다. 수입(輸入)이 자유화(自由化)되면 지금까지 수입제한(輸入制限)에 의하여 국내독과점기업(國內獨寡占企業)이 향수(享受)하던 초과이익(超過利潤)이 소멸(消滅)되어 그만큼 소비자(消費者)의 부담(負擔)이 경감될 것이고 국제경쟁(國際競爭)에서 유발(誘發)되는 원가절감(原價節減)과 품질개선(品質改善)은 소비자(消費者)의 이익(利益)을 증대(增大)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넷째, 당면(當面)한 문제(問題)로서 대외거래(對外去來)의 호전(好轉)을 반영(反映)한 순해외자산(純海外資産)의 증가가 급격(急激)한 통화팽창요인(通貨膨脹要因)으로 작용(作用)하고 있다는 점(點)이다. 즉 1974~1975년중(年中) 통화환수요인(通貨還收要因)으로 작용(作用)하였던 해외부문(海外部門)이 1976년중(年中) 전체통화증가규모(全體通貨增加規模)보다도 큰 5,124억(億)원의 통화(通貨)를 공급(供給)한데 이어 1977년(年)에도 10월말(月末) 현재(現在) 이미 4,696억(億)원을 공급(供給)하여 통화증가(通貨增加)를 주도(主導)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부문(海外部門)에서의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급증(急增)함에 따라 재정금융면(財政金融面)에서 강력(強力)한 통화증가억제책(通貨增加抑制策)이 시행(施行)되고 있으나 이에 한계(限界)가 있으므로 해외부문(海外部門)의 통화증가요인(通貨增加要因)을 해외부문(海外部門) 자체(自體)에서 흡수(吸收)하기 위한 대책(對策)이 요망(要望)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구체적(具體的)인 방법(方法)으로 장단기자본거래(長短期資本去來)의 조정(調整)과 아울러 경상거래(經常去來)에서 자유화폭(自由化幅)의 확대(擴大)를 통한 수입증대(輸入增大)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무역(貿易) 자유화(自由化)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는 정태적(靜態的) 효과(效果)와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로 구별(區別)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가 실현(實現)된 이후(以後)에 생산요소(生産要素)의 추가고용(追加雇傭)이나 생산기술(生産技術)의 변화(變化)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예상(豫想)되는 효과(效果)를 정태적(靜態的) 효과(效果)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는 양술혁신(彥術革新), 생산설비(生産設備)의 개선(改善) 및 확장(擴張) 등을 들 수 있다. 즉, 무역(貿易)의 자유화(自由化)는 경쟁도(競爭度)를 높여 기업(企業)의 설비확장(設備擴張) 또는 통합(統合) 등을 통한 규모(規模)의 확대(擴大)와 기술(技術)의 개발(開發)을 촉진(促進)하고 국내생산(國內生産)이 불가능(不可能)한 생산설비(生産設備) 및 원료(原料)의 공급(供給)과 선진기술(先進技術)의 도입(導入)을 가능(可能)하게 한다.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가 이익(利益)을 가져올 것이 명백(明白)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現實的)으로는 완전(完全)한 자유화(自由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거의 예외(例外)없이 광범(廣範)한 수입제한(輸入制限)이 행(行)하여 지고 있는 것이 사실(事實)이다. 이론(理論)과 현실(現實)의 이러한 괴리(乖離)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유무역이론(自由貿易理論)이 기초(基礎)로 하고 있는 제가정(諸假定)이 현실경제(現實經濟)에서 그대로 성립(成立)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재화(財貨) 및 요소(要素) 시장(市場)의 완전경쟁(完全競爭), 생산요소(生産要素)의 완전고용(完全雇傭)과 완전이동성(完全移動性) 등은 매우 비현실적(非現實的)인 가정(假定)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市場機能)이 불완전(不完全)하고 실업률(失業率)이 높은 경제(經濟)가 경제효율(經濟効率)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화(自由化)의 필요성(必要性)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유화(自由化) 과정(過程)에서 발생하는 생산요소(生産要素)의 산업간이동(産業間移動)에 따르는 마찰은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 의욕(意慾)을 그만큼 저상(沮喪)시킬 것이다.

둘째, 자유화이론(自由化理論)이 정태적(靜態的) 비교우위론(比較優位論)에 입각(立脚)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各國)이 현재(現在) 비교우위(比較優位)를 가지는 특정산업(特定産業)에만 전문화(專門化)한다면 산업구조(産業構造)를 현재의 여건(與件) 위에서 고정(固定)시키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산업(産業) 구조(構造)가 과연 세계수요구조(世界需要構造)의 장기적(長期的)인 변화(變化)에 대한 적응(適應)이라는 관점(觀點)에서 최적(最適)의 구조(構造)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우기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과 같이 노동력(勞動力)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노동집약산업(勞動集約産業)에 전문화(專門化)할 경우 이들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요(需要)의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과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모두 낮으므로 장기적(長期的)으로 볼 때 교역조건(交易條件)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생활(國民生活)을 저수준(低水準)에 고정(固定)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것이다.

세째, 국제수지(國際收支)의 불균형(不均衡)에 따라 자유(自由) 무역(貿易)이 제약(制約)을 받고 있는 점이다. 자유(自由) 무역론자(貿易論者)들은 생산물(生産物) 시장(市場)의 완전경쟁(完全競爭)을 전제(前提)로 무역(貿易)은 궁극적으로 균형(均衡)을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서 일국(一國)의 무역수지(貿易收支)가 균형상태(均衡狀態)에서 벗어나더라도 교역조건(交易條件)의 변동을 통한 무역량(貿易量)의 조절에 의하여 균형을 회복(回復)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적(現實的)으로 완전한 가격기능(價格機能)에 의한 국제수지(國際收支)의 조정은 기대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불균형상태가

따라서 구미제국(歐美諸國)의 전통적(傳統的)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 대책(對策)은 그 근간(根幹)을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에서 발생(發生)하는 산업(産業)의 구조적(構造的) 변동(變動)이 보다 순조(順調)롭게 진행(進行)되도록 하는 일종(一種)의 조정정책(調整政策)에 두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産業) 및 수출구조(輸出構造)의 취약성(脆弱性)과 국제수지(國際收支) 불안정성(不安定性), 유치산업보호(幼稚産業保護) 필요성(必要性) 그리고 불완전고용(不完全雇傭)의 광범(廣範)한 존재(存在) 등 구미제국(歐美諸國)이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를 추진(推進)하던 당시(當時)와 비교하여 여러가지 불리(不利)한 여건(與件)을 안고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에 대비(對備)하는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産業政策)은 선진제국(先進諸國)에서와 같은 과도기적(過渡期的) 현상(現象)의 조정(調整)보다는 산업체질(産業體質)의 전반적(全般的) 개편(改編)을 통한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의 강화(強化)를 그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일국(一國) 산업(産業)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산업전체(産業全體)로서의 구조적(構造的) 측면(側面)과 개별산업(個別産業) 내지 기업(企業)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前者)에서는 대체(大體)로 국제경제동향(國際經濟動向)의 장기적(長期的) 추이(推移)에 따른 동태적(動態的) 적응(適應)이 문제(問題)가 되며, 후자(後者)에서는 일시점(一時點)에서 개별상품(個別商品)과 대외경쟁력(對外競爭力)을 결정(決定)하는 요인(要因)의 강화(強化)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제(實際)에 있어 양자(兩者)는 상호(相互) 불가분(不可分)의 관계(關係)에 있지만 편의상(便宜上) 이같은 구분(區分)은 유용(有用)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하(以下)에서는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에 대비한 산업정책(産業政策)의 방향(方向)을 산업구조고도화(産業構造高度化)와 기업경쟁력제고(企業競爭力提高)의 양측면(兩側面)으로 나누어 고찰(考察)하기로 한다.

(1) 산업구조(産業構造)의 고도화(高度化)

(가)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의 육성(育成)

국제협력(國際協力)을 통하여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를 실현하고 각국(各國)이 현재 비교우위면(比較優位面)에서 가장 유리(有利)한 학업(虐業)에 특화(特化)하여 국제분업(國際分業)을 촉진(促進)하는 것이 교역참가각국(交易參加各國)에 유리(有利)하다는 것은 자유무역론자(自由貿易論者)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한 이론(理論)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産業構造)를 보면 공업화율(工業化率)(GNP중(中) 제조업비중(製造業比重))은 30.0%로 선진국수준(先進國水準)에 접근하고 있으나 공업(工業)의 중화학공업화율(重化學工業化率)(제조업부가가치중(製造業附加價值中)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의 비중(比重))은 선진제국(先進諸國)의 70% 내(內)외(外)에 비하여 훨씬 낮은 40%선(線)에 그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공업구조(工業構造)가 아직 경공업위주(輕工業爲主)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상품구조(輸出商品構造)를 보면 1976년(年)의 경우 식품(食料品) 및 직접소비재(直接消費材)가 7.7%, 원연료(原燃料)(원료(原料)+연료(燃料))가 4.6%를 점(占)하고 있고 경공업제품(輕工業製品)이 57.9%, 중화학공업제품(重化學工業製品)이 29.8%를 점(占)하고 있다. 이 중 사실상(事實上) 특화(特化)의 여지가 적은 식품(食料品) 및 원연료(原燃料)를 제외(除外)한 나머지 공산품(工產品)의 구성(構成)을 외국(外國)과 비교(比較)해 보면 총수출중(總輸出中) 중화학공업제품(重化學工業製品)의 비중(比重)이 일본(日本) 83.2%, 미국(美國) 60.8%, 서독(西獨) 79.8%인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29.8%에 불과(不過)하여 중화

학공업(重化學工業)이 현저(顯著)한 열세(劣勢)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국제분업(國際分業)의 원리(原理)를 적용(適用)한다면 당연히(當然히) 경공업제품(輕工業製品)에 특화(特化)하여 그 비중(比重)을 더욱 높이는 것이 유리(有利)하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長期的)으로 보아 세계수요(世界需要)의 신장전망(伸張展望)에서나 비교우위유지면(比較優位維持面)에서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는 경공업(輕工業)에의 특화(特化)는 결국 세계무역구조(世界貿易構造)의 장기적(長期的) 변동방향(變動方向)과는 괴리(乖離)된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를 갖게함으로써 수출신장(輸出伸張)을 통한 지속적(持續的)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現在)로서는 기존(既存)의 비교우위(比較優位)를 활용(活用)하기 위해 경공업제품(輕工業製品)의 고급화(高級化), 다양화(多樣化) 등 질적(質的)인 향상(向上)을 추구(追求)하는 한편 성장기대산업(成長期待産業)으로서의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산업구조(産業構造)의 점진적(漸進的)인 개편(改編)이 절실한 처지에 있다고 하겠다.

(나) 원료산업(原料産業)의 육성(育成)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에 대비(對備)한 국내산업(國內産業)의 구조적(構造的) 경쟁력강화(競爭力強化) 및 국제수지대책(國際收支對策)과 관련(關聯)하여 해결되어야 할 두번째 과제(課題)는 원자재(原資材) 내지 중간재산업(中間財産業)의 육성(育成)이다.

종래 우리 나라는 노동력(勞動力)이 풍부(豊富)한 대신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빈약(貧弱)한 여건하(與件下)에서 수출(輸出) 주도형성장정책(主導型成長政策)을 추진(推進)함으로써 원재료(原材料) 및 자본재(資本財)를 중심(中心)으로 수입의존도(輸入依存度)가 급격히 높아져 왔다. 즉 1960년(年) 이후(以後) 수입(輸入) 의존도(依存度)의 추이(推移)를 보면 개발계획초기(開發計劃初期)인 1962년(年)의 17%에서 매년(每年) 증가(增加)하여 1974년(年)에는 석유파동(石油波動) 이후(以後)의 급격(急激)한 원유가(原油價) 상승(上昇)이 가세(加勢)하여 49.2%에까지 달하였고 최근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 40%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같은 기간 중 일본(日本)의 10% 내외(内外)의 비교적 안정적(安定的)인 추이(推移)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 산업(産業)의 수입의존도(輸入依存度)가 높은 수준(水準)에 이르고 있는 주요(主要)한 이유중(理由中)의 하나는 국내원료산업(國內原料産業)의 미발달(未發達)로 인하여 수출(輸出)의 신장(伸張)과 더불어 가속적(加速的)인 수입유발(輸入誘發) 현상(現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수입(輸入)이 자유화(自由化)되면 수입의존도(輸入依存度) 심화현상(深化現象)은 더욱 가속화(加速化)될 가능성(可能性)이 높다고 하겠다.

물론 자유화(自由化)에 따른 수입(輸入)의 증가(增加)는 저렴(低廉)한 외국원자재(外國原資材)의 사용(使用)을 가능(可能)케 함으로써 제품(製品) 「코스트」를 낮추고 이를 통해 경쟁력(競爭力)을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이점(利點)도 있다. 그러나 수입의존도심화(輸入依存度深化)는 투입면(投入面)의 생산(生産) 파급효과(波及效果)가 국내관련산업(國內關聯産業)의 발전(發展)에 기여(寄與)하지 못하고 해외(海外)로 누출(漏出)될 뿐 아니라 해외경제사정(海外經濟事情)의 변동(變動)에 따라 국내경제(國內經濟)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소망(所望)스럽지 못하다. 또한 개별제품(個別製品)에 있어서도 안정적(安定的)인 원료공급원(原料供給源)의 확보(確保) 없이는 국제(國際) 경쟁력(競爭力)을 유지(維持)하기 어려우며 비경제적(非經濟的)인 이유(理由)에서도 종종 이해관계(利害關係) 대립(對立)이 발생(發生)하는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과도(過度)한 대외의존(對外依存)은 그 나라를

급격한 국제정세변화(國際情勢變化)에 따른 위협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여건상(國內與件上) 수입(輸入)이 불가피(不可避)한 부문(部門)은 자유화(自由化)를 진전(進展)시켜 관련제품(關聯製品)의 경쟁력(競爭力)을 높여야 할 것이며, 육성(育成) 여하에 따라 경제성(經濟性)이 기대(期待)되는 부문(部門)에 대하여는 국내(國內) 산업(産業)의 유기적(有機的) 관련도(關聯度) 제고(提高) 및 자립적(自立的) 성장기반(成長基盤)의 확립(確立)이라는 시점(視點)에서 원료(原料) 및 중간재산업(中間財産業)의 적극적(積極的)인 육성개발(育成開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수입(輸入) 의존도(依存度) 추구(推攷)

단위(單位): %

	1962	1967	1972	1973	1974	1975	1976
한국(韓國)	17.0	22.6	28.2	35.5	49.2	39.8	36.2
일본(日本)	10.1	10.3	9.1	10.9	15.6	13.8	7.1

자료(資料): 한국은행(韓國銀行) 한국(韓國)의 국민소득(國民所得) 및 일본(日本)의 국민소득(國民所得) 연보(年報)

(다) 산업전환(産業轉換)과 요소(要素)의 가동성 제고(提高)

자유화(自由化)에 대비(對備)한 산업구조(産業構造)의 재편성(再編成)은 일부(一部) 산업(産業)의 중점육성(重點育成) 내지 신규산업(新規産業)의 출현(出現)과 함께 비교열위(比較劣位)에 있는 일부(一部) 기존(既存) 산업(産業)의 폐기 혹은 전환(轉換)을 요구(要求)하게 된다. 물론 자유경쟁원리(自由競爭原理)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는 개별산업(個別産業) 내지 기업(企業)의 생성(生成)과 소멸(消滅)이 끊임없이 반복(反復)되는 것이지만 자유화(自由化)에 따른 산업전환(産業轉換)은 자연적(自然的) 추세(趨勢)에 의한 구조변화(構造變化)가 아니고 정책전환(政策轉換)에 따른 의도(意圖)된 구조변화(構造變化)이므로 개별산업(個別産業)의 자발적(自發的)인 적응(適應)에만 의존(依存)할 수 없고 정책적(政策的)인 조치(措置)가 필요(必要)하게 된다.

산업전환(産業轉換)은 구체적(具體的)으로 자본전환(資本轉換)과 노동전환(勞動轉換)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본전환(資本轉換)이란 기존자본설비(既存資本設備)를 비교열위(比較劣位)의 사양(斜陽) 산업(産業)으로부터 비교우위(比較優位)의 성장산업(成長産業)으로 전환(轉換)시키는 것을 말하며, 노동전환(勞動轉換)은 자본전환(資本轉換)에 따른 노동력(勞動力)의 이동(移動)을 의미(意味)한다.

(2) 기업경쟁력(企業競爭力)의 제고(提高)

(가)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개선(改善)

자유경쟁시장(自由競爭市場)의 기능(機能)을 최대한(最大限)으로 활용(活用)하는 경제체제하(經濟體制下)에서는 국민경제(國民經濟) 또는 어느 산업(産業)의 경쟁력(競爭力)은 결국(結局) 개별기업(個別企業)의 경쟁력(競爭力)으로 분해(分解)된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볼때 자유화대책(自由化對策)의 일환(一環)으로서 기업(企業)의 경영합리화대책(經營合理化對策)이 제기(提起) 되는 것이다.

종래 우리 나라의 기업(企業)은 각종(各種) 보호(保護)와 지원(支援) 아래 해외기업(海外企業)과의 직접적(直接的)인 경쟁(競爭)없이 기업활동(企業活動)을 영위(營爲)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自由化)에 의한 문호(門戶)의 개방(開放)은 이러한 보호(保護)의 철폐와 철저한 자유경쟁원리(自由競爭原理)의 도입(導入)을 의미하는 만큼 개별기업(個別企業)의 존립(存立)과 성장(成長)은 각(各)

기업(企業)의 경영기반(經營基盤)의 강화(強化)와 경영능률(經營能率)의 제고(提高)에 의해서만 가능(可能)하게 된다. 이런 면(面)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기업(企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은 우선 그 재무구조(財務構造)의 취약성(脆弱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유화(自由化)에 의하여 앞으로 새로운 경쟁 질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 기업재무구조(企業財務構造)의 취약성(脆弱性)은 우리 나라 기업(企業)이 외국기업(外國企業)과 경쟁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금후(今後) 예상(豫想)되는 경기변동(景氣變動)에 대한 자체적응력(自體適應力)을 배양(培養)함에 있어서나 국제적(國際的) 시야(視野)에서 자주적(自主的) 활동(活動)을 전개(展開)함에 있어서 큰 제약요인(制約要因)이 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따라서, 기업재무구조(企業財務構造)의 개선(改善)은 매우 시급(時急)한 문제라고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企業) 스스로의 노력(努力)이 있어야 하겠으나 정부(政府)로서도 자기자본(自己資本)의 확대(擴大)를 위한 자본시장(資本市場)의 육성(育成), 기업공개(企業公開) 정책(政策)의 강화(強化), 각종(各種) 특별상각(特別償却) 및 준비금(準備金) 적립금제도(積立金制度)의 확충(擴充) 등 내부자금형성(內部資金形成)과 그 충실화(充實化)를 위한 정책적유도(政策的誘導)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육성(育成)

선진국(先進國)이나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을 막론하고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국민경제(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 때문에 중소기업대책(中小企業對策)은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중요(重要)한 일부분(一部分)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현재(現在) 종업원(從業員) 300인(人) 이하(以下) 또는 자금총액(資金總額) 5억(億)원 이하(以下)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은 제조업(製造業) 부문(部門) 전기업체(全企業體)의 96.5%, 종업원수(從業員數)의 44.8%, 생산류(生産類)의 46.3%를 각각 점(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국민경제(國民經濟)에서 점(占)하는 비중(比重)은 매우 크지만 그 성장능력(成長能力)은 취약(脆弱)한 자본(資本) 및 신용력(信用力) 전근대적(前近代的)인 기술(技術)과 경영관리(經營管理), 그로 인(因)한 저생산성(低生産性) 등으로 인하여 크게 제약(制約)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中小企業)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그 보호(保護)와 육성(育成)에 특별(特別)한 정책적(政策的) 배려(配慮)가 배풀어져 왔는데 특히 앞으로 자유화(自由化)가 진행(進行)될 경우에는 외국기업(外國企業)과의 경쟁(競爭)에서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훨씬 큰 압박(壓迫)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를 완화(緩和)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기술개발(技術開發)의 촉진(促進)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의 경제경쟁(經濟競爭)은 어떤 의미(意味)에서는 곧 기술경쟁(技術競爭)을 의미(意味)한다. 기술수준(技術水準)의 비약적(飛躍的) 발전(發展)에 의한 지속적(持續的)인 생산성(生産性)의 제고(提高)나 품질(品質)의 향상(向上) 또는 신제품(新製品)의 개발(開發) 없이는 치열한 상품경쟁(商品競爭)에 이겨 나갈 수 없으며, 경제발전(經濟發展)도 불가능(不可能)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당기간(相當期間) 동안은 보다 과감(果敢)한 선진기술(先進技術)의 도입(導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세계금융면(稅制金融面)에서의 지원강화(支援強化)와 외국인(外國人) 기술투자유인(技術投資誘因)의 강화(強化)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도입(技術導入)의 추진(推進)과 함께 자주적(自主的) 기술개발(技術開發)을 위한 과학기술투자(科學技術投資)의 확대(擴大), 개별기업(個別企業)의 시험연구활동지원(試驗研究活動支援), 과학기술인력(科學技術人力)의 양성(養成) 등 종합적(綜合的)인 대책(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중(製造業中) 중소기업(中小企業)의 비중(比重)

단위(單位): %

	사업체(事業體) 수(數)(개(個))	취업자(就業者) 수(數)(인(人))	생산액(生産額) (백만(百萬)원)
중소기업(中小企業) (300인(人) 미만(未滿))	21,846(96.5)	581,239(44.8)	275,059(46.3)
대기업(大企業) (300인(人) 이상(以上))	786(3.5)	717,145(55.2)	319,209(53.7)
계(計)	22,632(100.0)	1,298,384(100.0)	594,268(100.0)

주(註): () 내(內)는 구성비(構成比)

자료(資料):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 한국통계연감(韓國統計年鑑), 1976.

5. 결어(結語)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는 국제분업(國際分業)을 통하여 교역국(交易國) 상호간(相互間)의 복지증진(福祉增進)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이는 교역참가국(交易參加國)이 상당(相當)한 정도(程度)의 경제적(經濟的) 기반(基盤)을 이룩해 놓은 후에만 가능(可能)한 것이며, 경제적(經濟的) 제여건(諸與件)이 성숙(成熟)되지 않은 상태(狀態)에서의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는 세계무역구조(世界貿易構造)의 변동추이(變動推移)와 괴리(乖離)된 국내산업구조(國內產業構造)의 고착화(固着化)와 국제수지악화(國際收支惡化) 및 실업증대(失業增大)를 초래(招來)하여 오히려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다.

우리 나라 경제(經濟)는 1960년대(年代) 이후(以後) 세 차례의 경제개발(經濟開發)5개년계획(個年計劃)을 성공적(成功的)으로 수행(遂行)하여, 이제 중진국(中進國)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국내산업(國內產業)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도 꾸준히 강화(強化)되어 일부업종(一部業種)은 이미 국제수준(國際水準)에 도달(到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의 필요성(必要性)이 점차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는 외향적(外向的) 성장정책(成長政策)을 추구(追求)하는 우리 경제(經濟)가 머지 않은 장래(將來)에 거쳐야 할 과정(過程)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에 대비(對備)해서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으로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을 육성(育成)함으로써 국내산업구조(國內產業構造)를 세계무역구조(世界貿易構造)의 변화경향(變化傾向)에 맞추어 고도화(高度化)하고 원료산업(原料產業)을 개발(開發)하여 원자재(原資材)의 자급도(自給度)를 높이는 한편 기업(企業)의 재무구조개선(財務構造改善)과 기술향상(技術向上) 및 전문화(專門化) 계열화(系列化)를 촉진(促進)하는 등 산업내부(產業內部)의 합리화(合理化)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기대부문(成長期待部門)에 대한 지원시책(支援施策)과 쇠퇴산업(衰退產業)에 대한 전환대책(轉換對策), 그리고 기업(企業)의 체질강화(體質強化)를 유도(誘導)하기 위한 대책(對策) 등을 망라한 종합적(綜合的) 산업정책(產業政策)이 수립(樹立) 시행(施行)되어야 할 것이다.

소련의 민방위(民防衛)

〈전(前) 공군참모총장(空軍參謀總長)〉

김두만(金斗萬) 역(譯)

GO란 말은 소련식(蘇聯式) 카아드놀이의 이름이 아니고 GTO란 말은 소련제(蘇聯製) 스포츠카의 이름도 아니다.

GO란 말은 Grazhdanskaya Obor란 러시아말의 첫 머리를 딴 것으로서 민방위(民防衛)란 뜻이며, GTO란 말은 군사경기용(軍事競技用) 종합경기장(綜合競技場)을 말하며, 그 원뜻은 「노동(勞動) 및 방위태세(防衛態勢)」란 것이다. ZOMP는 러시아어(語) 표현(表現)의 첫 머리를 딴 것인데 대량파괴무기(大量破壞武器)로부터의 방위(防衛)란 뜻이다. 이와 같은 약자(略字)는 일곱살의 어린이부터 70세(歲)의 노인(老人)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련(蘇聯)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근(親近)한 말들인 바 이 말들은 민방위(民防衛)의 여러가지 다른 양상(樣相)을 표현(表現)한다. 「민방위(民防衛)는 모든 사람이 맡아야 할 의무(義務)이다.」란 말을 소련(蘇聯) 사람은 언제나 듣고 있다.

공산당(共產黨) 정치국(政治局)은 민방위(民防衛)를 심각(深刻)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방위업무(民防衛業務)에 전임(專任)하는 몇 사람의 장관급(將官級) 인사(人事)들의 이름이 알려졌다. 모스크바 민방위군사학교(民防衛軍事學校)는 세계(世界)에서 이런 종류(種類)의 학교(學校)의 효시(嚆矢)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학교(學校)는 1967년(年) 기계화(機械化) 민방위부대(民防衛部隊)를 위(爲)한 장교(將校)를 양성(養成)하는 3년과정(年課程)의 교육(教育)을 시작(始作)했다.

AT 앞두넨대장(大將)이 1772년(年) 소련(蘇聯) 민방위국장(民防衛局長) 겸 국방차관보(國防次官補)가 되었는데 이는 SALT 1(제(第)1단계(段階) 전략무기제한협상(戰略武器制限協商))이 서명(署名)된 불과(不過) 몇 개월(個月) 뒤의 일이었다. 소련(蘇聯) 정부소식통(政府消息通)은 민방위(民防衛)를 소련(蘇聯)의 다른 5군(軍), 즉 전략(戰略) 로켓군(軍), 지상군(地上軍) 방공군(防空軍), 공군(空軍), 해군(海軍)과 대등(對等)한 위치(位置)에 올려 놓고 있다.

1975년(年) 6월(月)과 7월(月)에는 2, 300만명(萬名)의 소련(蘇聯) 청년(靑年)들이 야외(野外)에서 대규모(大規模) 군사운동(軍事運動) 경기(競技)에 참가(參加)했다. 이 경기(競技)들의 목적(目的)은 군사(軍事) 애국교육(愛國教育) 즉, 젊은이의 체력(體力), 군사(軍事) 훈련(訓練)을 향상(向上)시키기 위(爲)한 것이었다. 모의핵전(模擬核戰) 상황(狀況)에서의 대피생존훈련(待避生存訓練)(Survival Training)은 이들 경기내용(競技內容)의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민방위(民防衛)에 관(關)해서 발간(發刊)된 수백만권(數百萬卷)의 책자(冊子)에는 방독면사용법(防毒面使用法)과 응급의료품(應急醫療品)—여기에는 화생방(化生防) 공격시(攻擊時)에 사용(使用)되는 응급약(應急藥)까지도 포함(包含)되고 있다—의 사용법(使用法)이 늘 게재되었다. 예(例)를 들면 대학생(大學生)의 필수과목(必須科目)인 민방위과정(民防衛課程)에 쓰이는 1974년(年) 교본(敎本)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방사능약(放射能藥) 제(第)1호(號)는 방사능(放射能)의 위험(危險)이 있을 때 복용(服用)하며(30분(分) 내지(乃至) 40분(分)에 걸쳐 여섯알), 방사능(放射能)이 반복(反復)될 경우(境遇)에는 다시 여섯알을 복용(服用)한다.

◎ 민방위(民防衛)에 관(關)한 상반(相反)된 관점(觀點)

소련(蘇聯)에서의 노력(努力)과는 대조적(對照的)으로 미국(美國) 정부(政府)는 오늘날 민방위(民防衛)에 대(對)해서 거의 신경(神經)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미국(美國)에서는 미소(美蘇) 어느 쪽에 서든지 민방위계획(民防衛計劃)을 제정(制定)한다는 것은 현재(現在) 이룩되고 있는 전략적균형(戰略的均衡)을 깨뜨리고 불안정(不安定)한 사태(事態)를 조성(造成)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對)한 소련(蘇聯)의 반응(反應)은 다음과 같이 명확(明確)하다.

소련(蘇聯)의 민방위(民防衛)는 전쟁(戰爭)을 유발(誘發) 촉진(促進) 자극(刺激)하지 않는다. 민방위(民防衛)의 본질(本質)은 사회주의국(社會主義國)의 평화애호적(平和愛護的) 외교정책(外交政策)에 의(依)하여 결정적(決定的)으로 영향(影響)을 받는다. 따라서 서구(西歐)의 전문가(專門家)들의 예측(豫測)—즉 소련(蘇聯)의 민방위강화(民防衛強化)는 소련외교정책(蘇聯外交政策)의 경화(硬化)와 심지어는 국제긴장(國際緊張)의 악화(惡化)를 유도(誘導)한다—은 근거(根據)가 없다.

이 말은 소련군사문제(蘇聯軍事問題)에 관(關)한 당(黨)의 대변인격(代辯人格)인 소련군(蘇聯軍) 정치국(政治局)에서 발간(發刊)한 1972년(年)의 책자(冊子)에서 인용(引用)한 것인데 여기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되었다.

「소련(蘇聯)의 민방위(民防衛)를 개선(改善)한다는 것, 즉 그 효율성(效率性)을 높인다는 것은 제국주의자(帝國主義者)들이 새로운 세계전쟁(世界戰爭)을 야기(惹起)시키는데 대한 또 하나의 실질적(實質的)인 장애(障礙)에 불과(不過)하다. 따라서 소련(蘇聯)의 민방위(民防衛)는 우리 국가(國家)의 평화적(平和的) 활동(活動)을 강화(強化)하며, 전반적(全般的)으로 국제적(國際的) 안전(安全)을 공고(鞏固)하게 한다.」

소련(蘇聯)의 국방상(國防相)이며 정치국원(政治局員)인 안드레이구레츠코 원수(元帥)는 1975년(年)에 발간(發刊)된 저서(著書) 「소련군(蘇聯軍)」(The Armed Forces of the Soviet State)에서 이제 민방위(民防衛)는 전략적(戰略的) 중요성(重要性)을 갖는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그의 견해(見解)에 따르면 「현대전(現代戰)은 전반적(全般的) 국가경제(國家經濟) 활동(活動)의 안정(安定)과 국가인구(國家人口)의 신빙성(信憑性)있는 보호(保護)를 보증(保證)하는 치밀(緻密)한 체계적(體系的) 대책(對策)을 필요(必要)로 한다」는 것이다.

◎ 소련(蘇聯) 민방위(民防衛)의 역사(歷史)

1961년(年) 이전(以前)까지 민방위(民防衛)는 국지방공(局地防空)이란 뜻을 가진 MPVO라고 불리웠으며 내무성(內務省) 통제하(統制下)에 있었다. 1961년(年) 7월(月) 그것은 국가적(國家的)인 차원(次元)으로 재편성(再編成)되어 소련(蘇聯) 민방위군(民防衛軍)으로 되었으며, 국방부(國防部) 산하(傘下)에 들어갔다. 그의 첫 지휘관(指揮官)은 당시(當時) 지상군(地上軍) 사령관(司令官)이요, 국방차관(國防次官)인 비실리 추코프가 되었다. 소련(蘇聯) 민방위군(民防衛軍)의 이와같은 새로운 지위(地位)는 소련군(蘇聯軍)에게 도입(導入)된 핵무기(核武器)와 탄도탄(彈道彈)이 갖다 준 「군사문제(軍事問題)의 혁명(革命)」의 결과(結果)였다. 1960년(年)에 채택(採擇)된 새로운 군사교의(軍事敎義)의 근본적(根本的) 교리(敎理)는 「군(軍), 국가(國家), 그리고 모든 소련인민(蘇聯人民)들은 핵(核), 로켓전(戰)에 대비(對備)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蘇聯) 민방위군(民防衛軍)에 주어진 세 가지 임무(任務) 분야(分野)는 다음과 같다.

- 인구(人口) 보호(保護)
- 전시(戰時)에 경제(經濟)의 계급적(繼給的)인 가동(稼動)
- 핵공격(核攻擊) 후(後)의 복구(復舊) 및 재난(災難) 구조(救助)

이들 임무(任務)의 범위(範圍)—특(特)히 첫째 임무(任務)의 범위(範圍)는—인구(人口)를 핵벽(核壁)으로부터 대피(待避)시키고 부상자(負傷者)를 구호(救護)하는 것에 그치는 서방(西方) 이념(理念)의 민방위(民防衛)보다 훨씬 광범위(廣範圍)하다. 소련식(蘇聯式) 민방위계획(民防衛計劃)에서 「인구(人口) 보호(保護)」는 소극적(消極的) 대책(對策) 이상(以上)의 것을 포함(包含)한다. 그것은 아래 기술(記述)한 여러 계획(計劃)을 거쳐 공격(攻擊)에 대비(對備)한 적극적(積極的) 방어(防禦)에 대비(對備)할 수 있도록 민간인(民間人)에 대(對)한 무기사용법(武器使用法) 훈련(訓練)까지에 이른다.

◎ 임무(任務)1, 인구(人口) 보호(保護)

소련(蘇聯)의 관리(官吏)들은 만약(萬若) 민방위대책(民防衛對策)이 사전(事前)에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히로시마」의 피해(被害)는 상당(相當)히 줄일 수 있었다는 점(點)을 지적(指摘)한다. 예(例)를 들어 폭격기(爆撃機)가 출현(出現)했을 때 아무런 경고(警告) 신호(信號)도 주어지지 않았다. 폭발(爆發) 후(後)에는 폭탄(爆彈)의 희생자(犠牲者)에 추가(追加)해서 공포(恐怖)로 인한 희생자(犠牲者)들이 수천명(數千名)에 이르렀다. 그리고 수개월(數個月) 후(後)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放射能) 때문에 죽었다. 「알투진」장군(將軍)에 의(依)하면 만약(萬若)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保護)할 방법(方法)을 알았들면 수만명(數萬名)이 오늘날 생존(生存)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민방위(民防衛)는 1966년(年) 제(第)23차(次) 전당대회(全黨大會)에서 브레즈네프 총서기(總書記)가 이 문제(問題)에 관(關)한 가일층(加一層)의 주의(注意)를 요청(要請)함으로써 크게 추진(推進)되었다. 이 당시(當時) 주(主)로 방공호(防空壕)에 의존(依存) 위주(爲主)에서 피난분산(避難分散)(Evacuation) 위주(爲主)로 전환(轉換)이 이루어졌다. 일반적(一般的) 계획(計劃)은 공격(攻擊) 받을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도시(都市)로부터 필요(必要)한 노동자(勞働者)들을 35 내지(乃至) 50마일 거

리(距離)로 분산(分散)시킨다는 것이었다. 노인(老人), 어린이 및 환자(患者)는 더 적은 도시(都市)로 후송(後送)할 것이었다.

후송(後送)은 사전(事前) 경보(警報), 도시(都市)의 크기와 중요성(重要性), 주변지역(周邊地域) 수송(輸送) 수단(手段) 등(等) 여러 가지 복잡(複雜)한 요소(要素)에 의(依)해서 결정(決定)된다. 후송(後送) 또는 분산(分散)은 예기(豫期)될 수 있는 공격(攻擊)의 위협(威脅)이 야기(惹起)될 때 정부(政府)의 명령(命令)으로 이루어진다. 핵파괴력(核破壞力)의 산정(算定)을 기초(基礎)하여 안전(安全) 거리(距離)를 정(定)할 수 있고 공격(攻擊)이 일어나기 전(前)에 사람들을 안전(安全)한 촌락(村落), 캠프 휴양지(休養地) 등(等)으로 이동(移動)시킬 수 있다. 각(各) 도시(都市)의 후송위원회(後送委員會)에 의(依)한 사전계획(事前計劃)은 한 지역(地域)을 후송(後送)시키는 소요시간(所要時間)을 최소한도(最小限度)로 줄이게 한다. 모든 시민(市民)은 라디오, TV, 확성기(擴聲器) 등(等)을 통(通)하여 후송 결정(後送決定)의 경고(警告)를 전해 듣고 개별적(個別的) 호신용구(護身用具) 2, 3일간(日間)의 식량(食糧), 의료(醫療), 주요서류(主要書類) 및 가능(可能)하다면 구호약품대(救護藥品袋)까지 챙겨 지정(指定)된 후송지점(後送地點)으로 간다.

그곳에서 자신(自身)의 후송증명서(後送證明書)를 제시(提示) 함으로써 기차(汽車), 버스, 배 등(等)의 지정(指定)된 후송수단(後送手段)에 탑승(搭乘)하게 된다. 어떤 경우(境遇)에는 지정(指定)된 후송 지역(後送地域)까지 도보(徒步)로도 가야 한다. 후송(後送)에 대비(對備)할 시간적(時間的) 여유(餘裕)가 없는 경우(境遇)에 사람들은 공습경보(空襲警報)를 들으면 즉시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住居地域)이나 공공(公共)빌딩, 지하철역(地下鐵驛), 터널 또는 기타(其他) 보호용(保護用) 교조물(救助物)에 있는 대피소(待避所)로 가야 한다.

방사능진(放射能塵)의 위협(威脅)을 받는 농촌지역(農村地域)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사능진(放射能塵)이 그 지역(地域)에 떨어질 시각(時刻)이 알려지고 따라서 그들은 그 시간(時間)을 활용(活用)하여 가축(家畜)과 식량(食糧) 및 음료수에 보호(保護) 조치(措置)를 한 후(後)에 대피소(待避所)에 피신(避身)한다. 화학적(化學的)인 공격(攻擊)일 경우(境遇) 대피소(待避所)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방독면(放毒面)과 보호(保護) 복장(服裝)을 착용(着用)해야 하며 민방위부대(民防衛部隊)가 지시(指示)한 방향(方向)의 안전지역(安全地域)으로 가서 제독(除毒)을 받게 된다. 대부분(大部分) 소련(蘇聯)의 대도시(大都市)—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트비리시 바쿠칼코프 및 하시킨트와 같은—에서는 지하(地下) 깊은 곳에 있는 지하철(地下鐵)이 핵폭발(核爆發)에 대한 훌륭한 대피체계(待避體系)를 제공(提供)한다. 이들 지하철(地下鐵)은 전거리(全距離)에 걸쳐 무거운 폭풍차단문(爆風遮斷門)(Blastdoors)들이 장치(裝置)되어 있어 필요(必要)하다면 각(各) 부분(部分)을 차단(遮斷)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現在) 90마일 길이의 지하철(地下鐵)만으로도 약(約) 100만명(萬名)의 시민(市民)이 수용(收容) 가능(可能)하다고 평가(評價)되고 있다. 1941년(年)의 모스크바 전(全) 도시(都市) 지하철(地下鐵)은 소련군(蘇聯軍) 총(總) 참모부(參謀部)까지도 수용(收容)했었다.

소련(蘇聯) 민방위(民防衛) 계획수립자(計劃樹立者)들은 대피소(待避所)를 이중(二重) 목적(目的)으로 사용(使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主張)한다. 평화시(平和時) 이들은 차고(車庫), 창고(倉庫), 강의실(講義室) 등(等)으로 이용(利用)될 수 있다. 민방위(民防衛)는 또한 방독면(防毒面)과 인공호우장치(人工呼吸裝置), 특수안장(特殊眼裝) 및 특수화(特殊靴)를 제공(提供)하게 되어 있고 식량(食糧)과 음료수 공급(供給)도 제공(提供)되어야 한다.

폭격(爆擊)에서 인구(人口)를 구(救)한 다음 이들을 굶주려 죽인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국민(國民)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바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국민(國民)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救)할 수 있는 대책(對策)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심리적(心理的) 대비(對備)는 아주 중요(重要)하다. 따라서, 민방위(民防衛)에 있어서 일반의무과정(一般義務課程)이 오래 동안 실시(實施)되어 왔다. 1956년(年)에 이 과정(課程)은 12시간(時間) 교육과정(教育課程)이었는데 1957년(年)에 22시간(時間)으로 늘어났으며, 핵무기(核武器)뿐만 아니라 화학(化學) 및 생물학적(生物學的) 공격(攻擊)에 대(對)한 방어(防禦)도 포함(包含)되었다. 1960년대(年代) 초반기(初半期) 19시간(時間)짜리 과정(課程)이 있었는데 지금은 20시간(時間)으로 늘어났다.

상급학교(上級學校) 학생(學生)은 물론 오늘날 2학년(學年), 6학년(學年), 9학년(學年) 학생(學生)들은 그들 학교(學校)에서 실시(實施)하는 특별교육(特別教育)을 받는다. 모든 노동이자(勞動者) 직장(職場)에서 20시간(時間)의 민방위교육(民防衛教育)을 받아야 한다. 노동(勞動)을 하지 않는 퇴직(退職)한 사람들도 독자적(獨立的)으로 공부(工夫)를 해야 하며, 강연(講演)에 참가(參加)해야 한다. 교육실시(教育實施)는 민방위(民防衛) 참모(參謀)와 Znaniye 협회(協會)가 적십자(赤十字)와 Red Crescent의 협조(協助)를 얻어 실시(實施)한다.

◎ 민방위(民防衛) 참모진(參謀陣)의 역할(役割)

15개(個)의 소련(蘇聯) 공화국(共和國)들에는 각(各) 공화국(共和國)의 민방위국장(民防衛局長)으로 장관급장교(將官級將校)로서 보임(補任)되어 있다. 각(各) 기관(機關), 공장(工場), 집단농장(集團農場), 학교(學校) 또는 단체(團體)들은 그 지방당국(地方當局)과 밀접(密接)하게 활동(活動)할 수 있도록 민방위조직(民防衛組織)을 해야 한다. 각(各) 직장(職場)의 장(長)은 그 직장(職場)의 민방위(民防衛) 대장(隊長)이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임무(任務)의 수행(遂行)을 보좌(補佐)하는 참모진(參謀陣)을 갖는다.

- 민방위(民防衛) 교육과정(教育課程) 실시(實施)
 - 노동자(勞動者)의 분산(分散) 및 가족(家族)들의 후송(後送) 계획(計劃)
 - 적절(適切)한 방공호(防空壕) 건축(建築)
 - 전시(戰時) 공장(工場)의 계속적(繼續的)인 가동(稼動)
 - 대량파괴무기(大量破壞武器)에 의(依)한 적(敵)의 공격(攻擊)이 있을 후(後)의 복구작업(復舊作業)
- 민방위참모장(民防衛參謀長)은 당조직(黨組織) Komsomol(공산청년동맹(共產青年同盟)) 노동조합(勞動組合) 및 지방도시(地方都市) 위원회(委員會)들의 협조(協助)를 받는다.

◎ DOSAAF 역할(役割)

DOSAAF는 그 역사(歷史)가 1920년대(年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준(準) 군사조직(軍事組織)으로서 「육(陸)·해(海)·공군(空軍)과의 협동(協同)을 위(爲)한 지원자(支援者)의 모임」이란 뜻이다. 여기에는 10재(才) 이상(以上)의 약(約) 1000만명(萬名)에 달하는 활동회원(活動會員)이 있다. 또한 DOSAAF 운동경기시설(運動競技施設)을 이용(利用)하는 수(數)도 4000만(萬) 내지(乃至) 6000만

(萬)에 이른다. DOSAAF의 우두머리는 공군원수(空軍元帥)(Marshal of Aviation): 그는 휘하(麾下)에 대규모(大規模)의 참모진(參謀陣)을 갖고 있다. DOSAAF가 갖는 주요(主要) 임무중(任務中)의 하나는 민방위훈련(民防衛訓練)의 지원(支援)이다. DOSAAF는 GTO(노동(勞動) 및 방위태세완비(防衛態勢完備)란 뜻)라고 불리우는 종합체육경기장(綜合體育競技場)을 통(通)해서 그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한다. 가장 최근(最近)의 교육과정(教育課程)은 1972년(年)에 도입(導入)되었는데 그 전(前)의 과정(課程)과 다른 점은 청년훈련과정(青年訓練課程)의 시작연령(始作年令)을 14재(才)에서 10 재(才)로 인하(引下)했다는 것이다. 각(各) 개인(個人)은 연령(年令)에 따라 5단계(段階)의 과정(課程)을 겪어 나간다. 각(各) 단계(段階)에는 민방위훈련(民防衛訓練)이 들어 있다. 각(各) 단계(段階)의 기준(基準)에 합격(合格)하는 자(者)들에게는 금(金) 및 은(銀)메달을 수여(授與)하는 것을 크게 강조(強調)한다. DOSAAF는 또한 군사운동경기대회(軍事運動競技大會)를 개최(開催)한다.

1967년(年) 여름 DOSAAF는 공산주의(共產主義) 청년동맹(青年同盟) 군사인민위원회(軍事人民委員會)와의 협동(協同) 아래 전국(全國)에 걸쳐 수백만(數百萬)의 10대(代)들에게 Zarnista (여름 번갯불)란 약호(略號)로 불리우는 군사(軍事) 운동경기(運動競技)를 조직(組織)했다. 1975년(年)에 와서는 1600만(萬)의 청년(青年)들이 이들 경기(競技)에 참가(參加)하고 있었다. Zarnista가 크게 성공(成功)했기 때문에 1972년(年) 10대(代) 후반(後半)들을 위한 Orlenok(독수리새끼)경기(競技)가 시작(始作)되었다. 1975년(年) 700만명(萬名)이 참가(參加)했다. 이들 경기(競技)의 특색적(特色的)인 부분(部分)은 오염지역(汚染地域)의 식별(識別)과 방사능(放射能) 안전규칙(安全規則)과 민방위대책(民防衛對策)에 따라 이들 지역(地域)을 우향(右向)하거나 통과(通過)하는 방법(方法)을 결정(決定)하는 것이다. 이들 경기(競技)의 우승자(優勝者)들에게는 특별(特別)한 의식(儀式)에서 시상(施賞)하고 주요신문(主要新聞)과 TV에서 게재 및 방영(放映)한다.

◎ Znaniye(지식(知識)) 협회(協會)의 역할(役割)

대부분(大部分) 과학자(科學者)와 교사(教師)로 구성(構成)된 300만(萬) 회원(會員)을 가진 Znaniye는 국민(國民)들에게 대한 과학교육적(科學教育的)인 사업(事業)을 실시(實施)한다. 여기에는 전달수단(傳達手段)으로 직접(直接) 또는 라디오와 TV를 통한 강의(講義)를 이용(利用)한다.

예(例)를 들어 1973년(年) 여러 계층(階層)의 청중(聽衆)들에게 2100만회(萬回)의 일반과학(一般科學) 강연(講演)을 실시(實施)했고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30만회(萬回)가 실시(實施)되었다.

Znaniye협회(協會)는 소련국민(蘇聯國民)에게 핵무기(核武器)의 방사능(放射能)과 기타(其他) 파괴적(破壞的)인 요소(要素), 독(毒)가스(毒氣)와 신경(神經)가스의 위험(危險) 및 세균전(細菌戰)에 관(關)해서 교육(教育)한다. Znaniye강(講義)의 선동(煽動)과 선전(宣傳)의 형태(形態)를 취하여 시민(市民)들로 하여금 민방위(民防衛)의 기본사항(基本事項)을 배우고 군(軍)을 지원(支援)하며, 규정(規定)된 작업량(作業量)과 기타(其他) 사회적(社會的) 의무(義務)를 수행(遂行)하는데 더 많은 노력(努力)을 기울이도록 일깨우기 위(爲)한 것이다.

◎ 민방위계획(民防衛計劃)의 협동(協同)

민방위업무(民防衛業務)에 관(關)한 Znaniye협회(協會) DOS AAF 및 Komsomols간(間)의 협동

(協同)의 한 예(例)를 든다면 모스크바와 레닌 그라드 사이 카리닌시(市)에 위치(位置)한 제(第)5기술고등학교(技術高等學校)의 계획(計劃)이다. 예비역(豫備役) 중령(中領)으로 현역복무중(現役服務中)인 군사교관(軍事教官)이 학문(學校) DOSAAF의 장(長)이다. 군부대(軍部隊)에서 25년간(年間)의 복무(服務)를 마치고 그는 그 지방(地方) 군사정치위원회(軍事政治委員會)에 의(依)하여 그 직책(職責)에 선임(選任)되었다. 그의 두 가지 임무(任務)는 학생(學生)들에 대(對)한 입대전(入隊前)의 군사훈련(軍事訓練)과 민방위교육(民防衛教育)이다. 학교(學校)의 당위원회(黨委員會) Komsomol 임원(任員) 및 교직원(教職員)이 협조(協助)한다. 그는 또한 시(市) DOSAAF 위원회(委員會)의 직접적(直接的)인 협조(協助)를 받으며, 그 지방(地方) Znaniye 협회(協會)와 긴밀(緊密)한 유대(紐帶)를 가진다. 이 특정(特定)한 학교(學校)에서는 물리교사(物理教師)가 모든 학생(學生)이 DOSAAF의 GTO 기준(基準)에 합격(合格)하도록 하는 책임(責任)을 지고 있다. DOSAAF가 선임(選任)한 Komsomol 회원(會員)인 다른 교사(教師)는 운동시험(運動試合) 개최(開催)와 군사유적(軍事遺跡) 전쟁(戰爭)터 박물관(博物館)에로의 수학여행(修學旅行)을 계획(計劃) 주선(周旋)한다.

DOSAAF 위원회(委員會)는 사격장(射擊場)과 군사경(軍事競) 기장(技場)을 마련하고 연간교육계획(年間教育計劃)을 작성(作成)한다. DOSAAF는 학생(學生)과 DOSAAF교수(教授) 회원(會員)이 판매(販賣)하는 복권(福券)에 의(依)해서 주로 경비지원(經費支援)을 받는다. 이 학교(學校) DOSAAF 위원회(委員會)의 첫 관심사(關心事)는 설비(設備)가 잘 갖추어진 초등군사교육용(初等軍軍教育用) 교실(教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초등군사훈련(初等軍事訓練)이 도입(導入)되기 이전(以前)에는 자그만한 민방위교실(民防衛教室)이 있었지만 그것은 개조(改造)가 필요(必要)했다. 개조(改造)는 무기창고(武器倉庫)를 가진 군사교실(軍事教室)이 완성(完成)된 후 이루어졌다. 현재(現在) 민방위교실(民防衛教室)은 바로 방공대피소(防空待避所)이다. 여기에는 도시(都市)의 큰 모형도(模型圖), 이 학교(學校)의 것도 같이 포함(包含)한 도시(都市) 분산(分散) 및 후송(後送) 계획(計劃)의 모형도(模型圖), 학교(學校) 방공대피소(防空待避所)의 모형도(模型圖) 및 핵폭발모형도(核爆發模型圖)가 있다. 학교(學校) 졸업(卒業) 전(前)에 학생(學生)은 그 지방(地方) 군부대(軍部隊) 주둔지(駐屯地)의 군사경기(軍事競技) 캠프에서 2주간(週間)을 보낸다. 그 지방(地方) 군부대(軍部隊) 지휘관(指揮官)은 필요(必要)한 보급품(補給品)과 함께 장교(將校)와 하사관(下士官)들을 캠프에 선발(選拔) 파유(派遣)한다. 캠프의 숙영자(宿營者)들은 소대(小隊)로 나누어 장교(將校)와 하사관(下士官)들에 의(依)하여 훈련(訓練)된다. GTO 기준(基準)에 합격(合格)하기 위(爲)하여 훈련(訓練)은 가열(苛烈)된다. 캠프에서의 최종시험(最終試驗)은 전국적(全國的)으로 실시(實施)되는 Orlenok 경기대회(競技大會)와 같은 군사운동경기(軍事運動競技)이다. 득점(得點)이 집계(集計)되어 지구(地區)의 우승자(優勝者)들이 발표(發表)되고 성대(盛大)한 식전(式典)에서 시상(施賞)을 하며, 전국대회(全國大會) 우승자(優勝者)는 모스크바로 특별(特別) 여행(旅行)을 하는 대접(待接)을 받는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인구보호(人口保護)의 과업(課業)은 체력(體力), 군사(軍事) 및 민방위훈련(民防衛訓練) 및 심리적(心理的) 세뇌교육(洗腦教育)이 종합(綜合)되어 이루어 진다. 소련지도자(蘇聯指導者)들은 전쟁준비태세(戰爭準備態勢)의 필요성(必要性)에 대(對)한 신념(信念)을 유지(維持)시키는데 히틀러의 소련침공(蘇聯侵攻) 및 내란기(內亂期)의 외국(外國) 간섭을 최대한도(最大限度)로 이용(利用)한다. 젊은 세대(世代)에게 피습(被襲)의 공포(恐怖)와 애국적(愛國的) 의무수행(義務遂行)의 필요성(必要性)을 주입(注入)시키기 위한 유적(遺跡), 박물관(博物館) 및 기념물(記念物)이 도처(到處)에 있다.

◎ 임무(任務) 2, 전시경제(戰時經濟)의 지속적 가동(持續的 稼動)

비록 소련(蘇聯)의 군사기획(軍事企劃) 수립자(樹立者)들은 장차 전쟁발발시(戰爭勃發時) 조속(早速)한 승리(勝利)를 원하지만 그들은 또한 국가(國家)가 지속적(持續的)인 전쟁(戰爭)을 할 준비(準備)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充分)히 인식(認識)하고 있다. 소련(蘇聯)의 기획수립자(企劃樹立者)들은 핵전(核戰)이 발발(勃發)할 경우 전도시(全都市)가 완전(完全)히 파괴(破壞)될 것을 예측(豫測)한다. 경제(經濟)의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이 계속(繼續) 가동(稼動)할 것을 보증(保證)하기 위하여 계획(計劃)된 공업분산(工業分散)은 여러 해 동안 실시(實施)되어 왔다. 이것은 소련(蘇聯)에서 1941년(年) 7월(月)부터 11년까지 1000만명(萬名)의 인원(人員)과 2600개(個)의 공장(工場)이 대거(大擧) 우랄과 중앙(中央)아시아 지역(地域)으로 이동(移動) 철수(撤收)되었다는 사실(事實)을 상기(想起)하면 충분(充分)히 알 수 있다. 종전후(終戰後)에도 이들 공장(工場)들은 그 곳에 잔류(殘留)했으며, 그와 똑같은 공장(工場)들을 예전에 있던 도시(都市)에 건설(建設)했다. 민방위(民防衛)의 필요성(必要性)은 소련동부(蘇聯東部)와 북부(北部)에 형성(形成)된 많은 신생도시(新生都市) 지역(地域)에서 특(特)히 존재(存在)한다. 구레츠코원수(元帥)는 1971년(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산공장(生産工場)들의 동부(東部) 이동(移動)은 이들 생산공장(生産工場)들을 원료(原料)와 연료(燃料) 자원(資源)에 근접(近接)시키는 것과 여러 경제구역(經濟區域)으로 그들을 분산배치(分散配置)하는 것은 소비에트 조국(祖國)의 방어능력(防禦能力)을 크게 향상(向上)시킬 것이며, 제국주의(帝國主義)가 핵(核) 유도무기전쟁(誘導武器戰爭)을 일으켰을 때의 우리 산업(産業)의 취약성(脆弱性)을 적게 할 것이다.」 분명(分明)히 가능(可能)한 전쟁(戰爭)을 위(爲)한 경제적(經濟的) 준비(準備)에서 한 중요(重要)한 요소(要素)는 식량(食糧) 비축(備蓄)이다. 1974년(年)에 발간된 책(冊)인 The CPSU-사회주의(社會主義) 조국방어(祖國防禦)의 조직수단(組織手段)은 다음과 같은 레닌의 말을 인용(引用)하여 이 필요성(必要性)을 상기(想起)시킨다.

「많은 양(量)의 국가비축양곡(國家備蓄糧穀)이 없다면 붉은 군대(軍隊)는 강(強)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 군대(軍隊)는 마음대로 이동(移動)할 수 없으며 충분(充分)한 훈련(訓練)도 할 수 없다.」

최근(最近) 서방(西方)으로부터의 곡물구매(穀物購買)는 어떤 대가(代價)를 치루더라도 곡물비축(穀物備蓄)을 유지(維持)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뚜렷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임무(任務) 3, 핵공격후(核攻擊後)의 복구(復舊) 및 재난구제(災難救濟)

이 과업(課業)은 군(軍)으로서의 민방위부대(民防衛部隊)가 전시(戰時) 및 천재(天災) 발생시(發生時) 지역(地域)의 소방(消防) 및 비군사(非軍事) 조직(組織)과 협동(協同)할 것을 필요(必要)로 한다. 불도저나 크레인(크레인)이 오염지구(汚染地區)에서 작업(作業)하도록 훈련(訓練)받은 숙련(熟練)된 조작자(操作者)와 함께 이용가능(利用可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역(地域)의 방사능유무(放射能有無), 질서유지(秩序維持), 표시판설치(標示板設置), 생존자(生存者)와 의료구호(醫療救護) 대상자의 후송(後送), 신속(迅速)한 제독(除毒)을 할 수 있는 인원(人員)이 필요(必要)하다. 1972 년(年) 여름 건조기후(乾燥氣候) 때문에 많은 산(山)불이 일어나 모스크바 북방(北方)의 탄소지(炭沼池)가 자연발화(自然發火)하여 간선철로(幹線鐵路)의 운행(運行)을 수일간(數日間) 정지(停止)시켰다. 민방위부대

(民防衛部隊)와 비군사조직(非軍事組織)은 군(軍)과 합세(合勢)하여 수천(數千)에이커의 지역(地域)에서 맹위(猛威)를 떨치는 무서운 불의 진화작업(鎮火作業)에 임했다. 민방위부대(民防衛部隊)는 통신(通信), 철도(鐵道) 및 교량(橋梁)의 복구(復舊), 불발폭탄(不發爆彈)의 해제(解體), 그리고 공수부대(空輸部隊) 공격(攻擊) 및 적(敵) 게릴라부대(部隊)에 대한 대응까지 하는 책임(責任)을 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가능(可能)한 빨리 중요(重要)한 공장(工場)들을 가동(稼動) 상태(狀態)로 복구(復舊)시키는 것이다.

미(美)·소간(蘇間)에 ICBM의 개략적(概略的)인 평형(平衡)이 유지(維持)되는 상태(狀態)에서 초강대국(超強大國) 사이에 전면(全面) 핵전쟁(核戰爭) 가능성(可能性)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략가(戰略家)들은 소규모(小規模)의 외과적(外科的) 국부공격(局部攻擊)(외과적(外科的) 공격(攻擊): Surgical Attacks)의 가능성(可能性)은 더욱 증대(增大)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상불가능(想像不可能) 한 가공(架空)한 일의 가능성(可能性)이 적어 질수록 제한(制限) 핵공격(核攻擊) 및 이의 위협(威脅)은 더욱 그 가능성(可能性)이 커진다. 만약 그러한 공격(攻擊)의 교환(交換)이 일어날 때 또는 그것이 위협(威脅)으로 사용(使用)될 때 공격후(攻擊後)의 복구태세(復舊態勢)가 잘 갖추어진 국가(國家)가 분명(分明)히 우위(優位)에 서게 되며 이것은 협상(協商)에서 결정적(決定的)인 요인(要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면핵전(全面核戰)에 대한 우월(優越)한 민방위계획(民防衛計劃)을 가진 국가(國家)가 전면 대비를 하지 않는 국가(國家)보다 제한(制限)된 공격(攻擊)을 견디어 나가는데 더 우위(優位)에 서게 된다. 소련(蘇聯)이 민방위(民防衛)에 경주하는 만큼의 주의(注意)를 자유(自由) 사회(社會)에서는 똑같이 줄 수 없다. 이것은 사려(思慮)깊은 기획수립자(企劃樹立者)가 그와 같은 사태(事態)에 대비(對備)하여 사전(事前)에 모든 준비(準備)를 시도(試圖)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意味)하지 않는다. 소련지도자(蘇聯指導者)들은 국민(國民)으로 하여금 육체적(肉體的)으로 정신적(精神的)으로 핵전쟁(核戰爭)의 가능성(可能性)에 대비(對備)하도록 했으나 서방(西方)의 지도자(指導者)들은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역자(譯者) 주(註)

미국(美國)은 전략핵무기(戰略核武器)에 의(依)한 미(美)·소간(蘇間)의 전면전(全面戰)은 상상(想像)조차 할 수 없다는 결론하(結論下)에 그간(間) 상호확증파괴(相互確證破壞)(M.A.D.) 이론(理論)에 근거(根據)를 둔 억제전략(抑制戰略)에 의존(依存)해 왔던 것은 우리가 다 주지(周知)하는 사실(事實)이며, 전략무기(戰略武器) 제한협상(制限協商)(SALT)도 역시(亦是)이 전략(戰略)의 일환(一環)으로서 추진(推進)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蘇聯)은 분명(分明)히 미국(美國)의 MAD이론(理論)과 억제(抑制) 전략(戰略)을 외면(外面)하고 있음이 최근(最近) 여러가지 증거(證據)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中) 하나가 바로 소련(蘇聯)의 민방위체제(民防衛體制)인 것이다. 소련(蘇聯)은 SALT를 통(通)해서 전략핵무기(戰略核武器)에 있어서의 미국(美國)과의 격차(隔差)를 없앨 뿐만 아니라 보다 우위(優位)를 확보(確保)하는데 주력(注力)하고 있으며, 광범위(廣範圍)하고도 철저(徹底)한 민방위 계획(民防衛計劃)을 수립(樹立)함으로써 미국(美國)의 M.A.D. 이론(理論)을 근저(根底)로부터 흔들 어 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最近) 발표(發表)된 문헌(文獻)에 의(依)하면 전면핵전상황(全面核戰狀況)에서도 인구(人口) 손실률(損失率)을 4%~6% 이하(以下)로 억제(抑制)하는데 소련(蘇聯)의 민방위(民防衛)의 궁극적(窮極的) 목표(目標)가 설정(設定)되어 있다고 한다. 상기(上記) 손실률(損失率)은 2차

대전시(次大戰時) 나치스독일(獨逸)의 침공(侵攻)에서 입은 손실(損失)에도 훨씬 미달(未達)한 숫자(數字)인 것이다. 반면(反面), 미국(美國)은 전면핵전시(全面核戰時) 지금(至今)과 같은 상황하(狀況下)에서는 적어도 인구(人口)의 50% 이상(以上)이 없어질 것이라 한다. 현재(現在) 미국(美國)이 소련(蘇聯)보다 후위(後位)에서 있는 것은 전자(電子), 컴퓨터, 유도(誘導)(Guidance)기술(技術) 등(等)을 포함(包含)한 과학기술(科學技術)인 것이다. 미국(美國)은 이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우위(優位)를 계속(繼續) 유지(維持)하고 더욱 신장(伸張)시킴으로써 소련(蘇聯)의 민방위노력(民防衛努力)을 무효화(無効化)시킬 수 있는 방도(方途)를 강구(講究)함과 아울러 채산(採算)을 도외시(度外視)하고 인력(人力)을 무한정(無限定) 동원(動員)할 수 있는 공산주의체제(共產主義體制)가 할 수 있는 민방위체제(民防衛體制)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응분(應分)의 민방위체제(民防衛體制)를 개발(開發)함으로써 억제전략(抑制戰略)의 실효(實効)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과 북괴(北傀)와의 관계(關係)는 바로 미(美)·소관계(蘇關係)의 축소판(縮小版)으로 생각해도 무방(無妨)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至今)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對)한 답(答)은 자명(自明)한 것이다.

- 76년도 발행된 미 「공군지」에서 역자주(譯者註) -

한자 음과 뜻

박이부정(博而不精) ... 널리 알되 정밀하지 못함.

미대난도(尾大難掉) ... 일의 끝이 크게 벌어져 처리하기가 힘들, 꼬리가 커서 흔들기가 어렵다는 뜻

명정언순(名正言順) ... 주의(主義)가 바르고 말이 사리에 맞음

만항하사(萬值河沙) ... 항하의 모래라는 뜻으로 무한 무수한 것의 비유

신념(信念)의 승리(勝利) <1>

손철영(孫喆榮) 역(譯)

1967년(年) 6월(月) 5일(日) 07시(時) 45분(分), 140~150대(臺)의 이스라엘공군(空軍) 전투(戰鬪) 내지(乃至) 전폭기(戰爆機)들이 각(各) 기지(基地)에서 발진(發進)하여 이스라엘 동해안(東海岸)으로 사라져 간 뒤 10일(日), 시리아가 UN의 휴전제한(休戰提寒)을 수락(受諾)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하늘의 「알마다(무적함대(無敵艦隊))」가 무엇을 했는지는 세상(世上)이 다 안다.

이 글은, 당시(當時)의 이스라엘 공군(空軍)의 활약상(活躍相)과, 그러한 활약(活躍)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그들의 고난(苦難)과, 그런 고난중(苦難中)에 다루어진 그들의 신념(信念)이 얼마나 중요(重要)한 것이었는가를 소개(紹介)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파리트파원(特派員)이 쓴 「Mirage Counter MIG」에서 발췌(拔萃)한 것이다. <역자(譯者) 주(註)>

서(序)

1. 무기(武器)나 신념(信念)이나

이스라엘 군(軍)은 가장 훌륭한 젊은이를 병사(兵士)로서 요구(要求)하고 있었지만, 그 중(中)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者)를 공군(空軍)으로」라는 표어(標語)를 걸고 이를 실행(實行)하였다.

우리는 단순(單純)한 기량(技倆)이나 기술상(技術上)의 자격(資格)만을 요구(要求)한 것이 아니라, 적성(敵性) 4 개국(個國)의 군대(軍隊)를 4시간(時間) 동안에 압도(壓倒)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가진 병사(兵士)를 필요(必要)로 하였던 것이며, 그러기 위(爲)하여서는 군인(軍人)들이 도덕적(道德的) 내지(乃至) 인간적(人間的)으로도 극(極)히 뛰어난 자질(資質)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 조종사(操縱士)들은 상상(想像)할 수 없을 정도(程度)로 정확(正確)하게 적기(敵機)를 공격(攻擊)하여 전문가(專門家)들은 우리가 비밀무기(秘密武器)를 사용(使用)하였다고까지 설명(說明)하려고 하였다.

우리의 장갑부대(裝甲部隊)는, 장비(裝備)가 열세(劣勢)하였음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최전선(最前線)에서 적(敵)을 패주(敗走)시켰다. 모든 분야(分野)의 군인(軍人)들은 수적(數的)인 우위(優位)와 방비(防備)의 견고(堅固)함을 자랑하는 적(敵)에게 승리(勝利)한 것이다. 전투(戰鬪)에 임(臨)하여 그들은 침착(沈着)과 용기(勇氣)를 입증(立證)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의(大義)에 대(對)한 열렬(熱烈)한 신념(信念)은 승리(勝利)가 아니면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그들의 행동(行動)으로

나타났다. 각급(各級) 사령관(司令官)의 정보(情報) 능력(能力), 그들의 의지(意志), 속전즉응능력(速戰即應能力), 부하통율(部下統率), 특(特)히 부대(部隊)의 선두(先頭)에 서서 위험(危險)에 임(臨)하는 결의(決意), 이런 것들은 이미 물자(物資)나 기술(技術)의 문제(問題)는 아니며, 이치(理致)로서 설명(說明)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군(軍) 참모총장(參謀總長) 라빈대장(大將)은 1967년(年) 6월(月) 28일(日), 예루살렘의 헤브라이 대학(大學)에서의 기념연설(記念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정신상태(精神狀態)에서 비롯하여, 정신요색(精神要素)에 귀착(歸着)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 전투원(戰鬥員)은 무기(武器)로서가 아니라, 임무(任務)를 자각(自覺)함으로써 상기(上記)한 승리(勝利)의 요인(要因)들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임무(任務)란, 목숨을 걸고서라도 조국(祖國) 이스라엘이 자유(自由), 독립(獨立)을 보존(保存)하고 우리 국민(國民)이 평화리(平和裡)에 조국내(祖國內)에서 생존(生存)할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하는 일이다.」

2. 서전(緒戰)의 3시간(時間)

1967년(年) 6월(月) 7일(日) 오전(午前) 08시(時)의 이스라엘 공군사령관발(空軍司令官發) 일일작전명령(日日作戰命令)(발진명령(發進命令)), “공군전투요원(空軍戰鬥要員)에게 고(告)한다. 적(敵) 애급(埃及)은 우리 나라를 섬멸할 목적(目的)으로 전투(戰鬥)를 개시(開始)하였다. 이스라엘군(軍)의 철권(鐵拳)인 우리 공군(空軍)에게 출동명령(出動命令)이 내려졌다. 우리는 전투(戰鬥)를 위(爲)하여 이륙(離陸)한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祖國)의 독립(獨立)과 저항(抵抗)을 위(爲)한 투쟁(鬭爭)의 역사적(歷史的)인 제(第)3단계(段階)가 시작(始作)되는 것이다.

1948년(年), 1956년(年), 1967년(年)을 연결(連結)하는 3개(個)의 선(線)이 손상(損傷)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다시 우리는 지난날과 같이 적(敵)에 의(依)하여 포위(包圍)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스라엘 국민(國民)의 고래(古來)의 영웅적(英雄的)인 정신(精神)이 있다. 요슈아의 병사(兵士)들, 다윗왕(王), 마카매의 민하(民下), 시나이반도(半島) 독립전쟁(獨立戰爭)의 영원(永遠)한 용기(勇氣)가 우리의 힘의 근원(根源)이다. 이 힘에 의(依)하여 우리는 조국(祖國)의 장래(將來)에 위협(威脅)이 되는 적(敵)을 굴복(屈服)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승리(勝利)는 우리에게 평화(平和)를 보장(保障)하고, 우리의 자손(子孫)과 장래(將來)의 세대(世代)의 안전(安全)을 보장(保障)하는 것이다.

공군(空軍) 전투원(戰鬥員)들이여, 조국(祖國)의 자위(自衛)를 완수(完遂)하기 위(爲)하여 적(敵)을 강후(強後)하고 전력(全力)으로 이를 공격(攻擊)하여 섬멸시켜라. 이상(以上)」

이스라엘 공군(空軍)의 작전사령부(作戰司令部)가 되어있는 이스라엘 국내(國內) 모처(某處)의 네온등(燈)이 비치는 넓은 장방형(長方形)의 실내(室內)에는 무거운 침묵(沈默)만이 있다. 거의 방(房) 전체(全體)를 점령(占領)하고 있는 목제탁자(木製卓子) 주위(周圍)에는, 공군사령관(空軍司令官) 몰대하이·핫드장군(將軍), 육군참모총장(陸軍參謀總長) 이도삭·라빈장군(將軍), 참모본부(參謀本部) 작전부장(作戰部長) 애겔·와이트만장군(將軍), 수상대리(首相代理), 국방상(國防相) 모새·다얀장군(將軍), 전(前) 참모총장(參謀總長) 이갈·야딘교수(教授) 및 공군사령부(空軍

司令部)의 많은 장교(將校)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가슴에 마이크를 매단, 공군제복(空軍制服)의 젊은 여군(女軍) 6명(名)이 중앙전파관제소(中央電波管制所)와 직결(直結)된 Head Phone을 머리에 쓰고 묵묵(默默)히 Table 주위(周圍)에서 일을 하고 있다. 도박장(賭博場)의 Dealer 같이, 긴 작대기를 들고, 그녀(女)들은 Table 가득히 펼쳐진 거대(巨大)한 참모(參謀) 본부(本部)의 지도(地圖) 위에서 Jet기(機)의 모형(模型)을 이동(移動)시키고 있다. 그녀(女)들은 지도상(地圖上)에서 지중해상(地中海上), 이스라엘 해안(海岸)과 나일강(江) 삼각지대(三角地帶) 사이에 작도(作圖)된 곡선(曲線)을 따라 이들 모형(模型)을 전진(前進)시킨다. 현재시간(現在時間)은 1967년(年) 6월(月) 5일(日) 오전(午前) 08시(時) 03분(分)이다. 이스라엘 공군(空軍)의 전진투부대(全戰鬥部隊)는 바야흐로 지중해(地中海)의海面(海面)을 초저고도(超低高度)로 비행(飛行)하고 있다. 전투기(戰鬥機)로서 방공(防空)을 위(爲)하여 대기(待機)하고 있는 것은 불과(不過) 10채정도(釐程度)이다. 모두 불란서제(佛蘭西製)의 미라주Ⅲ, 버틀, 슈멜미스텔, 미스텔 및 올강으로 편성(編成)된 150대(臺) 이상(以上)이 폭탄(爆彈), Rocket, 기관포탄(機關砲彈)을 만재(滿載)하고, 완전무선봉쇄하(完全無線封鎖下)에, 현기증(眩氣症)이 날 정도(程度)의 속도(速度)로 목표(目標)를 향(向)하여 돌진(突進)하고 있다. 목표(目標)는 애급(埃及)과 시나이반도(半島) 전역(全域)에 걸쳐서 분포(分布)된 11개소(個所)의 적(敵)의 기지(基地)다.

괴로운 표정(表情)을 감출길 없는 수상대리(首相代理)가 침묵(沈默)을 깨뜨렸다. 실내(室內)의 긴장(緊張)을 풀고, 자신(自身)을 확인(確認)할 셈이었는지, 주위(周圍)의 고관(高官)들을 향(向)하여 발언(發言)한다. 「자- 이거 어떻게 되었을까?」

조종사(操縱士)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인(人)들로부터 「못되」로 애칭(愛稱)되는 핫드장군담(將軍答), 「현시점(現時點)에서는 50% 50%가 아니겠습니까……」 평상(平常)과는 달리 창백(蒼白)한 얼굴에 미소(微笑)를 띄우고 있다,

다시 침묵(沈默)이 흐른다. 핫드장군(將軍)이 이따금 부하장교(部下將校)들과 한 두 마디 주고 받을 뿐이다. 연락계(連絡係)의 중위(中尉)가 가자 지구전선(地區前線)으로부터 참모총장(參謀總長) 앞으로 보내온 최신보고(最新報告)를 가지고 와서 참모총장(參謀總長)에게 주고, 참모총장(參謀總長)은 이를 본 후(後)에 다얀장군(將軍)에게 넘겨 주고 새 담배를 피워 문다.

빨간 전구(電球)가 거대(巨大)한 지도상(地圖上)의 11개(個) 애급기지(埃及基地)를 표시(表示)하고 있다. 최초(最初)의 편대군(編隊群)이 빠른 속도(速度)로 삼각지대(三角地帶)의 입구(入口)에 접근(接近)하고 있다. 편대(編隊)의 선도기(先導機)가 이미 애급(埃及) 연안(沿岸)에 도달(到達)한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해군(海軍) 사령관(司令官)의 보고(報告)가 핫드장군(將軍)에게 전(傳)해졌다.

「이스라엘 해안(海岸) 앞바다에 전개(展開)된 함정(艦艇) Radar는 현재(現在)까지 키프로스, 이스라엘, 애급(埃及)을 연결(連結)하는 지중해(地中海) 동부수역(東部水域)에서 상호감시중(相互監視中)인 소련함정(艦艇)에게서나, 미(美)6함대(艦隊)에서나, 아무런 특별(特別)한 움직임도 보지 못하였음.」

이스라엘공군기(空軍機)에 의(依)한 해상(海上) 초저공(超低空)비행은 미(美)·소 등(等) 중립국(中立國)의 강력(強力)한 Radar에도 포착(捕捉)되지 않은듯 하다.

실내(室內)에 안도(安堵)의 숨이 흐른다. 모든 편대(編隊)는 현재(現在) 애급(埃及) 상공(上空)에 있어 바야흐로 빨간 전구(電球)로 표시(表示)된 적기지(敵基地)를 향(向)하여 각(各) 방면(方面)으로 엄습(掩襲)하려는 순간(瞬間)이다.

오전(午前) 8시(時) 12분(分), 적기지(敵基地)에 대(對)한 공격(攻擊)이 막 시작(始作)된 그 시간(時間)에 벽(壁)에 걸린 확성기(擴聲機)로부터 무선통신(無線通信)의 연락방송(連絡放送)이 지하실(地下室) 가득히 퍼졌다. 이스라엘의 각기지(各基地)는, 차례로 각(各) 전대장(戰隊長)이 직접(直接) 제공(提供)하는 정보(情報)에 따라, 애급(埃及)과 시나이반도(半島) 상공(上空)에서 전개(展開)되고 있는 거대(巨大)한 작전(作戰)의 정확(正確)한 Data를 사령부(司令部)로 전달(傳達)하여 온다. 한 편(便), 핫드장군(將軍)은 공격(攻擊)에 참가(參加)하고 있는 항공기(航空機)와 무전(無電)으로 연락(連絡)할 수 있고, 또 모든 애급기지(埃及基地)들이 당(當)하고 있는 집중(集中) 폭격(爆擊)의 전과(戰果)를 직접(直接) 입수(入手)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밝은 표정(表情)을 한 공군사령관(空軍司令官)이 수상대리(首相代理)와 참모총장(參謀總長)에게 말한다.

「예상(豫想)보다도 성공적(成功的)인 것 같습니다. 큰 비행장(飛行場)들은 현재(現在) 철저(徹底)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전부(全部) 이륙불능(離陸不能)입니다. 이미 모든 기능이 정지(停止)하고 있습니다. 애급(埃及) 공군(空軍)은 사실상(事實上) 마비되어 있고, 15분(分)만 지나면, 애급공군(埃及空軍)은 이미 존재(存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상(地上)에 있는 채 전멸(全滅)입니다.」 6월(月) 5일(日) 오전(午前) 8시(時) 52분(分), 즉(卽) 이스라엘의 최초(最初)의 전폭기(戰爆機) 전대(戰隊)가 발진(發進)한지 80분(分) 후(後), 제일파(第一波)가 귀환(歸還)하기 수분(數分) 전(前)에, 최초(最初)의 작전보고(作戰報告)가 공군사령부(空軍司令部)의 고급장교(高級將校)로부터 제출(提出)되었다. 「애급공군(埃及空軍)은 마비(麻痺)되어 있다. 그 주요기지(主要基地)는 활동불능(活動不能)이 되었고 적기(敵機) 117대(臺)가 지상(地上)에서 격멸(擊滅)되었다.

또 15시간후(時間後)의 6월(月) 6일(日) 오전(午前) 1시(時)에는 기자(記者) Club에서 2시간(時間) 이상(以上)이나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및 외국(外國) 기자(記者)들에게 핫드장군(將軍)은 전일분(前日分)의 최종전과(最終戰果)를 발표(發表)하였다.

<1967년(年) 6월(月) 6일(日) 오전(午前) 1시(時) 이스라엘 공군사령관(空軍司令官) 코무니케, >
「6월(月) 6일(日) 하루 동안에 우리는 애급(埃及), 요르단, 시리아 및 이라크의 공군(空軍)과 대결(對決)하여 약(約) 400대(臺)의 적기(敵機)를 격멸(擊滅)하였는 바, 그 내용(內容)은 다음과 같다.

애급(埃及): 약(約) 300대(臺)로서, TU-16 30대(臺), IL-28 27대(臺), SU-7 12대(臺), MIG-21 90대(臺), MIG-19 20대(臺), MIG-17 75대(臺), 수송기(輸送機) 및 헬기(機) 32대(臺).

이상(以上) 300대중(臺中) 약(約) 20대(臺)가 공중전(空中戰)에서 격추(擊墜)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상(地上)에서 총폭격(銃爆擊)으로 파괴(破壞)된 것이다.

시리아: 격파(擊破)된 항공기(航空機)는 52 대(臺)로서, MIG-21 30대(臺), MIG-17 20대(臺), IL-28 2대(臺).

요르단: 한타전투기(戰鬪機) 20대(臺), 수송기(輸送機) 및 헬기(機) 7 대(臺).

이라크: 이라크의 항공기(航空機) 1개편대(個編隊)에 의(依)하여, 우리의 인구밀집지대(人口密集地帶) 수개처(數個處)가 공격(攻擊)을 받은 후(後), 우리는 이라크 영토내(領土內)의 H-3기지(基地)를 폭격(爆擊)하여, MIG-21 6대(臺), 한타 3대(臺)를 격파(擊破)하였다.

반면(反面), 같은 날 (6월(月) 5일(日))의 우리의 인적(人的) 손실(損失)은, 조종사(操縱士) 19명(名)으로서, 그 중(中) 8명(名)은 전사(戰死)이고 11명(名)이 행방불명(行方不明)인데, 행방불명(行方不明) 중(中) 대부분(大部分)은 적(敵)의 포로(捕虜)가 되었다. 한편(便) 항공기(航空機) 손실(損失)은, 미라중 전투기(戰鬪機) 2대(臺)를 포함(包含)하여 총(總) 18대(臺)다.

장병(將兵) 제군(諸君), 우리의 임무(任務)는 아직 완수(完遂) 되지 않았다. 공군(空軍)은 최후(最後)의 승리(勝利)까지 「적(敵)에 대(對)한 행동(行動)을 속행(續行)한다.」

어떠한 전사(戰史)에도 전례(前例)가 없는 사실(事實)이 된 이스라엘의 결정적(決定的) 승리(勝利)는, 전쟁초기(戰爭初期)의 3시간(時間), 즉(卽) 6월(月) 5일(日) 오전(午前) 8시(時) 12분(分)부터 11시(時) 20분(分) 사이에 공군(空軍)에 의(依)하여 이루어졌다.

1. 이스라엘공군(空軍)의 역사(歷史)

1. MIG-21 007 사건(事件)

6월(月) 5일(日)부터 6일(日)에 걸친 야간(夜間)에 공군(空軍) 총사령관(總司令官)이 제출(提出)한 보고(報告)는, 전투초일(戰鬪初日)의 전과(戰果)를 요약(要約)한 것이거나, 자칭 이스라엘공군(空軍)의 임무(任務)가 전쟁(戰爭) 6일간(日間)을 통(通)하여 지상(地上)에서 적(敵)의 전력(戰力)을 섬멸함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일췌이다. 그러나 사실(事實)은 그렇지 않고, 6월(月) 5일(日) 미명(未明)으로부터 6월(月) 10일(日)의 최후(最後)의 시간(時間)까지 우군지상부대(友軍地上部隊)를 근접지원(近接支援)하고, 혹은 또 초격(初擊)을 모면(冒免)하여 이스라엘 영공(領空)에 침입(侵入)하려고 한 애급(埃及)과 시리아의 MIG기(機)를 요격(邀擊)한 미라중, 슈펠·미스텔, 올강기(機)의 조종사(操縱士)와 아울러 후가·마제스텔의 예비역(豫備役) 조종사(操縱士)들이 한 눈부신 활약(活躍)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빈장군(將軍)의 참모본부(參謀本部)가 공군사령부(空軍司令部)에 대(對)하여, 6월(月) 5일(日)의 오후(午後)와 다음날 조조(早朝)부터, 소정(所定)의 임무(任務)를 완수(完遂)키 위(爲)하여 애급(埃及) 및 시리아의 항공기지(航空基地)에 집중폭격(集中爆擊)을 속행(續行)하도록 요구(要求)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핫드장군(將軍)이 이에 반대(反對)하여 「이 시점(時點)에서는, 우리가 지상(地上)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중(空中)에서도 그들보다 우위(優位)에 있음을 과시(誇示) 함으로써 적(敵) 조종사(操縱士)의 사기(士氣)를 꺾는 일이 필요(必要)하다」고 라빈장군(將軍)에게 설명(說明)한 결과(結果) 그의 견해(見解)가 채택(採擇)되어 적(敵)의 기지(基地)는 더 이상(以上) 폭격(爆

撃) 당(當)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적(敵)의 전투기(戰鬥機), 특(特)히 MIG-21, MIG-19, SU-7 등(等) 50대(臺) 이상(以上)이 개전후(開戰後) 5일간(日間)의 공중전(空中戰)에서 격추(擊墜)되었다.

시나이반도(半島)와 시리아고원(高原) 상공(上空)에서, 프랑스제(佛蘭西製) 항공기(航空機)에 탑승(搭乘)한 이스라엘 조종사(操縱士)와 소련(聯) 항공기(航空機)에 탑승(搭乘)한 아랍인(人) 조종사(操縱士)가 대결(對決)한 이 공중전(空中戰)에서, 프랑스(佛蘭西)의 미라주가 소련의 MIG보다 우수(優秀)하다는 것이 실증(實證)되었다.

만약(萬若), 이스라엘이 소련의 MIG로서 불란서기(佛蘭西機)를 장비(裝備)한 Arab 연합전력(聯合戰力)과 교전(交戰)하였다면 결과(結果)는 달라졌을 것인가? 버어틀과 미라주를 타고 1967년(年) 6월(月)의 공중전(空中戰)에 참가(參加)하였고, 프랑스(佛蘭西)의 시작기(試作機)에 탑승(搭乘)한 최초(最初)의 이스라엘 조종사(操縱士)는 즉석(即席)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確言)하였다. 즉 「결과(結果)는 같았을 것이다. 우리 조종사(操縱士)의 손에 닿으면 MIG-21 은 애급인(埃及人)이 조종(操縱)하는 미라주보다 우위(優位)에 섰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前) 공군사령관(空軍司令官)이나 현(現) 사령관(司令官)인 핫드장군(將軍)도 이와 동일(同一)한 의견(意見)이었다.

지나친 자신(自信)인가? 이스라엘 조종사(操縱士)에 대(對)한 과대평가(過大評價)인가? 이스라엘 공군(空軍)의 고급장교(高級將校)들이 위와 같은 발언(發言)을 한 것은 최근(最近) 수년내(數年來)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실(事實)은 화이트만, 핫드 양(兩) 장군(將軍)과 그 막료(幕僚)들이 한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證明)하는 것이다. 즉(卽) 이스라엘 공군(空軍)은 단지(但只) 중동지역(中東地域)에서 최우수(最優秀)일뿐 아니라, 의심(疑心)할 여지(餘地) 없이 전세계(全世界)에서 우수(優秀)한 공군(空軍)의 하나다. 정평(定評)있는 군사전문가(軍事專門家)들도 1967년(年) 6월(月) 5일(日) 이래(以來), 이를 확인(確認)하고 부러운듯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군(空軍)의 지휘관(指揮官)들이 전쟁전(戰爭前)에 필승(必勝)의 신념(信念)의 근거(根據)가 된 혹종(或種)의 비밀자료(秘密資料)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는 것이 옳겠는가? 그렇다. 이스라엘 공군(空軍)의 승리(勝利)는 필연적(必然的)이었다. 다음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이 사실(事實)을 납득(納得)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조종사(操縱士)의 집중교육(集中教育)은 근대(近代) 항공기술(航空技術)을 총망라(總網羅)한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 공군(空軍)이 구비(具備)한 우수(優秀)한 자질(資質)의 기초(基礎)를 이루는 것이며, 또 한편(便), 모든 기회(機會)에 있어서 왕성(旺盛)한 사기(士氣)와 조국방위(祖國防衛)의 대의(大義)에 의(依)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공중전(空中戰) 전기(戰技)의 개별훈련(個別訓練)은 이스라엘 공군(空軍)이 창군(創軍)된 이래(以來)로 역대(歷代) 지휘관(指揮官)에 대(對)한 절대적(絶對的)인 지상명령(至上命令)이었다.

이스라엘공군(空軍)이 사용(使用)하고 있는, 대부분(大部分)이 프랑스제(佛蘭西製)인 항공기(航空機)의 품질(品質)과 기술적(技術的) 성능(性能)이 또 하나의 승인(勝因)이었다. 프랑스제(佛蘭西製) 항공기(航空機)가 제조회사측(製造會社側)에서 예정(豫定)하고 있던 임무(任務)에 완전(完全)히 적합(適合)하였을 뿐 아니라, 미라주도 포함(包含)하여, 이스라엘의 전략적(戰略的) 조건(條件)과 이스라엘 조종사(操縱士)들의 성능요구(性能要求)에 적합(適合)하나

않느냐는 것이, 우선(于先) 프랑스(佛蘭西) 내(內)의 기지(基地)에서 이스라엘 공군(空軍)에 의(依)하여 시험(試驗)되고 있었던 사실(事實)에도 기인(起因)한다.

애급인(埃及人)들은 소련(聯)에서 공급(供給)된 MIG-21의 공식성능(公式性能)을 아직껏 최대한(最大限)으로 파악(把握)했던 일이 없다. 만약(萬若)에, 애급(埃及)이 프랑스(佛蘭西)의 미라주를 도입(導入)하였다면, 이 기종(機種)이 MIG와 비교(比較)할 수 없을 정도(程度)로 정도(精度)와 기술적(技術的) 완성상(完成上) 월등(越等)히 우수(優秀)함에도 불구(不拘)하고, 화이트맨이나 핫드장군(將軍)의 말에 의하면 「아랍인(人)의 손에 걸리면 미라주도 단번에 쓸모 없는 쇠붙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MIG기(機)는 미라주기(機)에 비(比)하여 성능(性能)이 좋은 반면(反面)에 기술적(技術的)으로는 평범(平凡)하고 간단(簡單)한 것이며, 조종사(操縱士)에게 요구(要求)되는 지식(知識)의 정도(程度)도 별반(別般) 없다.

이스라엘 공군(空軍)의 지상정비능력(地上整備能力)이나 기상(機上), 지상관제장치(地上管制裝置)의 고능률(高能率)도 결정적(決定的) 요소(要素)의 하나다. 미라주기(機)의 재출동시간(再出動時間)은 회사측(會社側)에서 20분(分)을 예상(豫想)하고 프랑스(佛蘭西) 공군당국(空軍當局)도 그렇게 인정(認定)했는데, 이스라엘의 지상정비사(地上整備士)에 의(依)하여 7분(分)으로 단축(短縮)되었음은 주목(注目)할만하다. 따라서, 이 전쟁(戰爭)에서 미라주가 1일(日) 12회(回)를 출격(出擊)할 수 있었던 것은 결(決)코 우연(偶然)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즉(卽) Engine 교환(交換)이라는 복잡(複雜)한 작업(作業)도, 본래(本來) 12시간(時間)을 요(要)했을 터인데, 어떤 경우(境遇)에는 1시간반(時間半)에서 2시간(時間)에 완료(完了)할 수가 있었다. 또 미라주에 장착(装着)된 Engine은 「6일전쟁(日戰爭)」의 공중전(空中戰)에서 비행(飛行) 물체(物體)나 포탄(砲彈)의 작렬(炸烈)에 견디어, 훌륭한 성능(性能)을 입증(立證)하였다. 이스라엘 공군(空軍)은 Jet Engine의 고장(故障) 때문에 잃은, 항공기(航空機)는 한 대(臺)도 없다.

1967년(年) 8월(月) 15일부(日附)의 「아비아시옹·마가쟁지(誌)(불(佛))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大部分)이 불란서제(佛蘭西製)인 우수(優秀)한 항공기재(航空機材)를 가지고 있고, 이를 지성적(知性的)으로 활용(活用)하는 방법(方法)을 알고 있었다.……이스라엘 공군(空軍)의 일선기(一線機) 140-150 대(臺)는 기상(機上) 및 지상(地上)의 Control Services의 효율(效率)을 증대(增大)시킨 각종조치(各種措置)에 의(依)하여 500~600대(臺) 중(中)에서 정비(整備), 편성(編成)한 것이었다.」

미라주의 Engine에 관(關)하여서는 이스라엘에서 사용(使用)케 된 후(後)로 약간(若干)의 개조작업(改造作業)이 가(加)하여졌음을 밝혀 두어야겠다.

또 다른 요인(要因)도 문제(問題)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기습(奇襲)(오전(午前) 8시(時) 15분(分)에 애급기지(埃及基地)를 공격(攻擊)), 정보(情報)의 성격(性格)(적(敵)의 각기지(各基地)에서의 정확(正確)한 배치대수(配置臺數)), 적(敵) Radars 사각(死角) 등(等).

그러나 항공계(航空界)에서도 잘 모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미라주가 Arab의 MIG에 도전(挑戰)한 싸움에 서, 결정적(決定的)이었던 전술적(戰術的) 요인(要因)에 관(關)하여 말하겠다.

우선(于先), 프랑스(불란서(佛蘭西))의 제조회사(製造會社)(말셀·닷소사(社))는 프랑스(불란서(佛蘭西)) 공군(空軍)에서 취역(就役)하고 있는 미라주와 같이 마트라형(型)의 대공유도탄(對空誘導彈)만을 장착(装着)한 미라주를 구입(購入)할 것을 이스라엘에 제안(提案)하였다. 이스라엘 공군사령부(空軍司令部)는 자국(自國)의 항공기사(航空技師)들과 상의(相議)한 결과(結果), 미라주에 기관포(機關砲)를 장착(装着)하도록 요구(要求)하였다. 미라주의 음속(音速) 2배이상(倍以上)이라는 속도(速度)에서는 세계(世界) 어느 나라의 조종사(操縱士)도, 기관포(機關砲)를 조작(操作)하여, 적(敵)의 초음속기(超音速機)에 대(對)하여 사용(使用)할 수 없다는 것이 프랑스측(불란서측(佛蘭西側))의 주장(主張)이었다. 이 속도(速度)에서는 적외선(赤外線)에 의(依)한 유도탄(誘導彈)만이 유효(有効)하고 성공률(成功率)이 높은 무기(武器)라는 것이었으나 프랑스측(불란서측(佛蘭西側))의 주장(主張)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상당(相當)한 가격(價格)(1발(發)에 5만불(萬弗)씩 30발(發)의 마트라 유도탄(誘導彈)은, 이스라엘에게는 과분(過分)한 사치품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요구(要求)에 응(應)하여, 30mm 기관포(機關砲) 2문(門)을 장착(装着)하고 거기다가 필요(必要)할 때는 공대공(空對空) 유도탄(誘導彈)을 장착(装着)할 가능성(可能性)을 남겨두기 위하여 미라주기(機)에 일련(一連)의 개조작업(改造作業)이 필요(必要)하였다.

이번 전쟁(戰爭)에서 이스라엘인(人)들의 견해(見解)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證明)되었다. 일정수(一定數)의 마트라 유도탄(誘導彈)을 보유(保有)하면서 이스라엘 공군(空軍)은, 공중전(空中戰)에서 조우(遭遇)한 모든 적기(敵機)를 기관포(機關砲)로서 격추(擊墜)하였다. 부단(不斷)한 훈련(訓練)의 성과(成果)로서, 미라주 조종사(操縱士)들은 초음속(超音速)으로 비행(飛行)하면서도, 애급(埃及)과 시리아 공군(空軍)의 MIG기(機)에게 기관포탄(機關砲彈)을 퍼부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훈(戰訓)은 미국(美國)에게도 간접적(間接的)으로 이익(利益)을 가져다 주었는바, 미국(美國)은 월남전(越南戰) 개입(介入) 초기(初期)에는 팬텀기(機)에 공대공(空對空) 유도탄(誘導彈)만을 장착(装着)하였으나, 이 전훈(戰訓)에 따라서 그 후(後) 기관포(機關砲)를 추가(追加)로 장착(装着)하였는데 그 명중률(命中率)은 비록 유도탄(誘導彈) 만큼은 못 하더라도 상당(相當)한 수준(水準)을 과시(誇示)하였었다.

서서(瑞西), 남아공화국(南阿共和國), 호주(濠洲)도 이스라엘과 같이 미라주기(機)에 기관포(機關砲)를 장착(装着)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종사(操縱士)의 기량(技倆)에 맞춘 미라주의 성능(性能)도, 미라주와 MIG의 공중대결(空中對決)이 예외(例外)없이 미라주의 승리(勝利)로 끝난 이유(理由)를 설명(說明)하는데는 충분(充分)하지 않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공군(空軍)이 신중(慎重)하게 비밀취급(秘密取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理由)가 있다.

여기서, 1966년(年) 이래(以來) 이스라엘 공군(空軍)이 입수(入手)하고 있는 기체번호(機體番號) 007의 표식(標識)을 붙인 MIG-21의 에피소드가 등장(登場)한다. 이에 관(關)하여 상세(詳細)하게 언급(言及)하는 것 또한 의의(意義)가 있을 것이다.

1966년(年) 8월(月), 이라크의 조종사(操縱士)가 조종(操縱)하는 MIG-21이, 어느 맑은 날 아침에 이스라엘 남부(南部)에 있는 모(某) 공군기지(空軍基地)에 착륙(着陸)하였다는 뉴우스에 온 세

계(世界)가 깜짝 놀랐다. 바그다트 근처(近處)의 기지(基地)를 이륙(離陸)한 이 망명(亡命) 조종사(操縱士)는 아무런 방해(妨害)도 받지 않고 요르단 상공(上空)을 횡단(橫斷)하여 그의 평화적(平和的)인 의도(意圖)를 이스라엘 관제탑(管制塔)에 무전(無電)으로 통보(通報)한 후(後)에 연료(燃料) 탱크가 거의 빈 상태(狀態)에서 이스라엘령(領)에 착륙(着陸)하였다. 소련(聯)은 이제는 MIG-21의 모든 비밀(秘密)이 서방측(西方側)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지레 짐작하였고, 아랍 제국(諸國)들은 그들의 최우수전투기(最優秀戰鬥機)의 견본(見本)이 이스라엘인(人)의 수중(手中)에 넘어갔다는 사실(事實)에 긴장(緊張)하였으나, 서방제국(西方諸國)은 전문지(專門誌)에 게재(掲載)되는 피상적(皮相的)인 기사내용(記事內容) 외(外)에는 아는 바가 없는 채 이 「희귀(稀貴)한 새」에 접근(接近)할 수 있다는 막연(漠然)한 기대(期待)만을 가졌다. 요(要)컨대 모스크바로부터 바그다트, 카이로를 거쳐서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세상(世上)사람들이 동일(同一)한 의문(疑問)을 가졌다. 즉(卽), 이라크의 조종사(操縱士)는(착륙후(着陸後)에 그 자신(自身)이 선언(宣言)한 바와 같이) 상관(上官)의 명령(命令)으로 이와 같은 행동(行動)을 취(取)한 것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비밀기관(秘密機關)이 작성(作成)한 계획(計劃)에 따라서 행동(行動)한 것이나 하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망명(亡命)한 이 MIG-21의 기체(機體)에 영·후래밍(영국(英國)의 첩보소설가(諜報小說家))의 상상력(想像力)의 산물(產物)인 유명(有名)한 첩자(諜者)의 부호(符號)인 007이 공교롭게도 기체번호(機體番號)로서 그려졌다는 사실(事實)이 이 의문(疑問)에 대(對)한 이스라엘의 회답(回答)이 될 것이다.

어쨌든, MIG-21이 이스라엘 기지(基地)에 망명(亡命)하여 왔다는 사실(事實)은 분명(分明)히 이 나라 공군지휘관(空軍指揮官)들을 기쁘게 하는 재료(材料)가 되었다. 실제(實際)로, 이 망명사건(亡命事件)은 아랍 공군(空軍)에게는 심리적충격(心理的衝擊) 이상(以上)의 것이었다. 그것은 완전무결(完全無缺)한 상태(狀態)로 착륙(着陸)한 MIG-21은 그 후(後)에, 이스라엘의 우수(優秀)한 조종사(操縱士)들이 조종(操縱)하여, 그 성능(性能), 특성(特性), 특(特)히 결점(缺點)에 관(關)한 비밀(秘密)을 전부(全部) 노출(露出)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서 공중전(空中戰)에서 미라주의 적(敵)이 될 항공기(航空機)의 「아키레스踵(踵)」을 발견(發見)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이 MIG에 탑승(搭乘)한 이스라엘의 시험조종사(試驗操縱士)는 아랍인(人) 조종사(操縱士)의 도움을 받아서 조종(操縱)하였다. 이 아랍인(人)은 이전(以前)에 소련학교(學校)에서 MIG에 의(依)한 조종훈련과정(操縱訓練課程)을 수강(受講)한 일이 있는 남자(男子)였다. 그 후(後), 이스라엘 시험조종사(試驗操縱士)는, MIG의 조종(操縱) 따위는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감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별(特別)이 복잡(複雜)한 조작(操作)을 필요(必要)로 하는 미라주에 관속(慣熟)된 이스라엘인(人)들에게는, 설계(設計)가 보다 간단(簡單)한 소련기(機)를 마스터하는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1966년(年) 8월(月)부터 1967년(年) 6월(月)까지 이스라엘의 조종사들은 MIG를 마스터하고, 그 기능(機能)을 기술적(技術的)으로나 기계적(機械的)으로 상세(詳細)하게 알기 위(爲)하여 실(實)로 수백회(數百回)에 이르는 탑승훈련비행(搭乘訓練飛行)을 반복(反復)하였 던 것이다. 이 MIG기(機)가 전전(戰前)에 공군(空軍)에 다대(多大)한 공헌(貢獻)을 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이 MIG기(機)를 이용(利用)한 탑승실험(搭乘實驗)의 결과(結果), 얻어진 전술적(戰術的)인 결론(結論)은 다음과 같다.

방공(防空) —

무엇이 문제(問題)인가? <1>

양신석(梁宸錫) <역(譯)>

본고(本稿)는 스위스에서 발간(發刊)되는 월간지(月刊誌)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1976년도(年度) 특집호에서 일부를 발췌(拔萃)한 것이다.

-역자주(譯者註)-

전세계(全世界)의 군대(軍隊)들이 초음속(超音速) 전투기(戰鬥機)와 신형(新型)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을 앞다투어 확보(確保)하여 요소요소(要素要素)에 배치(配置)하면서부터 많은 국가(國家)들이 그들의 기존(既存) 방공(防空)시스템 반자동화(半自動化)를 서둘러 추진(推進)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과학기술(軍事科學技術)이 계속(繼續) 발전(發展)하는 까닭으로 반자동화(半自動化)가 완성(完成)된 후(後)에도 고도(高度)로 복잡(複雜)한 방공(防空)시스템은 결함(缺陷)이 있기 마련이어서 개선(改善)을 위(爲)한 여러가지 요구조건(要求條件)들이 대두(擡頭)하고 있다.

비공산국가(非共產國家)나 공산국가(共產國家)들이 공격(攻擊)과 요격(邀擊)을 겸(兼)할 수 있는 항공기(航空機)를 개발(開發)하여 60년대(年代)에 실용화(實用化)시점에 따라 지상(地上)의 지휘통제조직(指揮統制組織)도 다양(多樣)한 상황(狀況)에 대처(對處)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時間)에 많은 자료처리능력(資料處理能力)을 갖추 필요(必要)가 생겼다. 수동운용(手動運用) 방공(防空)시스템은 긴박(緊迫)한 상황하(狀況下)에서는 더 이상(以上) 그러한 방공과업(防空課業)을 수행(遂行)할 능력(能力)이 없었다.

현대(現代)의 지휘통제조직(指揮統制組織)을 효율적(效率的)으로 운용(運用)키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일반적(一般的)인 능력(能力)이 요구(要求)된다.

1. 획득가능(獲得可能)한 모든 센서(레이다, 정보원(情報源), 민항관제(民航管制) 등)로부터 실시간(實時間)에 자료(資料)를 받아야 한다.
2. 이용가능(利用可能)한 SAM과 유인요격기(有人邀擊機)에 관(關)한 정보(情報)를 실시간(實時間)에 얻어야 한다.
3. 항적식별(航跡識別), 위협분석(威脅分析), 최선대처방안(最善對處方案), 요격기(邀擊機)의 유도계산(誘導計算) 등(等)을 순시(瞬時)에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자료처리능력(資料處理能力)이 있어야 한다.

4. 즉각적(即刻的)이고 보안성(保安性)이 있는 데이터 통신(通信)에 의(依)하여 공중상황(空中狀況)이 전시(展示)되고 전파(傳播)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기본적(基本的)인 요구(要求)는 60년대(年代)에 널리 인식(認識)되었으며 미국(美國), 소련, 와르스 동맹국(同盟國), 나토(NATO) 가맹국(加盟國), 영국(英國),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일본(日本), 이집트, 이스라엘 등(等)이 최소한(最小限) 부분적(部分的)으로라도 반자동화(半自動化)된 전략방공(戰略防空)시스템을 현재(現在) 운용(運用)하고 있다. 중공(中共)의 방공(防空)시스템은 상당(相當)한 현대화(現代化)가 진행(進行)되고 있다고 보고(報告)되고 있는데 그것이 반자동화(半自動化)를 포함(包含)하고 있는가는 아직 확인(確認)되지 않았다.

반자동화(半自動化)시스템을 설치(設置)하고 있는 나라들은 브라질, 스페인, 이란, 인도 등(等)이 포함(包含)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싱가포르, 대만, 오스트라리아와 기타(其他) 국가(國家)들이 반자동화(半自動化)를 추진(推進)하고 있다.

세 가지의 방공위협(防空威脅)

첫번째의 위협(威脅)은 저공침투공격(低空浸透攻擊)이다.

60년대(年代) 중반(中盤)부터 항공전자기술(航空電子技術)이 눈부신 발전(發展)을 거듭한 결과(結果), 고속(高速)으로 저공(低空) 침투(浸透)를 해 목표(目標)에 공격(攻擊)을 가(加)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데, 이는 침공기(侵攻機)들의 대부분(大部分)이 현용(現用) 방공(防空)시스템의 레이다가 포착(捕捉)할 수 없는 낮은 고도(高度)에서 지면(地面) 크라타 안을 날을 수 있도록 현대화(現代化)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방공지휘관(防空指揮官)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새로운 악몽(惡夢)은 악천후(惡天候)나 야간(夜間)에 소련 폭격기(爆擊機)가 아주 낮은 고도(高度)에서 고속(高速)으로 침입(侵入)하여 파상기습공격(波狀奇襲攻擊)을 가(加)해 오는 위협(威脅)인 것이다. MIG-23(Flogger)은 지상(地上) 바로 위에서는 마하 1.1, 고공(高空)에서는 2.3으로 날으는 능력(能力)을 갖고 있으며 최소한(最小限) 부분적(部分的)으로는 이 역할(役割)을 위해 전개(展開)되어 6대(臺)까지의 전투편대(戰鬥編隊)로 비행(飛行)할 수 있다. MIG-23을 복좌(複座)로 개조(改造)한 V-G (Fencer)는 그보다도 저고도(低高度)로 침투공격(浸透攻擊)할 능력(能力)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예측(豫測)된다. 반면(反面) 소련의 방공지휘관(防空指揮官)들도 FB-111(Buccaneer) 및 다용도(多用途) 전투기(戰鬥機)(MRCA)와 같은 공격기(攻擊機)의 저공침투(低空浸透) 위협(威脅)에 직면(直面)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폭격기(戰略爆擊機)들도 저공침투(低空浸透)를 할 수 있는데 소련의 백파이어와 미국(美國)의 B-1과 같은 폭격기(爆擊機)는 이 능력(能力)을 충분(充分)히 발휘(發揮)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그런데 미육군(美陸軍)은 유인폭격기(有人爆擊機)가 미대륙(美大陸)을 위협(威脅)하는 것은 무시(無視)할 수 있다는 전제(前提) 아래 1975회계년도(會計年度)에 21개(個)의 나이크 허큘리스 포대(砲臺)를 폐기(廢棄)하였다. 이 결정(決定)은 미국(美國) 정보통(情報通)이 백파이어 폭격기(爆擊機)는 유럽과 중공(中共)의 목표타격(目標打擊)을 주임무(主任務)로

삼고 있으며 미국(美國)에 대(對)한 공격(攻擊)에는 항속거리상(航續距離上)으로 불가능(不可能)하다는 판단(判斷)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두번째의 주요(主要)한 위협요소(威脅要素)는 전자전(電子戰)(ECM과 ECCM) 기술(技術)의 급격(急激)한 진보(進步)인데 이는 특(特)히 소련의 시스템이 욱키퍼(Yom Kippur)전(戰)에서 실증(實證)되었던 것이다. 소련 항공기(航空機)의 레이더는 주파수가변기술(周波數可變技術)이 아주 훌륭하여 서방(西方)의 ECM 시스템에서 가(加)하는 재밍을 회피(回避)하고 있다. 이 주파수가변 기술(周波數可變技術)의 경험(經驗)으로 소련은 서방(西方)의 방공(防空) 및 미사일 화력통제(火力統制) 레이더에 광대역(廣帶域) 주파수방해(周波數妨害)를 가(加)하는 항공(航空) 기탑재(機搭載) 재머를 개발(開發)했을 것이 분명(分明)하다.

방공지휘관(防空指揮官)들에게 약간의 위안(慰安)이 되는 것은 지상(地上) 레이더가 항공기 탑재 재머 보다는 훨씬 커다란 출력(出力)을 항상 낼 수 있다는 것과 광대역(廣帶域) 항공기 재머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지향성(指向性)일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 대(臺)의 공격항공기(攻擊航空機)의 재밍이 제한(制限)된 수(數)의 지상방공(地上防空) 레이더에 국한(局限)되고, 상호협조(相互協助)하는 방공(防空) 시스템에 의(依)하여 침공자(侵攻者)를 잡아 낸다(물론(勿論) 타(他)레이더가 다른 항공기(航空機)에 의(依)하여 재밍을 받지 않을 때)는 것이다.

방공지휘관(防空指揮官)의 다른 전자방해(電子妨害)에 대(對)한 두통(頭痛)거리는 욱키퍼전쟁(戰爭)에서 레이더를 눈멀게(기능상실(機能喪失)) 함에는 채프가 효과적(效果的)이라는 사실(事實)이 재발견(再發見)되었다는 것이다. 현재(現在)로는 지상(地上)시스템에서 ECM 채프의 광대역(廣帶域) 반사특성(反射特性)에 대치(對處)할 방법(方法)이 없으며 다만 기선(機先)을 제(制)하여 채프 살포(撒布) 항공기(航空機)를 사전(事前)에 격도(擊塗)하거나 채프 회랑(回廊)의 후면(後面) 또는 상공(上空)에 있을 적기(敵機)를 육안(肉眼)으로 찾아내어 화력(火力)을 구사(驅使)할 수 밖에 없다.

위협요소(威脅要素)의 세번째 발전(發展)은 주(主)로 친서방국가(親西方國家)와 중공(中共)의 방공(防空) 시스템에 관련(關聯)되는 것으로 소련이 공중공격발전(空中攻擊發進)을 할 수 있는 방향(方向)이 증가(增加)되었다는 것이다. 예(例)를 들면 공중급유(空中給油)가 가능(可能)한 이 제는 소련에 기지(基地)를 둔 폭격기(爆擊機)가 북대서양(北大西洋)으로부터 서부(西部) 유럽으로 접근가능(接近可能)하며, 중공(中共)과 일본(日本)은 전연안(全沿岸)에 걸쳐 이와 같은 위협(威脅)에 직면(直面)하고 있다.

북(北)아프리카, 시리아, 아덴, 소마리아와 이라크에 발판을 확보(確保)하고 있는 소련의 전진 기지시설(前進基地施設)은 친서방(親西方) 방공기획가(防空企劃家)들의 머리를 더 한층 복잡(複雜)하게 해주며, 새로운 소련의 신형항모(新型航母) 2척(隻)의 건조(建造)는 그들에게 보다 많은 의문부(疑問符)를 던져주고 있다. 이 새로운 4만(萬) 5천(千)톤급 키예브(Kiev)를 소련에서는 「대잠순양함(對潛巡洋艦)」이라고 하는데 이는 2만(萬)톤급의 영국(英國) TDC(Through Deck Cruiser)와 만(萬)2천(千)톤급의 미국(美國) SSC(Sea Control Ship)와 대조(對照)하면 일종(一種)의 정치적(政治的) 연막(煙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키예브는 수직이륙전폭기(垂直離陸戰爆機)를 탑재(搭載)할 수 있는데도 끝내 순양함(巡洋艦)이라고 주장(主張)하는 이유(理由)는 이 배를 니코라에프에서 건조(建造)하여 흑해(黑海)를 합법적(合法的)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936년(年) 7월(月) 20일(日)에 서명(署名)된 Montreux Convention 협약(協約)에 의(依)하면 항공기(航空機)를 적재(積載)할 목적(目的)으로 설계(設計)되거나 채택(採擇)된 함정(艦艇)은 터키 해협통행(海峽通行)이 금지(禁止)되는데 소련도 이 협약(協約)의 서명국(署名國)이다. 따라서, 키예브와 그의 후속함(後續艦)들이 연안(沿岸)에서 공격임무(攻擊任務)를 수행(遂行)할 수 있는 수직이륙기(垂直離陸機)를 적재(積載)한다면 방공공식(防空公式)에는 완전(完全)히 새로운 요소(要素)가 추가(追加)되어야 할 것이다.

방공(防空) 시스템에서 가장 분명(分明)한 새로운 요구(要求)는 위에서 설명(說明)한 세 가지의 위협(威脅)(저공공격(低空攻擊), 증강(增強)된 적(敵)의 ECM 능력(能力), 다방향(多方向) 적기공격 능력(敵機攻擊能力))에 대치(對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공(低空) 방어(防禦)

전체(全體) 시스템의 일부(一部)로서 저공방어(低空防禦)에 효과(效果)를 거두려면 ① 경보(警報) 및 목표확인(目標確認) ② 저공무기(低空武器) 시스템 ③ 전체방공망(全體防空網)의 통합(統合) 등 세 가지의 주요분야(主要分野)를 개척(開拓)할 필요(必要)가 있다.

저공경보(低空警報)를 구비(具備)하기 위(爲)하여는 세 가지의 가능(可能)한 방법(方法)이 있다. 첫째는 전방(前方)에서 지상(地上), 공중초계(空中哨戒) 또는 감시탑(監視塔)을 통(通)한 육안 관측망(肉眼觀測網)의 구성(構成)인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와르소 조약국(條約國)에서 최근(最近) 완성(完成)시켰다. 둘째는 MTI(이동목표표시(移動目標表示)) 능력(能力)을 가진 전방저고도(前方低高度) 코히 어런트 레이더를 배치(配置)하여 지상(地上) 크라타를 억제(抑制)하여 이동(移動)하는 항공기(航空機)를 잡아내는 것이다. 미육군(美陸軍)은 센더스사(社)가 제작(製作)한 전방지역 경계(前方地域警戒) 레이더를 확보(確保)하였고 서독(西獨)은 시멘스사(社)의 MR-DR 30 차량 탑재(車輛搭載) 레이더 48대(臺)를 전선(前線)에 배치(配置)하고 있다.

세째는 항공기(航空機)에 탑재(搭載)하는 조기경보(早期警報)레이더로서 영국(英國)은 구형(舊型)이긴 하지만 섀클톤 AEW MK2 항공기(航空機)의 개조형(改造型)에 APS-20 탐색(探索) 레이더를 장착(装着)하여 해상(海上)에서 아주 훌륭한 레이더 카버리지를 제공(提供)받고 있다. 한편(便) 미국(美國)은 E-3A AWACS 항공기(航空機)가 육지상공(陸地上空)에서 탁월(卓越)한 능력(能力)을 갖고 있음을 시범(示範)하였는데 이에 탑재(搭載)한 웨스팅 하우스사(社)의 탐색(探索) 레이더가 고공(高空)에서 엄청나게도 멀은 공중(空中) 및 지상거리(地上距離)까지도 유효(有効)한 것이 판명(判明)되었다.

이 항공기탑재경보관제(航空機搭載警報管制) 시스템은 값이 싼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투기(戰鬥機)에 대(對)한 지휘통제기능(指揮統制機能)까지 갖고 있으며, 이란에서 2대(臺)의 E-3A를 구입(購入)할 것을 추진(推進)하고 있으나 많은 나라들은 재정적(財政的)인 뒷받침이 없어 사들이기 힘든 형편(形便)인것 같다. 나토 국가(國家)들을 위(爲)한 가능(可能)한 해결책(解決策)으로 는 여러 대(臺)의 E-3A를 공동구매(共同購買)하는 것이다. 보다 싼값으로 AWACS를 구입(購入)

하는 대안(代案)으로서는 지휘통제기능(指揮統制機能)을 제거(除去)하거나 유럽에서 사용(使用)하는 고성능항공기(高性能航空機)(HSA 님로드나 A.3000 에어버스 등)에 새로운 조기경보(早期警報) 레이더 시스템과 그에 관련(關聯)된 전자(電子) 및 통신장비(通信裝備)들을 탑재(搭載)시킬 수 있도록 공조(改造)를 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나토 국가(國家)들은 공동투자(共同投資)가 불가피(不可避)할 것이다.

저공(低空) 및 초저고(超低高)를 포함(包含)한 전고도(全高度)에 있어서의 적기침공(敵機侵攻)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경보(警報) 시스템의 궁극적(窮極的)인 개발(開發)은 지구궤도상(地球軌道上)의 정지위성(停止衛星)이어야 함은 분명(分明)한 일이다. 인공위성(人工衛星)은 극(極)히 취약성(脆弱性)이 많으나 이 단계(段階)는 앞으로 최소(最小) 10년(年) 또는 그보다 오랜 세월(歲月)이 흘러야 가능(可能)할 것으로 판단(判斷)된다.

효과적(效果的)인 저공무기(低空武器) 시스템은 현용(現用) 레이더와 광학유도대공포(光學誘導對空砲)로서 이미 존재(存在)하고 있다. 탱크에 탑재(搭載)된 소련의 ZSU-23-4나 실카는 중동(中東)의 10월(月) 전쟁시(戰爭時) 이스라엘 항공기(航空機)에 미사일보다도 큰 손실(損失)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대공포(對空砲)들이 분당(分當) 4,000발(發)의 집중발사능력(集中發射能力)을 가졌다는데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집트 육군(陸軍)의 전방육안감시소(前方肉眼監視所)에서 경보정보(警報情報)를 후방(後方)에 보냄으로써 실카 포판(砲板)의 광대역(廣帶域) 레이더가 목표(目標)를 획득(獲得)하기 전(前)에 대충 맞추어 놓았다가 23밀리 포탄(砲彈)을 쏘아올릴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서방국가(西方國家)들은 여러가지의 효과적(效果的)인 저공대공포(低空對空砲) 시스템을 현재(現在) 운용(運用)하고 있는데 그 중(中)에는 발칸, 라인메탈 Rh 202 및 보포스 L/70 등(等)이 있다. 6포신(砲身)을 가진 20밀리 발칸은 분당(分當) 0,000발(發)을 쏘아올릴 수 있으나 이와 비견(比肩)하는 서방(西方) 시스템의 어느 대공포(對空砲)도 실카의 발사율(發射率)에는 못미치고 있다.

서방국가(西方國家)들은 저공방어(低空防禦)를 위(爲)해 미사일에 더 중점(重點)을 두고 있어 부로우어파이프 라피어, 로랜드, 크로탈 등(等)이 레드아이 및 샤파랄과 공동(共同)으로 육군(陸軍)의 현역장비(現役裝備)로 투입(投入)되고 있다. 욜키퍼전(戰)에서 얻은 교훈(教訓)을 바탕으로 하여 라피어와 로랜드와 같은 레이더가 뒷받침하는 광학유도(光學誘導) 시스템이 더 호감(好感)을 얻고 있으며, 남(南)아프리카에서는 현용(現用) 크로탈 시스템을 광학유도(光學誘導)로 개조(改造)하고, 스웨덴의 RB-70도 레이더로 사전(事前) 조정(調整)되는 육안유도(肉眼誘導) 시스템을 채용(採用)하고 있다.

전체적(全體的)인 저공대공방어(低空對空防禦) 시스템을 발전(發展)시키는 서방국가중(西方國家中) 가장 앞서 있는 서독(西獨)은 20밀리 Rh 202포(砲)(사정거리(射程距離) 2km), 쌍(雙)35밀리 게파드 AA탱크(사정(射程) 3km), 레드아이와 로랜드 2(사정(射程) 6km), 미사일 시스템 등(等)을 보유(保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순전(純全)히 육군(陸軍)의 자체방어무기(自體防禦武器)로 간주(看做)되고 있다.

이동형(移動型) MRDR 30 저공(低空)레이더를 야전형차량(野戰型車輛) 위에 장착(装着)하고 화력통제(火力統制) 컴퓨터와 이동지휘소(移動指揮所)를 갖춘 시스템에 로랜드와 게파드를 통합

(統合)시키는 서독육군(西獨陸軍)의 계획(計劃)은 1980~81년전(年前)까지 완성(完成)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넷지(NADGE), MRDR 30, SAM 부제(部除)와 유인항공기(有人航空機)로 구성(構成)되는 공군전략방공망(空軍戰略防空網)과의 연결(連結)은 준비(準備)하고 있지 않다.

공군(空軍)에 의(依)한 저공기지방어(低空基地防禦)에 있어서 여러 국가(國家)들은 보통(普通) 대공포(對空砲) 시스템(보포스 L/70, 오리온 35밀리, Rh 202 등)에 의존(依存)하고 간혹(間或) 레이다에 의지(依支)하고 있으나 일반적(一般的)으로는 방어지역(防禦地域)의 외곽주변(外廓周邊)에 위치(位置)하는 육안참보소(肉眼參報所)에 의존(依存)하고 있다. 극소수(極少數)의 공군(空軍)에서는 쇼트타이저캐트 미사일을 사용(使用)하고 있고 영국공군연대(英國空軍聯隊)와 이란 공군(空軍)에서는 라피어를 현역장비화(現役裝備化)하고 있다. 몇몇 국가(國家)에서는 호오크를 기지방공용(基地防空用)으로 전개(展開)시키고 있으나 이는 드문 경우(境遇)이고 보편적(普遍的)으로 호오크는 육군(陸軍)의 방공무기(防空武器) 시스템으로서 알려지고 있다.

기지방어(基地防禦)는 원칙적(原則的)으로 기지(基地)에 있는 전투기(戰鬥機)에 의존(依存)하는 것인데 라이트닝과 같은 구형요격기(舊型遊擊機)일지라도 아주 훌륭한 능력(能力)을 갖고 있다. 이 항공기(航空機)는 시동(始動)부터 이륙(離陸)까지 아주 짧은 출동시간(出動時間)(전화(電話) 브라이언핑을 포함(包含)하여 3분(分))을 갖고 있고 일단(一旦) 공중(空中)에 떠오르면 그의 거창한 여분출력(餘分出力)과 넓은 날개면(面)이 합(合)쳐서 저공(低空)에서는 탁월(卓越)한 기동력(機動力)을 발휘(發揮)한다. F-4 팬텀도 저공(低空)에서는 라이트닝과 동일(同一)한 능력(能力)을 갖고 있으며 F-15는 시험비행보고서(試驗飛行報告書)로부터 판단(判斷)하건대 더 우수(優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직이륙기(垂直離陸機)인 해리어는 어떠한 항공기(航空機)보다도 저공(低空)에서의 능력(能力)이 뛰어나지만 전시(戰時)에는 육군(陸軍)을 지원(支援)하기 위(爲)하여 최전방(最前方)에 전개(展開)될 것이기 때문에 기지방공(基地防空)에는 활용(活用)될 가능성(可能性)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AV-16 개량형(改良型) 해리어 전투기(戰鬥機)는 저공(低空)과 중고도(中高度)에서의 요격(邀擊)에는 흥미(興味)있는 물건(物件)이 될 것이다.

적항공기(敵航空機)의 저공공격(低空攻擊)을 조기경보(早期警報)하고 격파(擊破)하는 수단(手段)들은 전술(前述)한대로 이미 대책(對策)이 강구(講究)되어 있으나 이보다 아주 어려운 문제(問題)는 이러한 방공수단(防空手段)들을 전체전략방공(全體戰略防空) 시스템에 통합(統合)할 필요(必要)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理由)는 적(敵) 항공기(航空機)가 후방(後方)에 있는 목표(目標)를 공격(攻擊)하기 위하여 육군(陸軍)의 주둔지(駐屯地) 상공(上空)을 저고도(低高度)로 침투(浸透)하는 길을 선택(選擇)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統合)이 필요(必要)한 이유(理由)를 예(例)를 들면 공중(空中) 우세(優勢)를 차지한 전투기(戰鬥機)들이 저공(低空)으로 침입(侵入)하는 적기(敵機)를 제격(逮擊)할 때 전방(前方)에 있는 육군(陸軍)어느 때는 해군(海軍)의 SAM 시스템이 동시(同時)에 교전(交戰)하는 것을 방지(防止)하기 위(爲)해서 이다. 적기(敵機)가 전방(前方)의 육군부대(陸軍部隊)로 날아오기 전(前)에 공군(空軍) 레이더가 저공위협(低空威脅)을 탐지(探知)해내는 것도 필요(必要)하다. 이 경우(境遇) 그 정보(情報)는 전방(前方)의 대공포부대(對空砲部隊)로 즉각(即刻) 이첩(移牒)되어야 하며, 반대(反

對)로 육군(陸軍)이 적(敵)의 저공공중공격(低空空中攻擊)을 먼저 인지(認知)했을 때는 공군(空軍)에 즉각(即刻)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별도(別途)로 분리(分離)된 육군(陸軍)과 공군(空軍)의 방공(防空) 시스템간(間)에는 어떠한 형태(形態)로라도 상호(相互) 연결(連結)이 긴급(緊要)한데 이 연결(連結)은 전방(前方)의 센서로부터 후방(後方)까지의 링크가 고위부서(高位部署)로 연결(連結)되어야 하며 양개군(兩個軍)의 현지지휘관(現地指揮官)과 고위사령관간(高位司令官間)에도 횡적(橫的)인 링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방공(防空) 시스템은 분리(分離)될 수 없는 것이며 단일통합지휘관(單一統合指揮官)이 효과적(效果的)인 지휘통제(指揮統制)를 해야 한다는 요구(要求)가 점증(漸增)하고 있다.

전자방해(電子妨害)(ECM)

미 분야(分野)는 비밀제한(秘密制限)으로 올라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비밀(秘密)이 아닌 정보(情報)도 입수(入手)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ECM 및 ECCM의 연구(研究)와 개발활동(開發活動)에 관(關)하여는 지난 중동전(中東戰) 이후(以後)에 상당(相當)히 강화(強化)되고 촉진(促進)되어 미국(美國), 영국(英國),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특수계획(特殊計劃)으로 많은 진전(進展)을 보이고 있다.

소련 ECM 능력개발(能力開發)은 넷지 시스템의 사양서(仕様書) 작성초기(作成初期)에 사실상(事實上) 예견(豫見)하여 최초사업예산비(最初事業計劃費)를 4억(億)파운드(磅)로 책정(策定)하였으나 정치경제적(政治經濟的)인 고려(考慮)로 1억천만(億千萬) 파운드(최종비용(最終費用)은 13.6%가 초과(超過)한 1억(億)2천(千) 5백만(百萬)파운드 소요(所要)로 감축(減縮)불 강요당(強要當)했었다. 이 감축(減縮)의 결과(結果) 장시정체(長時停滯)레이다 및 수동심지(受動深知)시스템과 같은 특수(特殊)한 새로운 ECCM 특성(特性)이 최종사양서(最終仕様書)에서 제외(除外)되고 기존장비(既存裝備)의 구매(購買)와 운용장비(運用裝備)의 개량(改良)에 국한(局限)되고 말았다. 이 넷지 시스템은 그 후(後)에도 적지 않은 ECCM 개발(開發)이 계속(繼續) 수행(遂行)되었지만 그의 ECCM 능력(能力)은 1974년도(年度)까지의 기술(技術)로 끌어올리는데 끝나고 말았다.

방공(防空) 레이다의 전자방해저항(電子妨害抵抗)을 향상(向上)시킬 수 있는 확실(確實)한 가능성(可能性)은 될수록 많은 이종(異種)의 레이다를 배치(配置)하는 것이 가장 값싼 것이 될 것이다. 형(型)이 다른 레이다를 포함(包含)시키고 운용주파수(運用周波數)가 상이(相異)하면 적(敵)은 그 레이다들을 간섭(干涉)하기 위(爲)하여 더 많은 시간(時間)과 노력(努力)을 필요(必要)로 하게 된다. 많은 수(數)의 민간용(民間用) 레이다를 군용(軍用) 레이다와 함께 사용(使用)하면 커다란 효과(效果)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關聯)하여 미사일 포대(砲臺) 레이다는 분명(分明)한 전자방해저항(電子妨害抵抗)의 가능성(可能性)을 제공(提供)해 주는데 특(特)히 호오크와 나이크가 그러하다. 서독(西獨)에서는 96개(個)의 호오크 포대(砲臺)와 64개(個)의 나이크 포대(砲臺)가 연합군(聯合軍)의 미사일 벨트를 구성(構成)하고 있는데 이 이점(利點)은 아주 큰 것으로 인식(認識)되고 있다.

공중전투(空中戰鬥)의 세계적(世界的) 변모(變貌)

박 종 권(朴 鍾 權) <역(譯)>

US Air Force지(誌) 1977년(年) 10월호(月號)에 게재된 기사 “The Chan-ging World of Air Combat”를 소개한다. 저자는 미 공군의 예비역 장군인 Frederick C. Bleese 소장이다.

과학의 최 첨단을 달고 있는 미 공군 전술전기의 변모(變貌)는 세계적(世界的) 전술(戰術)의 변모(變貌)라 할 수 있다.

공중전기에 관한 본 기사는 현재와 미래의 공학적 기술의 실제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 1차 대전(大戰) 이후 일관되어 온 공중전기에 있어 조종사들이 믿고 있던 항공기의 성능은 불원 공중 전투장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역자주(譯者註)-

공중전투의 전기(Tactics)는 끊임 없이 변(變)하고 있으며 그 큰 이유는 공학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장거리 식별능력 및 미사일의 격추능력은 내일(來日)의 Jet ACE로 하여금 가시 거리 밖에서 적기를 격추시키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새로운 Launch-and-Leave Missile은 더 좋아진 목표 식별 수단에 힘입어 전투기동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네바다주(州) 벨리스 공군기지의 공중전투 훈련공역에서 실시된 공중요격 유도탄 평가(Aimval-Air Intercept Missile Evaluation) 훈련을 직접 보기위해서 그곳에 간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나는 이처럼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우리 전술공군에 투입해야만 한다는 확신을 언제보다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본 Aimval은 공군과 해군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단거리(5마일 이내) 공대공 유도탄을 확정하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2단계에 실시된 공중전투 평가(Aceval)는 전투기동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실시되었는데 확실히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Aceval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날리고 어떻게 나르느냐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유도탄을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훈련들은 조종사들이 유도탄을 탑재하지 않으면 수용(受容)할 수 없는 불리함을 안고 전투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고 그것은 단거리 유도탄 평가로부터 배우게 되는 묘한 교훈인 것이다.

나는 한국동란에 두번이나 참전한 후인 1952년부터 1956년까지 넬리스 공군 기지에서 공중전투 전기를 가르쳐 왔다.

우리는 그때 적의 후미로 사격할 수 있는 위치로 항공기를 기동해 들어가는것이 약 85%의 격파율을 보인다는 것과 이에 실패하면 적기는 영락없이 도망해 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었다. 그것은 목표를 육안으로 식별해야 하는 관계로 우리가 항공기를 장거리총으로 사용했으며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유도탄을 발사키 위해서 기총전술을 사용해야 했던 최근의 월남에 서까지도 통용될 수 있었다.

유도탄은 언제나 공중전술을 굉장한 정도로 변화시킬 수 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성능과 신뢰가능성이 정말로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좋다는 사실은 오직 최근에 와서야 믿게 된 일이다.

오늘날 유도탄은 정면에서나 어떤 각도에서도 발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기동이 과거만큼 중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교전전 육안식별이 이제 얼마나 위험한 접근인가를 의미 한다.

이러면 MIG-21처럼 소형의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2마일 내지 3마일까지 접근해야만 하는데 만약 적기의 유도탄이 우리의 것처럼 훌륭하다면 그 거리는 너무나 가까운 것이다. 이것은 공격기와 방어가 엄격한 규칙하에 동시 교전되어 공방기 모두가 동시 격추되어 버린 것이 공중전투 기동평가(Aim-val)에서 명백해졌다.

전형적인 Aimval 미션의 한 가지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의 공중전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려 한다.

공격 항공기는 해군의 항모탐재용 요격기인 Grumman F-14 Tomcat와 공군의 신예 일선 전술기인 McDonnell Douglas의 F-15 Eagle기였다.

방어기는 Northrop F-5E였는데 그것들은 크기와 속도에 있어서 MIG-21 과 흡사하다. 위장용 페인트와 소련 항공기에 있는 글자들과 정확히 같은 대담한 적색 식별숫자를 채색하여 더욱 유사점을 돋보였다.

전투교전 지역은 7, 500, 000에이커에 해당하는 반경 30마일 범위의 Nellis Range였다. 최대 Ceiling은 50, 000FT였다. 항공기는 실제로 유도탄을 사용치는 않았다. 모든 사격은 전자적인 것이었고 그것들은 잘 만들어진 도구인 거대한 컴퓨터에 의해서 지상에 기록되었다. 전자

적 살상(Kill)을 포함한 모든 임무들이 지상통제사에 의해 실제 시간에 전시되고 녹음테이프가 나중에 있을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Raythem 유도탄 제작회사의 AIM-9L Side Winder나 AIM-7F Sparrow가 두 개의 「시험 작품」유도탄에 대항해서 시험되었다. Side Winder는 2 내지 3마일의 후미 추적 효과를 가진 Launch-and-Leave 적외선 추적 유도탄이다.

Sparrow는 Side Winder보다 10배쯤 먼 거리에서 추적 가능하지만 이 점은 다소 미심쩍다. 왜냐하면 그 유도탄은 자기의 비행기가 가진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서 끝까지 목표에 유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두 가지의 유도탄인 Ford Aerospace SS-1 과 Hughes SS-2는 특별한 설계로 평가받았으며 전자적 모의 훈련을 통해서 볼 때 그것들의 통합된 능력은 기수로부터 최대 70도까지 공격할 수 있으며 Side Winder의 5배에 달하는 민감도와 능력을 나타냈다.

지상 규칙들은 F-5E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들은 연료의 제약 때문에 언제나 제일 마지막에 이륙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30마일 전투권 내에서 그들이 조우하게 될 항공기의 뗏수와 기동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기 때문에 그 원의 가장자리를 초계함을 허용하나 F-14와 F-15의 공격기는 즉시 중앙으로 진입해야 한다. 또 월남에서의 그들 상대였던 M-21처럼 F-5E는 공격항체가 전투지역(30마일권)에 침입하면 지상관제사들로부터 레이더 추적과 경고방위를 제공받았다. F-14와 F-15 편대는 그들 자신 뿐이었다.

F-5E는 AIM-9L Side Winder로 무장한 반면 F-14와 F-15는 시험 유도탄을 조합해서 사용했다. F-14의 표준무장인 Hughes AIM-54 Phoenix는 장거리용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Aimval은 새로운 단거리 유도탄 시험이었다. 육안식별은 엄격히 요구되는 것이었고 F-14는 새로운 Northrop 의 Television Sighting Unit(TVSU)를 사용했으며, 10 내지 12마일에 이르는 거리에서 그들의 적인 F-5E 식별을 70%까지 해냈다. 공군은 변형으로서 TISEO(Target Identification System Electronic Optical) 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F-4E에 장착되었으나 F-15에는 한번도 장착된 적이 없다.

TVSU는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는 정확한 장거리 광학 스코우프를 가진 자이로식 동요방지장치 (자이로 스코우프의 응용으로 선박, 비행기의 동요를 방지하는 장치)로 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체제이다. 조종사는 조그만 TV스크린에 나타난 목표를 보는 것이다. 이 단위와 F-14 의 AWG-9 화기 통제 레이더는 상호 종속되어 있어서 레이더 Lock-on이 풀렸을 경우 신속하게 목표를 재포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체제는 합해서 94 LBS밖에 안 되는 두 개의 검은 상자 안에 있다. 신뢰도가 아주 높아서 매 비행시간당 6분만 정비하면 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Aimval/Aceval 교훈

Aimval의 거의 80%가 정면 접근이었다. TVSU로써 F-14의 승무원은 F-5E와 Side Winder 유도탄 사정거리 밖에서, 그리고 F-14의 Sparrow 유도탄 사정 거리 내에서 안전하게 F-5E의 분명한 영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TOM-CAT 승무원은 Sparrow를 발사했으나 즉시 항공기를 나뉘 썰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유도탄은 항공기 레이더에 의해 충돌 지점으로 유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려면 10마일 거리에서 약 25초가 걸리며 F-14의 승무원은 적기 유도탄의 사정 거리 내에 자신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10 내지 12마일권에서 F-5E 조종사는 F-14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유도탄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 그러나 18~19초 이후 분리는 육안식별이 가능한 지점으로 좁혀지는 것이다. 조종사는 F-14 를 보고 그의 Lanch-and-Leave Side Winder 하나를 발사하는데 이 미사일은 고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 진행방향의 좌우 30°내에 명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1초 또는 2초 이후 F-5E는 F-14의 Sparrow에 의해서 격파되지만 수초 후 F-14 자체도 F-5E Side Winder에 의해 격파됐다.

수없이 많은 시도의 조우가 그 같은 종류의 무승부로 끝났다. F-15도 더 낫지 못했다. 장거리 육안식별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조종사들은 그들이 목표를 보기전까지는 발사할 수 없으며 그때면 그들은 F-5E 조종사의 육안식별권 내에 있었고 더구나 그들은 F-5E의 유도탄 사정거리 내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요점은 우리의 비행기가 아무리 빠르긴, 아무리 높은 고도에서 나르긴, 커다란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단 적의 유도탄 사정권 내에 들면 피하기가 용이치 않다. 따라서, 장거리 식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그 목적을 위해 해군은 Hughes에 의한 목표 식별체제 개발에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계약은 1980년대 초반기에 있어서 엔진특성에 의한 장거리 식별을 가능케 할 것이다.

“Skin Paint”에 의한 레이더 식별도 뒤따를 것이다. 그런데 이에 의해서 조종사는 전자적으로 조용한, 다시 말해서 적에게 그들의 위치를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와 IFF같은 전자적 체제로써 적 항공기를 탐색하고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0년대 중엽 Hughes는 엔진특성 Skin Paint 그리고 다른 특성들로된 다수 참조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때면 우리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공격전 적기 육안식별을 더 이상 꼭 할 필요는 없게 될 것이다. 장거리, 단거리 Launch-and-Leave 유도탄을 혼합해서 장거리 식별은 1차대전 이래의 항공전술에 최초로 참다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아마 요기(Wingman)를 제거할 수 조차도 있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비용을 두 배로 하지 않고 공격 능력을 두 배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추적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후방발사 무기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첨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공중전이 개시되었을 때 각자와 비행기만으로 된 단기 공중공격대의 공격형태를 예견하며 진보된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Data Link), 신속한 비행방위 변경을 약속해 주는 새로운 유도탄 능력, 식별능력의 발전, 이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게 될 문제들을 확신한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진지한 공중전 훈련에도 분명한 Aimval/Aceval 교훈의 적용을 시작해야만 한다. 모든 전투기는 육안 범위 밖에서 목표를 식별키 위해TUSU나 그것과 같은 체제를 장착 해야만 한다.

우리의 전투기는 최소한 50마일의 격파거리를 가진 유도탄과 적의 적외선 유도탄 범위 밖에 위치할 수 있는 Launch-and-Leave 능력을 필요로 한다.

끝으로 우리는 항공기의 정면이 아닌곳에서도 목표에 발사될 수 있는 단거리 Launch-and-Leave 유도탄이 필요하다.

Aimval훈련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그런 능력을 마련한다면 항공기 성능은 더 이상 공중전의 결정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신도 그런 능력 없이 제트기 ACE조종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조종사들로 하여금 수용불가능한 불리함 속에서 작전토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북한 실화

제대군인과 탈출사건

75년 가을 어느 날의 일이다. 인솔군관의 인솔하에 집단적으로 이송되는 일단의 제대군인들이 함흥역에 도착하였다.

제대자들은 이 곳에서 자기 고향으로 갈 것으로 믿고 있었다. 박 중사는, 『군관동지, 인솔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지요?』 하고 인솔군관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그러자 인솔군관은,

『동무! 동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요? 선배 제대자 동무들도 모두 집단배치되어 일하면서 결정적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알겠소? 중사 동무』

인솔군관은 눈을 부라리며 야단을 쳤다. 얼마 후 사건이 벌어졌다. 박중사와 몇몇 사람들이 인솔군관을 둘러싸더니 무작정 물매를 가하여 인솔군관을 혼수상태에 빠뜨리고 저마다 줄 행랑을 놓는 것이었다.

아무도 미처 손 쓸 사이가 없었다.

이런 사건이 요즘 북한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실 복귀는 군대에 소집할 때 「제대하면 학교진학에 우선권이 있다」는 감언이설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막상 제대하면 약속과는 달리 이렇게 노동판에 집단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율곡(栗谷)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1>



편집실

율곡의 출생(出生)과 가계(家系)

율곡(栗谷)은 중종(中宗) 기묘사화(己卯士禍) 후 17년인 중종 31년 병신(丙申)(1536) 12월 26일에 강원도 강릉 북평촌(北坪村) 외가(外家)에서 출생하였다. 당시의 거유(巨儒) 퇴계 이황 보다는 35년 후생이었다. 성은 이씨, 관향은 덕수(德水), 이름은 이(珥)(이), 자(字)는 숙헌(叔獻)이요, 율곡은 그의 호이다. 율곡이 출생할 때, 모부인의 꿈에 용이 보였다 하여 그의 소자(小字)를 건룡(見龍)이라 하였다. 「율곡(栗谷)」은 그의 고향인 경기도 파주(坡州) 율곡촌(栗谷村)의 이름을 취한 것이다. 흔히 율곡을 강릉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가 많으나 그것은 잘못이다. 단지 그의 외가와 출생지가 강릉일 뿐이요, 그 친가의 본적지는 파주인 것이다.

율곡의 조상은 덕수현(德水縣)(지금 풍덕(豐德))사람으로 고려조의 중랑장(中郎將)인 돈수(敦守)를 시조로 삼고 있다. 대대로 관계에 입신하여 이름을 날리었으니 특히 5세(世) 천선(千善)은 공민왕 때에 공을 세워 악안백(樂安伯)에 봉하고 시(諡)를 양간(良簡)이라 하였으며 6세(世) 인범(仁範)은 벼슬이

세계(世系)

- ① 돈수(敦守) — ② 양준(陽俊) — ③ 소력(召力) — ④ 윤저(允苴) — ⑤ 천선(千善) —
 ⑥ 인범(仁範) — ⑦ 양(揚) — ⑧ 명신(明晨) — ⑨ 추(抽) — ⑩ 의석(宜碩) — ⑪ 위(威) —
 ⑫ 원수(元秀) — ⑬ — 우(瑀) — ⑭ 경정(景鼎)
 — 이(珥) — 경림(景臨)
 — 번(璠)
 — 선(璿)

정당문학(政堂文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이르고 7세(世) 양(揚)은 이씨 왕조에 들어와 공조참의(工曹參議), 3세(世) 명신(明晨)은 지돈녕(知敦寧) 부사(府事)로 시(諡)를 강평(康平)이라 하였다. 율곡의 조부인 위(威)과 부친인 원수(元秀)는 후일 율곡의 귀(貴)로써 모두 의정부 좌참찬의 증직(贈職)을 받았다. 모계(母系) 쪽을 보면 율곡의 외조(外祖)는 기묘(己卯) 명현(名賢)의 한 사람인 진사 신명화(申命和)요, 모부인은 바로 유명한 사임당신씨(師任堂申氏)가 그였다. 율곡은 4형제 중의 세째로 태어났으니 맏형은 선(璿)(선)이요, 둘째 형은 번(蕃), 아우는 우(瑀)이었다.

이와 같이 부모 양계의 명문의 혈통을 받은 율곡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범아(凡兒)와 크게 달라 3~4세에 말과 문자를 함께 배우기 시작하였다 한다. 6세에 모부인을 따라 강릉에서 서울의 본가(本家)로 돌아와 모부인의 교도하에 가장 깊은 감화를 받았다. 모부인 사임당은 경서(經書)에 통하고 시문(詩文)에 능하고 서유(書畵)에 뛰어났을뿐 아니라 자못 덕행이 있는 현부인이었다. 그리하여 율곡은 8~9세에 이미 시문(詩文)의 명성이 높아 신동의 일컬음을 받았고 9세에 이륜행실(二倫行實)을 읽다가 당(唐)나라 장공예(張公藝)의 「구세동거(九世同居)」조(條)에 이르러 깊이 감동한 바가 있었다 함은 유명한 이야기다. 13 세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고 이후 학문에 열중하여 특히 성현의 학에 뜻을 세워 유자(儒者)의 자격을 충분히 나타냈었다. 한편으로 불서(佛書)를 탐독하여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설로부터 「색즉시공(色卽是空)」의 설에까지 두루 섭렵 하였다.

그로부터 그의 나이 16세에 이르러 자모(慈母) 사임당의 상(喪)을 당하여 애통망극하더니 3년의 상을 벗던 이듬해(19세)에 갑자기 집을 떠나 족적(足跡)을 금강산에 들여놓았다. 금강산이라 하면 해동(海東)의 명구(名區)로서 대소 사찰(寺刹)과 수도승이 많았던 곳이거나 울곡은 산문(山門)에서 승려들과 교유(交遊)하여 혹은 경(經)을 논하고 혹은 선(禪)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1년을 넘지 못하여 산문(山門)을 등지고 속세로 돌아와 뜻을 다시 유교 성현의 학(學)에 굳게 하였다. 이 때 그가 지었다고 하는 「자경문(自警文)」중 제1조에 「먼저 그 뜻을 크게하여 성인으로서 목표를 삼고 일호(一毫)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나의 일은 끝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한 것을 보아 그의 입지(立志)가 얼마나 비장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그는 뒷날에 임금에게나 학인(學人)들에게 항상 입지(立志)를 굳게 또는 크게 하라고 권하곤 하였지만 사실 입지가 인생행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는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22세에 부인 노(盧)씨를 아내로 맞이하니 성주목사(星州牧使) 경린(慶麟)의 딸이었다.

출세경력(出世經歷)과 생애(生涯)

그는 가세(家勢)의 빈함과 부형의 권고에 못이겨 여러 차례 과거에 응하여 으뜸으로 뽑히기를 전후 아홉번, 시관(試官)을 놀래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가 이 퇴계를 방문(訪問)하여 많

은 감화를 받고 오던 해(23세) 겨울에 별시(別試) 〈과거의 일종〉에서 천도책(天道策)에 대한 명
논문을 써서 고시관을 놀라게 했다함은 더욱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의 우주철학의 체계와 천인합일관(天人合一觀)은 이미 천도책문(天道策文)에서 드러나고 있거니와 이 논문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후에 중국(명(明))에까지도 알려져 이름을 널리 날리었던 것이다.

문과(文科)(대과(大科)) 장원하기는 29세(명종(明宗) 19년) 때의 일로서 율곡은 이 해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초사(初仕)로 발신, 그 후 거의 해마다 승진하여 내외 중직(重職)을 역임하였다. 내직(內職)에 있어서는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30세), 이조좌랑(吏曹佐郎), 사헌부(司憲府) 집평(執平)(33세), 성균관 직강(直講), 홍문관 부교리(副校理), 동교리(同校理)(35세), 동(同)직제학(直提學)(38세), 우부승지(右副承旨)(39세),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동상재(同上) 44세), 홍문관부제학(40세), 사헌부 대사헌(大司憲)(46세), 호조판서 겸 홍문(弘文), 예문대제학(藝文大提學), 이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의정부 우참찬(右參贊)(48세) 등을 경력하였고, 외직(外職)에 있어서는 청주목사(淸州牧使)(36세), 황해도 관찰사(39세)를 지냈으며 또 일찍이(33세) 서장관(書狀官)으로서 명경(北京)에 봉사한 일도 있었다.

울곡은 관계생활에도 매우 바빴지만 일반 학문과 교육 및 사색 생활에도 그러하였다. 실상 그의 본 뜻과 취미는 전자에보다도 후자에 있었다. 더우기 그 때의 정계란 당파의 분열과 시비로 한창 어수선할 때이므로 불요궤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칭병(稱病) 혹은 기타 이유를 들어 관직을 고사하고 울곡(栗谷)(파주(坡州)) 혹은 해주(海州) 석담(石潭)으로 퇴거(退居)하여 매양 학도들과 학(學)을 강하기를 즐겨 하였다.

그는 이렇게 학문세계에 전력하려고 하였지만 얼마 아니하여 왕(선조(宣祖))의 소명(召命)을 받곤 하여 부득이 서울로 올라가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가 조정에 있어서는 마치 중종 때의 조정암(趙靜菴)과 같이 항상 철인(哲人) 군주주의를 주창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성인의 학과 치(治)를 체험, 실천하도록 권하기를 마치 아니하였다. 특히 선조는 율곡을 사랑하고 율곡도 선조를 유위(有爲)의 주(主)로 인식하여 직접 왕에게 「전하는 명명(英明)하시고 욕심이 적으사 확실히 유위(有爲)의 주(主)시니 능히 선치(善治)하지 못함은 그것을 하시지 아니하는 때문이라」하고 또 「전하는 욕심이 적고 수신(修身)을 잘 하시며, 백성을 사랑하고 선비를 좋아하시니 정히 유위(有爲)의 주(主)시라 오늘에 만일 분발하지 못한다면 다시 바람직한 날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말을 되풀이하였거니와 왕을 잘 보좌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전근대적인 전제국가에 있어서는 출치(出治)의 본(本)이 곧 임금이고, 임금의 마음자리 여하가 국가의 성쇠치란(盛衰治亂)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므로 도리어 당연한 언론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율곡은 첫째 군왕의 입지(立志)를 논하고 다음에 격(格)(물(物)), 치(致)(지(知)), 성(誠)(의(意)), 정(正)(심(心))의 학(學)으로부터 일반 실재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의견을 전

달치 아니함이 없고 말로써 부족하면 소장(疏章)과 저서로서 아뢰었다. 그러나 왕이나 대신(大臣)이나 기타 동료 중에서 율곡의 정책 건의(建議)를 적극 받아들이거나 찬동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 율곡으로 하여금 매우 실망하게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동서(東西)양파의 분단(分黨) 이후로 율곡의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憂國) 정열은 더욱 대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동서 양파의 조화와 타파를 위한 방법으로 혹은 왕에게 권하여 시비의 장본인인 심(沈)·김(金) 양인을 잡시 분쟁의 본거지인 중앙에서 떨어진 곳으로 출보(出補)(지방관리)시키기도 하고 혹은 양파의 격렬분자에 대해서 피차 서로 동심협력하여 국사에 진력할 것을 강력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 양파 중 어느 일방이 우세하였을 때에는 그 쪽을 물러 댈수록 두쪽의 세력을 균등케 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그가 그의 친우요 서인의 한 유력자인 정철(鄭澈)에게 주는 서간에 「이(珥)(율곡)」는 동서 양파를 타파하여 하나로 하려고 하여도 힘이 자라지 못한다. 내가 만일 동쪽에 편을 들거나 서쪽에 편을 든다면 어찌 다 좋다고 하겠는가 라 하고 또 동인의 격렬분자의 하나인 리발(李潑)에게 보내는 서간에 「을해(乙亥)(훈당초년)」에 서인이 좀 우세하고 동인이 패했을 때 나는 단지 서인에 대해 쟁변(爭辨)하였을뿐 어찌 동인을 불리하게 했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은 서인이 여지없이 패하고 동인이 바야흐로 우세하니 동인에 대하여 쟁변(爭辨)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율곡은 동서 양파 중 어느 한 쪽을 두둔하지 않고 필수록 중립적 태도를 취하여 양 쪽에 대해 국사에 동심협력 하기를 호소하여 마치 아니하였다. 그런데 서인 중에는 율곡의 친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인측에서는 율곡이 서인쪽을 옹호한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았다. 율곡의 본심은 동서 양파가 모두 같은 사류(士類)들이므로 어느 편이고 너무 해치려고 하지는 아니 하였지만 그 중에도 완미(頑迷)하고 과격한 분자만은 이를 억누르고 배척하지 아니하면 조정의 안정(安定)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선조 15년(47세) 「진시사소(陳時事疏)」에서 왕에게 「전하께서는 대신(大臣), 대간(臺諫), 시신(侍臣)들을 널리 불러 성지(聖旨)를 명백히 하여 동서를 구분하는 폐습을 고치게 하시고 공도(公道)에 좇아 실벌(實罰)을 내리소서…… 만일 사류 중에 완미고집(頑迷固執)하여 반성치 못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억제할 것이며 또 사정(私情)을 품고 강변(強辯)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물리치소서」 운운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사류(士類) 중 특히 동인족에서는 울곡을 몹시 미워하여 어떤 구실이라도 얻게 되면 그를 가차 없이 법망(法網)에 몰아 넣으려고 하였다. 마침 선조 16년(48세), 울곡이 병조판서로 있을 때 호인(胡人) 2만명이 북도(北道)의 종성(鍾城)을 포위하고 있다는 급보(急報)가 들어왔다. 이 급보를 접한 울곡은 곧 출정군(出征軍)을 파견함에 있어 전마(戰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사수(射手) 중 3등(기술등급) 이하(以下)의 자로서 대신 말을 공출하는 자에게는 출정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써서 일반 말을 모집하여 보낸 후 이를 상주(上奏)하였다. 그리고 또 하루는 울곡이 병으로 누웠을 때 변보(邊報)로 인한 왕의 부름을 받고 억지로 기동하여 입궐하였던 바 현기(眩氣)가 일어나 할 수 없이 알현지 못함을 아뢰었더니 왕이 내의(內醫)를

내보내어 병을 보게 하고 물리가 조섭케 하였다.

위의 두 가지 일이 동인들의 울곡을 공격하는 큰 구실거리가 되었다. 즉 이때 3사(司)(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의 직에 있던 동인들은 울곡의 납마책(納馬策)을 「천권(擅權)(천권)」 즉 독재라 하고 입궐미알(入闕未謁)을 「만군(慢君)(임금을 무시)」이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도 홍문관에서는 심지어 「오국소인(誤國小人)(나라를 그르치는 일)」이라고까지 몰아대어 그의 직을 파면하기를 청하였다. 이야말로 공격을 가하기 위한 공격이었다. 이에 울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왕에게 자기의 죄를 청하는 동시에 사직을 애걸하여 마치 아니하였다. 왕은 3사(司)의 탄핵(彈劾)이 너무도 과격한데 불쾌를 느끼었으므로 울곡의 사직을 허락치 않았다. 또 울곡의 친우인 성훈(成渾)도 분개하여 상소로써 울곡의 억울함을 변호함과 함께 악의 뿌리를 뽑기를 간청하였다. 왕은 동인들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울곡 반대의 괴수인 송응개(宋應溉)·허풍(許葑)·박근원(朴謹元) 등을 유배에 처하니 이를 「계미삼찬(癸未三竄)」이라고 한다. 선조왕은 본시 울곡과 성훈(成渾)을 사랑하고 아끼는 터이라 이때 동인과의 이조좌랑(史曹佐郎) 기홍민(金弘敏)이 울곡 일파를 몰아 편당을 짓고 있다고 하면서 위의 3찬(竄)의 해소(解消)를 청하였을 때 왕은 노하여 「나는 이(珥)·혼(渾)의 당이 되고 싶어 하니 이로부터 나를 그렇게 알아줄이 좋다.」하고 그의 직을 갈아치우고 말았다.

울곡은 마침내 파주(坡州)(울곡(栗谷))로 물러가 사직소(辭職疏)를 올리고 거기서 또 해주 석담(石潭)으로 돌아가 심신을 휴양하려고 하였던 바 얼마 아니하여 왕으로부터 재삼 소명을 받고 부득이 상경하여 이조판서에 취임하였다. 울곡이 입사(入仕)를 즐겨하지 않는 이유는 본래 포류(蒲柳)의 기질로서 격무에 견디기 어려운 이유(理由)도 있었을 것이나 그보다도 시비가 많은 당쟁의 어지러운 무대 속에 말려 들지 아니하려는 심정,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선조까지도 자기의 정책에 대하여 한 귀로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 귀로는 흘려버리는 애매한 태도와 보다 적극적인 추진력과 판단성이 결핍한데 실망을 품은 등에 기인한 바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울곡이 상경 취임한지 3개월이 지나 이듬해 정초(正初)로부터 숙아(宿痾)가 말하여 몸이 원기를 잃고 치료 중에 있었다. 때마침 북도(北道)(함경도)순무(巡撫)의 명(命)을 받은 서익(徐益)이 왕의 내지(內旨)에 의하여 울곡을 방문하고 순무(巡撫)에 관한 방략(方略)을 물었다. 울곡은 그것을 주체적으로 시키기 위해 병석에서 일어나 붓을 들려고 하였다. 자제(子弟)들은 병환이 더 덧칠가 우려하여 집필을 만류하였다. 울곡은 「이는 국가의 대사(大事)이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하고 입으로 부르며 아우 우(瑀)로 하여금 받아쓰게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육조 방략(六條方略)」으로 전집 속에 수록되어 있거니와 그의 최후의 글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병은 더 악화하여 수일 후에 드디어 불귀의 객이 되었다. 이와 같이 그는 최후의 일작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걱정하는 정열에 불타 결국 그 직에 순(殉)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는 선조 17년 갑신(甲申)(1584) 정월 1일이니 그의 나이 불과 49세였다. 후에 시(諡)를 문성(文成)이라 사하

고 속종(肅宗) 8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율곡의 병환 중에도 선조는 펍 우려하여 의원을 보내 문병하더니 부음(訃音)을 듣고는 매우 애통하여 마지아니하고 사흘 동안 철조(輟朝)를 명하고 사제(賜祭)와 치부(致賻)를 후히 하였다.

정통적(正統的) 사상계보(思想系譜)

올곡은 청소년 시대로부터 성현을 목표로 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學)을 닦고 또 항상 그것을 내세우고 있었던 만큼 그의 근본 사상이 공맹(孔孟)과 정주(程朱)의 그것에서 발하였던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특히 형이상학적인 성리학에 있어서는 다소의 이채(異彩)를 띠고 있었지만 역시 그 근본 사상은 정주(程朱)에 뿌리를 박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본국에 있어서는 올곡의 선배로 공맹(孔孟), 정주(程朱)의 학(學)을 창도(唱導)하고 실천궁행(實踐躬行)에 힘쓴이 가운데 올곡이 가장 그 존재를 높이 평가하고 숭모한 이는 누구보다도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와 퇴계(退溪) 이황(李滉)이었다. 정(靜)·퇴(退) 양현(兩賢)의 인격과 포부와 학문은 과연 올곡사상의 직접적인 원류(源流)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암(靜菴)은 소년 시대에 일시 점필재(沾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인(門人)인 김굉필(金宏弼)에게 수학한 일도 있었지만 그가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기는 진일재(眞一齋) 유충조(柳崇祖)로부터였다고 여겨진다. 승조(崇祖)가 중종반주(中宗反主) 후 유배(流配)에서 기용(起用)되어 태학(太學)(성균관)의 장(長)으로 있을 때 정제(靜蒂)는 거기에 적을 두고 있었다. 중종이 태학에 거동하여 유신(儒臣)의 진강(進講)을 명하였을 때 유충조(柳崇祖)는 특히 대학(大學)을 강(講)하여 철인정치의 요령을 되풀이하고 그 이튿날 학생들을 이끌고 입궐하여 왕에게 글을 올려 사례하는 동시에 자기가 저술한 대학잡(大學箴)과 성리연원촬요(性理淵源撮要)를 바친 일이 있었다. 이 두 책은 전대(前代) 사장(詞章)(문예(文藝))의 폐(弊)에 거울하여 반동적(反動的)으로 도학사상-철인주의사상-을 고조(高調)한 저술이었다. 승조(崇祖)의 사상이 이러하였음으로 해서 당시 대학생(大學生)의 한 사람인 정암도 반드시 그 영향을 깊이 받았으리라고 추찰된다. 정암(靜菴)이 그 후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옥당(玉堂)(홍문관(弘文館))에 선입(選入), 벼슬이 차차 높아지고 중종의 사랑을 받게 되자 그는 상고주의(尙古主義)의 이상정치(道義世界) 건설(建設)을 실현코자 하였다. 그러함에는 먼저 출치(出治)의 근본인 임금의 마음 자리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여 매양 도학(道學)(성리학(性理學))에 의거하여 철인군주주의의 이론과 소인 군자의 변(辯)을 되풀이하고 사장(詞章)(문예(文藝))은 부박하다 하여 이를 반대하였다. 또 그는 변법주의(變法主義)를 주장하여 종래의 제도와 습속 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차례로 개혁하려고 하였다. 정암(靜菴) 일파의 철인 군주론은 너무도 이상주의에 치우치고 또 그들의 변법개혁(變法改革)에는 불만만 것도 많았지만 너무도 급진적이고 속류(俗流)와의 사상적 격차가 심하여 마침내 반대파의 모략으로 참혹한 희생을 당하고 말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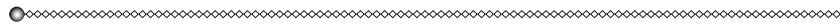
다. 그러나 정암의 실 사회에 있어서의 경세(經世)의 포부와 경륜(經綸)은 유자일류(儒者一流)의 패튼을 보인 것으로 율곡의 숭모(崇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에 퇴계는 어떠한가 하면 그는 정암보다 20년 후생으로 어디까지나 학자요, 경세가(經世家)는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화려하고 험난한 관계(官界) 생활보다도 한가한 전원(田園)에 들어앉아 진리탐구와 체행 생활에 무한한 취미와 쾌락을 느꼈다. 그래서 부득이 나아가 관직에 있다가도 얼마 아니하여 물러가기를 주의로 하였기 때문에 향리(鄉里) 토계(兎溪)(예안(禮安))를 퇴계(退溪)로 고쳐 자호(自號)를 삼기까지 하였다. 퇴계는 주자학(朱子學)을 대성(大成)한 이로 주자의 일언 일구를 금과옥조로 여기다시피 한만큼 그의 문장도 주자의 그것과 방불한 느낌을 주게 한다. 율곡은 퇴계의 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에 있어서는 이견(異見)을 표하였지만 그 학문의 범박(汎博)하고 정상(精詳)함과 또 그 풍부한 체행공부에 대해서는 경의와 찬사를 발하였다. 더우기 율곡은 퇴계에게 자주 도(道)를 물은 일이 있었으므로 그의 영향을 받은 바도 많았다고 본다. 따라서 율곡은 공맹(孔孟)·정주(程朱)의 학(學)을 정통으로, 본국의 정암(靜菴) 및 퇴계의 사상을 자기 일신(一身)에 절충(折衷)하여 다시 집대성한 철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학설(學說)에 있어서는 명(明)의 정암(整菴) 라후순(羅欽順)과 본국의 선학(先學)인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영향도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자관(儒者觀)과 학적(學的) 태도(態度)

공맹(孔孟)의 근본사상이 「수기(修己)·치인(治人)」 즉 자기의 인격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것에 있는 만큼 율곡도 여기 입각하여 「수기(修己) 치인(治人)」을 유자(儒者)의 사명(使命)과 본령(本領)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缺)하여서는 「진유(眞儒)」 「대유(大儒)」라고 할 수 없다고 그는 보았다. 즉 유자(儒者)는 자기의 인격이나 학문만을 닦을 뿐 아니라 나아가 출세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포부와 이상을 나타내어 널리 국가와 사회에 복리(福利)를 주도록 노력하고 물러와서는 「입언(立言)(저술(著述))」과 「교육」에 종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그의 말을 빌어 말하면 「이른바 진유(眞儒)란 것은 나가서는 일세에 도(道)를 행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을 누리게 하고 물러와서는 가르침을 주어 학자로 하여금 큰 꿈을 깨치게 하는 것이니 나아가 도를 행함이 없고 물러와 교를 줌이 없다면 비록 진유(眞儒)라 말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이 율곡의 유자관(儒者觀)이거나 퇴계의 그것과는 좀 다른 바가 있다. 퇴계의 유자관(儒者權)은 선비란 나아가 벼슬하는 것보다도 물러와 저술문자(著述文字)로써 후인(後人)에게 남겨 주는 것이 그 본분이요, 사명으로 생각 하였다. 그래서 퇴계는 일찌기 그의 선배인 회계(晦齊) 리언적(李彦迪)의 행상(行狀)을 지을 때에 회계(晦齊)의 사계(斯界)에 있어서의 존재(存在)를 높이 평가하여 「선생과 같은 이는 사승(師承)의 계통이 없어도 사계에 자분(自奮)하여.....입



언수후(立言垂後)하였으니 우리 동방에서 이와 같은 이를 찾을 수가 거의 없다」고 까지 하였다. 그런데 율곡은 이와는 달리 「회제(晦齊)가 박학능문(博學能文)하고 저술(著述)이 풍부하고 조예(造詣)가 깊으나 경제의 대재(大才)가 없고 출처(出處)에 있어서도 을사사화 때에 토류(土類)를 위하여 직언(直言) 광구(匡救)치 못하고 도리어 권간(權奸)의 강박에 의하여 재판관이 되어 착한 선비들을 고문하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대유(大儒)로서의 자격(資格)을 인정치 아니하였다. 학문이 비록 침부(瞻富)하고 입언수후(立言垂後)의 저술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으로써 대유(大儒)의 자격을 규정하는 표준을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경세(經世(經世))의 재(才)와 출처(出處(처세(處世)))와 의(宜)(합당(合當))를 겸한이라야 대현(大賢)으로 율곡은 추앙하였다. 율곡의 이른바 경제(經濟)는 지금에 우리가 말하는 경제(經濟)와는 물론 개념을 달리한 그야말로 고전(古典)에서 이르는 경국제세(經國濟世), 즉 경세(經世)의 뜻으로 보아야 하겠거니와 이런 의미에서 율곡은 「입언수후(立言垂後)」가 회제(晦齊)보다 적은 조정암(趙靜菴)을 대현(大賢)으로 추앙하여 맛이 아니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퇴(退)·율(栗) 양현(兩賢)의 유자관(儒者觀)이 좀 다른 바를 알 수 있다.

퇴계는 특히 주자(朱子)를神明(神明)과 같이 신봉하여 이로써 일상생활의 준칙을 삼아 어묵동정(語默動靜)과 사수(辭受)·취여(取與)의 하나 하나가 주자(朱子)와 합하려 하였고 더구나 질의(質疑)·변난(辯難)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자의 설을 이끌어 증언(證言)을 삼았다. 만일 조금이라도 주자(朱子)와 학설을 달리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용허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퇴계의 온후관대(溫厚寬大)한 풍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하고 냉엄(冷嚴)하였다. 그리하여 퇴계는 중국인으로는 육상산(陸象山) (구연(九淵)·진백사(陳白沙) (헌장(獻章))·옥양명(玉陽明) (수인(守仁))·나정암(羅整菴) (흥순(欽順)), 본국의 서화담(徐花潭)(경덕(敬德)) 및 그 문인(門人)인 이연방(李蓮坊)(구(球))의 설을 모조리 반대하여 일일이 변증을 저술하였다. 율곡도 유심론자(唯心論者)인 육상산(陸象山)이나 지행합일론자(知行合一論者)인 왕양명(王陽明)의 학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이기합일론자(理氣合一論者)로 주리적(主理的)인 나정암(羅整菴)과 주기적(主氣的)인 서화담(徐花潭)에 대하여는 「이기부상리(理氣不相離)」(리(理)와 기(氣)가 분리해 있지 않다는 것)의 묘제(妙諦)를 간파하였다 하여 그들의 자득의 견해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율곡은 자못 자주적이고 또 비판적이어서 남의 설의 어떤 점에 공명하였다고 해서 전체를 무조건으로 찬성하지는 아니하였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이념을 통하여 장처(長處)라고 생각되는 것은 장처(長處)로 단처(短處)라고 관념되는 것은 단처(短處)로 논평하였다.



황금(黃金)의 나무

강용구(姜容求)

작년 여름 휴가(休暇) 때 일이다. 앞집에 사는 이계은(李啓銀)씨가 인사소개(人事紹介)를 시켜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이 김홍덕(金弘德)씨.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김홍덕(金弘德)씨를 김사장(金社長) 김사장(金社長)하므로 나는 궁금하여 무엇하는 사장(社長)이냐고 물었더니 당두중(唐杜仲)의 사장(社長)이라는 것이다. 하도 신기하여 그 많은 직업중(職業中)에서 당두중(唐杜仲)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 좌중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와아! 하고 폭소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실수나 하지 않았나 하고 얼굴을 붉히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 중 몸집이 건장한 한사장(韓社長)이라는 사람이 그 내력을 설명하였다.

당두중(唐杜仲)이란 것은 직업명(職業名)이 아니라 황금(黃金)같은 약용(藥用)의 나무 이름이라는 것이다. 수원시(水原市) 정자동(亭子洞) 572의 2호(號)에 소재(所在)하고 있는 부국농장(富國農場)의 주인(主人)이 김홍덕씨(金弘德氏)이며, 이는 만병통치(萬病通治)의 나무인 당두중(唐杜仲)을 소유(所有)하고 있어 당두중(唐杜仲)의 사장(社長)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불가사의의(不可思議)한 이 나무는 전(前) 마포형무소(麻浦刑務所) 수무과장(愁務課長)이었던 백두현씨(白斗鉉氏)(79세(歲), 현재 파주병원장)가 어느 미정보장교(美情報將校)의 중병(重病)을 고쳐 주어 그 미국(美國) 장교(將校)가 은혜의 보답(報答)으로 당두중(唐杜仲)의 씨앗 20여개(餘個)를 중국(中國) 사천성(四川省)에서 구(求)하여 준 것으로 6.25 후(後)에 심은 것으로써 지금은 다 없어지고 김홍덕씨(金弘德氏) 소유(所有) 2그루 밖에 없어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한다.

학명(學名)은 Encommia Uemoides Oliver이고 영국명(英國名)으로는 Hardy Rubber Tree라 하고 원산지(原產地)는 중국(中國) 사천성(四川省) 중경(重慶)에 야생(野生)하는 나무로서 현대의학(現代醫學)으로도 증명 못하는 고질병(高質病, 중풍, 당뇨병, 간장염, 신장염, 신경통) 등을 고치는 신기한 약효를 나타내어 많은 화제(話題)를 낳고 있다.

이 나무가 유명하게 알려진 것은 불과 5년전이라고 한다. 김홍덕씨(金弘德氏)가 속양(東洋)의 철학(哲學)인 주역(周易)을 공부하면서 삼라만상(森羅萬象)은 음양(陰陽)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는 리치(理致)를 항시 생각해 오던 중 어느 사람으로부터 부국농원(富國農園)을 사서 경영을 하는 동안 약나무가 있으나 그 학문적 증명을 못하고 동리(洞里) 사람들이 나무잎을 달라

고 하면 그냥 따다 먹게 하기를 3년(年) 동안 하였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그 약나무가 효과가 있어 많은 병들을 고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때부터 임업학자(林業學者)인 이창복교수(李昌福教授)에게 연구(研究)를 의뢰하여 그 이름이 당두중(唐杜仲)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용도도 중국의학사전(中國醫學辭典)에서 알아내어 황금(黃金)의 나무로서 유명(有名)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도 꿈같은 이야기라 실지로 당두중(唐杜仲) 나무가 있는 부국농원(富國農園)을 찾아가 보았더니 자가용차(自家用車)가 수많이 정차해 있고 이 나무잎을 사러 온 사람들이 즐비하게 앉아서 나무잎 따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광경(光景)을 보고 다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나무는 자용이 있어 20년이 되어야 꽃이 피며 암컷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약효는 열매, 뿌리, 잎, 순이라 한다.

우리 속담(俗談)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배로운 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작년 4월 9일 새벽 4시경 어느 괴한이 침입, 수컷 나무의 껍질을 20센치 가량 동그랗게 벗겨 놓아 죽게 하려는데 농대(農大) 이창복교수(李昌福教授)(54)가 4월 28일 오후 2시 이런 국보적인 나무를 죽일 수가 없다고 100여시민(餘市民)이 지켜보는 가운데 콜드크림으로 맞사지를 하면서 응급적으로 수피접합수술(樹皮接合手術)을 성공시켜 지금은 이상없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실(事實)은 각종 일간지에 보도되고 MBC·TV로 방영(放映)된 바도 있다고 한다.

하여튼 백두현씨(白斗鉉氏)나 윤국병교수(尹國炳教授)도 중국(中國)의 유명(有名)한 고대(古代) 한학자(漢學者)인 정초암, 조병장 등이 수록한 중국(中國), 의학대사전(醫學大辭典)에도 당두중(唐杜仲)의 효력(効力)에 대해 기록(記錄)되어 있으나 현대의학(現代醫學)상식으로는 증명 못할 정도로 신기하게 병을 낫게 한다고 경탄하고 있다.

성분은 상피질 22.5%, 수지 7%, 회분 2.5%로 성질은 평온(平溫)무독하고 맛은 맵고 단데 열매나 뿌리는 귀하여 먹을 수가 없고 다만 잎을 삶아서 그 물을 차처럼 마시면 된다고 한다.

부국농원(富國農園)에 들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마침 상주에서 왔다는 황필연 할머니(79세(歲))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연인즉 이 노인은 상주여고 교장을 지내다가 정년 퇴직한 후 중풍이 걸려 몇 년 동안 거동을 못하다 3개월전(個月前) 우연히 당두중(唐杜仲)의 나무잎을 다려 먹고 깨끗이 완치되어 인사차(人事次) 왔다면서 희색이 만면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나무의 종류가 많아서 자칫하면 속기가 쉽다는 것이다. 그 약효(藥效)의 순서로서는 사천성(四川省)의 중경(重慶)산이 당두중(唐杜仲)이고 다음으로 낙양성산, 파하지방산, 귀주산 호북성 외창산, 험서성의 안홍 및 계중산, 끝으로 경서시남, 보결에서도 야생(野生)하나 약효(藥效)가 없는 원두중(元杜仲)이라고 한다. 이 원두중은 비슷하여 구별하기 힘들며 이것은 흔히 있다고 한다.

이 당두중(唐杜仲)의 나무잎 한 근에 만원으로 대단(大端)히 비싸지만 현대의학(現代醫學)으

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비싼 값도 아니다.

김홍덕씨(金弘德氏)는 일은 없고 사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골고루 살 수 있게 한 근 이상을 팔지 않고 있고 제발 선전을 하지 말라고 신신 부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나무에서는 년간(年間) 4만여개(萬餘個)의 열매가 수확되고 수입(收入)이 1억원이 넘으며 이 씨앗을 묘목으로 재배한 1년생(年生)이 2만원으로 팔리고 있어 앞으로 수년이 되면 이 황금(黃金)의 나무 당두중(唐杜仲)은 우리 민족(民族)의 건강(健康) 철리(哲理)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더욱 외국(外國)에 수출한다면 많은 외화를 획득하게 되어 국가경제발전(國家經濟發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명한 마음으로 효심(孝心)의 도시(都市) 수원시내(水原市內)로 돌아왔다.

북한실화

김매기에 요령주의

<1일총화모임>에 나타난 작업반장이 목청을 돋우면서,
『동무들 오늘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소. 우리 작업반은 오늘 김매기 전투에서 230%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내일은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어주시기 바라오』
작업반장은 매우 흡족한 태도였다.
귀로에서 두 사람의 농장원이 주고 받는 대화이다.
『이봐, 자네는 오늘 몇 평을 맺지?』
『500평을 맺지』
『500평? 그렇게 많이?』
『자네는 몇 평을 맺는데?』
『나는 200평 책임량을 간신히 채웠어』
『이 멍청아, 요령껏 하란 말이야, 요령껏...』
『요령껏이라니?』
요령주의를 주장하는 농장원의 얘기는 이러했다.
풀을 일일이 다 뽑으려 들면 200평도 어려우니 밟아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풀을 밟아버리고 물만 흐려놓으면 김을 맺는지, 안 맺는지 누가 아느냐는 것이었다.
그실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논김을 아홉번씩 맨 예도 있다는 것이다.
이 모양이니 농사가 제대로 될 리 없고, 수확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사박오일(四迫五日)

◦ 고적(古蹟) 및 산업시설(産業施設) 견학(見學)을 다녀와서 ◦

김현수(金顯洙)

그(其)1일(日)

설레임 속에 분주한 2월 6일의 아침을 마치 시기나 하는듯 잿빛 구름이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으나 이에 승자다운 미소로 답례하며 426km를 줄달음치기 위해 소형철마(小型鐵馬)에 몸을 실었다.

차창(車窓)을 스쳐가는 전답, 동요(動搖) 없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 시가지(市街地)를 벗어나서 경부 고속도로 진입로를 접어든듯하나 아직도 뛰는 가슴은 여전하다.

그도 그럴 것이 고적 및 산업시설 견학 일정이 발표된 며칠 전부터 서적이나 신문,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고 들어 왔던 정통문화의 유적지이며 조국근대화로 향한 우렁찬 함성의 현장을 나름대로 상상만 해오다 이제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거리를 단축시켜 가고 있으니 말이다.

군(육·해·공)을 달리 한 전우들이 6 개월간 숙소에서 학과장으로, 다시 숙소로 이렇게 틀에 박힌듯한 단조로운 생활을 하다가 장장 1,562km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장도(壯途)에 올랐으니 모습 모습, 표정 표정마다 상기(爽氣)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한동안 우리 안에 갇혀 있던 새가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듯이.....

잠시 후 우리들이 남으로 곧게 뻗은 대동맥선(大動脈線)인 경부선을 지켜 보고 있노라니까 관광 안내양이 자신을 소개하는 매끄러운 음성이 귓전을 맴돈다.

순간약속이나 한듯 터지는 박수갈채?..... 아마도 홍일점의 인기가 바로 이런 때 탄생되는가 보다.

분명 각본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용맹스런 어느 장교가 안내양에게 노래를 청하였고 이에 그 홍일점은 혹 틈이라도 생길세라 능숙하게도 「달리는 차 속에서 오락을 즐기자」는 말에 이어 요즘 가요계에서 유행되고 있는 「제비처럼」이란 대중가요를 제법 기교까지 부리며 오선지(五線紙) 위에 음표를 굴린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언덕 위에 올라 보면
지저귀는 즐거운 노래 소리
꽃피는 봄을 알리네.....

비교적 해맑은 가사에 경쾌한 가락을 타는지라 호감이 가는 노래였지만 더욱 큰 관심사는 오락을 진행하는 당돌한 안내양의 일거일동이다.

남달리 유행에 뒤지는 편도 아니요 현실의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이 아니라고 자부해 왔건만 순간 엄습해 오는 소외감(疎外感)을 감출길 없다.

현실에 만족하려는듯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보려는듯한 노래 소리와 등을 진 시선을 바람을 가르며 스쳐가는 산하(山河)로 돌렸다.

아직도 잔설(殘雪)을 안은채 긴 겨울 잠을 자고 있는 바둑판 모양의 전답이 달려와 멀리 사라지는가 하면 희끗희끗 잿빛 머리의 육중한 산들이 멀리서 움직이고 또 저만큼 무지개 빛으로 단장한 농촌 가옥들이 다정스럽게 손을 잡고 다가오니 이제 소외감에서의 울적한 마음이 풀리는듯 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감히 어느 누가 달리고 있는 이 대동맥선을 구상이나 했겠으며 방방곡곡을 녹색의 풍요지로 만들 것이라고 예측이나 했었겠는가!

한 나라의 부(富)를 측정하려면 농어촌을 돌아보는 것이 그 첩경이라고 한다. 지난 날 경제원조를 위해 한국을 답사한 외국 경제사절단도 농서촌을 빼놓지 않고 돌아보더라고.

그때 어느 외국인 한 사람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임에 틀림 없는데 왜 원조만을 고집하느냐?」고 반문했다는 일화를 잊을 수가 없다.

물론 그 외국인은 농가를 가축사로 착각한 잘못을 시정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주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였다는 아픔의 말들을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 있겠지만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과거였던가.

그러나 우리는 가난을 숙명처럼 여겨 왔던 악몽에서 깨어나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무수한 각고 끝에 경제 대국을 겨냥하여 줄달음치는 경제부국의 기틀을 다져 놓았다.

그러기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북괴 놈들의 추종자였던 조총련에게까지도 모국 성묘단 방문의 길을 열어, 조국 발전의 참모습을 그들이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게 함은 물론 지금 막 차창을 스쳐간 망향의 동산에 올라 조국 흠내음을 음미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까지 제공해주는 여유까지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민족이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강대국을 건설하려 해도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민족의 뜻을 심을 곳이 없을뿐 아니라 그 민족의 생존마저 보존키 어려운 것이다. 한때 몽고족이 광활한 유럽 전역을 말발굽으로 누볐으나 지금은 그 민족도 나라도 찾을 수 없으며, 이스라엘 또한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2000여년간이나 유랑생활을 해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나라를 다시 찾아 사수하고 있음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나 현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민족보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조상들의 값진 피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이 강토를 물려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 숭고한 얼을 이어 받았기에 나라를 보존하고 이에 새로운 강국의 역사를 창조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있었기에 나라가 있고 우리의 국토가 있었기에 오늘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었던 까닭으로 조국의 발전상을 보기에 앞서 우리는 죽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 준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찾기 위해 현충사로 발길을 옮겨 감사함을 전하고 공의 위대함을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은 동서의 역사를 통하여 충효와 문무를 겸비한 절세의 애국자요 전락가요 민중의 벗이었다.

그는 오로지 조국방위를 위해 사리사욕을 버리고 파벌을 초월하여 험벗고 굶주린 민중의 편에 서서 일생을 바쳤으며 살아있는 동안 그는 임금에게는 충신이었으며, 국가에 대해서는 정직하였으며, 청렴한 공무원이었고 어버이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으며, 자녀들에게는 인자하기 이를데 없는 아버지였으며 친지나 동료들에게는 신의를 지키는 선비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라와 겨레를 지켰으며, 그 당시 중국 대륙까지 정복하려던 일본의 야욕을 꺾는 한편 순국 후에도 오늘까지 온 겨레의 추앙을 받고 있다.

만약 그의 선견지명과 준비와 용기와 뛰어난 전략이 없었던들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명나라까지도 야만적인 일본 침략에 유린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두 차례나 억울하게 백의종군하라는 형벌을 받으면서도 한번도 변명하거나 근무에 태만한 일이 없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로는 무기, 탄약은 물론 병선, 군복, 군량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창의와 힘으로 조달하였으니 범인으로서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그는 무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문과 문장과 서예에 있어서도 당대의 어느 학자나 고관도 따르지 못할만큼 통달한 분이었던 것은 국보로 지정된 그의 난중일기와 임진장초(壬辰狀

草)의 간결, 명확 그리고 통쾌한 문장과 수려한 필체를 보아 알 수 있으며, 이를 보는 이마다 감탄해 마지 않는다.

이처럼 충무공의 위대함을 뇌리에 되새기는 동안 어느덧 우리 일행은 정교히 단장된 현충사에 닿았다.

이 현충사는 이조 제19대 숙종 32년인 1706년에 처음으로 충무공이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충남 아산군 백암리에 세워진 이래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기르는 모든 국민의 순례지가 되어온 곳이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는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정책에 의하여 사당이 퇴락하고 국민들의 참배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었다.

이러한 학정에도 1932년 이 충무공 유족보존회와 동아일보사가 중심이 되어 퇴락의 실정을 보도하는 한편 국내외 유지들로부터 현충사 증건에 필요한 자금의 모집운동을 일으켜 1936년에 사당을 재건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매년 4월 28일에 충무공의 탄신제를 거행해 왔으며, 이윽고 1962년에 처음으로 대통령각하를 모시고 탄신제전을 거행하게 되었으며 경내 확장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또한 1966년에는 대통령각하의 특별한 지시로 일생을 충의에 살고 나라를 구하신 높은 덕과 충성을 이어 받아 이를 겨레의 의표로 삼고자 이곳을 성역화하여 오늘의 현충사를 증건하였으며, 1974년까지 종합적인 조경공사(造景工事)를 거행하여 오늘의 경관(景觀)을 갖추고 정부에서는 이곳을 사적(史蹟) 제155호로 지정하는 한편 4월 28일을 이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정하며 공(公)의 탄신제전을 직접 봉행하고 있으며, 현충사 관리소를 두어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군복 매무새를 점검하고 현충사 정문을 들어섰다.

말끔하게 단장된 조경사업이 더욱 우리들의 자세를 바로 하게 하였으며, 충무공의 영정(影幀)을 모신 현충사는 검푸른 송림(松林)을 병풍 삼아 자리잡고 있는지라 그 자태가 더욱 근엄해 보였다.

인술 교관단의 분향에 이어 호국의 수호신이 되신 영령께 뜨거운 묵념을 올린 후 이곳 안내자로부터 이순신장군의 약전(略傳)을 들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은 1545년 4월 28일 서울 인현동에서 탄생하였는데 공의 아버지 이정(李貞)은 훌륭한 유학자(儒學者)였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는 항상 가난한 형편이었다고 한다.

그러하여 공은 7세 되는 해에 가족과 함께 외가가 있는 충남 아산으로 이사하여 1576년 32세 때 무과시험(武科試驗)에 합격할 때까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이 1591년,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로 임

명되기까지의 말은 직책은 주로 함경도 지방의 국경수비대(國境守備隊)를 비롯한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일이었다.

공은 전라 좌수사로 임명된 이후 1년 동안 군사 전략가로서의 선견지명(先見之明)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의 장병들을 훈련시키고 각종 무기와 탄약을 제조하며 특히 거북선을 창조하는 등 국방대책을 세우기에 골몰하였다.

이와 같은 공의 대비책은 후일 우리뿐 아니라 명나라까지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기틀이 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 육군은 준비가 없었고 수적으로 열세했기 때문에 불과 3개월 이내에 서울은 물론 평안도와 함경도의 대부분을 왜적에게 점령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오로지 공의 뛰어난 전략전술과 용기는 옥포(玉浦), 당포(唐浦), 당항포(唐項浦), 한산도(閑山島), 부산(釜山) 등의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 대륙을 정복하려는 야욕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공은 일본의 가장 큰 약점인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는데에 성공함으로써 일본 함선이 해안을 통하여 평양까지 진출한 일본 육군과의 연락을 단절시켜, 궁지에 빠졌으니 공의 가장 큰 공훈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드러진 활약상에도 암영이 있었으니 그것은 1597년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동안에 공은 터무니 없는 모함으로 처형 직전에 백의종군(白衣從軍)하라는 왕명(王命)을 받는 등 극적인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의 재침이 시작되어 공이 다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재임명된 때에는 이미 원군 휘하의 우리 수군이 전멸되어 남은 함선은 겨우 12척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은 12척밖에 안 되는 수군을 이끌고 남해안을 통하여 서해안으로 진출하려는 133척에 달하는 일본 함선을 명량해협(鳴梁海峽)에서 격퇴 하였으나 그의 뛰어난 전술과 용기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비할 데 없을 것이다.

이어 1598년 11월 공은 500척이 넘는 일본 함선을 노량해협(鰲梁海峽)에서 기습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싸움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공은 적탄에 맞아 「지금엔 싸움이 한창이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54세를 일기로 생애를 바치었으니 참으로 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공의 이와 같은 보람된 짧은 생애는 오직 국가와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값진 유산을 후예들에게 안겨준 영원한 교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공의 약전을 머리 속에 되새기며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겨 그가 유년시절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잔뼈를 키워 왔고 어쩌면 아직도 장군의 손때가 남아 있을 집에 이르렀다.

그러나 외인출입을 금하는 빗장이 굳게 물려 있어 그 주위를 맴돌다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인근 활터로 향할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은 못내 사라지질 않는다.

우리는 공이 구국의 수련을 이곳에서 쌓았음을 입증해 주듯 묵묵히 우뚝 솟은 두 거목(은

행나무)을 휘돌아 다시 충무공의 유물과 거북선 모형, 해전벽화, 난중일기 등이 소장되어 있는 유물관(遺物館)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이 유물관에는 국보 제76호인 난중일기와 보물 제326호로 지정되어 있는 당시 이순신장군의 장검과 요대를 비롯 옥로(玉鸞)와 도배(桃盃), 그리고 공의 유년시절에서부터 역사에 빛나는 전공(戰功)의 각 해전의 벽화가 걸음을 멈추게 한다.

얼마 후 우리는 충무공의 위업을 축소해서 담아 놓은 유물관을 나와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군의 뼈가 묻혀 있는 묘소를 찾아 참배할 것에 중론을 모아 계획에 없던 묘소로 향하게 되었다.

공의 묘소는 현충사로부터 서북방 약 9km 떨어진 아산군 음봉면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많은 참배객들도 현충사에만 머무를 뿐, 이곳을 찾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장군의 묘소에서 참배를 끝내 공의 비문을 돌아본 후 발길을 돌리려는데 왼편으로 자리한 조그마한 연못이 시야에 들어와 중앙에 무덤인듯한 곳에 시선을 멈추려는 순간 어느 누군가가 「저것이 바로 장군의 애마(愛馬)의 무덤이다」라고 일러 준다.....

이처럼 근복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야말로 장군의 호국정신을 본받아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좀더 이곳에 머무르면서 굳히고 싶었으나 이제는 나라를 지켜준 그 위업에 보답코자 조국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천도장을 돌아보기 위해 눈길을 남으로 돌려 출발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이 충무공의 묘소를 출발, 경부고속도로에서 대전을 분기점으로 호남고속도로를 질주하여 삼양 타이어 공장에 도착한 때는 4시간 후인 오후 4시 20분경이었다.

우리는 곧 회의실로 안내되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그것을 보람으로 삼는다」는 이곳 회사의 발전과정과 앞으로의 생산활동을 브리핑 받은 후 마치 외화를 찍어내듯 활발한 생산공장에 이르렀다.

불과 10여년 전에는 1일 생산량이 타이어 25개 안팎에 그쳤으나 이제는 타회사(한국타이어 등)와 더불어 국내 공급을 충족시키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막대한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형언키 어려울만큼 도약의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구정을 하루 앞둔 탓으로 많은 산업전사들이 휴가 중이라 완전 가동이 아니라고는 하나 처음 공장을 둘러 보는 사람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채삼 일부 가동이란 말에 반신반의 머리를 저으며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우리도 그 예외는 아닌지라 경탄과 경탄 속에 제조 과정에서 각종 생산품들이 무수히 축적되어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휘돌아 나오니 어느덧 광주 시가지에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 박 대통령 각하 말씀중에서 ◇

- ◎ 오늘날에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봉사가 충이며, 인간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효이며, 이것이 한국 사상의 근본인 인본주의이다. 우리의 교육도 이를 되찾아 여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 건전한 국민정신과 건실한 사회 기강이야말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앞당기는 원동력이다.

일 요 일

이효석 지음

잡지사에서 부탁온지 두 달이 되는 소설원고를 마지막 기일이 한 주일이나 넘은 그날에야 겨우 끝마쳐가지고 준보는 집을 나왔다. 칠십매를 쓰기에 근 열흘이 걸렸다. 그의 집필의 속력으로는 빠른 편도 느린 편도 아니었으나 전날 밤은 자정이 넘도록 책상 앞에 앉았었고 그날은 새벽부터 오정 때까지 꼬박 원고지와 마주 대하고 앉아서야 이루어진 성과였다. 그런 노력의 뒷마침이라 두툼한 원고를 들고 오후는 되어서 집을 나설 때 미상불 만족과 기쁨이 가슴에 넘쳤다. 손수 그것을 가지고 우편국으로 향하게 된 것도 시각을 다투는 편집자의 초려를 생 하는 한편 그런 만족감에서 온 것이었다. 더우기 그 날은 일요일이다. 일요일의 한가한 오후를 거리에서 자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십 일월이 마지막 가는 날이언만 날씨는 푸근해서 외투가 휘답답할 지경이다. 땅은 질고 전차는 만원이다. 시민들은 언제나 일요일의 가치를 잊지들을 않는다. 평일을 바쁘게 지냈던, 놀면서 지냈던, 일요일에는 일요일대로의 휴양의 습관을 가짐이 시민생활의 특권이라는 듯도 하다. 치장들도 하고 어딘지 없이 즐거운 표정들로 각각 마음먹은 방향으로 향한다. 전차 속의 공기가 불결하고 포도 위의 군중이 답답하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의 허물도 아닌 것이다. 준보는 관대한 심정으로 찻속 한 구석에서 원고를 펴들고 있었다. 붓을 떼자마자 가지고 나온 까닭에 추고는커녕 다시 읽어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촉박한 시간의 탓으로 까다로운 그의 성미로서도 어찌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체면불구하고 한 손에 붓을 쥔 채 더듬어 내려 썼다.

연애의 일건을 적은 소설이었다. 두 사람의, 연애에 대해 세상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질없는 번설을 일삼았던가, 그런 상식과 악의에 대한 항의, 사랑의 자유 의지의 옹호— 그것이 이야기의 테에마였다. 어지러운 소문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뜻은 더욱 굳어 가서 드디어 결혼을 결의하게 되었다는 것, 여주인공이 잠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마치 육체

의 일부분을 베어나 내는듯 남주인공의 마음은 피가 솟아날 지경으로 아팠다는 것을 장식 없이 순박하게 기록한 한편이었다.

세상에 사랑을 표현하는 맘은 천 마디 만 마디 되고 준보는 기왕에 사랑의 소설을 많이도 써왔지만, 그 한편같이 진실한 것은 드물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 문학적인 자신이 그날의 만족을 한 겹 더해 준 것도 사실이었다.

국에서 서류 우편으로 원고를 부치고나니 무거운 짐이나 내려놓은 듯 마음은 상쾌하다. 다음 일이 생길 때까지 당분간 편하게 쉬고 조바심을 안 해도 좋다는 기대가 한꺼번에 마음을 풀어준 것이다. 가벼운 마음에 거리는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것으로 보인다. 땅 위에 떨어진 잔치다. 그 어디서인지 햇불이 타오르고 웃음 소리가 터져오르는 것이 들리는 듯도 하다.

혼잡한 네거리의 표정은 화려하고 야단스럽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감정을 치장하고 그 분위기에 맞추어 걸음도 가볍다. 오늘 이 지구의 제전에 먼 하늘에서는 축하의 사절을 보내렘인지 구름 사이로 푸르게 갠 얼굴을 빼꼼이 기웃거리고 있다. 준보도 초대객의 한 사람인양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 속에 휩쓸린다. 사랑의 소설을 쓰고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가장 즐거운 한 사람일지 모른다. 사람들의 그 기쁨의 비밀의 열쇠나 잡은 듯이 자랑스런 표정이었다.

꽃가게에는 온실에서 베어 온 사철의 꽃들—카네이션, 튤립, 난초, 금잔화의 묶음과 동백꽃의 아담이 봄같이 피어 있다. 꽃묶음은 그대로 일요일의 상징이다. 꽃가게는 잔치날 만국기를 단 장식장이다.

영화관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 잔치 마당의 특별관이라고 할까. 그 혼 혼하고 어두운 굴속은 꿈을 배는 보금자리다. 현실과 꿈의 야릇한 국경선을 헤매면서 사람들은 별정계 상기되어 문을 밀치고 드나든다.

이날 유난히도 복작거리는 백화점은 여흥의 추첨장이라고 함이 옳을 듯 싶다. 여자들의 인기를 독점한 듯 치장한 그들이 뿜는 향기가 가게 안에 옥옥히 넘친다. 준보에게는 그들이 모두 아름답고 신선해 보인다. 세상 인류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쪽들은 남은 반쪽들의 한평생의 가장 큰 희망의 대상으로 조물주가 작정해 놓은 모양이다. 희망과 포부와 야심과 광명의 근원을 이 반쪽에게서 찾도록 마련해 놓은 듯하고, 각각 한 사람씩을 잡아서 그 작정된 반쪽들을 서로 찾아내면 그만인 것이나 그릇된 숙명의 희롱으로 말미암아 간간이 비극이 꾸며지곤 한다. 준보가 아내를 잃은지 이미 일년이 된다. 어쩌다 이 비극의 제비를 뽑게 된 그에게는 일시 세상에서 태양이 없어져버린 듯, 온실의 보일러가 꺼져버린 듯

커다란 고독과 적막이 엄습해 왔었다.

그러나 사람은 비극으로 말미암아 자멸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정복하는 수 밖에는 없다. 각각 반쪽을 찾아내는 술래 잡기에서 상대자를 잘못 잡아서 생긴 비극이라면 필연코 예정된 배필은 또 달리 있을 것이 아닐까. 그 예정된 판도라를 마음 속에 그리면서 두 눈을 싸맨 채 한정없는 인생의 술래잡기를 계속하는 수 밖에는 없었다. 아내를 동반했을 때에는 거리의 여자들이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준보연만, 이제 외로운 눈에 그들은 새로운 뜻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었다.

인간생활의 마지막의 성스러운 표지를 한몸에 감춘듯 보이는 화려한 그들 앞에서 자랑스럽고 교만하던 준보도 초라하고 시산한 심정을 어찌는 수 없었다. 다구지계 마음을 버티어 보아야 흡사 꽃밭에 선 거지와도 같아서 한몸의 외로움이 돌려다 보일 뿐이다. 백화점은 꽃밭이었다. 준보는 옥옥한 파도 속에서 몸을 헤어나내면서 전신의 감각과 감성을 한때 찬란하게 장식해보는 것이었다.

이 카니발의 자극에서 벗어나서 준보는 찻집에서 피난처를 발견한다. 조용한 가게 안은 잔칫날의 사교실이다. 웅성웅성하는 말소리와 놀같은 담배 연기에 섞여 야트막한 실내악이 방안의 분위기에다 독특한 한 가지의 성격을 준다. 그 성격 속에 화해 들어가는 동안에 준보는 차차 꽃다발같이 열렸던 관능의 문이 조개같이 움츠러 들어가고 그 대신 정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함을 느낀다. 음악은 정신의 문을 열어주는 신기한 요술장이다. 마음 속에 조그만 우주의 신비를 자유자재로 계시해 보이는 기막힌 요술장이다. 땅 위의 생활에서 판도라의 다음가는 행복은 음악이라고 준보는 생각한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천재는 바로 조물주의 천재의 버금가는 것이다. 음악은 참으로 잔칫날의 반주로는 행복되고 즐거운 것이다.

잔칫상의 초대를 준보는 가장 젊음의 자리로 받아야 한다. 호텔로 전화를 걸어 식사 준비를 분부해놓고 찻집에서 아무나 자리에 마주 앉을 동무 한 사람을 잡아내면 그만이었다.

『자네 무얼 제일 진미로 생각하나?』

『무엇일구, 제일 먹구 싶은 것, 오래간만에— 버터, 그래 버터나 먹었으면 하네. 가짜 말구 진짜 말야. 모두가 가짜의 세상이라니 원』

『진짜 버터를 내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대네』

호텔의 식탁은 희고 정결하다. 꽃묶음이 놓이고 상 옆에 등대하고 쉴는 깨끗한 여급사—이건 또 하나의 덤이요 우수리인 꽃이다. 알맞은 절차와 예의—이건 일요일의 또 하나의 덤이요 우수리인 행복이다.

포도주와 빵과— 이 두 가지의 만찬의 원소 위에 스프와 고기와 과일과 차가 더함은 열 두 제자의 절도 위에 현대의 행복을 더함이다. 준보들은 확실히 옛 사람들의 희생의 행복보다도 현대적인 문화의 혜택 속에 사는 보다 행복된 후손들이다. 오늘 일요일의 행복은 호텔의 식탁에서 그 마지막 봉우리에 다다른 썸이다. 오찬으로는 늦을 정도의 이른 만찬의 식탁에서 그 차려진 반 날의 절차를 준보는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주 거리에 나오지 않은 그에게 사실 그 하루는 특별히 신선한 인상과 즐거운 감동을 주라고 마련된 것과도 같았다.

『빵과 포도주도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할 줄만을 알았지 옛 사람들은 버터로 지방과 비계를 상징할 줄은 몰랐나 부지. 활동의 원료요 원동력인 비계를. 난 버터를 먹을 때같이 행복을 느끼는 때는 없네. 구라파 문명의 진짜 맛이 여기에 있단 말야.』

동무는 그날의 만찬에는 적이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소태를 씹어 머금은 것 같이 일상 쓴 표정을 하고 있는 시니칼한 그 동무로서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세상의 어둠 속 밖에는 보고 살아오지 못한 듯한 그에게까지 일요일의 행복을 나눈 것이 준보의 만족을 두겹으로 더했다.

『행복이라는 건— 아무렴 버터를 먹을 때, 자네 얼굴의 주름살이 퍼지는 걸 보면 사실 행복이라는건 바로 그것인가 하네.』

『사탕을 먹을 때의 어린애의 표정을 주의해 본 일이 있나, 그것이 행복의 표정이라는 것 일세.』

『우유를 입 안에 가뜩 머금을 때— 모차트의 소나타를 들을 때— 하늘의 비늘구름을 우러러볼 때— 아름다운 이의 시선을 받을 때— 청받은 소설원고를 다 썼을 때— 이런 것이 행복이라면 난 어느 날보다도 오늘 그 모든 행복을 한꺼번에 맞본 듯두 하네.』

『개혁가가 단두에 오를 때— 예수가 십자가에 오를 때— 그런 것은 행복이 아닐까?』

『갑소서. 오늘은 땅 위의 행복을 말하는 날이네. 정신주의자들의 가시 덤불의 행복은 내 알 바 아니야.』

『아름다운 것을 잃을 때의 불행— 나두 사실 반생 동안 그 수많은 불행으로 얼굴의 표정까지 이렇게 되고 말았네만, 오늘 자네의 이런 행복의 날에도 내겐 또 한 가지 불행이 기다리구 있다네.』

동무는 식탁의 행복에서 문득 그날의 현실로 돌아가면서 소태를 씹어 머금은 것 같은 일상의 쓴 표정을 회복했다.

『죽음을 당할 때같이 맘 성가신 노릇은 없는데, 왜 사랑과 함께 죽음이 마련됐는지 모를

노릇이야. 난 오늘 죽음을 기다리구 있다네. 좀 이따가 내게로 올 죽음을 맞이해야 되단 말야.』 『기어코 자넌 나까지 불행 속으로 끌고 들어 가고야 말 작정인가? 왜 하필 오늘 이 식탁에서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해야 한단 말인가? 주 죽음이라니 무슨 죽음을 맞이한단 말인가?』

준보는 찻순가락을 접시 위에 내던지면서 적지 아니 불유쾌한 어조였다. 하루의 행복이 동무의 그 한 마디로 금새 사라지는 것과도 같았다. 사랑의 소설을 끝마치고 거리의 행복에 잠겼던 그의 마음에 다시 우울의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혹한 운명의 장난 같이 그것은 모르는 절에 왔다.

『연이라면 자네두 앓직한 미인으로 이름높은 음악가가 있지 않나? 동경서 돌연히 세상을 떠나서 그 죽음이 오늘 이곳에 도착된다네. 나두 그것을 맞으러 나가야 할 사람의 하나란 말야.』

연을 사모해서 동경으로 유학을 떠난 사람은 열손가락에도 남았다. 연은 땅 위의 태양이었다. 가까이 가서는 스스로 몸을 태워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걱정된 운명이었다. 수많은 희생을 요구한 태양은 스스로 자멸할 때가 왔던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꺼지는 법— 꺼지는 것만을 아름다운 것으로 작정해 놓은 주스의 당초부터의 법칙이었던 것이다.

동무도 연을 사모해 오던 사람들 중의 하나였던가. 혹은 자진하고 혹은 실성해지고 혹은 도망가고 한 중에서 동무는 그 태양체를 멀리다 두고 오로지 한 줄기의 고요한 심회를 둔 구어 온 것이었을까? 그는 죽음을 맞이하려 함을 고요히 말하면서 그것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호텔에서 준보와 같이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의 슬픔도 그와 같이 고요한 것이었던가.

『앞으로 몇 시간만 있으면 아름다운 죽음을 실은 검은 수레가 바로 이 앞길을 고요히 지날테구, 나두 그 뒤를 따르는 한 사람이 될 걸세.』

『자넌 결국 자네 할 말을 다한 썸이지. 나의 오늘 하루를 완전히 밟아버리구 부숴놓았던 말이지, 하필 자네를 고른 것이 오늘의 내 불찰이구 불행이었네. 어서 죽음이든지 무엇이든지 맞으러 가게나. 자, 오늘 자네와는 작별이네. 행복의 파과자, 불길한 그림자.』

준보는 동무를 버려둔 채 황하니 호텔을 나섰다. 흡사 뒤를 쫓는 불행의 마수에서 몸을 빼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시늉이었다. 식탁 위의 진미도 꽃도 여급사도 등 뒤께 멀어졌다. 동무가 말한 몇 시간 후에 그 앞길을 지날 검은 수레가 눈앞에 보여오는 것 같아서 몸서리를 치면서 호텔 앞을 켜 걸음으로 떠났다.

가버린 아내의 기억이 새삼스럽게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루의 거리의 현실

은 벌써 먼 옛날같이 멀어져가는 것이었다. 가장 아픈 상처인 아내의 기억을 들치는 것같이 무서운 노릇은 없어서 상에 조심하고 주의해 오던 것이, 그 우연한 시간에 동부의 말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될 때 마음은 도로 저리기 시작했다. 저리기 시작하는 마음에 즐겁던 하루와 인상은 종적없이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만찬의 기쁨도 음악의 신비도 백화점의 관능도 꽃뭉치의 사치도 한꺼번에 줄달음질 치면서 비누거품 같기도 허무하게 꺼져버리는 것이었다.

두달 장간을 병석에 누웠던 아내는 마지막 시기에는 병원 침대에서 호흡조차 곤란해갔다. 산소 탱크를 여러 통씩 침대 밑에 세우고 그 신선한 기체를 호흡시킨 다고 했됐자 단 둘에 한 방울 물만큼의 효과도 없었다. 가슴을 뜯으며 안타까와 하는 동안에 육체의 조직은 각각으로 변해갔다. 운명한 후 육체는 한때 말간 밀같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초조도 괴롭도 불안도 없이 고요한 안식이었다. 내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었다. 영혼은 금새 어디로 도망해 버렸는지 남겨진 육체만이 흰 관 속에서, 어두운 무덤 속에서, 영원한 절대의 어둠 속에서 차차 해체되고 분해될 것을 생각할 때 준보는 무딘 쇠뿔뿔이로 오장육부를 푹푹 찢리는 것 같아서 그 아프고 마비된 감각 속에서는 아무 것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왜 그런 마련인가? 생명과 함께 왜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하는가? 그 허무한 죽음 앞에서 이 현실이란 대체 무엇인가? 현실과 죽음과 어느 편이 참이냐 어느 편이 거짓인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었다. 진정으로 라사로의 기적을 믿어보려고 아내의 차디찬 몸 앞에 우두커니 앉아 보았으나 참혹하게도, 가혹하게도 기적은 종시 일어나지 않았다. 어두운 날들을 둘러싸고 일월성신의 운행만이 전날과 같이 계속될 뿐이었다. 발버둥을 치고 통곡을 해보아야 까딱 동하지 않는 무심하고 냉정한 우주의 운행이었다.

이때부터 준보에게는 우주의 운행에 대한 커다란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으나 너무도 위대한 우주의 의지 앞에 그 불신쯤은 아무 주장도 가지지 못하는 하잘 것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한 줄기의 희의는 여전히 날카롭게 솟아올랐다. 아내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아내와 동부의 애인 연이와 그들 이전에 현실을 버린 수 많은 영혼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그들만이 꾸미고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 현실의 등 뒤에 커다란 제2세계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현실의 세계는 그 제2세계의 단순한 껍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지금 가령 지구의 표피를 한 껍질 살며시 벗겨서 드러내버린다면 그 뒤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광막한 황무지에 여전히 사랑이며 야심이며 만족이며 행복이며 하는 것이 남을 것인가? 잔칫날 같이 변화한 거리의 행복이—꽃뭉치, 백화점의 관능이, 음악의 신비가, 만찬의 기쁨이 남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것

들은 대체 무엇하자는 것인가? 얼마나 허무하고 하잘것 없는 것인가? 지구의 제전은 허공 위에 널찍을 깔고 그 위에서 위태한 춤을 추는 광대의 놀음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인생이란 너무도 속절없고 어처구니 없고 야속한 것이다.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야 할 것이라!

준보는 사실 아내와 함께 자기도 세상을 버렸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사랑없는 생활은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고 고독은 엄청나게 정신을 메말리우는 것이었다. 고독은 사람을 귀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지로 만들었다. 쓸쓸하고 초라한 거지의 신세로 살아가는 무슨 일을 칠 수 있을까 생각되었다. 잠 들 때에나 잠을 깰 때 눈물이 자꾸만 줄줄 흘러서 베개를 적시는 것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자기 혼자 만이 아는 노릇이었다. 목청을 놓아서 울래도 넉넉히 울 수 있는 노릇이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울 때에나 커피 냄새를 맡을 때 문득 아내의 생각이 나면서 목이 막혀 느끼곤 한다. 다시 두 번 결코해도 달도 볼 수 없는 아내의 처지를 생각할 때 지구가 여전히 돌고 세상 일이 여전히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불측하고 교만하고 이상스런 일이었다. 가는 날 오는 날 아내가 부활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막막한 고독만이, 허무한 운행만이 남을 뿐이었다.

이 날은 또 하루 그런 쓰라린 적막심을 품고 준보는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모처럼 즐겁게 시작된 날이 우연한 실마리로 인해 불행한 추억 속으로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일껏 느끼기 시작한 행복감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제 되돌아나가는 거리는 몇 시간 전 들어올 때와는 판이한 인상을 가지고 비치기 시작했다. 아내의 추억과 연이의 죽음 앞에서 거리는 웅당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것이다. 잔치가 끝난 뒷마당 가의 너저분한 어지러운 행길은 허분허분하고 쓸쓸하다. 이 거리의 껍질을 한꺼풀 살며시 벗겨놓는다면 참으로 얼마나 더 쓸쓸한 것인가. 준보는 마음 속으로 그 쓸쓸함을 죽히 느끼는 것이었다.

찾속 사람들은 화장이 지워지고 웃음을 잃었고 포도 위 걸음에는 어딘지 없이 풀이 빠져 보인다. 하늘은 흐려 눈이라도 내릴듯 어둡고 답답하다—일요일의 오전과 오후는 성격이 이렇게도 달라졌다. 사랑의 소설로 시작된 오전은 우울한 불행의 오후로써 끝나는 것이었다.

밤은 조용하고 괴괴하다.

준보는 방에 불을 지피고 아이들을 데리고 책상 앞에 앉았다.

마루방 난로에 불을 피우고 음악을 들을까 하다가 별안간 기온이 내리며 방이 추워질 것 같아서 온돌에 불을 때기로 했다.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붙이고 어린 것들과 동무하고 앉으니 평화로운 마음에 한 줄기
고요한 빛이 솟기 시작했다. 예측하지 않았던 이것은 또 하나 다른 행복이었다.

풍로에 우유를 끓여서 사탕을 넣고 어린 것이 그것을 입 안에 머금은 그 행복스러운 표
정을 살피노라니 준보의 마음에도 점점 그 따뜻한 감정이 옮겨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신통하게도 간 엄마를 찾아서 보채지 않는 것이 준보에게는 큰 도움이었다. 준
보는 도리어 자기가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아이들에게 들길까 겁이 나서 외면하고 살며시
눈을 흘치고 한숨을 죽이는 때가 많았다.

우유들을 마시고 나더니 그림책을 들춰거리고 색종이와 가위를 내서 수공을 시작하고
하는 것이었다.

밝은 등불 아래서 재깍거리는 그 무심한 양을 바라보면서 책상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준보에게는 낮에 거리에서 느낀 것과는 또 다른 행복감이 유연히 솟아올랐다. 어른의 세상
의 행복이 아니라 아이들 세상의 행복이었다. 어린 혼들의 자라가는 기쁨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맑은 행복감이었다. 흠없고 무욕하고 깨끗한 행복감이었다. 어느 결엔지 마음이 따뜻
하게 녹아지면서 차차 그 어린 세상 속에 화해 들어감을 느꼈다.

『옳지, 이것을 쓰자. 아이들의 소설을 쓰자. 어린 것들의 자라는 양을 그리자!』

책상 위에는 원고지와 펜이 놓였다. 때묻지 않은 하이얀 원고지가 등불을 받아 눈같이
희고 눈부시다. 그 깨끗한 처녀지 위에 적을 어린 소설을 생각하면서 준보의 심경도 그 중
이와 같이 맑아갔다.

『일요일의 임무는 또 한 가지 남았던 것이다— 어린 세상을 그리는 것이다. 인류에 희망
을 두고 다른 행복을 약속할 것이다』

아침에 사랑의 소설을 쓴 준보는 이제 또 다른 행복을 인류에게 선사하려고 잉크병 속에
펜을 듬뿍 담갔다. 흰 원고지 위에 까맣게 적힐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등불은 교묘히 빛나
고 있다.

조용한 밤 적막 속에 어린 것들의 재깍거리는 소리만이 동화 속에서나 우러 나오는 듯
영롱하게 울리는 것이었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처	: 공군본부정훈감실
인쇄처	: 공군교재창
편집실 전화	: 69-3511, 호-5241
인쇄	: 1978년 4월 17일
발행	: 1978년 4월 22일



4백만(百萬)km 지상안전(地上安全) 시상식(施賞式) 거행(舉行) <4. 14>
-제(第)3591부대(部隊)-

주영복(周永福)참모총장(參謀總長)은 식목일(植木日)을 맞아
기념식수(紀念植樹)를 했다 <4·5>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공군(空軍)의 결의(決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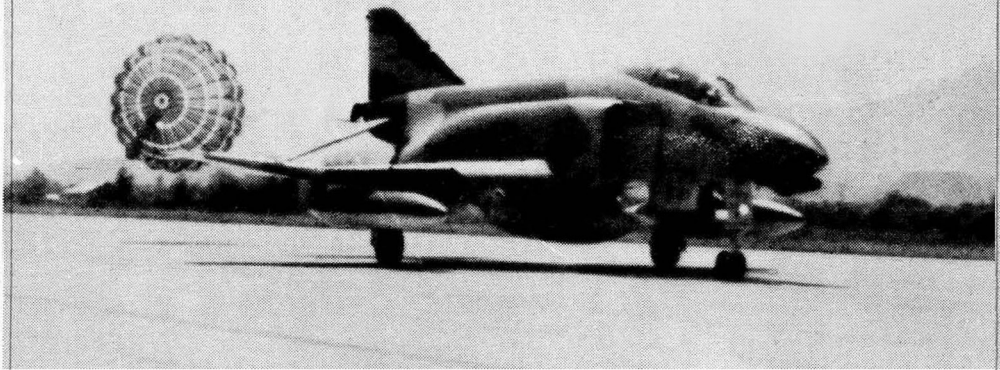
하나 : 나는 목숨바쳐 영공(領空)을 수호(守護)한다.

둘 : 나는 일격(一擊)에 북괴군(北傀軍)을 몰살(沒殺)한다.

셋 : 나는 기필(期必)코 책임(責任)을 완수(完遂)한다.

넷 : 나는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다섯 : 나는 유신과업(維新課業) 수행(遂行)에 선봉이 된다.



필 승 의 공 군 되 자